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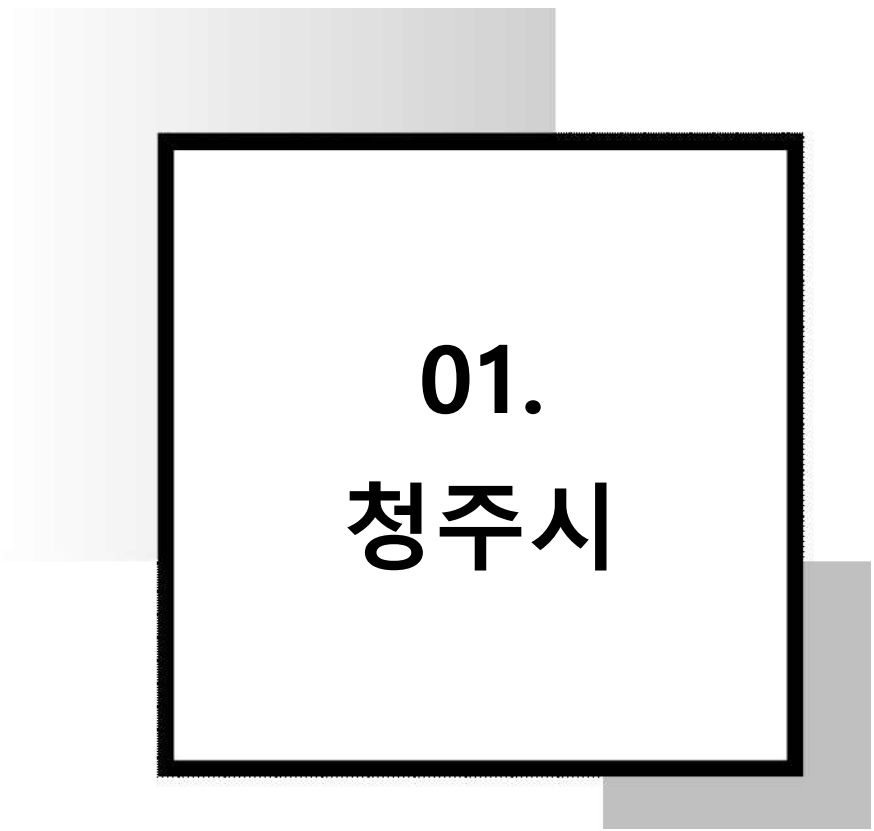
---

01. 청주시 .....	3
02. 충주시 .....	45
03. 제천시 .....	92
04. 보은군 .....	134
05. 옥천군 .....	190
06. 영동군 .....	241
07. 증평군 .....	276
08. 진천군 .....	314
09. 괴산군 .....	342
10. 음성군 .....	405
11. 단양군 .....	454

# 요약본

## 시군특화산업 발굴 결과

시·군	특화산업분야	선정사유
청주시	반도체	반도체 산업 비중 35.6%,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등 2, 3차 벤더기업 육성
	화장품	LG생활건강 테크노폴리스 화장품 라인 증설 등 연관 협력 중소기업 육성
충주시	수소자동차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모듈 전용라인 구축, '22년까지 연 4만대 (현재 3천대) 규모 생산
	바이오	바이오 기업 87개사(8.9%) 충주 입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제천시	자동차부품	자동차 업종 34.5%로 가장 큰 비중,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천연물소재	한방천연물센터 조성 및 운영, 전국 약용작물의 16.4% 수준 생산비중 차지
보은군	원물가공식품	대추, 사과 등 생물자원 가공 창업기업 16개사 이상 증가, 가공식품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
옥천군	기계	기계산업 기업 175개사(30.8%)로 가장 큰 비중, 자동차 부품 등 기계산업은 옥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
	의료기기	충북 의료기기 기업 118개 중 옥천에 21개 기업이 위치하여 17.8%를 차지하고 있어 충북 의료기기 산업 선도
영동군	비금속광물 (일라이트)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가장 많은 일라이트 사업화 및 관련 기업 육성
증평군	기능성 바이오 (의료, 의약, 식품, 화장품)	식품·음료 등 바이오 관련 제조업이 35.6% 차지,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기업 지원 및 육성
진천군	가정식대체식품	CJ, 체리부로를 중심으로 식품·음료 기업 72개사(15.8%) 차지, '20년 송두, 가산 일원 케이푸드밸리 조성
괴산군	가공식품 (발효, 유기농)	식품업체 비중 32%(87개사), 발효식품단지 기업 육성 및 '21년까지 17개사 추가 입주
음성군	이너뷰티 (식품, 화장품)	식품·화학 기업 1,062개사(42.8%) 차지, 고용인원도 동 업종에 12,500여명 종사 및 관련 기업 지속 투자
단양군	석회석-비금속	석회석 사업체수 전국 대비 8.5% 점유,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전국 대비 30%(31개사) 차지



# 01. 청주시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정부, 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시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미반영
- 청주시 지역특화산업 발굴하여 정부, 도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를 통한 특화산업 중점 육성 필요
-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굴

### 나. 추진목적

- 국비사업 발굴 및 원활한 국비확보와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국가 및 도의 정책적 방향과 맞는 특화산업 선정
- 국가 및 광역의 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해당 산업에 경쟁력강화

## 2. 추진경과

- 2019. 2. 28.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군 담당자 회의
- 2019. 3. 26. : 지역특화산업 사업계획서 작성 요청
- 2019. 4. 8.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 전문가 설명회

# II. 시 지역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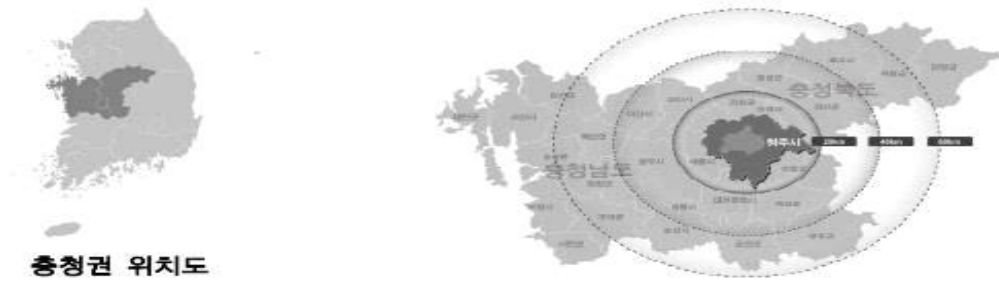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면적 및 인구 특성

구 분(기준)	면 적	인구수	세대수	행정구역
청 주 시	940.31km <sup>2</sup>	852,502명	355,827세대	4구 3읍 10면 30동

자료 : 청주시청, 통계자료, 19년3월말기

## □ 지리적 특성



- 청주시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경계를 이루며, 수도권과 영.호남지역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주요 요충지 역할 수행

## □ 산업적 특성

- 2017년 말 기준 청주시 사업체수는 60,236개, 종사자수는 332,687명으로 전년보다 사업체수는 0.5% (297개), 종사자수는 1.1% (3,749명) 증가
- 산업별 사업체수는「도매 및 소매업」이 25.2%(15,184개)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별 종사자수는「제조업」이 24.5%(81,488명)로 가장 많음

## □ 청주시 일반현황

구분		현황
행정구역		4구 3읍 10면 30동
면적		940.8km <sup>2</sup>
토지이용		전·답 223km <sup>2</sup> (23.7%) / 임야 475km <sup>2</sup> (50.5%) / 대지 52km <sup>2</sup> (5.5%)
인구 및 인구밀도		인구수 852,502명 / 인구밀도 906.14
산업경제	사업체	60,236개 (충북의 48%)
	산업단지	730개 업체가 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현황	3,257 개사
	무역수지	12,333백만 불
	고용률	60.1% (전국 시 평균 58.7%)
	실업률	2.5% (전국 시 평균 3.5%)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및 고용 현황

□ 청주시 산업육성관련 위해 관내 기업 현황과 고용 현황 및 기업 규모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으로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

업종코드	업종명	업체수	종사자수
10	식료품 제조업	342	6,462
11	음료 제조업	27	1,451
12	담배 제조업	-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80	1,525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290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325
16	목재및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98	719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5	3,116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45	522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2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183	5,118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7	3,668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8	6,54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60	3,085
24	1차 금속 제조업	35	361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567	5,01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256	25,795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6	6,152
28	전기장비 제조업	333	8,44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1	5,30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	2,163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253
32	가구 제조업	38	302
33	기타 제품 제조업	50	540
합 계		3,425	87,169

자료 : 2018년 청주시 중소기업 육성 전략 수립 연구 자료

## □ 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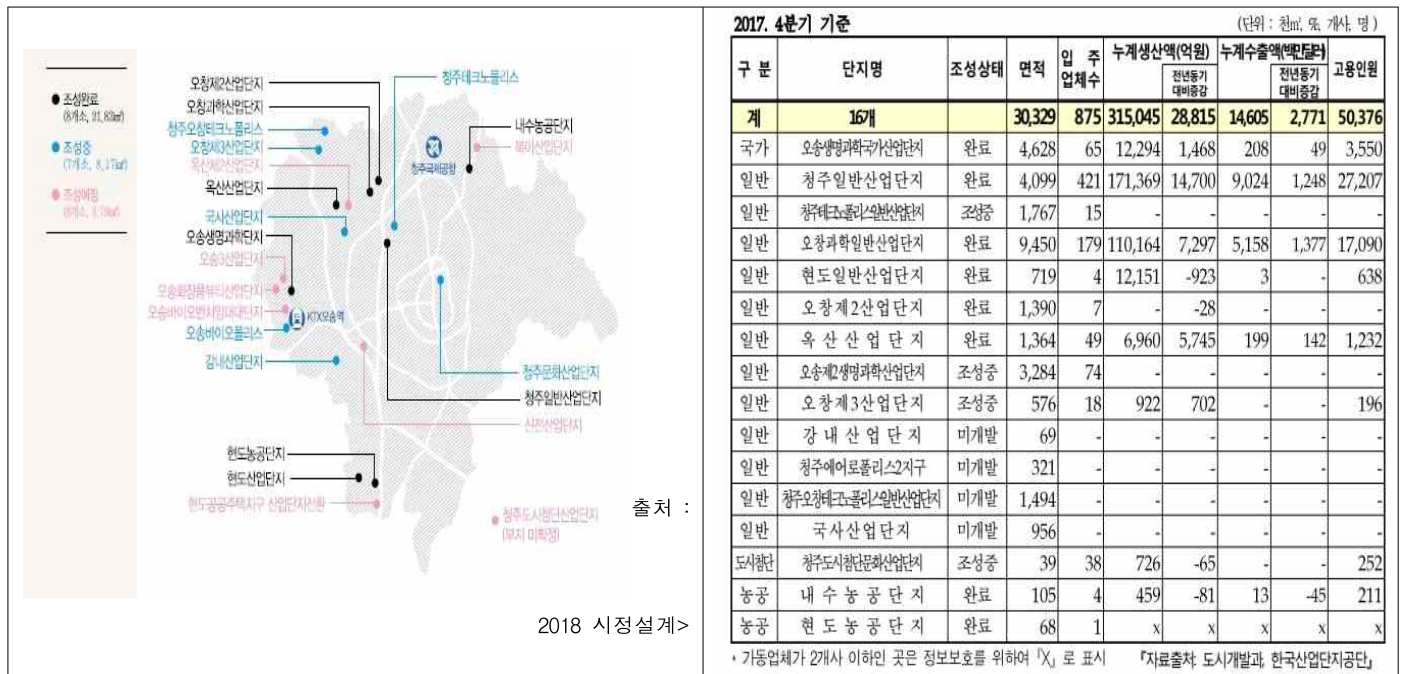
- 청주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전기장비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이 가장 많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청주시 관내 제조업 기업들의 비중을 순위로 나열하면 금속가공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식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관내 기업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전통 제조업이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 성장산업은 적은 수준이나 성장세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 고용현황

- 청주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고용률 분석을 통하여 관내 인력고용 기여도를 파악하고, 분야별 기업당 고용률을 분석하였음. 청주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들의 분야별 고용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자부품 제조업(반도체포함) 분야의 고용률이 전체 고용자수의 2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조업체 고용인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료정밀 광학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식품제조업 순으로 고용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를 종합해 보면 반도체 유관 분야의 고용률이 39.3%로 청주시 전체 고용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청주시의 제조업 고용현황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1업체당 고용인원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산업의 유관 분야인 '전자부품, 전기장치' 관련 업종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청주시 관내 제조업체 고용(채용) 인원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반도체 산업 유관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가장 많았으며, 그 후순위는 의료 및 의료 기기 분야임
- 1개 업체당 고용(채용)인원을 비교한 결과 신 성장산업으로 분류 할 수 있는 반도체, 의료기기 외에도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음료, 신발 및 가죽제품 제조업이 상위에 존재함

## 나. 산업단지 현황

### □ 산업단지 분포현황



※ 전년 동분기 대비 1.5%(13개) 업체 증가, 생산액 10.1%(31조5천45억원) 증가

수출액 23.4%(146억5백만달러) 증가

### □ 청주산업단지

- 청주산업단지는 충북 산업역량의 30%를 차지하는 충북 최대 산업단지로서 그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청주산업단지단지의 주된 영역은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2018년 9월 기준)

업종별		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 제 조업
구분		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 제 조업
정상 가동	계	431	22	16	14	51	7	3	92	134	11	10	71
	자가업체	120	13	11	6	16	5	1	14	32	4	2	16
	지식산업센터	170	3	0	4	16	1	0	38	55	2	3	48
	임대업체	133	5	5	4	19	1	2	39	45	5	5	3
소 계		423	21	16	14	51	7	3	91	132	11	10	67
휴·폐업		1								1			
건설 중		7	1						1	1			4

- 이를 바탕으로 판단 할 때 청주산업단지는 반도체, 석유화학·기계장비 분야가 주를 이루는 산업단지라고 판단 할 수 있음



## □ 오창과학산업단지

-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명공학, 광학·의료기기, 항공기·수송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임
- 청주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전체 입주사 중 57%가 전기전자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분야는 전체 입주사 중 1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청주산업단지와 유사한 기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충북 지역거점 중점산업 육성분야(바이오·반도체·이동통신·차세대전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오창산업과학단지 입주업체 현황(2017년 12월 기준)

업종별 구분	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 제조업
계	170	11	1	-	32	7	-	12	98	3	1	5
가 동	163	11	1	-	29	7	-	11	95	3	1	5
휴·폐업	0	-	-	-	-	-	-	-	-	-	-	-
건 설 중	7	-	-	-	3	-	-	1	3	-	-	-
미 착 공	0	-	-	-	-	-	-	-	-	-	-	-

## □ 오송생명과학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 기업체(산), 대학(학), 연구소(연), 국책기관(관)이 집적된 바이오 생명공학클러스터로 조성되었으며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인허가,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특징은 화장품(주로 기능성 코스메틱) 연구 및 생산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된 특징으로 볼 수 있음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2017년 12월 기준)

분야		업체수		분양면적
		개수	비율	면적(㎡)
계		60	100%	1,320,711
제약	의약품	32	53.30%	918,911
	화장품	4	6.70%	32,795
	소계	36	60.00%	951,706
의료기기		20	33.30%	238,466
식·음료품		4	6.70%	130,539

## 다. 생산현황

□ 청주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실적 (2018. 12월 기준)

○ 업종별 생산실적

구 분 업 종 별	2017. 4/4분기		2018. 4/4분기			증 감 율 (%)		
	금 분 기	누 계	전 분 기	금 분 기	누 계	전 분 기	전년동분기	누 계 비
음 식 료	340,782	1,415,530	368,279	401,955	1,501,515	9.1%	18.0%	6.1%
섬유·의복	49,637	222,309	53,495	34,039	175,540	△36.4%	△31.4%	△21.0%
목재·종이	20,807	75,369	19,108	20,942	79,383	9.6%	0.6%	5.3%
석유화학	868,869	3,482,615	977,738	994,667	3,929,496	1.7%	14.5%	12.8%
비금속	12,636	51,486	8,786	13,712	44,836	56.1%	8.5%	△12.9%
철강	5,101	14,422	8,160	5,927	29,682	△27.4%	16.2%	105.8%
기계	82,754	346,484	90,807	96,930	378,286	6.7%	17.1%	9.2%
전기·전자	2,723,491	11,368,01	2,771,440	2,623,423	10,683,15	△5.3%	△3.7%	△6.0%
운송장비	9,975	40,860	16,184	9,367	54,756	△42.1%	△6.1%	34.0%
기타	34,674	119,789	31,262	13,493	103,433	△56.8%	△61.1%	△13.7%
계	4,148,726	17,136,878	4,345,259	4,214,455	16,980,085	△3.0%	1.6%	△0.9%

○ 업종별 수출실적

구 분 업 종 별	2017년 12월		2018년 12월			증 감 율 (%)		
	금 월	누 계	전 월	금 월	누 계	전 월 비	전년동월비	누 계 비
음 식 료	10,701	134,217	11,592	9,646	114,392	△16.8%	△9.9%	△14.8%
섬 유 · 의 복	2,817	55,282	3,195	3,176	31,640	△0.6%	12.7%	△42.8%
석 유 화 학	47,978	533,697	58,785	51,284	660,099	△12.8%	6.9%	23.7%
비 금 속	1,021	5,728	38	132	11,163	247.4%	△87.1%	94.9%
기 계	12,090	109,187	11,227	14,579	126,993	29.9%	20.6%	16.3%
전 기 · 전 자	655,727	8,149,940	559,921	504,390	7,476,040	△9.9%	△23.1%	△8.3%
목재·운송, 기타	5,124	36,326	5,255	3,455	49,306	△34.3%	△32.6%	35.7%
계	735,458	9,024,377	650,013	586,662	8,469,633	△9.7%	△20.2%	△6.1%

## 라. 연구동향

□ 충북연구원 진행연구 과제 현황 (2019년도)

번 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진
1	충북지역 스마트 팩토리 관련 현황 및 도립 전략	2019.03~2019.12	윤영한
2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충북의 경쟁력 분석	2019.03~2019.10	설영훈
3	충북지역 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 분석	2019.03~2019.11	남윤명
4	스마트시티 사례분석과 충북의 대응방향	2019.03~2019.10	홍성호
5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오송바이오밸리 육성전략	2019.02~2019.10	이경기
6	오창과학단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2019.03~2019.11	안주영
7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성장 지원모델 연구	2019.02~2019.11	조진희

## □ 서원대학교 글로벌피부임상센터 연구분야

연구분야	연구 세부내용
화장품효능평가	피부보습 개선 효과, 피지량조절 효과, 피부유분 개선 효과, 세정 효과, 비듬 방지 효과, 각질 제거 효과, 피부 탄력, 피부 광택도 측정, 메이크업 지속력, 모발 손상도, 피부 밝기 개선, 가려움증 개선, 안면 & 바디 리프팅,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 평가
안전성 평가	안전성평가, 인체피부 1차 자극시험, 인체피부 누적접촉 및 감작성 시험, 피부 민감성 시험, 인체피부 1차 자극시험, 피부 사용성 시험
기능성화장품평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고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의약외품평가	탈모 방지제 및 양모제 효능 시험평가, 제모제 효능 시험, 여드름 개선 시험, 의약외품의 피부 사용감 및 자극 시험, 피부 연화제의 효능 시험, 아토피 개선 시험

## 마. 기업 투자동향

### □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 (재)충북테크노파크는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건립을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을 포함,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청주시 봉명동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3,767㎡ 규모로 2020년 초 준공이 완료될 예정
- 반도체 실장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연구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
- 특히 고성능 저비용을 위한 대구경 웨이퍼레벨 패키지(WLP), 패넬레벨 패키지(PLP), 3D 임베디드 패키지 등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지원하여 반도체산업을 육성

### □ 홈플러스, 충청북도 중소화장품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 유통업계에선 처음 이뤄진 협약으로 홈플러스를 통해 충청북도의 첨단 바이오 인프라 '오송바이오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우수 화장품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됨

-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충북 중소화장품업체들에 판매 채널 확장 및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의 기회를 제공
- 향후에는 홈플러스 점포에 충북 중소화장품업체의 상설 매장을 입점시켜 판매 채널을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
- 청주지역 종합컨설팅 업체 (주)YK 그룹과 서원대학교 업무협약
  - (주)YK 그룹은 서원대학교 화장품학과 창업동아리인 뷰티코스메틱과 화장품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은 물론, BI·CI 제작, 화장품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 학생 기업의 신제품 출시 등 지원에 나섬
  - 뷰티코스메틱 동아리는 차(茶) 잎의 기능성 아로마 오일이 함유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개발 및 출시를 준비 중이며 현재 중소기업청과 (주)HnB9가 후원하고 있음

## 바. 혁신자원 현황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설립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을 한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 정보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
  - 기 능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홍보 등 판로지원
    -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 등의 제공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설립목적 : 첨단 지식산업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의 ICT산업의 집중육성과 R&D기반의 과학기술 육성 거점기관으로의 역할 수행
  - 기 능
    -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육성
    -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감동문화 실현
    -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 혁신 성장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충북테크노파크

- 설립목적 : 산학연관의 협업체계로 충북산업발전과 기업지원·일자리창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
- 기 능
  - 산·학·연·관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사업간 연계조정
  -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설립목적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창업 활성화에 미션을 두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착에 주도적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둠
- 기 능
  - 스타트업활성화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 지역특화산업 전개
  - 청년고용 촉진

□ 청주상공회의소

- 설립목적 :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 능
  - 기업애로 해소 지원
  - 교육·연수 및 인력개발 지원
  - 기업경영 지원
  - 비즈니스 정보화 지원
  - 글로벌 마케팅 지원

## 사. 정책지원현황

### □ 경영안정자금지원

####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이차차액보전 3%
- 용자한도액 : 업체당 최고 5억 원 이내
- 용자기간 : 3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 취급은행 : 9개은행(농협, 기업, 신한, 국민, 씨티, 우리, SC, 하나, 산업은행)
- 용자신청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용자기간 연장가능, 기간 내 용자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자추천 결정은 실효됨
- 자금의 용도 :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기업관련 인증 인센티브

#### ○ 기업관련 인증 인센티브

#### ○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인증 및 경영안정자금 선정에 따른 우대항목 인증서 현황

#### ○ 유망중소기업 인증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환경 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투자 확충 등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이루워 낸 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및 유망 기업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0.5%) 추가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우선 선정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 □ 중소기업수출지원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개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중소수출업체의 무역업무 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한 무역전문인력 양성</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충북대학교 추진방법 : 충북대 GTEP 사업단과 공동 추진 지원내용 : GTEP사업단 무역실무 과정 및 현장실습비 지원
수출무역보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금융지원을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제거, 환율변동 위험 제거 등을 통한 수출자금의 원활한 조달</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15개사 추진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역 본부와 공동추진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창업벤처기업 보증 지원범위 : 업체당 연간 200만원 이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제품 신뢰도 향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13개사 추진방법 :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공동 추진 지원내용 : 유럽, 중국 등 250여종 인증 획득 소요비용 일부지원 지원범위 : 업체당 연간 500만원 이내
해외홍보책자 제작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홍보용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지원으로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활동지원</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50개사 추진방법 : 충북테크노파크와 공동추진 지원내용 : 영·중·한·일 등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계약 체결과정 중 발생하는 통관관련 서류 및 국제특성 운송비 지원, 해외물류비 부담 해소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15개사 추진방법 : 충북테크노파크와 공동추진 지원내용 : 통관·검역관련 서류 및 수출물품 발송비용 지원 지원범위 : EMS 또는 물류회사를 통한 국제운송 통관비의 80% 지원, 업체당 연간 300만원 이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 및 상품홍보 등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출지원</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8개사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공동추진 지원내용 : 바이어 섭외, 장치 부스비, 통역 지원
해외수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바이어 발굴, 신규 거래선 개척을 위해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7개사 추진방법 :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공동추진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물품운송비, 통역 등 지원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사업개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디자인 개발 및 해외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4개사 추진방법 : 청주상공회의소와 공동추진 지원내용 : 브랜드 제고를 위한 포장 디자인 · 캐릭터 개발, 해외 유통채널 발굴 및 입점 지원
사이버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출장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저비용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중소 기업 국외 출장비 부담 경감</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20개사 추진방법 : 충북KOTRA지원단과 공동추진 지원내용 :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통역 및 상담 사후관리 등 지원
중국, 베트남 산업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 분야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출장비용 절감과 안정적 바이어 확보를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li> </ul>	사업기간 : 2019. 연중 지원대상 : 수출중소기업 30개사 추진방법 :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공동추진 지원내용 : 산업재 분야 중국, 베트남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수출상담회 추진
수출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 <a href="http://kr.cbqms.net">http://kr.cbqms.net</a></li> <li>- 중소기업청 : <a href="http://www.smba.go.kr">http://www.smba.go.kr</a></li> <li>- 중소기업진흥공단 : <a href="http://home.sbc.or.kr">http://home.sbc.or.kr</a></li> <li>- 한국무역보험공사 : <a href="https://www.ksure.or.kr">https://www.ksure.or.kr</a></li> <li>- 기업마당 : <a href="http://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a></li> <li>-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네비 : <a href="http://tradenavi.or.kr">http://tradenavi.or.kr</a></li> </ul>	

## □ 중소기업 수출컨설팅

### ○ 전문무역 컨설팅 제공

- 전문무역 컨설턴트 : 청주시 국제협력관
- 신청대상 :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

### ○ 컨설팅 범위

- 무역협회, KOTRA 등 무역유관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안내
- 처음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의 무역 전반적인 컨설팅
- 해외출장,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참가 시 준비사항
- 취급품목(HS코드 제시 필요)의 무역통계
- 해외기업으로부터 받은 인콰이어리에 대한 의문사항
- 청주시청 수출지원 프로그램 문의 및 건의사항
- 외국 VC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 해외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국내현황

##### □ 국내 제조 산업 현황

-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의 비중은 29.3%에 달하고 있음
- 통계청의 산업 분류 표준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대분류는 20개 종목, 중분류는 63개, 소분류는 194개 세분류는 442개 종류, 세세분류는 1,121개 종류에 달하고 있음
- 한편, 국내 산업을 모두 40개로 구분하여 기술 레벨에 따라 4개 군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 고위기술 산업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9개 산업, 중고위 기술군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9개 산업, 중저위산업군에는 석유정제, 철강 등 12개 산업, 저위기술군에는 음식료, 섬유 등 10개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 국내 산업 비중 현황 (2016년 생산금액 기준)

산업분야		비중	산업분야		비중			
고위기술 산업군 (9개)  19.4%	의약	1.0%	중저위기술 산업군 (12개)  34.3%	석유정제	9.3%			
	반도체	5.0%		고무	1.0%			
	디스플레이	4.8%		플라스틱	3.4%			
	컴퓨터	0.2%		유리	0.7%			
	통신기기	4.6%		세라믹	0.2%			
	가전	1.7%		시멘트	1.1%			
	정밀기기	1.2%		기타비금속	0.2%			
	전지	0.5%		철강	6.5%			
	항공	0.3%		비철금속	2.4%			
중고위기술 산업군 (9개)  34.2%	석유화학	7.6%		저위기술 산업군 (10개)  12.1%	주조	0.4%		
	정밀화학	2.4%			조립금속	4.9%		
	기타 전자부품	1.5%			조선	4.3%		
	전기기기	2.7%	음식료		5.4%			
	일반목적기계	3.5%	담배		0.2%			
	특수목적기계	3.3%	섬유		1.8%			
	자동차	12.7%	의류		1.2%			
	철도	0.2%	가죽신발		0.4%			
	기타 수송장비	0.1%	목재		0.4%			
			제지		1.4%			
			인쇄		0.3%			
			가구		0.8%			
			기타 제조업		0.3%			

(출처 : 국가통계포털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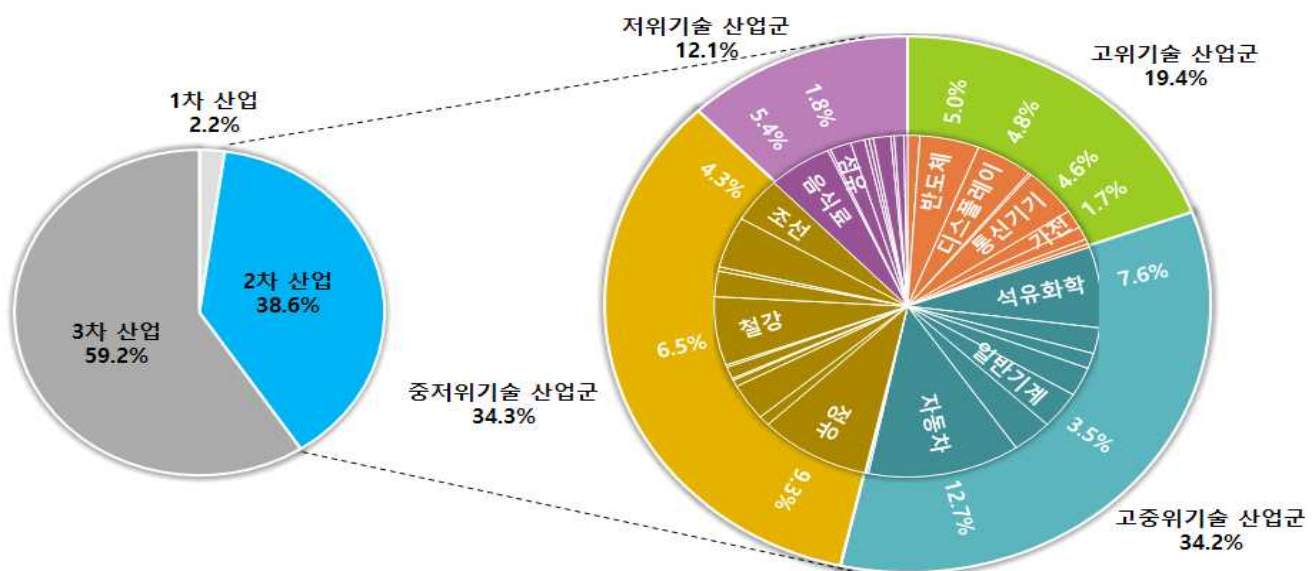
□ 국내 산업 비중 현황 (2016년 투자금액 기준)

산업분야		비중	산업분야		비중
고위기술 산업군	의약	1.4%	중저위기술 산업군	석유정제	3.6%
	반도체	26.7%		고무	1.0%
	컴퓨터	0.0%		플라스틱	1.3%
	통신기기	1.1%		유리	0.5%
	가전	6.4%		세라믹	0.2%
	정밀기기	0.5%		시멘트	0.8%
중 고위기술 산업군	석유화학	7.0%		철강	5.2%
	정밀화학	1.6%		비철금속	1.1%
	기타 전자부품	16.7%		주조	0.5%
	전기기기	1.3%		조립금속	1.4%
	일반목적기계	2.9%		조선	1.4%
	특수목적기계	1.0%	음식료	2.8%	
	자동차	10.9%	담배	0.2%	
	기타 수송장비	0.4%	섬유	0.6%	
		저위기술 산업군	의류	0.2%	
			가죽신발	0.1%	
			목재	0.1%	
			제지	0.6%	
			인쇄	0.0%	
			가구	0.1%	
			기타 제조업	0.1%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에서 12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생산 규모 등에 따라서 주력산업을 선정하였으며, 12개 산업의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12대 주력산업



## 나. 도 산업 현황

### □ 충청북도 산업육성 방향

- 충청북도는 스마트 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 소재 부품을 주력 산업으로 하여 육성하고 있음
- **(스마트 IT부품)**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IT기술을 내재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스마트화(지능화, 연결성, 융합성)의 실현에 필요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장비 등을 포함
- **(바이오헬스)** 생체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증진에 필요한 제품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수송기계소재부품)** 기계공구 및 수송기계 부품모듈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써, 파스너, 금형, 절삭공구, 베어링 등 소성 및 절삭가공이 포함하는 분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코팅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
- 또한 충북은 6대 신성장산업 3대 미래유망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산정하여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추진하고 있음
- **(6대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태양광·신에너지산업, 화장품·뷰티산업, 유기농·식품산업, 신교통·항공산업, ICT융복합산업
- **(3대 미래유망산업)** 기후·환경산업, 관광·스포츠산업, 첨단형뿌리기술산업

## 4. 시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청주시 특화 육성산업 선정)** 청주시 특화 육성산업 선정을 위하여 청주시 관내 제조업 현황 및 산업단지 현황을 분석하여 청주시의 특화 육성산업을 고려
  - 지역 산업 육성정책은 정부 및 도 정책과 연계성이 높을수록 정책지원에 대한 수혜가 용이하므로 정부 및 도 정책과 연계성에 높은 산업 분야를 고려
  - 산업현황과 국가 및 도 정책적 방향으로 고려하여 청주시 특화산업을 반도체와 화장품 분야로 선정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반도체

###### □ 산업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시장 선도 프로젝트인 반도체 2K(Kilo:1000) 추진
- 첨단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을 위해 6년간 민관 공동으로 총 1,508억원 투자
- 지역의 주력 및 협력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 지역의 우수기업이 글로벌 강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구축
- 지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의 융복합 단지로 고도화 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 첨단 기술기반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의 노후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 □ 산업부 13개 산업별 유망 기술 및 대형융합 R&D프로젝트에 부합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27개 업종별 실무 작업반(약 500여명 ) 구성을 통해 산업별 유망 기술 및 대형융합 R&D프로젝트 도출
- 산업간 융복합화 등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13개 대형 R&D 프로젝트가 발굴

###### 대형융합 R&D 프로젝트(안)

NO	후보과제(안)	관련 산업	
1	바이오 데이터 기반 생애전주기 관리 플랫폼	바이오	지식서비스
2	휴먼 인터페이스링 나노 디바이스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IT융합
3	Immersive Virtual-Training 플랫폼	지식서비스	디자인
4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IT융합	섬유의료, 디스플레이, 정보가전, 시스템반도체, 임베디드SW, 디자인, 바이오, 나노융합, LED광,
5	미래 유무인비행체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로봇, IT융합
6	미래자동차용 플라스틱/복합체 소재	화학공정	섬유의료, 그린카, 산업용 기계
7	미래산업용 티타늄(Ti) 소재	금속재료	생산기반, 의료기기, 화학공정
8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자동차	로봇,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LED광, IT융합
9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플랜트	조선, 금속재료
10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산업용 기계	생산기반
11	헬스케어 로봇	로봇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임베디드SW, 정보가전, 의료기기, 디자인, IT융합, 바이오
12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원자력	전력, 플랜트
13	저손실 직류 송배전시스템	전력	에너지저장

##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선정

### ○ 주력산업을 선도자형(First Mover)으로 혁신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시스템 산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 국민 안전·건강 로봇
▪ 자율주행자동차	▪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 첨단 소재 가공 시스템
소재·부품 산업	창의 산업	에너지 산업
▪ 탄소 소재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 생체모사 디바이스	▪ 직류 송배전시스템
	▪ 가상훈련 시스템	

○ 2013년 12월 선정된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임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기대효과

- 10년 이상 장기 추진으로 민간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투자방향 제시
- 융합(제조업+IT, 신기술 등)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신 산업생태계 창출
- 연관 중소·중견기업 및 기반산업(소재·부품, 뿌리산업, 임베디드 SW 등) 발전

## 나. 화장품

### □ 국내

○ 2017년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산·학·연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이 출범

○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 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해외진출 인프라·생태계, 제도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

○ 연구개발 분야에 서는 지난 5년 동안 총 208건의 제품이 신규로 출시돼 정부투자액 (474억 원) 대비 9.9배에 달하는 47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

○ 식약처는 기존 기능성화장품에 염모제, 제모제, 탈염제,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개선,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7종을 포함

- 충청북도는 첨단산업육성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였던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목표로 오송/오창과학산업단지 육성은 물론 북부권의 제천한방클러스터 육성, 남부권의 바이오농업클러스터 육성 등의 BT산업 최대 집적지로서의 역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기획하여 추진 중
- 오송 화장품 전문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 충북 화장품산업 육성 진흥전략 수립 추진
- 화장품 진흥 및 육성조례 제정 완료(2건)
- 화장품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14년 1차, '19년 제2차 계획 수립 중)
- 오송화장품산업엑스포 지속개최('15~'18, 4회)

## 2. 경제/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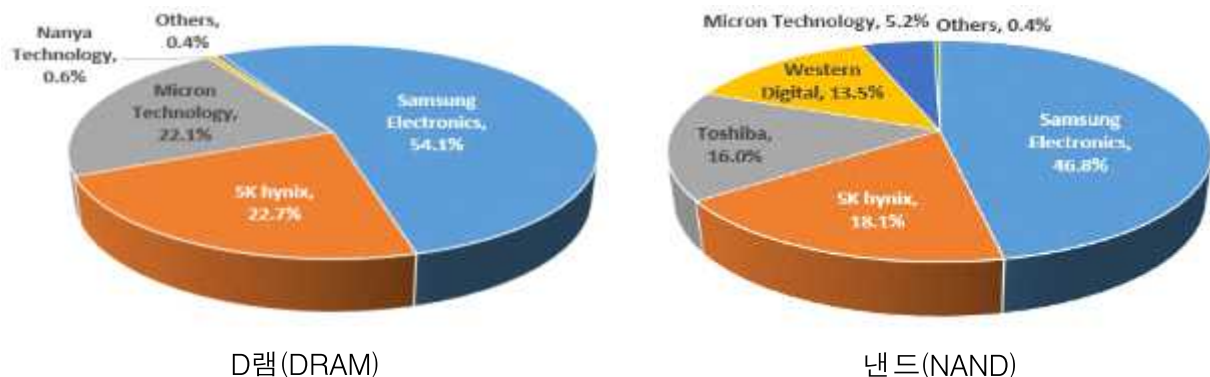
### 가. 반도체

#### □ 국내

- 2019년 메모리반도체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40% 하락하나 수요회복, 공급조절 효과로 가격은 2019년 말, 늦어져도 2020년 1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는 재고조정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나 신규 스마트폰 출시(3월~), 신규 서버용 CPU 출시(2분기) 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하락폭은 축소될 전망
    - 1분기 말 D램 재고: (PC·서버용 D램 고객사) 7주분, (반도체기업) 6주분
  - 하반기는 경제불확실성 해소, 계절적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반등 예상
  - 고용량 콘텐츠 증가,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완화 추진 등으로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의 서버 수요가 증가할 전망
- 2019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최대 수출을 달성한 2018년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7년 대비 소폭 증가한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
  - 1분기 수출은 2017년 2분기 수출액 수준이며, 반도체 수요가 일반적으로 2~3분기에 증가하여 2분기 이후 수출은 1분기보다 개선 전망
  - 수출 물량증가율이 3월에 플러스로 전환된 점도 물량증가와 가격회복의 시그널로 판단
- 반도체 성장을 이끌었던 이동통신 세대 진화
  - 이동통신의 진화로 인한 데이터 수요 증가 → 반도체 시장 확대로 연계

- 세대 진화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의 급증은 전송 속도의 지속적 개선, 그에 따른 소비 콘텐츠의 다양화·대용량화, 단말의 다양화 등에 기인
- 특히 4G 이후의 모바일 트래픽 급증은 클라우드 업체 중심의 데이터 센터 도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연계
-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어가고 있는 5G가 다시 한 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이끌 것으로 기대

휴대전화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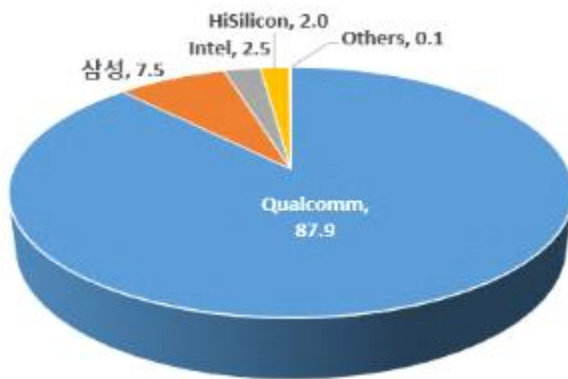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5G 시대에도 국내 기업들의 모바일 메모리 시장 주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삼성은 개발과 양산에서 경쟁 기업에 한 걸음 앞서 있는 상황
- **(D램)** 현재 D램은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10나노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2세대급(1y나노) 양산을 준비 중
- 반면 삼성은 이미 '17.11월 동급 서버용 제품 양산에 이어 '18.7월 모바일 D램에도 적용
- 3세대(1z) 경쟁에서도 SK하이닉스 금년부터 개발에 나서며, 마이크론도 '20년 양산 계획인 반면 삼성은 '19.3월 개발에 이어 하반기엔 양산 계획으로 있는 등 앞서가고 있는 상황
- 10나노급 D램 세대 구분 : 1세대 1x(18나노급), 2세대 1y(10나노 중후반대), 3세대 1z(10나노 초중반대)
- **(낸드)** 삼성은 모바일 낸드 플래시 용량 확대 경쟁에서도 앞서가고 있는데, '19.1월 세계 최초로 1TB(Terabyte)급 제품 양산에 돌입
- 동 제품은 '19.3월 출시한 갤럭시 S10+에 탑재되었으며,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경쟁사 제품들의 고용량화로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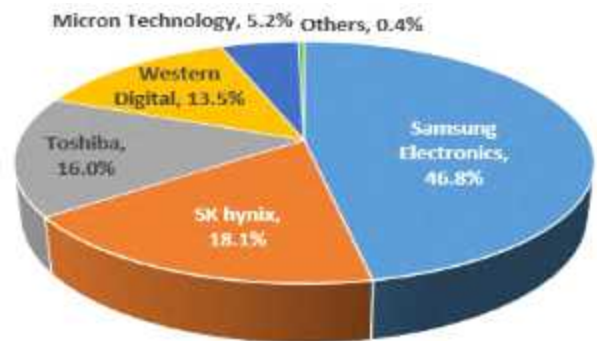


- **(투자)** 투자 측면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예를 들어, 중국이 1차로 조정한 반도체 펀드(2014.9월~2018) 총 금액이 218억 달러 수준인 반면 '18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집행한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는 각각 220억 달러 및 128억 달러(우리금융연구소, '19.2)

#### 5G 통신 반도체 시장 점유율 전망



2019년



2023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3G에서 4G 시대로 바뀌면서 확대된 반도체 시장은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 번 슈퍼 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
- 3G에서 4G 시대로 바뀌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 개선 → 동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 → 모바일 트래픽 급증 → 클라우드 업체 중심의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 → D램 등 메모리 중심의 수요 급증 → 전체 반도체 시장 확대
- 5G 폰용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메모리는 물론 비메모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시간이 지남에 따라 5G 시대가 성숙하고 보급형 5G 폰이 대중화되면 가격 프리미엄이 점차 희석되겠지만, 5G 폰용 반도체의 가격은 4G LTE 폰용 반도체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고, 이는 반도체 시장 확대의 기회 요인이 될 전망
- 또한 현재까지의 전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초기 5G 폰용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기존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던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모뎀 칩셋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해외

- 2019년 메모리반도체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40% 하락하나 수요회복, 공급조절 효과로 가격은 2019년말, 늦어져도 2020년 1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

- 3월부터 신규 스마트폰 출시, 2분기 인텔 서버용 CPU Cascade Lake 출시 등으로 인해 수요가 소폭 증가하나 높은 재고수준으로 인해 가격하락 지속
- 1분기 말 D램 재고 (PC·서버용 D램 고객사) 7주분, (반도체기업) 6주분 (D램익스체인지)
  - 낸드플래시 공급업체 보유 재고 : ('18년 말) 9주분 → ('19.1분기)10주 이상
- 낸드플래시 가격은 원가에 근접, D램 가격은 호황 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가격하락 폭이 축소되고 추가 가격하락을 기대하던 구매자들이 구매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 3월 D램 가격은 2016년 말~2017년 1월, 낸드플래시는 2016년 11월 가격 수준으로 하락
  - 삼성전자가 아마존에 공급한 10나노 D램 불량 발생으로 재고소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하반기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 계절적 성수기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반등 예상
  - 2019년 반도체 수요증가율(%) : D램 20.6%, 낸드플래시 40.5% (IHS, 2019.4)
- 고용량 콘텐츠 증가, 중국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완화 추진 등으로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의 서버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공급조절로 2020년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기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구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주요기관의 D램 가격전망>

	20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분기 대비 증감	△20% 내외	△9~20%	△5~10%	△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주요 기관의 메모리반도체산업 성장률 전망

품목	2019년 성장률	전망기관
D램	△22%	IHS('19.3)
메모리반도체	△24%	IC인사이츠('19.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메모리반도체산업의 경쟁구도, 기업전략 변화 등으로 인해 치킨게임 재발 가능성은 낮음
  - 반도체산업은 과점구조가 형성됐으며 학습효과로 치킨게임 재발 가능성은 낮아 기업들은 공급량 조절을 통해 수익성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D램은 과점체제 형성 후 높은 이익률을 향유하고 있고 기업 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공급과잉이 발생하자 기업들은 투자축소·공급조절을 추진
- 낸드플래시 가격은 Cash cost에 근접했으며 기업들은 수익구조 악화로 치킨게임 보다 가동률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주요 기업의 낸드플래시 원가



도시바의 영업이익률



자료: 원가는 2018년 4분기 기준, 미즈호증권, 아사히신문

○ 중국이 메모리반도체 진출을 추진하나 미국의 견제, 선도기업과 기술·가격 격차로 인해 단기·중기 영향은 미미할 전망

- 푸젠진화는 미국의 견제로 미국 반도체 기술·장비 확보가 어려워졌으며 대만 파운드리 UMC와 협력관계 청산으로 D램 진출이 불투명해짐
- 이노트론은 2019년에 25나노 모바일 D램 양산을 추진하나 낮은 수율로 고전 중
- YMTC는 낸드플래시 사업을 추진 중이나 한국기업과 기술격차는 4~5년이며 후발주자로 낸드플래시 공급과잉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음
- 시장조사기관 IHS는 YMTC의 2019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1% 미만으로 예상

○ 중국기업은 정부 지원 하에 자국 정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나 기술격차, 원가 경쟁력 열위로 점유율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주요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개발 현황

[DRAM]	2014	2015	2016	17,1H	17,2H	18,1H	18,2H	19,1H	19,2H
삼성전자	20nm		18nm				1Ynm		12nm
SK하이닉스			21nm	18nm			1Ynm		
마이크론(미)		20nm	18nm				1Ynm		12nm
푸젠진화(중)						30나노급 양산 준비	사업중단 가능성		
Innotron(중)							투자시작	25nm 소량생산	

[NAND]	2014	2015	2016	17,1H	17,2H	18,1H	18,2H	19,1H	19,2H
삼성전자		48단	64단			96단		128단	
SK하이닉스		36단	48단	72단			96단		
도시바+WD		48단	64단				96단		
YMTC(중)							32단 시계용	64단 양산	

자료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나. 화장품

### □ 국내

○ 2017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23조1천억 원에 달하고 최근 평균 성장률은 12%를 기록

####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 십억 원)

	15	16	17	18F	19F	20F	21F
통계청 데이터(소매 판매액)	22,088	24,605	25,739	30,095	-	-	-
오차	5,191	4,230	2,607	2,418	-	-	-
<b>국내 화장품 시장규모</b>	<b>16,897</b>	<b>20,375</b>	<b>23,133</b>	<b>27,677</b>	<b>30,641</b>	<b>33,747</b>	<b>36,956</b>
YoY(%)	5.0	20.6	13.5	19.6	10.7	10.1	9.5
<b>한국 화장품 산업규모</b>	<b>22,120</b>	<b>28,779</b>	<b>33,480</b>	<b>41,500</b>	<b>48,007</b>	<b>54,977</b>	<b>62,339</b>
YoY(%)	18.2	30.1	16.3	24.0	15.7	14.5	13.4
Premium	7,955	10,103	11,437	14,645	15,998	17,348	18,780
인적 판매	1,610	1,764	1,745	1,693	1,662	1,637	1,615
백화점	2,155	2,198	2,089	2,122	2,060	2,051	2,041
면세점	4,190	6,141	7,602	10,830	12,275	13,660	15,124
내국인	1,403	1,732	2,005	2,271	2,480	2,702	2,936
외국인	2,787	4,409	5,597	8,559	9,795	10,958	12,188
Masstige	8,942	10,272	11,696	13,032	14,643	16,399	18,176
전문점	3,138	3,494	3,154	3,008	2,995	3,059	3,161
브랜드샵	2,622	2,811	2,229	1,892	1,671	1,508	1,390
H&B	516	683	925	1,117	1,323	1,551	1,771
온라인	3,727	5,477	7,601	9,881	12,351	16,821	17,341
순수온라인	2,187	3,063	4,863	6,357	8,232	10,073	11,901
기타	3,616	3,715	3,679	3,667	3,416	3,267	3,114
TV홈쇼핑	882	963	1,046	1,098	1,131	1,165	1,200
슈퍼/마트	1,997	1,992	1,881	1,827	1,554	1,381	1,203
편의점	237	239	241	241	240	240	239
기타	500	521	511	501	491	481	472
<b>화장품 수출</b>	<b>3,236</b>	<b>4,672</b>	<b>5,572</b>	<b>7,204</b>	<b>8,903</b>	<b>10,763</b>	<b>12,755</b>
YoY(%)	54.2	44.4	19.3	29.3	23.6	20.9	18.5
색조 + 기초	2,761	3,887	4,474	5,802	7,178	8,712	10,387
YoY(%)	53.2	40.8	15.1	29.7	23.7	21.4	19.2
퍼스널케어	252	338	314	343	369	390	409
YoY(%)	39.1	34.2	-7.2	9.3	7.4	5.9	4.8
마스크팩	224	447	784	1,059	1,357	1,661	1,960
YoY(%)	93.2	99.8	75.4	35.1	28.1	22.5	18.0
<b>화장품 수입</b>	<b>1,060</b>	<b>1,075</b>	<b>1,130</b>	<b>1,201</b>	<b>1,253</b>	<b>1,303</b>	<b>1,349</b>
YoY(%)	-1.4	1.4	5.2	6.2	4.4	3.9	3.5
수입 비중(%)	6.3	5.3	4.9	4.3	4.1	3.9	3.6
해외 현지 생산/판매	870	1,210	1,465	1,817	2,065	2,309	2,570
아모레퍼시픽 현재 생산판매	629	848	910	996	1,096	1,203	1,316
코스맥스 해외매출	204	295	402	640	755	868	987
한국콜마 해외매출	37	66	152	181	215	238	268

자료 : 통계청, KOTRA

○ 한국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인 제품 경쟁력 확보와 한류 확산 및 K-Beauty 트렌드에 힘입어 17년 세계 수출 6위와 시장규모 9위의 화장품 문화와 수출 대국 부상

○ ClarivateAnalytics은 한국 화장품을 세계시장 혁신선도 9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

- 17년 한국 화장품의 국내 생산이 13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13년에 비해 2배 가까운 놀라운 성장
- 17년 한국 화장품의 해외 수출 또한 49억 6천만 불을 기록하며 4년 전인 13년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
- 화장품 산업은 자동차부품, 가전, 휴대폰 등과 더불어 대표적 수출품목 반열로 진입
- 화장품의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부품 수출의 19.4%, 가전의 51%, 휴대폰의 64.9%에 육박하며 대표적 수출품목으로 부상함
- 화장품 수출은 최근 5년간 정부 중점육성 5대 소비재 품목 중 5위 품목에서 연평균 41%의 증가세로 3위 주력품목으로 도약함
- 2017년 화장품 산업의 제조·판매 업체 수는 11,834개로 산업 내 사업영역확대 및 신규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2012년 2,458개와 비교해 4.5배 이상 크게 증가
-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차세대 핵심성장 및 수출 유망분야인 5대 유망소비재 품목으로 지정, 육성계획 수립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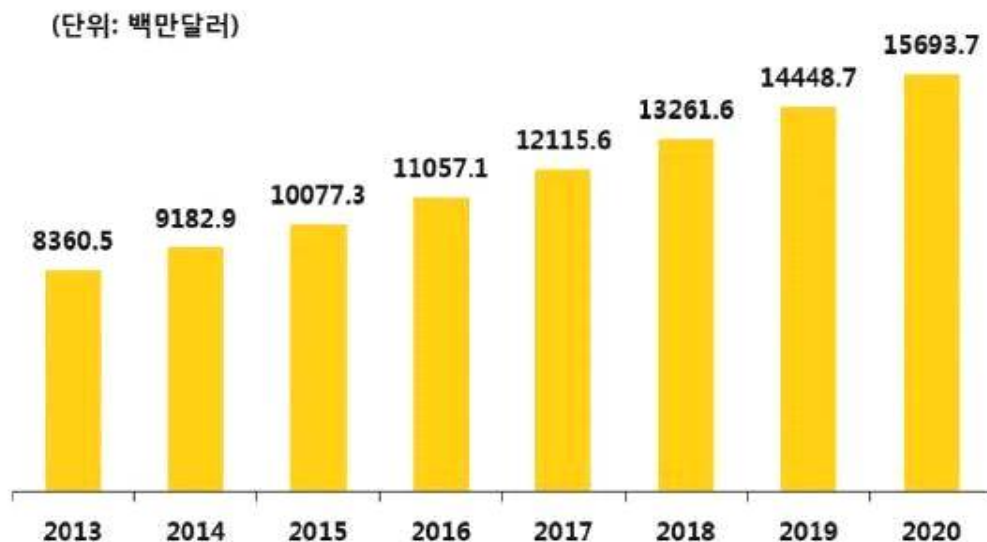
#### 한국 화장품의 단계별 위상 변화

K-Wave 초기	K-Beauty 본격화	글로벌 Beauty 리더 + K-Life
'10-'12년	'13-'16년	'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rama, K-Pop의 동남아/중국 인기</li> <li>○ 전년대비 78% 고성장 8억 달러 수출 기록</li> <li>○ 세계 화장품 수출순위 : 18위</li> <li>○ 국내 화장품 기업 수 : 1,500개 미만 (기술 축적 초기, 가성비 중심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동남아 한류의 본격화, '별그대' 로 폭발적 성장세 시현 →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li> <li>○ '13년 화장품 수출 12억 달러 돌파</li> <li>○ 세계시장 수출 순위 비약적 상승 : 17위→7위</li> <li>○ 국내 화장품 기업 수 : 5,419개 (창의적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의 기업 창업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뛰어난 제품 기술력 및 창의적 패키징 성공열쇠</li> <li>○ 수출 40억 달러 돌파 전략 수출품 부상</li> <li>○ 세계 메이저 수출국 부상 : 6위 ('17)</li> <li>○ '17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 : 11,834개사 (글로벌 자본 M&amp;A, 자본기술 버블화 후 선순환)</li> </ul>

## □ 해외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제품 시장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제품 시장은 2013년 83.6억 달러에서 연평균 9.3%로 성장해 2020년에는 156.9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소비자의 건강 인식 증가와 신제품 출시, 유통 구조의 확대로 유기농 퍼스널케어 제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군별로는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이 2013년 32.3%(26.9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에도 32.6%(51.1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퍼스널케어 제품에 포함된 합성 원료의 유해성분에 대한 인식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
- 또한 유기농 헤어케어 제품은 2013년 25.4%(21.2억 달러)에서 2020년 25.27%(39.7억 달러)로 시장 비중이 0.13%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시장 비중을 차지한 유기농 화장품은 2013년 21.81%(18.2억 달러)에서 2020년 22.32%(35억 달러)로 시장 비중이 0.5% 증가할 것으로 보임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케어 제품 시장현황 및 전망



자료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Organic Personal Care Products Market(2014-2000),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가공

### 3.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가. 반도체

- 최근 부품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융복합 분야는 우리나라 신산업 및 시장 개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분야이며, 반도체는 이들 정부추진 사업의 기술사업화 실현을 위한 핵심분야임
- 반도체는, 센서, 무선통신부품 등의 부품을 결합한 디바이스로 스마트 융복합 부품의 기술사업화 요구사항에 만족하며, 차세대 스마트 융복합 부품산업에 다양하고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사업임

반도체 기술 및 제품 적용범위



자료 : (전북테크노파크 이슈앤테크, 2015)

- 반도체를 적용한 융복합부품의 기술혁신 및 응용제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관련 응용제품 및 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의 창출로 국가 및 기업 간 경쟁 가속화 촉진
- 반도체융합부품의 기술혁신 및 응용제품 시장의 확대 예상
- 반도체 칩, 소재, 기판, 어셈블리 등 업종 간 융복합으로 사업 확대 및 중요성 확대
- 반도체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대책 마련 시급



## 반도체융합부품 응용분야의 시장 변화



- 웨어러블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및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분야를 통해 스마트 융복합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부품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산업 및 시장에 대응 필요
- (메모리반도체) 한국계의 절대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차별화로 인한 높은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선풍 및 층수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기술차별화가 요구됨
- (시스템반도체) 상대적으로 메모리반도체보다 시장점유율이 낮을 뿐이지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음. 모든 시스템 반도체를 다 잘 할 수는 없으므로 잘할 수 있는 응용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



## 나. 화장품

-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충북에는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등 663개 주요기업이 입주, 전국 생산량의 30.6%를 차지

### 충북 화장품산업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

- 국가 화장품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한 충북 바이오밸리 5+2 프로젝트 발전축을 중심으로 2030 화장품산업 발전 전략을 시행하고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에 총 4조 8천 617억 원을 투입
- 화장품산업 생산규모는 사상 최초로 10조 원대(2017년 기준)를 돌파했고 수출은 전년대비 11.2% 증가하는 등 성장세임.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구조임
- 그간 오송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업체수, 생산, 수출에서 전국 3위로 2030년에는 전국 1위, 시장점유율 3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화장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2개 과제에 1천530억 원을 투자하고 화장품 안전관리원 설립, 패키징 디자인센터, 종합지원센터 등을 구축해 화장품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함
- 아울러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과 화장품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개발·연구로 충북이 K-뷰티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브랜드 강화사업, 해외시장 개척 갤러리 운영, 상설홍보 판매장 등을 설치,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함

전략과제명	주관	과제목표	실행과제	비고
연구·개발 및 제조기업 유치	충청북도	기존의 산업단지에 유망한 화장품 연구소 및 제조업체를 유치함(진천, 음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행사 실행	사업장 이전 시 중요 요건(설문 결과)의 1순위 경제적 지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센터의 활성화	우대정책개발 (세제 및 특혜)	
One-Stop Service 체계구축 (글로벌 종합지원센터)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상품화에 필요한 자금, 인력, 브랜딩, 판매활로 개척 등의 지원서비스가 One-stop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직 구축	글로벌종합지원센터 설치	허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화장품,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매5년)	
화장품 검사기관 개설		화장품 검사기관의 개설은 제품 개발 및 생산단계의 시험검사를 적시에 제공하여 제품상용화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화장품 검사기관 운영	글로벌코스메슈티컬 센터 내 설치 검토
			검사 인력 양성	
화장품, 뷰티산업 발전기금 형성		중앙정부 투자 및 투자기관의 투자를 유치하여 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 연구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자금모집 및 융자프로그램 개발	금융투자기업에는 글로벌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
			금융 전문 인력 확보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권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화장품, 뷰티산업 거버넌스 구축		화장품, 뷰티 관련 구성요소들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외부위탁)	조직간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화장품, 뷰티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략위원회(포럼) 신설 및 운영	

- 전략산업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중견기업포함)과 중소기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음
- 화장품 분야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중견기업포함)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화장품, 천연/메디컬 화장품, 뷰티화장품 제품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제시한 생태계가 기술 및 산업동향과 더불어 향노화 화장품 제품 중심으로 확대 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충북 화장품 관련 기업을 R&D투자액, R&D인력기준, 기술/제품개발 실적을 종합 지수화 하여 분석한 결과 기술추격형 및 기술선도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화장품 관련 기업의 특성분석결과 기초기술분야 원천기술은 있으나 마케팅 활성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특화산업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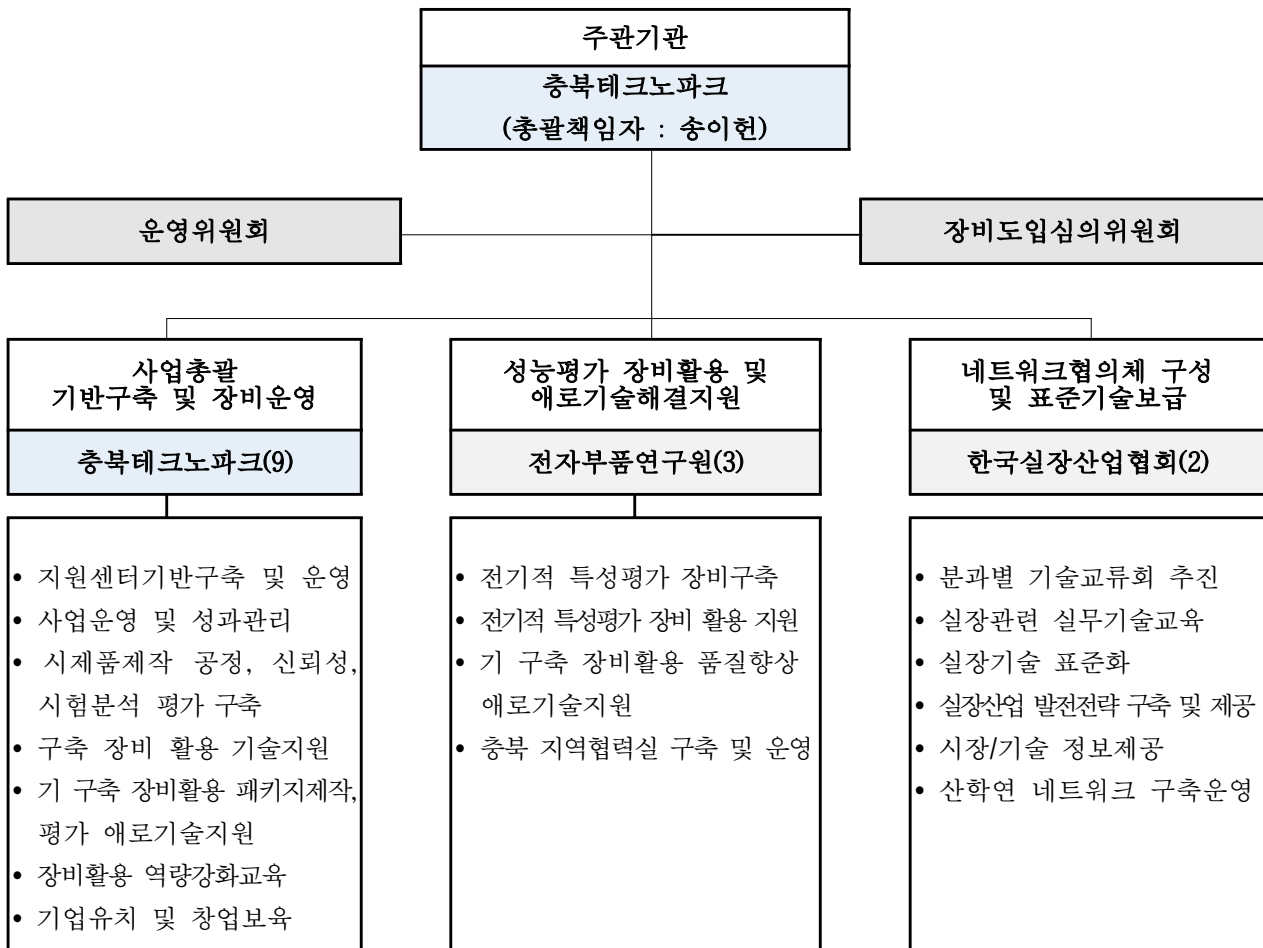
##### □ SWOT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b>지역경쟁력 SWOT분석</b></p>	<p style="text-align: center;"><b>강점(Strength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 메모리 중심의 IDM기업인 SK하이닉스, 파운드리 중심의 동부하이텍 및 시스템IC 중심의 매그나칩 등이 위치해 반도체 개발 및 양산 시설 구축 우수</li> <li>반도체 관련 전공정·후공정 및 장비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중소, 중견 기업 산업 생태계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li> <li>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반도체기업 유치에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노력</li> <li>중소 반도체설계업체의 기술 및 테스트지원을 위한 반도체센터의 기업지원 인프라 우수</li> <li>도내 대학 관련학과로부터 우수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배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약점(Weakness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비산업 및 설계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미흡</li> <li>전문인력 양성과 공급 측면에서 실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있음</li> <li>도내 반도체설계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기술 및 자본력이 취약하고 스타급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업체 부재</li> <li>화합물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연구기관 등 기반시설 및 관련인력 부족</li> <li>대학 중심의 연구기관 부재로 인한 신규 벤처 창업 및 고용창출 위한 기반 미흡</li> <li>대기업에 편중된 우수인력과 내수에 의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회(Opportuniti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삼성, SK하이닉스 등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시장 진입 비중 증가 추세</li> <li>반도체 설계/생산/테스트 등 Non-Stop Service시스템 구축, 지역의 기업 유치 유리</li> <li>후공정 관련 산업 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어 융복합산업의 기반구축과 육성 측면에서 우수한 다양성을 갖춤</li> <li>정부의 반도체산업 재도약 전략 수립을 통해 2025년까지 세계2위 시스템반도체 육성 추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S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반도체 생태계 기반을 활용하여 전력, 차량, 미디어, 통신, 바이오 반도체와 장비 및 후공정 관련 산업 집중지원</li> <li>☞ 후공정 관련 산업 생태계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을 활용하여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재직자 교육과 시제품 제작지원사업</li> <li>☞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위협(Threat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만의 공격적인 파운드리 서비스 지원</li> <li>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격차 감소 및 일본의 산업 경기회복 등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 치열</li> <li>후공정 관련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이 급성장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해외 의존도 증가로 국내 후공정 관련 제조기술, 전문인력 등 혁신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li> <li>국제 표준화 경쟁에 따른 시장주도 제품의 불명확성 증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S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후공정 장비 및 공정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련장비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필요</li> <li>☞ 핵심특화분야의 시제품제작지원, 세금 지원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의 일괄 생산체계의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와 제조기술 혁신역량 강화 시급</li> <l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운영 지역역량 집중 및 국제경쟁력 강화</li> </ul>

## □ 기본방향

- 반도체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지역산업 육성
- 관련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및 수출 유망 스타기업 육성 진흥

## □ 추진체계



## 나. 화장품

### □ SWOT 분석

<p><b>지역경쟁력 SWOT분석</b></p>	<p><b>강점(Strength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북도의 기능적 이점 : 국토의 중심, 6대 국책기관 오송 소재,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li> <li>충청북도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li> <li>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의 지속 개최</li> <li>오송, 진천 등 산업단지 활성화</li> <li>화장품·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 의지</li> <li>수도권 등 우수한 전국적 접근성</li> <li>바이오신약·화장품 규제프리존의 설정 예정</li> </ul>	<p><b>약점(Weakness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장품·뷰티산업체 대부분 영세</li> <li>해외마케팅 미흡,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부재</li> <li>중소기업소재 상용화의 어려움</li> <li>유통판매 채널 부재</li> <li>수도권 대비 전문인력 유치 어려움</li> <li>지역 화장품·뷰티단체 업체 관리능력 역량 부족</li> <li>고급 전문인력 육성체계 미흡</li> <li>뷰티산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연계 부족</li> </ul>
<p><b>기회(Opportuniti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장품 뷰티산업체의 정부지원 확대</li> <li>온라인,소셜커머스와 같은 신종 유통 채널 등장</li> <li>뷰티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따른 화장품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li> <li>원천소재 발굴에 정부의 R&amp;D 투자 증대</li> <li>정부의 국정과제 9번</li> <li>한류문화, 화장품·뷰티상품 부각</li> <li>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li> </ul>	<p><b>S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국책기관 인프라 기반 및 정부 지원 확대를 활용하여 화장품 산업 집중 지원</li> <li>☞ 후공정 관련 산업 생태계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li> </ul>	<p><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뷰티산업체 정부지원 확대 활용하여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해외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강화</li> <li>☞ 화장품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수요를 반영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li> </ul>
<p><b>위협(Threat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침체 및 소비 둔화</li> <li>마케팅 비용의 증가</li> <li>정부의 규제강화</li> <li>중소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유통시장 진입을 위한 투자비용 한계, 육성지원체계 미흡</li> <li>소비자 기호 다양화 및 변화 가속화</li> <li>중국 등 해외국 수입규제 강화</li> <li>국내 및 세계 각국의 화장품·뷰티 시장 경쟁</li> </ul>	<p><b>S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후공정 장비 및 공정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련 장비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필요</li> <li>☞ 핵심특화분야의 시제품제작지원, 세금 지원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li> </ul>	<p><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의 일광 생산체계의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와 제조기술 혁신역량 강화 시급</li> <l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 지역역량 집중 및 국제경쟁력 강화</li> </ul>

### □ 기본방향

-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 국제규격 인증을 기반으로 한 해외지사연계 수출신속화 인증지원
- 화장품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 진출 전략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 □ 추진체계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 □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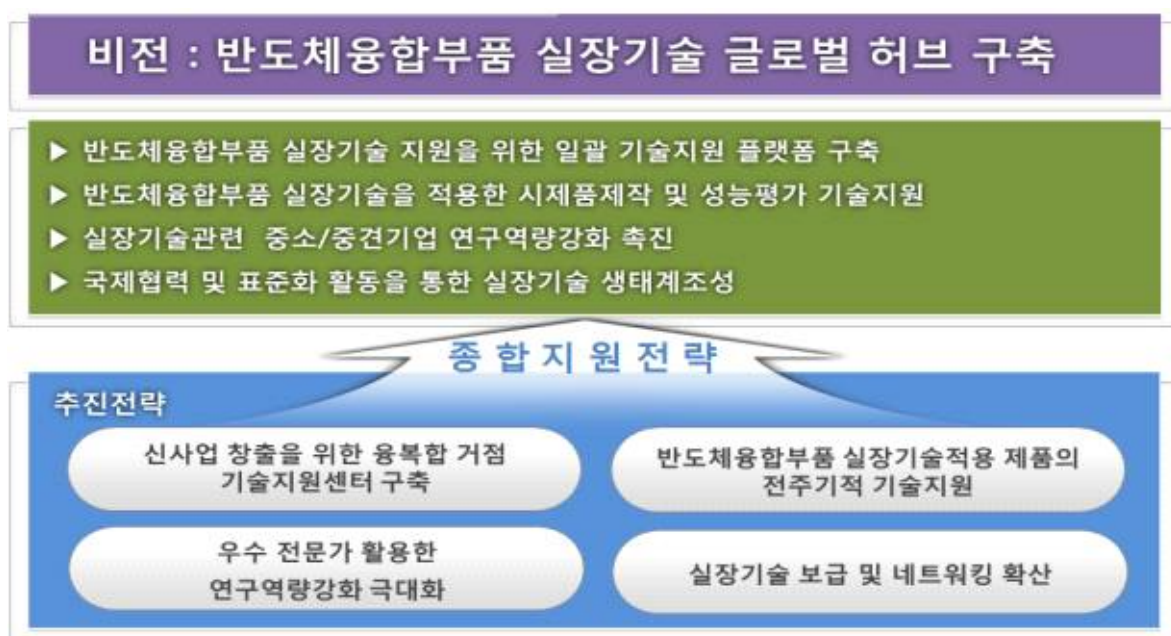
- 반도체산업이란 소자에 대한 소자 설계, 파운드리, 패키지, 테스트까지의 전체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을 말함

반도체산업의 분류 및 주요품목



#### ○ 반도체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관련 비전





## □ 화장품

- 반적으로 인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물품(화장품, 미용용품, 미용기기 등)의 개발·제조와 관련된 산업 및 이들 물품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관련 산업으로 정의함
- 화장품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글로벌 허브 구축	• 센터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역량강화지원
	• 센터기반을 활용한 시제품제작지원 및 중소기업역량강화지원
	• 센터 자립운동을 위한 신규사업(R&D)발굴 추진

#### 가. 반도체

##### □ 추진과제 #1

○ 추진개요 : 센터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역량강화지원

○ 세부내용

- 센터구축, 장비구축, 운영조직 구성
-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교육 및 애로 기술지원
- 반도체융합부품 산업 수요 및 제조기업간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장비활용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방향 설정

##### □ 추진과제 #2

○ 추진개요 : 센터기반을 활용한 시제품제작지원 및 중소기업역량강화지원

○ 세부내용

- 시험 및 신뢰성 테스트 기반 구축
- 장비활용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신뢰성 해결지원
- 글로벌 표준화 및 국내외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
- 장비활용 맞춤형 인력육성 및 전문화 교육
- 장비활용 기술개발지원 및 시제품생산 지원

### □ 추진과제 #3

- 추진개요 : 센터 자립운동을 위한 신규사업(R&D)발굴 추진
- 세부내용
  - 센터자립화 운영
  - 장비활용 애로기술지원
  - 장비활용 중소기업 R&D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 구축 장비를 연계 활용한 추가 정부 및 지자체 기업지원사업 확보 및 추진

## 나. 화장품

추진전략	추진과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개발 및 화장품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 해외지사 연계 수출 신속화 인증지원
	• 수출 전략을 위한 마케팅

### □ 추진과제 #1

- 추진개요 :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 세부내용
  - 사전진단체계 구축
  -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애로기술 지도 및 기술 자문 POOL 활성화

### □ 추진과제 #2

- 추진개요 : 해외지사 연계 수출 신속화 인증지원
- 세부내용
  - 수출 해외인증
  - 국내인증·시험평가
  - 해외지사 연계

□ 추진과제 #3

○ 추진개요 : 수출 진출 전략을 위한 마케팅

○ 세부내용

- 국·내외 전시회 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홍보물 제작지원

## I. 특화산업 육성 기대효과

### 1. 반도체

□ (지역경제 활성화) 매출증대(4,000억 원), 고용창출(800명), 수출증대(1,300억 원)

□ 수요 중견기업(심텍, 네패스, 등 12개사) : 3,000억 원, 600명, 1,000억 원

□ 수요 중소기업(그린광학, 에이디텍 등 88개사) : 1,000억 원, 200명, 300억 원

□ 전기전자 융합부품과 바이오, 스포츠, 헬스케어, 기계부품 산업 등과의 연계 시, 관련 응용제품의 신호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성능 개선과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새로운 사업모델의 창출과 창업 활성화 예상됨

□ 충북지역 내에는 메모리 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소자설계, 공정, 시험, 패키지 관련 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융합제품을 통한 스마트 융복합 산업 관련 기업이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지역 반도체 소자설계 및 패키지, 2차 전지 및 태양광, 전기전자융합 부품산업 등 연계가 가능하여 충북의 스마트 융복합부품 산업 육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충북의 전통적인 전략산업이고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통해 육성해온 반도체, 패키지,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 시장의 정체를 극복한 반도체융합부품 및 실장기술 관련 산업은 청주시 노후산업단지인 청주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사업과 연계 시너지 창출이 예상됨

## 2. 화장품

-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10명 , 매출증대 5억, 수출증대 1.5억
- 제품제작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조기개발로 인해 제품 경쟁력 향상, 수출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및 시험인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기술 경쟁력 획득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 가속화 가능
- 전문 기술지원 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기술컨설팅을 통한 화장품 산업체의 자체 연구개발 능력 향상이 기대
- 지역 내 화장품 산업체와 관련 핵심 인프라 기관 간의 연구협력 및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향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함
- 기업의 현재 수요에 부응한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내 화장품 관련 핵심 인프라의 경험 축적 및 기업지원 역량 강화가 기대됨
- 매출액에 따른 기업의 단계별 기술지원을 통한 지원으로 화장품·뷰티시장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기업가치 창출
- 공정기술개발, 장비활용지원,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화장품·뷰티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기술경쟁력의 향상은 기업체의 매출증대로 이어지므로 향후 사업 확장 및 신규 증설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
- 화장품산업분야의 다양한 신제품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화를 통하여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신규 블루오션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신규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의 수요를 가져옴



## 02. 충주시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지원 시스템의 지역 주도성을 강화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18~22.) 수립

-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정책추진 방향 대전환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개선
- 20개 부처, 17개 시·도가 함께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 【산업분야 3대 핵심과제】

- ① 지역산업혁신 : 국가혁신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등
- ② 혁신도시 시즌2 :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 수립·추진 등
- ③ 지역 유희 자산 활용 : 어촌·산촌자원 특화 개발 등

□ 지역사업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진흥계획 수립 요구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업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유도

- 지역 자율과 책임 하에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담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요구
-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 사업간 연계·시너지 강화, 사업 실효성·적기성 제고

- ① 지역사업 성과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 강화
- ② 지역 자율의 사업포트폴리오 수립 유도
- ③ 지역산업 및 사업간 연계 추진 유도
- ④ 지역사업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지원예산 배분 추진

□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인 정책방향 제시

○ 지역주도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상향식 산업육성 방안 수립

○ 총주의 산업적 특성과 비교우위 산업 및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지역산업육성 방향 마련

- 지역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 우선순위에 입각한 차별화된 성장전략 제시

- ① 대표산업 중심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 ② 지역산업 개편 및 우선투자분야 선정
- ③ 지역주도의 연차별 산업육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 필요

- 지역주도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체감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주력산업, 연고산업을 비롯한 지자체 전략적 지원 산업 등의 예산·활용사업
  - 지역의 차별화 및 세부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계획 수립

## 나. 추진목적

□ 지역주도 산업발전 전반을 조망하는 육성계획 수립

-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에 기반한 전략 및 방향 제시
- 충주시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산업 육성계획 수립
  - 중앙의 지역산업정책과 연차별 실행계획인 충북지역산업진흥계획 간 연속성 및 정합성 유지
  - 지역특화산업, 연고(전통)산업 및 지자체 자체추진사업 등 지역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산업육성 기본방향 제시

□ 충주시의 자율성·책임성 기반의 지역산업진흥 실행전략 및 방향제시

- 특화산업 중심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 고용창출효과가 큰 특화산업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로 선택과 집중의 성과창출 극대화
  -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강화
- 특화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배분 및 효율화 방안 제시
  - 충주시 산업경제 여건과 지역혁신자원 등을 고려, 지역 주도의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기획 및 사업간 연계·시너지 강화, 사업의 실효성·적시성 확보함

## 2. 추진경과

### 가. 특화산업 발굴 추진경과

구 분	구 성	추진경과	주요내용
충북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실무회의	충북도, 충북지식산업진흥원, 11개 시군 관계자	'19. 2. 28.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방안 마련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경제건설분과 10명	'19. 3. 15.	지역특화산업 육성방향 및 산업별 차별화 전략 방안
충주시 정책토론회	충주시장 외 14명	'19. 3. 28.	지역특화산업 육성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마련
전문가컨설팅(1차)	민간전문가	'19. 4. 18.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방안
바이오산업 자문위원회	바이오산업 자문위원 15명	'19. 5. 1.	바이오산업 육성방향 및 지역산업 간 연계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가컨설팅(2차)	민간전문가	'19. 5. 3.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방안

###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관내 바이오 기업체 CEO간담회를 통한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검토
- 자동차부품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기업의 R&D, 비R&D 수요확보



## II.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가. 인구현황

□ 2018년 기준 충주시 인구는 215,859명으로 2010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10년 전인 2008년 대비 인구수는 7,073명(3.4%) 증가

##### 【최근 10년간의 인구추이】

연도별	인구수(명)	전년대비 증감율(%)		
		내국인	외국인	
2008년	208,808	206,372	2,436	0.86
2009년	209,074	206,613	2,461	0.13
2010년	211,295	208,481	2,814	1.06
2011년	211,348	208,433	2,915	0.03
2012년	211,395	208,447	2,948	0.02
2013년	211,383	208,115	3,268	-0.01
2014년	212,200	208,527	3,673	0.39
2015년	211,976	207,913	4,063	-0.11
2016년	213,075	208,350	4,725	0.52
2017년	213,359	208,316	5,043	0.13
2018년	215,859	210,504	5,355	1.17

##### 【연령별 인구】

연령별	2008년	2018년	증감율(%)
14세 이하(유소년인구)	34,527(16.7%)	24,805(11.8%)	-4.9
15~64세(생산가능인구)	143,582(69.6%)	147,561(70.1%)	0.5
65세 이상(고령인구)	28,263(13.7%)	38,181(18.1%)	4.4

## 나. 지리적특성

- 충주시는 충청북도 북부지역에 위치하며, 동북으로 제천시, 서쪽으로 음성군, 남쪽으로 괴산군과 경상북도, 북쪽으로 경기도, 강원도와 경계를 이룸
- 충주시의 행정구역은 1읍, 12면, 12동(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984km<sup>2</sup>임



## 다. 지역특성

-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접근 가능한 교통·물류의 중심도시
  -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충북선철도, 중부내륙선철도(판교-충주 45분), 고속도로 5개 IC(충주, 북충주, 서충주, 동충주, 하이패스)
-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급부상
  -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18. 10.),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18. 9.), 신규 산업단지 98만평 조성
  -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중점 육성
    - 수소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정밀의료바이오산업 육성
  - 연구+생산이 어우러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혁신 생태계 구현 추진

**□ 천혜의 호반, 온천, 산악 등 최고의 관광·휴양 도시**

- 충주호, 수안보·양성온천, 하늘재, 월악산, 골프장, 라이트월드, 라바랜드 등

**□ 문화와 삶의 여유가 있는 도시**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2개소), 문화예술회관(3개소), 과학관(3개소), 박물관(4개소), 충주예술의전당(추진 중), 국립충주박물관(추진 중), 충주시립미술관(추진 중)
- 공공체육시설(종합운동장, 충주체육관, 국제조정경기장 및 기타 12개소), 골프장(8개소) 등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고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7개교, 초등학교 38개교,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131개소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주의료원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 충주시 대표적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HL그린파워, 현대성우메탈, 유한킴벌리, 롯데맥주, 동화약품, 코오롱생명과학, 코스모신소재, 세아특수강 등이 입지
- 충주시 소재 제조업 사업체(10인 이상)수는 2015년 314개, 2016년 338개, 2017년 370개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금속가공업체 제조업'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산업단지 기업체 현황

구분	단지명	산업용지(㎡)	입주업체(개)	종업원수(인)
산업단지 (11개)	충주제1산업단지	847,422	39	2,023
	충주제3산업단지	102,915	7	175
	충주제4산업단지	155,523	2	49
	중원일반산업단지	204,087	30	548
	첨단일반산업단지	988,534	58	1,580
	대신일반산업단지	28,466	1	58
	KGC예본산업단지	59,579	1	85
	만정산업단지	45,503	2	42
	DH산업단지	73,289	1	9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1,235,827	37	903
	충주제5산업단지	202,323	6	126
소계		<b>3,943,468</b>	<b>184</b>	<b>5,598</b>
농공단지 (4개)	주덕농공단지	139,901	16	421
	가금농공단지	199,112	11	422
	가주농공단지	99,947	12	162
	용탄농공단지	160,799	20	392
소계		<b>599,759</b>	<b>59</b>	<b>1,397</b>
기타단지 (2개)	충주기업도시	1,220,443	17	2,377
	일반공업지역 (충주제2산업단지)	804,586	61	2,643
소계		<b>2,025,029</b>	<b>78</b>	<b>5,020</b>
계		<b>10,205,924</b>	<b>321</b>	<b>12,015</b>

## 나. 생산현황

□ 2016년 기준 충주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6조 660억 원으로, 충북(56조 6,609억 원)의 10.7%를 차지 \* 경제성장률은 3.3%임

○ 주요 산업활동별 GRDP를 보면, 제조업 15,169억 원, 건설업 4,715억 원, 도소매업 2,753억 원, 농림어업 2,704억 원, 숙박 및 음식점업 1,580억 원 등임

### □ 제조업 생산추이

○ 제조업 매출액은 2014년 현재 전국은 -0.7%로 감소하고 있으며, 충북은 5.4%로 증가하고 있음

○ 충주시의 경우 7.5%로 제조업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제조업 생산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감률
전국	1,511,495,086	1,495,730,233	1,489,212,760	-0.7
충북	59,598,951	63,296,210	66,236,123	5.4
충주	4,836,959	5,216,337	5,592,057	7.5

### □ 제조업 성장추이

○ 충주시 제조업 성장추이(2012~2014년)는 사업체의 경우 12.1%로 전국 3.6% 및 충북 9.8보다 높음

○ 종사자의 성장추이(2012~2014년)도 12.9%로 전국 2.7%보다 높고, 전국 구성비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의 경우 15.5%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충주지역 제조업이 부가가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제조업 성장추이

단위 : 개소, 인,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감률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전국	63,907	2,753,684	65,389	2,813,575	68,640	2,904,914	3.6	2.7
충북	2,327	130,733	2,590	138,541	2,807	149,636	9.8	7.0
충주	229	10,528	271	12,007	288	13,417	12.1	12.9

## □ 공업 집적도(1인당 부가가치 지수)

- 공업집적도는 경기도가 52.83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은 0.7832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2위로 나타남
- 충주시의 공업집적도는 0.3672으로 충북 0.7832보다 낮게 나타내고 있음

시도별 공업집적도

구분	부가가치기준 공업집적도(AP)	공업생산기준 공업집적도(AS)	$\sqrt{AP \times AS}$	비고
서울특별시	0.1476	3.5548	1.3657	9
부산광역시	0.4327	3.6217	2.3824	6
대구광역시	0.4141	2.1622	1.3914	8
인천광역시	0.7247	4.2824	3.6454	3
광주광역시	0.6975	4.1899	3.4991	4
대전광역시	0.5098	2.1637	1.5449	7
울산광역시	3.8496	13.2647	26.0259	2
세종특별자치시	1.4269	0.0493	0.0589	15
경기도	1.1539	49.1872	52.8360	1
강원도	0.3264	0.0485	0.0277	16
<b>충청북도</b>	<b>1.6945</b>	<b>0.6017</b>	<b>0.7832</b>	<b>12</b>
충청남도	2.8271	1.4518	2.4411	5
전라북도	0.8064	0.3670	0.3296	14
전라남도	1.6157	0.6402	0.8138	11
경상북도	1.9996	0.5514	0.7797	13
경상남도	1.5107	0.9111	1.1198	10
제주특별자치도	0.0910	0.0484	0.0146	17
<b>충주시</b>	<b>0.9217</b>	<b>0.3824</b>	<b>0.3672</b>	-

주1)  $AP = \frac{\text{지역제조업부가가치} / \text{전국제조업부가가치}}{\text{지역인구} / \text{전국인구}}$ ,  $AS = \frac{\text{지역제조업생산액} / \text{전국제조업생산액}}{\text{지역면적} / \text{전국면적}}$

주2) 연도별 자료가 없어, 인구는 2015년, 금액은 2014년, 면적은 2012년을 기준으로 적용  
자료) 2015 충주시 통계연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 업종별 비중

- 충주시 제조업(출하액 기준)의 업종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금속가공제품(11.7%), 식료품(11.0%), 전기장비(10.8%) 등이 충주시 제조업의 핵심산업 임을 나타냄

### 제조업 업종별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인, 백만 원, %

구분	2012		2013		2014		비중
	종사자수	출하액	종사자수	출하액	종사자수	출하액	출하액
총계	10,528	4,819,138	12,007	5,176,150	13,417	5,570,071	100.0
식료품	1,465	602,082	1,555	570,817	1,757	636,731	11.0
섬유(의복제외)	420	131,771	414	135,405	363	105,987	2.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540	431,253	654	481,011	667	487,213	9.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925	439,398	1,045	51,585	1,219	619,281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576	240,921	482	252,387	537	236,725	4.9
고무 및 플라스틱	636	258,878	894	329,547	1,038	295,107	6.4
비금속광물제품	521	172,415	661	246,345	576	172,245	4.8
제1차 금속	4,055	492,231	465	553,776	620	588,812	10.7
금속가공제품	1,335	587,290	1,829	603,933	1,946	620,098	1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804	130,678	876	117,077	939	158,852	2.3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기계	240	40,294	181	34,519	157	27,520	0.7
전기장비	731	575,544	743	560,796	1,030	824,344	10.8
기타기계 및 장비	673	204,526	602	159,440	576	151,333	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0	452,209	1,334	537,199	1,528	539,609	10.4
가구	229	37,771	210	32,738	282	47,000	0.6

## □ 입지상(L/Q) 분석

- 충주시 제조업(종업원 기준)의 입지상(L/Q) 분석을 한 결과,

- 식료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지역기반활동(수출활동)업종으로 지역 특화업종으로 분석】

## 제조업 입지상(L/Q) 분석

구분	전국	충주시	업종합계/ 전국합계(A)	업종합계/ 지역합계(B)	입지계수 (B)/(A)
<b>제 조 업</b>	<b>2,904,914</b>	<b>13,235</b>	<b>1.0000</b>	<b>1.0000</b>	<b>1.0000</b>
<b>식료품 제 조 업</b>	<b>181,377</b>	<b>1,757</b>	<b>0.0624</b>	<b>0.1328</b>	<b>2.1262</b>
음료 제 조 업	13,577	-	0.0047	-	-
담배 제 조 업	2,145	-	0.0007	-	-
섬유제품 제 조 업; 의복제외	91,759	363	0.0316	0.0274	0.868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 조 업	70,721	-	0.0243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 조 업	19,728	-	0.0068	-	-
목재 및 나무제품제 조 업; 가구제외	17,998	-	0.0062	-	-
<b>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 업</b>	<b>57,158</b>	<b>667</b>	<b>0.0197</b>	<b>0.0504</b>	<b>2.5613</b>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8,227	-	0.0097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 조 업	10,595	-	0.0036	-	-
<b>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 조 업; 의약품제외</b>	<b>125,688</b>	<b>1,219</b>	<b>0.0433</b>	<b>0.0921</b>	<b>2.1287</b>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 업	32,209	537	0.0111	0.0406	3.659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 업	216,391	1,038	0.0745	0.0784	1.0529
<b>비금속광물제품 제 조 업</b>	<b>84,491</b>	<b>576</b>	<b>0.0291</b>	<b>0.0435</b>	<b>1.4963</b>
1차 금속 제 조 업	144,122	620	0.0496	0.0468	0.9442
<b>금속가공제품 제 조 업; 기계 및 가구 제 외</b>	<b>268,545</b>	<b>1,946</b>	<b>0.0924</b>	<b>0.1470</b>	<b>1.5905</b>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 업	397,177	939	0.1367	0.0709	0.518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 조 업	76,123	157	0.0262	0.0119	0.4527
<b>전기장비 제 조 업</b>	<b>177,060</b>	<b>1,030</b>	<b>0.0610</b>	<b>0.0778</b>	<b>1.2768</b>
기타 기계 및 장비 제 조 업	319,008	576	0.1098	0.0435	0.3963
<b>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조 업</b>	<b>338,333</b>	<b>1,528</b>	<b>0.1165</b>	<b>0.1155</b>	<b>0.9913</b>
기타운송장비 제 조 업	169,168	-	0.0582	-	-
<b>가구 제 조 업</b>	<b>38,395</b>	<b>282</b>	<b>0.0132</b>	<b>0.0213</b>	<b>1.6121</b>
기타제품 제 조 업	24,919	-	0.0086	-	-

## 다. 고용현황

- **충주시 고용관련 지표는 2012년 말 이후 개선세가 지속, 2018년 말 충주시 고용률은 60.6%, 실업률은 2.2%**
  - 고용률은 10년 전인 2008년 59.0%에서 2018년 60.6%로 1.6%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2.3%에서 2.2%로 0.1% 감소
  -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는 113천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 99.8천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실업자수는 2.4천명에서 2.6천명으로 8.3% 증가



-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8년 60.4%에서 2018년 62.0%로 1.6% 증가
- 연령별로는 2018년 말 기준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가 12.3천명으로 고용률은 31.1%, 30세~49세는 42.9천명(75.9%), 50~64세는 42.2천명(79.6%), 65세 이상 취업자는 15.6천명(41.7%)임

□ 최근 고용지표 개선은 제조업 생산증가에서 기인

□ 충주시 전 사업체(16,790)중 도매 및 소매업(25.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수를 고려하면 제조업(15,896인 종사(25.5%), 1,281개소)이 전체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합계	사업체		종사자	
	개소	비율(%)	인	비율(%)
총계	16,790	100.0	62,347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6	0.2	567	0.9
광업	22	0.1	152	0.2
제조업	1,281	7.6	15,896	25.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	0.1	364	0.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6	0.3	383	0.6
건설업	674	4.0	3,501	5.6
도매 및 소매업	4,345	25.9	10,243	16.4
운수업	1,485	8.8	3,175	5.1
숙박 및 음식점업	3,774	22.5	9,054	14.5
출판, 영상, 방송서비스 및 정보서비스업	66	0.4	579	0.9
금융 및 보험업	168	1.0	2,194	3.5
부동산 및 임대업	494	2.9	1,435	2.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74	1.6	1,346	2.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90	1.1	1,948	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6	0.5	2,888	4.6
교육서비스업	790	4.7	7,496	12.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03	3.0	5,668	9.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08	3.0	2,209	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038	12.1	4,120	6.6

## 라. 혁신자원 현황

□ (대학현황)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총 3개소로 4년제 대학 2개교, 한국폴리텍 대학 1개교가 입지

○ 각 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00개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센터, 교육원 등을 운영 중

구 분	대학명	소재지	부설연구소	기 타
4년제 국립대학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시 대소원면	친환경에너지부품소재센터, ICT융합연구센터, C-STAR사업단, 공학컨설팅센터, K-ICT3D프린팅 충북지역센터, 스마트교통특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 T-SAFE사업단 등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4년제 사립대학	건국대글로벌캠퍼스	충주시 달천동	사회정책연구소, 과학기술융합연구소, 조형연구소, 의과학연구소, 의료생명연구소, 국제비즈니스연구소,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 국제의료연구소, BK21플러스의공학실용기술연구소, 지능형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나노기술연구센터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기능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충주시 목행동		산학협력단

## 마. 정책지원현황

□ 기업지원시책(세제혜택)

구 분	지원근거	세목	감면율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본사이전 (과밀억제권역→대도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세	5년 면제, 2년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면제, 3년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면제, 3년 50%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구 분	지원대상 & 지원조건	입지지원	설비투자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li> <li>수도권 내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li> <li>상시고용 30인 이상</li> <li>기존 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li> </ul>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11%</li> <li>중견기업 8%</li> <li>대기업 6%</li> </ul>
신·증설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이상 사업 영위</li> <li>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신규고용인원 10% 이상)</li> <li>기존 사업장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11%</li> <li>중견기업 8%</li> <li>대기업 6%</li> </ul>
타·시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li> <li>투자금액 10억원 이상</li> <li>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5% 내, 최고 50억</li> </ul>
도내 신·증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에서 3년 이상 공장 가동</li> <li>설비투자금액 10억 이상</li> <li>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해 5%내, 최고 50억</li> </ul>

## □ 충주시 지원시책

구 분	지원내용
설비투자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 및 신설·증설, 제조업으로 창업기업</li> <li>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설비투자액 30억 초과</li> <li>설비투자액의 5% 이내 최대 50억</li> <li>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이행</li> </ul>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신설기업과 동반 이주한 충주시 주민등록 전입 근로자</li> <li>2년간 주소 유지 및 재직</li> <li>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100만원)</li> </ul>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주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초과시</li> <li>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내(최대 2억)</li> <li>2년간 고용 유지</li> </ul>

## □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감면율
충주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이차보전금 지원(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안전자금 : 3억(제조업)</li> <li>여성창업기업기금 : 3억(제조업)</li> </ul>

## □ 기업맞춤형 인력지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투자유치 활동 포상금 : 투자유치금액 30억 초과 시 6백만 원 ~ 최대 2억 원

□ 기업성장지원사업 : 자동차부품기업 대상 비R&D지원사업 시행(연 3억)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산업육성 관련 정부 주요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

###### ○ 지역산업 생태계 활력 회복

-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 유형별 인센티브 패키지 등 마련('19.1Q)
- 4개 지역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 '22년까지 2.6만개 일자리 창출

###### ○ 제조업 혁신 전략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소재·부품·장비(자립화·글로벌화) △반도체·DP·배터리 (초격차) △자동차·조선 △섬유·가전
-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 :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항공 △로봇 △도전적 R&D
-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
- 미래형 신사업 구조로의 신속한 고도화

##### □ 중소벤처기업부

###### ○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 ○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 ○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혁신을 뒷받침

###### ○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가속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 선점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기,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신서비스 발굴로 세계시장 선점, 빅데이터 센터(100개) 및 플랫폼(10개) 구축
- 규제 샌드박스 본격 운영(신청 후 2개월 이내 심사)

- R&D 20조원 투자로 혁신성장 선도와 삶의 질 제고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1.42→1.71조원),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
  - 범부처 혁신 아젠다(30여건) 발굴·추진 ※ (예시) 수소도시·수소차, 미래농업 R&D
  - 바이오, 수소 생산·저장, 양자컴퓨팅,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
- 4차산업혁명 인재 4만 명 양성, 맞춤형 지원 강화

## 나. 정부경제정책 방향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7. 10. / 관계부처합동)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7. 11. / 4차산업혁명위원회)
-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18. 8. / 기획재정부)
  - 전략투자 분야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분야
    - ①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AI, ③ 수소경제 + ④ 혁신인재 양성
  - 8대 선도사업 :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9. 1. /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자동차 3대분야 중점 육성 ('19. 4.)

## 다. 이슈 및 전망

- 산업이슈
  - 바이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
    -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바이오, 물리학 등에 접목돼 경계를 허무는 '융합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하는데, 그 핵심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물리학 등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세계 경제는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경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

○ 글로벌 제약사의 확산되는 개방형 혁신

- 새로운 변화를 맞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신약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초대형 M&A와 거대 제약사 내부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바뀔에 따라 이런 경향을 요약할 수 있는 개념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대두
- 기존 바이오기업에게 혁신을 공급하는 스타트업의 대량 출현과 M&A의 확대

○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일으키는 헬스케어의 변화

- 디지털 기술이 헬스케어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발병 후 치료에 비해 예방 관리 목적의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고, 공급 측면에서 급증하는 의료 비지출이 사회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두됨
- 즉, 디지털 기술은 의료비 절감을 노리는 동시에 의료 패러다임을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으로 변화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망

- 문재인 정부 중반기 최대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으로 이를 위해 3대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 드라이브
- 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3대 분야 집중 육성 추진
- 3대 분야는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큰 것을 물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경제전반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 산업 육성 및 국비확보 경쟁이 치열할 전망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가. 지역여건

-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종사자수가 취업인구의 77.3%를 점유하며 종사자수를 고려하면 제조업(1,281개소:7.6% / 15,896명)이 전체 대비 가장 크게 나타남
- 제조업 매출액 증가 등 제조업 성장도 전국 및 충북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구 분	충주	충북	전국
제조업매출액 증가율	7.5%	5.4%	-0.7%
제조업 성장추이	12.1%	9.8%	3.6%
공업집적도	0.3672	0.7832	52.8360 (경기도)

- 그러나 충주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구 20만 이상 도시의 제조업비율을 비교했을 경우 비교대상 지자체보다 낮음

【인구 20만 이상 도시의 GRDP대비 제조업비율 / 2013년 기준】

도	시	GRDP (백만 원)	제조업 (백만 원)	제조업비율 (%)	산업용지 면적(천㎡)	인구 (명)
1	충주시	4,662,620	1,438,712	30.9	9,383.0	208,115
2	아산시	23,848,295	17,003,794	71.3	12,254.0	287,073
3	군산시	7,938,367	3,386,483	42.7	28,110.0	282,970
4	여주시	19,436,730	10,343,583	53.2	54,681.0	291,366
5	순천시	5,026,009	956,329	19.0	4,730.0	275,668
6	경주시	7,162,415	2,926,604	40.9	22,242.2	263,283
7	경산시	5,929,938	2,100,945	35.4	8,043.0	248,805
8	거제시	11,019,535	7,246,934	65.8	9,480.0	242,077
9	양산시	8,053,794	3,989,232	49.5	13,660.0	279,565
10	청주시	15,346,651	6,882,429	44.8	5,225.0	672,904

- 충주는 GRDP(지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9%로 20만 이상 9개 주요도시 평균 45.4%보다 낮아 지역총생산, 인구유발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에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

## 나. 시사점

- 충주시의 미래비전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
-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 방향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제조업 위주의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요
  -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18. 10.),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18. 9.), 신규산업단지 98만평 조성
  - 현대모비스 연료전지스택 1, 2공장 입지
  -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중점 육성
    - 수소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정밀의료바이오산업 육성
  - 연구+생산이 어우러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소차산업,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구현을 통해 산업육성 필요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수소차 산업

###### □ 국내

###### ○ 보급현황('17)

- 수소차 183대, 수소충전소 12곳

###### ○ 보급목표

- 2030년 : 수소차 63만대, 수소충전소 520개소 보급

###### ○ 지원내용

- 구매 보조금 : 2,750만원(정액)
  - '17년까지는 법인, 지자체에게만 지원, '18년부터 일반인에게도 지원(금액은 감소 전망)
- 수소 충전소 : 충전소 설치비의 50% 지원(최대 15억)
  - 1개소 당 설치비용 30억 원 : 정부 15억 원(50%) + 지자체 15억 원(50%)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신규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차량의 70%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 친환경차의 80% 이상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
  - 공공기관의 신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 ('16) 25% → ('17) 40% → ('18) 70% → ('22) 100%
- 근거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세금감경 등) 수소차 구매 시 세금감경\*(최대 72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등 인센티브 제공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최대 52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경

###### ○ 세부 추진방향

- (차량보급 활성화)차량별 특성 인프라 현황을 고려하여 전기차는 중·단거리승용, 수소차는충전 인프라 구축된 지역에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
  - (전기 수소차) '22년까지 보조금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핵심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
  - (수소버스 수요창출) 수소버스 양산체계 구축('20년 이후 예상) 이전 先 시범사업\*, 後 본격 보급사업\*\* 추진
  - (적정 요금 관리) 초기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충전 요금 할인 및 수소충전 가격 기준 관리

- (충전 인프라 확충)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단위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
  - '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민 관), 수소차 충전소 310개소 구축
- (수소차 충전소)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 설치\*(휴게소 160, 도심 거점 150)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전담 민간 SPC 설립
  - (승용차용) 부생수소, LPG 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 (버스용) 기존 버스차고지에 CNG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
- (수소 유통체계) 수소(부생수소, CNG LPG 개질수소 등)를 대량 일괄 구매 및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신설, 수소가격 안정화 추진

## □ 국외

### ○ 각국별 지원 시책

-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미국, 유럽 등이 있으며, 각국은 수소의 생산, 저장/유통, 이용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우선 순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국가	구매혜택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당 \$8,000의 구매 보조금 지급</li> <li>• 추가 \$5,000 리베이트(저소득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한해 수소차 구매 또는 리스 시 \$5,000 제공</li> </ul> </li> <li>• 세제감면 : \$7,500(EV와 동일)</li> <li>• 기타 자동차 제작사의 연료비 지원, 다인승 전용차선(HOV)이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전망('17년 3,53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50만대, '30년 100만대</li> </ul> </li> <li>•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현재 7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최소 100개소 목표</li> </ul> </li> <li>• 수소충전소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때 까지 운영비 연간 최대 \$100,000(운영비 60~100%)를 3년간 지원</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보조금</li> <li>• 지자체 보조금</li> <li>• 수소차 구입 시 취득세, 종량세 면제 (약 20만 엔), 보유세 5년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전망(현재 3,00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20만대, '30년 80만대</li> </ul> </li> <li>•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현재 9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640개소, '30년 900개소</li> <li>- 보조금 : 개소 당 2.8억 엔</li> </ul> </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 최대 20만 위안('16년~'20년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전망(현재 6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5만대, '30년 100만대</li> </ul> </li> <li>•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현재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300개소, '30년 1,000개소</li> </ul> </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당 최고 €1.1만의 보조금 지급</li> <li>• 환경보너스 : €4,000 지급('16년 7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65만대, '30년 180만대</li> </ul> </li> <li>•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현재 5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100곳, '23년 400곳, '30년 1,000곳</li> <li>- 보조금 : 최대 €4억까지 지원(충전소 설치비 50%, 운영비의 50% 이상)</li> </ul> </li> <li>• 수소연료전지·수소기술에 총 €14억 투자 진행('06~'16년)</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4월 무공해차량의 모든 차량의 보유세 부과</li> <li>• 런던시 진입 혼잡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28만대,'30년 160만대</li> <li>- 차량 개발, 보급 등에 4억 파운드(약 7천억) 투자</li> </ul> </li> <li>•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현재 6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300곳,'30년 1,000곳</li> </ul> </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당 €1.2만 보조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전망(현재 6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17만대,'30년 80만대</li> <li>- 수소택시차 보급추진(파리 시)</li> <li>- ('17년) 17대 → ('20년) 600대</li> </ul> </li> <li>•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현재 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600곳</li> </ul> </li> </ul>
EU	<p>&lt;벨기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뤼셀, 수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차 구매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li> </ul> </li> </ul> <p>&lt;오스트리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EV, EV에 부가가치세 공제('16년 1월~)</li> </ul> <p>&lt;덴마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CEV 등록세 면제('18년 말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수소생산지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0개 → ('20년) 50개로 확대</li> </ul> </li> <li>• 수소 지하저장소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개 → ('20년) 5개로 확대(저장 능력 : 250톤/일)</li> </ul> </li> <li>• 수소생산저장 인프라에 약 3조원 투자</li> <li>• 수소 충전소 확대(유럽 10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00개 → ('20년) 1,000개</li> </ul> </li> </ul>

## 나. 바이오 산업

### □ 국내

#### ○ 충주 바이오산업(정밀의료) 육성 추진 정책

비 전	<b>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중부권 신산업도시 “충주” 건설</b> (국가혁신클러스터+바이오헬스 → 서충주 신도시 확장)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일자리 창출 5,000개</li> <li>• 융합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 100개 유치</li> <li>• 인재 발굴 및 육성에 최적화된 도시 실현</li> </ul>		
전 략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실현	바이오 글로벌 시장 개척
중 점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산단 조성</li> <li>• 바이오산업 지원센터 조성</li> <li>• 융합 R&amp;D 인프라 조성</li> <li>• 바이오산업 자문위원회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유치 플랫폼 구축</li> <li>• 창업 프로그램 종합지원</li> <li>• 바이오 비즈니스 모델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력체계 구축</li> <li>•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li> <li>• 국제바이오 박람회 개최</li> </ul>
추 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2018~2026) :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 산단조성, R&amp;D인프라, 지원센터, 바이오자문위원회 등</li> <li>▶ 2단계(2023~2026) : 바이오경제 실현(소프트웨어 구축) ☞ 플랫폼 구축, 창업 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li> <li>▶ 3단계(2025~2030) : 바이오글로벌 시장 개척 ☞ 국제협력체계 구축,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박람회 등</li> </ul>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학기술 기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야 R&D 최상위 법정계획
  -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 제3항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관계 부처로 이루어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과학기술 기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 제2차 기본계획('7~'16) 종료에 따라 차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보완 계획 발표(제3차 기본계획: 1단계, '17~'21년)
- 글로벌 바이오 강국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5%의 시장점유율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①국산 신약 개발 ②일자리 창출 ③글로벌 기술이전 성과 제고 ④사회문제 해결에 바이오R&D 기여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4대 세부 목표를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해 ① 바이오 R&D 혁신 ② 바이오경제(Discovery to Market) 창출 ③ 국가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추진

□ 정부의 강력한 바이오산업 육성의지와 민간투자 촉진

- 다양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를 위해 바이오특별 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바이오 통합 통계 구축 등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을 정비함
-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함께하는 선제적 인허가·규제혁신을 통해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추진함

- 제품개발부터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규제 맵 구성·관리를 통해 바이오 규제 장벽을 상시 개선하는 체계도 구축함
-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범용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해외 자원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전략 자원도 확보함
- 초고속통신망이 ICT 산업 및 문화 부흥의 기반이 된 것처럼 바이오 혁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의 토양이 되는 기술·자원·정보 플랫폼도 구축함
  -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 신규 100개(현 85개), 1조 원 국산 블록버스터 5개 창출(~'26)
  - 바이오 기술기반 신규 일자리 12만 명 창출 : ('15)2.6만 → ('25)14.5만
  - 글로벌 기술수출액 500% 증가 : ('15)522M\$ → ('25)2,732M\$
  - 사회문제해결에 바이오 R&D가 기여 : ('15)7,000건 → ('25)10,000건

#### □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 글로벌 최초 R&D 성과를 경제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기술투자+경영·자본투자' 합작 창업 및 M&A 등 기술과 사람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 창업·사업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함
- BT+ICT, BT+의료, BT+금융 등 융합인력을 양성해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인력 양성 -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함
- 전국에 산재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특화 및 연계시켜, 광역 클러스터 망(인터시티 클러스터)을 형성하고, 병원의 혁신기지화로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를 확충함

## □ 국외

-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경제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 분야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함
  -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현안 이슈의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 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및 생물학적 변화 그리고 인류의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연구도 적극 추진함
- (미국) 2012년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을 발표하고 5대 세부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연방 재정적자의 절반 감축 목표에도 NIH에 '10년 대비 7억 4,500만 달러 증가한 320억 달러 배정하였으며, NSF 예산은 전년대비 13% 증가하여 생물학적인프라(14.8%), 환경생물학(9.1%), 분자생물학(6.4%) 분야의 예산 증액
- (유럽) 7차 Framework Program('07-'13)상의 테마형 연구지원 프로그램 10대 분야 중 '건강'에 6.82억 유로(17.5%) 배정하였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2020 전략 수립을 통해 자원, 기술, 임상정보와 유행병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 바이오뱅크 및 인프라 구축 예정임
- (영국) BBSRC(Bioscience 2015)는 경기침체로 인해 한정된 예산을 바이오산업화, 글로벌식량안보,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고 있으며, 신 전략계획(2012~2015)에서 '건강을 위한 생명과학'을 3대 핵심전략 중 하나로 선정
- (독일) "Bio industrie 2021"을 수립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10억 유로의 R&D 투자 시행하였으며, 생명공학 전문 기업 중 약 45%가 의약 분야에 집중
- (일본)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범부처 연구개발, 뇌과학연구의 단계적 추진, 기관 간 통합 데이터베이스 센터 구축 등 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생명공학 분야의 전략적 육성 추진
-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8대 과학기술전략 분야에 바이오산업, 건강 보건, 환경 등 3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계획 기간(2011~2015) 동안 4백억 위안(약 7조원)을 바이오 제약 업계에 투자함으로써 신약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추진

## 다. 이차전지 산업

### □ 국내

-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 등 육성함



-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기반 구축



### □ 국외

- **(정부대응)** 경쟁국은 중·대형 시장 창출 및 선점을 위해 기술혁신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집중지원 중임
- **(중국)** 전기차 산업발전 계획('11~'20)에 따라 약 7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기차 내수시장 활성화 추진
  - '20년까지 5백만 대 보급
  - 4大소재 : 7대 신성장산업 전략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용 소재개발 지원



- **(일본)** 그간('00~'13) 자동차용 전지와 ESS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천억 원 이상 투자함
  - '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 4대소재 : 국가 R&D로드맵(저가·고성능 개발) 추진
- **(미국)** DOE중심으로 R&D투자(1조원) ⇒ '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 캘리포니아주에 ESS설치 의무화 법안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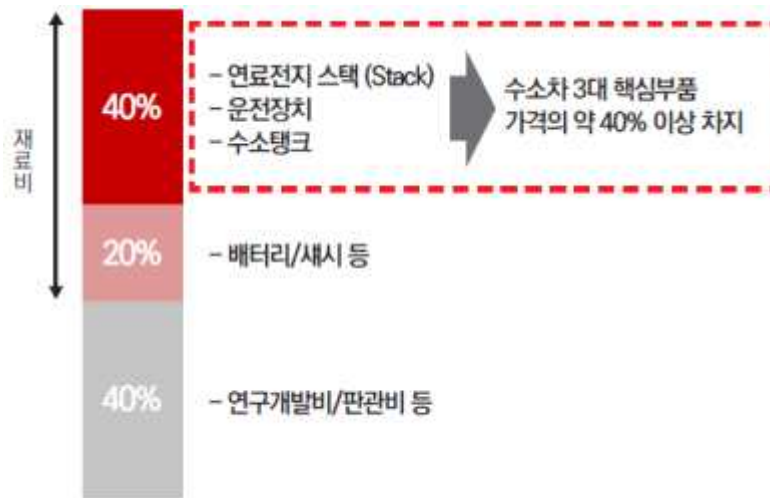
○ 각국별 전기자동차 구입 혜택

국가	혜택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10% 감면</li> <li>- 구입비 100% 세금공제</li> <li>- 민간지원 : 7,500 달러 보조금 지원</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세 50% 감면</li> <li>- 민간지원 : 최대 139만 엔 (약 1,890만 원)</li> <li>- 보조금 지원</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50% 감면</li> <li>- 민간 지원 : 6만 위안(약 1,030만 원) 보조금 지원</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지원 : 2,000~5,000 파운드 지원</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지원 : 5,000유로 환급</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부터 소비세(교육세 포함) 및 취득세, 공채구입 감면</li> <li>- 민간지원 부재</li> </ul>

## 2. 경제/산업 동향

### 가. 수소차 산업

- 2015년 12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된 후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 2017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Davos World Economic Forum)에서 아시아, 유럽, 미국의 주요기업 CEO와 국가정책 담당자로 구성된 '수소협의체'(Hydrogen Council)를 설립
    - 2017년 11월 13일, 수소협의체는 Sustainability Innovation Forum에서 연료전지차의 보급전망을 2030년까지 승용차 타입 1,000만~1,500만 대, 트럭 50만 대로 예측
- 생산 : '13년 세계 최초 FCEV)양산체제(현대차 투산)
  - 연료전지스택, 수소저장장치 핵심부품 국산화 95% 완료
- 보급 : 국내 183대 보급('17.12월 기준) : 지자체, 공공기관
- 수소충전소
  - 국내 석유화학단지 및 수도권 중심으로 12개소 운영 중
  - 연구실험용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민간 이용이 가능한 충전소는 6개소
  -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약 30억 원)이 높고, 부품 국산화율이 40~60% 수준에 불과
- 수소 수급
  - 연간 수소 생산량 : 164만 톤
  - 주로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에서 부생수소를 생산하며, 생산된 수소는 대부분 공정내 자가소비 또는 인근 석화사에 pipeline을 통한 물량 거래에 사용함
- 세계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이 가능한 곳은 소수에 불과함
  - 현대자동차는 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가격을 3천만 원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수소연료 전지차는 연료전지 스택(Stack)과 수소연료탱크가 가격의 약 40% 이상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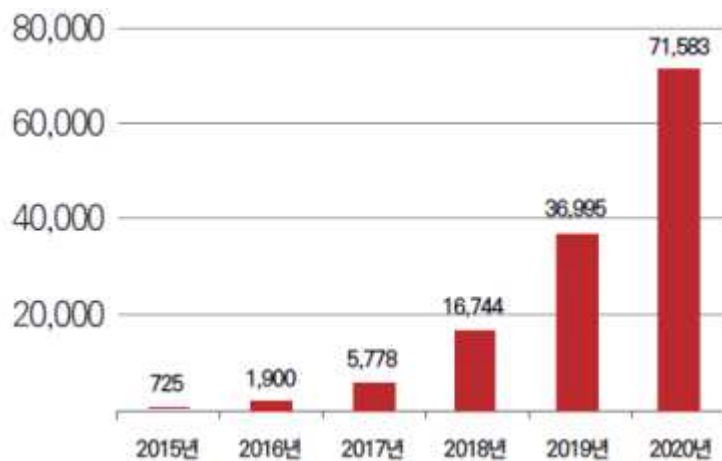


수소연료전지차 원가구조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SK증권

□ 친환경 이동수단의 패권을 놓고 전기차와 수소차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전기차는 지난 한 해만 75 만대 이상 판매
- 그에 비해 현대 Tucson ix FCEV 는 240대, 도요타 Mirai 는 1,000대 판매되어 저조한 수준
- 향후 글로벌 수소충전소 확충에 따라 판매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소연료전지차 글로벌 판매 대수 전망

자료 : Information Trends, SK증권

□ 국내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

- 수소차에서는 현재 시판 중인 현대차의 Tucson ix Fe 와 더불어 기아차도 2008년부터 Sportage, Mohave 기반의 수소차 테스트를 진행 중

기업명	내용
현대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양산 이후 실 구매가 3,000만 원대 예상</li> <li>최고속력 160km/h, 주행거리 594km</li> <li>주력제품 : Tucson ix Fe</li> </ul>
기아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년 수소차 테스트를 진행</li> <li>2020년 수소차 모델 1종 양산 목표</li> </ul>

자료 : SK증권

- 정부에서는 2016년 정부와 지자체, 수소차 부품업체, 수소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 업체 등 42개의 회원사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
  - (인프라 확대) FCEV와 충전인프라의 보급 확산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등을 추진

## 나. 바이오 산업

### □ 글로벌 시장동향

- 바이오기술은 인류의 문제(고령화, 질병등)를 해결하며 신성장 동력 급부상
  - 건강(Red), 식량(Green), 환경.에너지(White) 문제 해결 등
-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를 뛰어 넘어 급성장 예상 : 시장규모추이 ('15)1,588조 →('25)3,040조
- 총주 국가산단 특화산업 정밀의료분야 글로벌 시장 전망
  - ('15)42조 → ('25)149조 / 성장률 13.4%

### □ 국내 바이오 산업 동향

- 국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은 '15년 기준 세계시장 대비 1.7%규모 (세계 12위)로 국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의 수출액은 수입액에 비해 낮지만 연평균 6.6%씩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
- 과기부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등 세부목표 발표(2017.10월)
  - 글로벌 바이오시장 점유율 : 1.7%('15년/27조원) →5%('25년/152조원)
- 신약 후보물질 신규 100개(현85개)
- 바이오기반 신규일자리 12만명 창출
- 글로벌 기술 수출액 500% 증가
- 사회문제해결에 바이오R&D가 기여도 증가

- 국내바이오 기업체 : 980개 업체(인력 41,899명) / 충북 76개(인력 6,460명)

구 분	의약	화학.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및 기기	자원	서비스
76	<b>27</b>	14	22	4	3	1	3	2

자료 : 한국바이오협회 제공 : 충북 내 바이오산업별 분포 (강점분야는 **의약, 식품, 자원** 등)

## □ 충주시 바이오 산업 현황

- 충주의 바이오기업현황은 총 87개로 식품>화학.에너지>의약>의료기기 순으로 정밀의료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필요

구 분	식품	화학.에너지	의약	의료기기
87	44	25	<b>13</b>	5

## ○ 바이오산업 추진현황

- **【바이오산업과】**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유치, ICT체외진단센터 유치, 통합의학센터 조성, 바이오기능성식품 산업화, 당뇨 프로그램 추진 등
- **【축산과】**곤충산업 육성계획 수립(2018.4월) → 現 농가 11호(식용.사료 용) / 보조금 지원 확대/ 생산자 교육.단체 구성
- **【농촌기술센터】**기능성 농산물 생산연구계획 수립(2017.11월) → 광물질(바나듐.셀레늄)을 이용한 항당뇨 및 항산화 효능 물질함유 농산물(방울토마토, 사과 등) 생산 연구 / 지역특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대

## □ 국외 바이오산업 동향

- 바이오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임
- 현재 세계 바이오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Post-Genome 시대에서 연구개발과 산업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왔던 민간부문 투자가 2003년 이후 벤처 캐피털을 중심으로 급격히 회복
-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GP)가 완성됨에 따라 신약의 작용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작용점 발견 단계에서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기능유전체학(Functional genomics), 단백체학(Proteomics) 등 첨단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음
- 향후 효율적인 연구개발에 의한 신약개발의 기간단축, 휴먼게놈 정보를 효율적으로 신약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유망한 바이오 벤처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

- 미국 바이오 기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로 2018년 기준 전체 시장의 61.2%를 차지함.
- 바이오 기술은 의약품 생산,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유전자 치료 (Gene therapy), 유전자 검사 등에 활용 될 수 있으며 바이오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의약품 및 백신 등은 이미 치료에 널리 사용됨.
- 최근 수년간 제약기업의 특허가 대거 만료됨에 따라 전통적 제약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네릭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약제 (biologic pharmaceuticals) 개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음.
- 생물학적 약제는 화학적 공정을 통해 생산된 전통적 의약품과 달리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백신, 혈액, 체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 등 넓은 범위의 치료제를 의미
- 유명 제약기업들의 생물학적 약제 시장 진출과 더불어 미국의 고령 인구 증가는 바이오 기술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비교적 건강이 양호한 베이비부머의 노령화로 증상의 개선 및 치료 뿐 아니라 예방 및 선택적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더 안전하고 덜 침습적인 의료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헬스케어에서 바이오 기술에 대한 수요 확대

## 다. 이차전지 산업

### □ 국내 동향

- 국내시장의 경우, 전해질을 양산 공급하고 있는 파낙스이텍과 솔브레인 등이 리튬이온전지 세계 M/S 1위에 도달한 삼성SDI와 동반하여 전해질 공급업체로 성장하고 있음
- 이차전지 전해질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4,68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6,688억 원 규모로 연 평균 7.4%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양극소재는 LG화학 및 삼성SDI가 in house로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엘앤에프 신소재, 코스모신소재, 일진머티리얼즈, GS에너지 등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은 자동차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NCM 계열 소재이며, 모바일IT에 사용되는 LiCoO2는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고, NCA 소재의 경우 에코프로에서 일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양극재 전구체의 경우 이앤디, 이앤티, 포스코ESM 등이 생산을 하고 있으며, 양극재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인 전구체 업체를 진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

## □ 국외 동향

-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중 양극재는 중국 Local 업체, 벨기에 유미코아, 일본의 니치아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나머지 업체들이 분할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 업체의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 경향에 있어 향후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양극재 중 모바일IT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LiCoO<sub>2</sub>의 경우 중국 Local 업체, 벨기에 유미코아, 일본의 니치아가 세계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주로 자동차용 등으로 사용되는 NCM계열 양극재의 경우 중국 Local 업체, 벨기에 유미코아, 일본의 니치아의 시장점유율은 LiCoO<sub>2</sub> 대비 적기는 하나, 약 50% 정도 수준으로 파악됨
- 양극재 중 하나인 LiMn<sub>2</sub>O<sub>4</sub> 및 NCA(Ni-rich) 계열 제품의 경우 대부분 일본 업체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임

## 2.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가. 수소차산업 시사점

- 수소연료차의 대중화 시점은 2025~2030년경으로 예상
-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의 선두주자는 일본
- 도요타 미라이, 혼다 등 일본 완성차 업체가 현재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 기업으로는 GM, 독일 기업으로는 다임러 등이 적극적으로 수소연료차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대량 양산면에서 일본 기업에 크게 뒤쳐진 상태임
- 국내의 경우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10만 대 보급과 충전소 210개소 확충 목표를 세웠지만, 2018년 국회에서 수소전기차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185억 8,500만원에 불과함
-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미래 비전을 갖고 주도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비용 및 위험을 분담시키는 산업육성 시스템이 필요함

### 나. 바이오산업 시사점

- 2020년까지 바이오신약 장기 칩 산업 연평균 19%대 성장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이오경제”를 구현
  - ‘글로벌 네트워킹 및 협력’을 통해 바이오기술 혁신의 파급효과 확대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
  -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간 합종 연횡’과 ‘융복합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
  - ‘개인 삶의 질 향상’ 추구, ‘고령화시대’의 도래 등에 효율적인 대응
-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사회 문화적 적용 가능성 등에 따라 산업화 시기가 차별화되는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각 분야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을 지원
- 바이오산업은 역량을 갖춘 다양한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이 경쟁력의 관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 혁신주체의 역량뿐 아니라 네트워킹도 매우 취약함
  - 특히 R&D 결과를 산업화로 연계하는 전임상 및 임상 단계에서 임상시험 후반기를 담당할 기업의 역량이 취약함



- 따라서 바이오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하여 혁신 체제의 취약성을 극복할 필요
- 취약한 자본조달 시스템, 기업의 영세성 등 혁신 체제와 부가가치사슬단계에서 취약한 부분을 외국의 혁신주체들로 보완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가 필요

## 다. 이차전지산업 시사점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소재 기술 개발 필요
  - 우리나라의 전지 제조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부품·소재 및 원천 기술에서는 일본의 30~50% 수준으로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소재 국산화율이 미흡함
  - 최근 중국 업체의 급격한 발전으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고가와 저가 시장 모두에서 일본과 중국에 샌드위치로 끼인 상태에 직면함
  - 이차전지는 다른 대규모 조립산업에 비해 소재-완제품 관계가 훨씬 밀접함에 따라 소재산업 발전에 전지업체 역할이 절대적이거나, 그 간 민간제조업체의 소재 국산화 노력과 업체 간 협력 미흡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 미흡함
- 핵심 연구인력 확보 및 특허 전략 수립 시급
  - 전반적으로 논문과 특허의 양적 성과를 제외하고는 기술 수준이 낮은 실정이며, 세계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4~7년의 기술 격차
  - 최근 이차전지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석·박사급 R&D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임
  - 이차전지의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의지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SWOT 분석

지역경쟁력 SWOT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1. 4통8달 중부내륙권 교통중심 2. 신산업도시 성장기반 구축	1. 생산인력수급 어려움 2.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미흡으로 혁신인력, 기관 부재
기회(Opportunities)	SO전략	WO전략
1. 정부의 혁신성장정책과 연계한 산업기반 보유 2. 지역주력산업(수송기계소재부품)과의 연계 성장산업 기회	☞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육성 ☞ 유망분야 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한 육성	☞ 지역주력산업관련 혁신기관 구축 및 유치 ☞ 기업수요조사를 통한 효율적 인력수급방안 마련
위협(Threats)	ST전략	WT전략
1.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의 수용력 미흡 2. 산업입지 부족	☞ 주요 교통요충지 주변 산업단지 조기 조성 ☞ 지역소재 기업과 유치이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 기업지원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취약한 생태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나. 기본방향

- 산업 패러다임 변화, 4차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성장 중심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 (기업 중심 단계별 지원) 기업의 성장단계분석을 선행으로 하여 단계별 지원책 마련을 통해 기업이 한 단계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 성장로드맵 구축·지원을 통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일자리 창출)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 및 사업 간 연계지원으로 우수 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 다. 추진체계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 특화산업이란 지역의 산업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을 의미하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특화 육성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됨
-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충주시가 정책적으로 육성의지를 표명하는 산업군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
- 3대 특화산업 : 수소차산업, 바이오산업, 2차전지소재산업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비 전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도약		
목 표	2026년 GRDP 8조 3900억 달성 (2016년 GRDP 6조 660억 대비 38% 증가)		
특화육성산업	① 수소차산업	② 바이오산업	③ 2차전지소재산업
추진전략	① 관련기술과의 연계 로드맵 수립 후 진행 필요 ② 기술개발 지속 고도화를 통해 가격저감과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	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실현 ② 당뇨로부터 가장 안전한 건강, 힐링 관광도시 조성	① 중대형 이차전지산업 선도기업의 발굴 ② 산업주체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추진과제
수소차산업	관련기술과의 연계 로드맵 수립 후 진행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전기차는 기존 내연차 기술과 같은 차체 및 부품 기술 뿐 아니라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등 운행을 위한 요소들에 대한 전주기적인 연계성이 필수적</li> <li>✓ 특히 수소전기차가 제시하는 친환경성은 차량 운행에 한정된 개념으로 온전한 친환경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기술 고도화가 필요</li> <li>✓ 따라서 궁극적인 수소사회 혹은 수소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하에 자원, 소재, 부품, 차량기술에 대한 상호 연계성 있는 로드맵의 수립이 시급</li> </ul>
	기술개발 지속 고도화를 통해 가격저감과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 신뢰성과 지속 가능한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주행거리 향상, 회소 금속 등 고가 소재에 대한 대안적 기술 확보 및 장거리 운행 안정성 등의 확보가 필수</li> <li>✓ 기술수준 향상이 상용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험평가 및 인증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 이므로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li> </ul>
바이오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정밀의료) 6대 핵심분야 육성</li> </ul> </li> <li>• 바이오산업 지원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지원 인프라(기술개발, 컨설팅, 인력공급 등)</li> </ul> </li> <li>• 바이오산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략계획 수립</li> </ul> </li> </ul> </li> <li>✓ (바이오 경제 실현 / 기업유치 ·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 기업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바이오 기업 유치(대 · 중견 · 벤처기업)</li> </ul> </li> <li>• 창업 프로그램 종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One-Stop 지원(기술 · 금융 · 컨설팅 등)</li> </ul> </li> <li>• 바이오 국내외 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마케팅 공략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li> </ul> </li> </ul> </li> </ul>
	당뇨로부터 가장 안전한 건강 · 힐링 관광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건강 · 힐링 바이오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뇨 예방 · 교육 · 관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 당뇨 예방(혈당검사, 생애주기별 교육 등)</li> <li>- 당뇨 전단계자 관리(1대1 맞춤형 관리 등)</li> <li>- 당뇨 질환자 관리(병의원 연계, 힐링캠프 등)</li> </ul> </li> <li>• 유관기관 연계 · 협력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시 + 병 · 의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학 등</li> </ul> </li> </ul> </li> <li>✓ 바이오산업 연계 건강 · 힐링 관광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바이오 힐링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링, 웰니스, 항노화’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li> </ul> </li> <li>•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서양의학+대체의학 통합 치료서비스와 관광자원 연계한 건강 · 힐링 관광도시 조성</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기능성 식품 개발 및 산업화</li> <li>- 총주사과 항당뇨 기능성 연구 및 바이오 농식품 상품화로 바이오식품 산업 기반 육성</li> </ul>
2차전지소재 산업	중대형 이차전지산업 선도기업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소형 이차전지 셀 제조업체나 중대형 이차전지업체가 중대형 셀 제조업체로서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함</li> <li>•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코캠 그리고 자동차 업체나 전력사업자 등 주요 최종고객이 셀 제조업에 진출하도록 함</li> </ul>
	산업주체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전지 응용기술 포럼 개최</li> <li>• 민간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이 할 수 있으나, 개방성과 성과확산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이러한 교류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교류 협력을 촉진함</li> <li>✓ 충북 이차전지업체의 날 운영</li> <li>• 이차전지 및 전국의 이차전지업체들과 벤처투자기업들과의 만남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서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li> <li>• 이를 위해 성공적인 기존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충북의 관련 중소기업의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그 최종방식을 결정하도록 함</li> </ul>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 가. 수소차산업

##### □ 추진개요

- (시장형성) 시장의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타진하되 개방형 협업을 통해 산업적 성과 창출 및 산업생태계 고도화 방안 마련할 필요

##### □ 세부내용

- 차세대 주력산업 분야로서 수소전기차의 효용성있는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시장 수용성의 타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
- 시장 형성과 기술적 공감대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보급 확산, 인프라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 및 영역 간의 개방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컨소시엄의 역할 중재 및 적기 투자, 연구개발 주체 간 긴밀한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개발과 인프라구축, 법제도 개선의 보조가 이루어질 때 시장 창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

##### □ 프로세스

- (정부역할) 정부-민간 협업체계 하에 정부는 버스 및 상용차 중심 보급, 수소 충전소 인프라 지원, 법·제도 정비 역할 수행이 요구됨
  - 버스 및 상용차(택배 및 화물 트럭 등)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이동경로 및 노선이 고정적이며, 이동거리가 길다는 점에서 초기 수소전기차 보급에 적합함
  - 수소전기버스 보급은 단위 투입 당 이용자가 많아 수소전기차에 대한 불안 해소 등 국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다시 보급확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됨
  - 충전소 입지 선정을 위한 수소전기차의 이동경로 및 인프라 수요 파악은 정부 주도로 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시장 확대 시점까지 정부 역할 수행이 요구됨

##### □ 투자계획

- 수소전기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제도 공백 영역을 발굴 및 개선 이 필요함
-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소재부품 등에 대한 안정성, 내구성 시험 기준 및 인증 마련이 필요함
  - 수소이송 및 수소충전소 설립, 운영, 관리에 대한 법제도 부재로 현행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을 준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수소 생산 및 활용에 대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투자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초기 보급 확산 단계에서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

## 나. 바이오산업

### □ 추진개요

- 바이오산업은 국민건강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임
  - 바이오기술은 난치질환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국민수명의 질적 향상과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이오산업은 IT를 이어받아 우리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2024년 세계바이오 시장은 우리나라 3대 수출효자 시장보다 커질 전망이다
- 태동기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바이오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최근 맞춤형의료, 유전체의학 등 패러다임 변화를 맞아 첨단 · 융합기술 바탕의 바이오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
  - BT, IT, NT 등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신개념 의료기기 등장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쟁 분야가 탄생함

### □ 세부내용

- 산업의 특징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유망
  -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 발전을 선도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의료비 지출 감소에도 기여
  - 바이오산업 타 분야에 비해 개발비, 기간 면에서 유리하고 IT 등 국내 기반기술이 우수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으나, 최초 승자의 시장지배 성향 존재
- 산업 현황
  - 융복합 가속, u-헬스케어 태동 등 새로운 트렌드 확산
  - M&A를 통한 거대 기업화 및 사업 다각화 추진

### □ 프로세스

시장중심의 R&D 추진	글로벌 임상지원강화	수요맞춤형 취업 확대	기업해외진출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희망하는 아이템 발굴, 투자</li> <li>• 난치질환 치료제 등 부처연계사업 도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민간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글로벌 임상 지원 확대</li> <li>• 해외 인허가 장벽완화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취업 확대</li> <li>• 연구 의사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컨트롤 타워 (복지부) 중심으로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li> <li>• 대·중소기업 협력 활성화</li> </ul>

## □ 투자계획

### ○ 미래 유망기술 R&D 투자확대

- 융합진단, 의료기기 개발
- 헬스케어 앱/기기 개발
- 생체대체 및 보조기기 개발

### ○ 혁신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

- 규제개선을 통한 신제품 조기 시장 진출
-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임상지원 확대

### ○ 판로 개척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의료기기 사용현황 조사·분석
- 국산의료기기 신뢰도 향상
- 해외인증 대응 기업역량 제고
-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추진

### ○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투자확대, 투자기회제공 등 민간 투자 활성화
- 전문인력지원, 혁신, 기업 인증 등 기업 역량 제고
- 오송, 대구, 구미, 원주 등 지역별 특화된 의료기기 지원 클러스터 구축



## 다. 2차전지소재산업

### □ 추진개요

- 현재 중대형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계의 움직임은 우리가 중대형 이차전지산업이 충북의 '신성장동력'이라고 말하기가 불안할 만큼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음
- 우선 격화되는 한.중.일 간 경쟁, 특히 거대한 시장, 적극적 중대형 이차전지 수요산업 (xEV, ESS 등)의 육성 정책, 그리고 원재료 분야에서의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이차전지산업의 부상은 충남의 중대형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매우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음
- 또한 국내 대기업들의 대량생산 거점의 조기 해외 이전, 국내 대기업의 소재산업 진출 등의 시장동향은 충남의 중대형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충남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세계적으로 중대형 이차전지산업이 급속한 성장이 충남의 전지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발전과의 괴리가 커질 수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충남의 중대형 이차전지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 세부내용

- 중대형 이차전지산업 선도기업의 발굴
  - 중대형 이차전지산업 선도 기업 발굴 전략은 현재 대기업 위주의 셀 제조업체들이 조기에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에 대응한 전략으로서, 충북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선도 기업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소형 이차전지 셀 제조 기업들인 삼성SDI, LG화학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과, SK이노베이션, 코캠 등 중대형 이차전지 셀 제조라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이밖에 기업의 신규진출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기 진출기업의 성장이 현실적인 상황임

○ 산업주체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교류협력 플랫폼은 현재 대기업의 기술개발, 정부R&D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류 협력이 일부 업계에 한정되고 그 성과도 대외적으로 쉽게 전파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에 착안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주체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학습을 촉진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기술응용포럼을 개최하는 것과 개발자와 투자가를 연결시키는 장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동종업종간의 교류뿐 아니라 이종 업종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충북의 이차전지기업들에게 투자자를 연결시킴으로써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 넣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프로세스

1단계	충주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 현황 파악
2단계	충청북도 이차전지 산업의 가치사슬 지위 분석
3단계	중대형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분석

□ 투자계획

- 2차전지 펀드를 등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함
- 관련 특허 자산을 구축하는데 집중함
- 2030년 이후부터 주요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흐름이 리튬이온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미리 시장을 선점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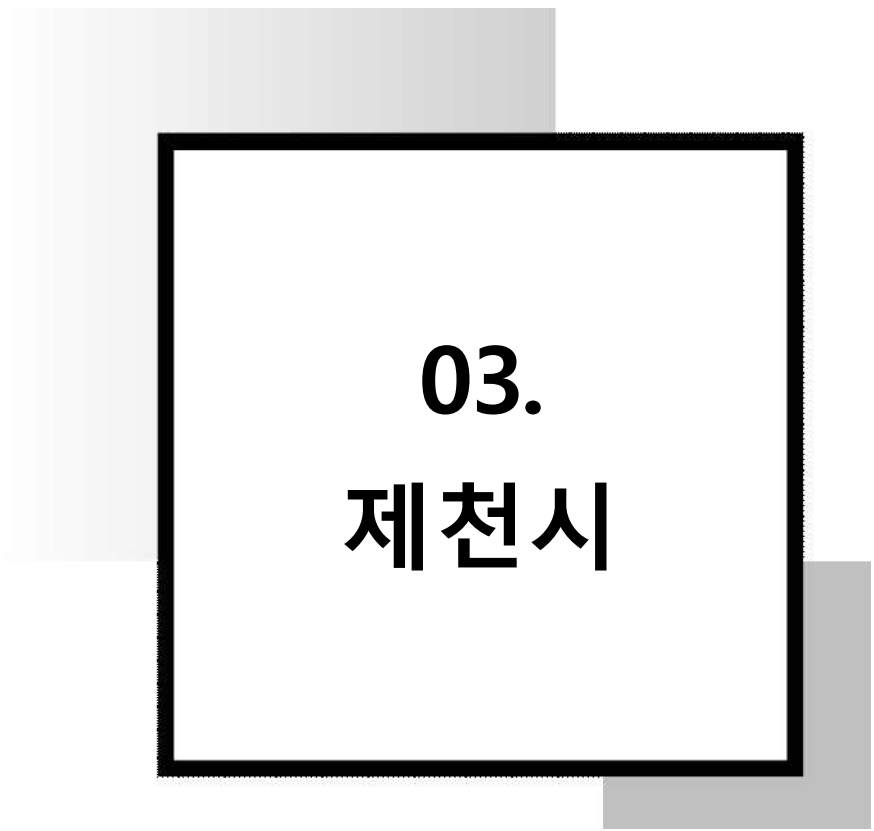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R&D 투자액	5,259억 원으로 증가
매출액 대비 R&D투자	8.3% 증가
연구개발 인력비중	24.2% 증가
연구개발 인력	2,215명으로 증가

### 나. 정책적 효과

- 새로운 소재개발 및 전지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원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함
-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소재 및 전지제조기술 향상을 통한 고성능, 저가격전지의 실현으로 국내 전지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기대함
- 부품 소재 및 생산 관련한 기술 혁신을 주도할 고급 연구 인력 및 전문 기술 인력의 확충으로 미래 선행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전지 최강국 구현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03. 제천시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 정부 산업정책 변화 부응

○ 산업혁명위원회 : 전기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미래 산업에 대한 핵심 기술 분야를 지원함

- 정부는 이를 위해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 친환경·경량화 소재부품개발 및 사업화가 중요함

#### □ 충청북도 주력산업과의 연관성

○ 충청북도 지역주력산업 개편, 수송기계부품소재 산업과 연계함

-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위원회결과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지역의 주력산업을 기존 5개에서 3개로 조정하고 융합산업 비중을 확대함

충청북도 지역 주력 산업 개편 방향

분류	개편 산업명	기존 산업과의 관계	비고
대표산업 (구 주력산업) 기존 산업 고부가가치화 (5개 →3개)	스마트 IT 부품	반도체 + 전기전자부품 + 전자의료기기	사업기간 : 2018 ~ 2020년 사업비 : 18,697백만 원/년 (국비 11,218, 도비 7,479) 매칭비율 : 국비 6, 도비 4
	바이오 헬스	바이오의약 + 비전자의료기기 + 기능성 식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동력기반 기계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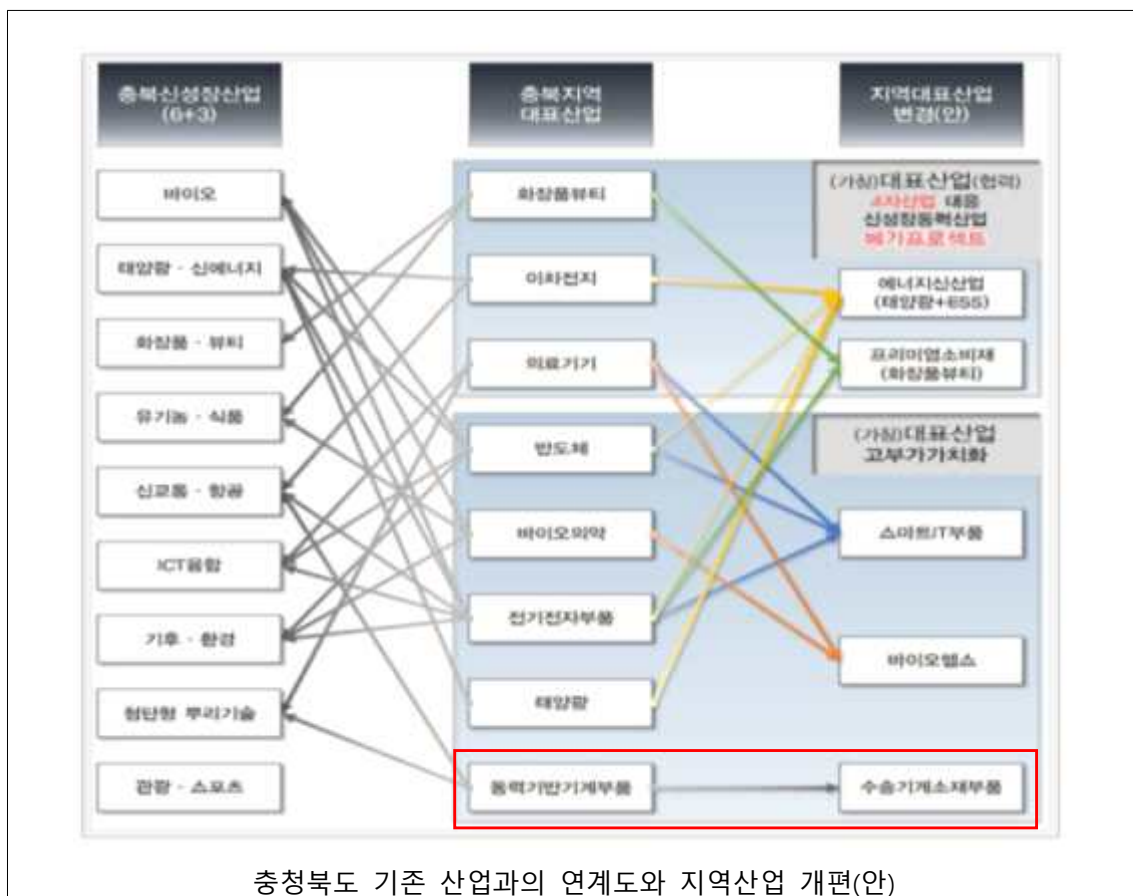
○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산업 스마트IT부품(전기전자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동력기반 기계부품)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산업의 에너지신산업(이차전지)의 융합산업으로서 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실현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나. 추진목적

- 비전 :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충북도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 목표 : 제천 신성장 특화사업으로 충북도 주력산업인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익 및 고용창출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 전략 : 제천 수송기계소재부품 사업화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2. 추진경과

### 가. 특화산업 발굴 추진경과



### □ 지역산업 개편안

- 제천의 기 구축된 인프라인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한다면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신산업 및 스마트IT부품산업과의 융복합 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II.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인구 / 세대 (2018. 4월말 기준)

○ 인구 : 135,243명(남 67,729명, 여 67,514명)

○ 세대 : 63,052세대

읍면동	2019. 4. 30. 기준			
	세대수	인 구 수		
		계	남	여
합 계	63,052	135,243	67,729	67,514
봉양읍	3,618	6,940	3,505	3,435
금성면	1,055	2,020	1,073	947
청풍면	752	1,291	646	645
수산면	1,219	2,084	1,063	1,021
덕산면	1,169	2,259	1,155	1,104
한수면	403	732	373	359
백운면	1,762	3,340	1,700	1,640
송학면	2,554	4,747	2,503	2,244
교 동	7,530	19,143	9,443	9,700
의림지동	4,192	10,124	5,003	5,121
중앙동	3,143	6,254	3,149	3,105
남현동	2,525	5,206	2,589	2,617
영서동	4,582	9,499	4,733	4,766
용두동	8,710	18,099	8,993	9,106
신백동	5,013	11,661	5,838	5,823
청전동	7,802	16,209	8,076	8,133
화산동	7,023	15,635	7,887	7,748

자료 : 제천시청

□ 지역특성

○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한방웰빙, 영상문화 관광휴양지로 급부상

- 2010.9.16.~10.16.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 청풍호반, 제천웰빙휴양타운 등 친환경 체류형 도시로 변모
- 청풍영상위원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등 영상종합도시 상승

- 인간중심의 첨단 바이오 산업지대 형성
  - 제천바이오밸리 준공에 이은 한방산업단지 등 제2밸리 조성
- 중부권 최대의 물류·교통·교육의 중심지
  - 제천~충주, 제천~영월 간 4차선, 중앙·동서고속도로 건설
  -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중앙선 태백선 경유 등 철도 및 물류 유통의 중심지
-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통한 중부내륙의 교육 문화도시로 급부상

## □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883.17km <sup>2</sup>	100

자료 : 제천시청

## □ 제천시 접근성



자료 : 제천시청

- 중앙고속도로 : 제천 IC인접(2km이내), 수도권 1시간 30분대 접근성
- 평택제천고속도로 : 평택 항 1시간 40분대 접근성
- 38번 자동차 전용도로 (일죽~제천~영원~태백)
-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개통예정 (청주~충주~제천)

## □ 우수한 인적자원

- 바이오·식품기업의 특화된 인력공급가능
  - 대원대학 제약 식품계열
  - 세명대학교 한방식품, 자연약재
- 특성화된 전문계고의 '산·학·관 연계 맞춤형 교육' 실시
- 원주연대캠퍼스, 충주 건대캠퍼스 인접



## □ 산업인프라

### ○ 연구시설과 지원시설


- 세명대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
-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제천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 ○ 한의약, 식품, 화장품업체 유치·지원 한방클러스터 구축


### ○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인접(최적의 비즈니스 공간 활용 가능)

## □ 제천 바이오밸리(산업단지)


- 제천지방산업단지는 생산, 주거, 상업기능이 복합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계획 기법을 도입한 복합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수요패턴에 부응하고 가격경쟁력 확보에

 <p>제1바이오밸리 입체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북 제천시 왕암동 일원</li> <li>• 면적 : 1,195,415㎡</li> <li>• 사업기간 : 1994. 12 ~ 2004. 12</li> <li>• 유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료품, 전기·전자·반도체장비, 컴퓨터 및 그 주변 기기, 의료·정밀·광학기기, 의약품 제제, 한방바이오산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 한방천연물센터(관련부처: 산업자원부, 충북도청)</li> <li>• 기능 : 한방·바이오기업 지원사업, 제품화 지원사업, 연구개발지원사업, 장비기술 지원</li> <li>• 위치 : 제천 바이오밸리 2로 41(왕암동)</li> <li>• 효과 : 한방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선도</li> </ul>
<제1바이오밸리>	<위치 및 면적>	<정부투자연구시설>

자료 : 제천시청

 <p>제2바이오밸리 입체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북 제천시 왕암동 봉양읍 일원</li> <li>• 면적 : 1,306,956㎡</li> <li>• 사업기간 : 2006. 11 ~ 2016. 7</li> <li>• 유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의약품·한방바이오관련 BT·IT</li> <li>·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자동차 부품산업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 제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관련부처: 충북도청)</li> <li>•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자동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 부품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원</li> <li>- 친환경 · 경량화 부품기술 개발지원(R&amp;D 지원)</li> <li>- 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li> <li>- 고용 및 교육지원</li> </ul> </li> <li>위치 : 제천 바이오밸리로 3길 34(왕암동)</li> </ul>
<b>&lt;제2바이오밸리&gt;</b>	<b>&lt;위치 및 면적&gt;</b>	<b>&lt;정부투자연구시설&gt;</b>

자료 : 제천시청

 <p>제3산업단지 입체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제천시 봉양읍 일원 (제2산업단지 서측)</li> <li>• 면적 : 1,090,590㎡</li> <li>• 사업기간 : 2012 ~ 2020</li> <li>• 유치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식품산업, 헬스케어산업, 신소재나노융합산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li> <li>• 타시도 이전 기업</li> <li>•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li> <li>• 국세 감면</li> <li>• 지방세 감면</li> </ul>
<b>&lt;제3바이오밸리&gt;</b>	<b>&lt;위치 및 면적&gt;</b>	<b>&lt;지원제도&gt;</b>

자료 : 제천시청

#### □ 제천시 산학연 클러스터 협력네트워크

- 제천시,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충북테크노파크, 제천한방 바이오클러스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한방천연물센터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한방, 바이오, 의약 전문연구 및 전문기술력 확보
-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대원대학교, 자동차 관련 입주업체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인력수급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및 제휴 추진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 □ 지역 대표기업 현황

- 일진글로벌(자동차용 휠 베어링), 제천 1~3공장, 제3산단 투자협약 예정 기업
- 엔캠(전기차 배터리전해액, '12년도 매출23백만 원 → '18년도 매출 약400억 달성)

#### □ 기업체 현황 :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회원사 현황

번호	기업명		대표	주소	주생산품
1	자동차부품 (6)	(주)박원	박운규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05	볼 베어링, 카퍼 칩 볼
2		(주)일진글로벌	송영수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16	휠 베어링, 조향장치
3		(주)엔바이오니아	한정철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85	자동차경량화복합소재
4		(주)청화정밀	김덕천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21	휠 허브
5		케이에치트레이딩(주)	장진철	제천시 내토로 73길 33	에어컨 부품
6		(주)화영테크윈	표근봉	제천시 내토로 73길 19	휠 허브
7	수송기계·특장부품 (6)	(주)다텍	송철희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52	시동용 발전기
8		(주)동연보트	이철호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24길 36	고무보트, 콤비보트
9		디엘(주)	임근영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3길 26	특장차 제조
10		볼스타	엄동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64	도금볼, 세라믹베어링
11		(주)아세아테크	이영진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20	철도 차륜
12		(주)오토캠프	김용재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5길 9	캠핑카
13	튜닝·ICT전장부품 (9)	(주)브로스	장현준	제천시 바이오밸2로 18	계기판, 튜닝부품
14		(주)엔이세이버	홍 훈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2	차량용 케미컬
15		에코반인터내셔널(주)	김민섭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28	자동차용 연료처리제
16		(주)엔캠	오정강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07	전기자동차 전해액
17		(주)엠큐더블유	유병대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3길 34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18		(주)케이앤피나노	강대삼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05	차량코팅제
19		(주)테크놀로지선진	유병식	제천시 북부로 2313	전자식 팬 클러치
20		(주)애크맥스	조인선	제천시 대학로316	자동차릴레이 (파워반도체)
21		게스코리아	이경은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3길 26	차량용 케미컬

## 나. 생산현황

### □ 충청북도 산업별 구성비

#### ○ 광공업생산지수

구 분	2015	2016	2016				2017	
			1/4	2/4	3/4	4/4	1/4	2/4P
<b>총지수</b>	<b>157.2</b>	<b>171.4</b>	<b>160.1</b>	<b>163.0</b>	<b>167.8</b>	<b>194.6</b>	<b>181.2</b>	<b>177.3</b>
광업	115.7	136.3	105.8	156.7	138.7	143.9	108.6	134.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115.7	136.3	105.8	156.7	138.7	143.9	108.6	134.7
제조업	157.8	172.1	160.4	163.7	168.7	195.5	181.7	178.3
식료품	263.4	269.7	283.5	257.1	261.7	276.4	302.8	275.3
음료	105.6	108.7	100.9	117.9	112.1	103.9	97.9	113.8
섬유제품;의복제외	83.3	78.9	72.3	81.7	80.4	81.3	73.7	74.3
가죽, 가방 및 신발	98.5	103.5	107.0	109.2	105.2	92.6	92.5	102.5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105.5	105.4	87.5	104.9	113.2	116.1	119.6	11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22.2	128.9	128.0	127.3	127.0	133.3	132.7	132.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4.8	46.5	48.5	46.2	45.1	46.1	47.3	44.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83.2	76.8	84.1	18.2	45.7	159.2	78.8	19.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의약품 제외	131.9	211.0	150.9	163.1	143.8	386.1	325.6	3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26.4	138.1	128.3	145.6	135.3	143.2	147.3	14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07.9	116.4	111.1	117.2	116.0	121.5	116.0	114.9
비금속 광물제품	121.4	130.4	110.0	138.2	127.6	145.8	124.2	146.0
1차금속	84.2	87.2	78.8	88.2	77.8	104.1	93.3	90.2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13.5	129.0	110.6	132.6	137.1	135.6	122.9	129.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158.2	181.7	164.4	163.1	196.8	202.3	180.2	16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0.5	52.9	53.7	53.1	52.4	52.1	50.6	59.4
전기장비	102.2	107.6	104.4	98.3	107.4	120.2	114.1	110.8
기타 기계 및 장비	164.4	163.4	142.0	159.4	178.2	174.0	119.2	223.8
<b>자동차 및 트레일러</b>	<b>323.7</b>	<b>318.2</b>	<b>310.8</b>	<b>326.3</b>	<b>281.6</b>	<b>354.0</b>	<b>319.0</b>	<b>330.4</b>
기타 운송장비	132.7	85.5	95.3	79.4	82.2	84.9	86.2	86.3
가구	88.3	92.2	90.7	88.3	86.9	102.9	109.0	106.6
기타 제품	113.9	124.5	114.6	120.8	122.3	140.2	134.7	159.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0.8	127.1	162.2	107.9	100.1	138.2	167.4	107.7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122.1	128.7	186.9	100.3	83.2	144.6	193.8	103.4
수도사업	118.5	124.2	119.2	121.1	129.5	127.0	121.4	115.0

자료 : 충청지방통계청

- 충청북도 제조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생산지수가 2017년도 2분기 1위

### □ 제천시 산업별 구성비



자료 : 제천시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 제천시 산업별 구성비 분석결과 자동차부품 생산비중이 1위

## 다. 고용현황

□ 기업체 현황 :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회원사 현황

번호	기업명	2017년	2018년	고용증가인원	비 고
1	(주)엔캠	45	68	23	
2	(주)테크놀로지선진	2	2	0	
3	(주)일진글로벌	673	675	2	
4	볼스타	5	6	1	
5	(주)다텍	13	8	-5	
6	동연보트	9	7	-2	
7	(주)아세아테크	11	11	0	
8	(주)청화정밀	52	49	-3	
9	(주)에크맥스	5	15	10	
10	게스코리아	3	4	1	
11	(주)엔바이오니아	53	65	12	
12	(주)케이앤피나노	16	10	-6	
13	(주)브로스	5	5	0	
14	에코번인터내셔널(주)	2	2	0	
15	(주)엠큐더블유	1	2	1	
16	디엘(주)	65	89	24	
17	(주)박원	102	100	-2	
18	(주)로	23	23	0	
19	(주)오토캠프	5	10	5	
20	(주)화영테크윈	53	66	13	
21	(주)케이에치트레이딩	31	27	-4	
22	(주)엔이세이버	10	10	0	
합 계		1,184	1,254	70	

## 라. 기업 투자동향

### □ [충북도 주력산업 관련 투자동향]

- 국내 투자의 경우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산업에서의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IT산업, 석유화학, 음식료산업의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부품업체의 투자가 감소하고, 섬유는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국내 생산투자는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됨
  - 일반기계는 SOC 예산 축소에 따른 투자 위축, 반도체산업 주도의 대규모 설비투자 마무리 등으로 투자가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 반도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대비하여 기술 초격차 전략을 위해 첨단 제품 개발 및 생산 설비 증설이 예상됨
  - 디스플레이는 OLED 신규 및 추가투자 확대, 이차전지는 중대형 이차전지 중심의 R&D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투자 확대로 자동차, 일반기계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빠르게 진전된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자동차는 2019년 하반기 인도에서 기아차 생산공장을 신규 가동함에 따라 국산 부품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일반기계는 기아차의 인도 현지 생산공장의 자동차 생산설비를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는 등 수요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신설에 따른 국내기계류의 수출증대가 기대됨
- <자료 : KIET 산업연구원>

### □ [제천시 투자동향]

- 제천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금액 1,800억원, 고용700명 투자협약(MOU)(2018.11.14.)
- 제천시가 충북도에서 선정하는 투자유치 우수 시.군에 선정됨(2018.12.18.)
- 충청북도는 민선7기 투자유치 총 40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제천에서도 제3산단 조기완공과 조기분양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전력 매진함

## 마. 혁신자원 현황

### □ 제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대표기업(산)	주요 생산품	대기업 협력사
(주)일진글로벌	휠베어링, 현가/조향장치 등	현대·기아, GM, FORD, BENZ
(주)화영테크윈	휠허브	(주)일진글로벌
(주)엔켄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외
(주)에크맥스	차량용 반도체 릴레이 모듈	대림 자동차, 유라코퍼레이션
엔바이오니아	차량용 경량화 언더커버 소재	LG하우시스, 쌍용차 외
케이에치트레이딩(주)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서 부품	한온시스템(구, 한라공조) 외

지역대학(학)	주요 학과	비고
세명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연구인력 산학 R&D참여 및 기업취업 연계 가능
대원대학교	자동차기계계열 (자동차정비, 튜닝설계)	예비인력 기업인턴 및 기업취업 연계 가능

연구기관(연)	기 인프라	역할
충북테크노파크	제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지역산업육성 전문기관 기업지원 및 클러스터 운영
자동차부품연구원	충북TP MOU체결	기술교류협력 신뢰성평가 인프라 공동활용 전문가 네트워킹

## 바. 정책지원현황

### □ 제천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7년~2021년
- 사업위치 :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 3길 34 일대
- 사업대상 : 제천소재 자동차(수송기계) 부품기업
- 사업비 : 8,700백만 원 (도비 4,785/시비 3,915) ※ 도비 55%, 시비 45%
- 사업내용
  - 친환경·경량화 부품개발R&D지원,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고도화 비R&D지원
  - 클러스터 운영,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공동관 참가지원 등
- 추진주체 : (재)충북테크노파크(위탁운영)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주요 이슈 1 : 정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보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소형 전기차 전문 생산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환경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 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전기차 4만 3,300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

<자료 : 한국에너지신문>

#### 나. 주요 이슈 2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음
- 오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를 보급한다는 계획임

<자료 : 파이낸셜신문>

#### 다. 주력산업 생산 전망

- 기계산업군 생산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및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생산이 부진할 전망이다
- 자동차 생산은 수출 및 내수 부진 지속,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강화로 중소 부품업체들의 생산이 위축되어 전년대비 2.3% 감소할 것임
- IT산업군 생산은 정보통신기기 생산이 확대될 것이나, 생산을 주도하는 반도체 및 이차전지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고 디스플레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 반도체 생산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수출 확대 영향으로 6.8% 증가할 전망이다
- 반도체는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의 공급자 지위 강화로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현상 지속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2019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제천, 컨설팅]

### 가. 제천 자연치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는 친환경차 육성전략 수립 및 거점 센터 구축 필요

- 쾌적한 자연환경·역사문화 등 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산업 잠재력을 보유함
- 제천시는 남한강, 월악산, 의림지, 청풍호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베론 성지, 의병 창의지 등 문화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보유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제천시의 강한 의지와 관심을 통해 친환경차 혹은 자동차 부품 인프라 구축과 대외 브랜드를 확보 가능함

### 나. 수송기계부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결하고 판로개척을 지원 필요

- 제천시는 충북, 강원, 경북의 3도 접도지역으로서 지경학적 이점을 잘 이용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창출이 가능함
- 수도권의 공간적 범역확대로 정부지원의 반사이익 창출이 가능함
- 이를 토대로 지역 자체의 역량강화와 함께, 필요시 인근 지자체와 적극적 연계협력 등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요함

### 다. 제천시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제도적 기반 구축

-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안정적·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차원의 자체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함
-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총괄 점검·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제천시청 내에 구축하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협업을 유도함
-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민·관·산·학·연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시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뉴새마을운동”과 연계 추진함
- 경제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원주, 충주 등)과 상생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제천시의 발전 기회와 동력을 강화함
-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소요자원(국고, 도비, 민자 등)의 확보를 위해 다각적 노력(국고보조, 공모사업, 민자 유치 등)을 경주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계획 수립함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자동차 부품산업

###### □ 국내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미래 자동차부품 중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집중 육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 (법률 동향) LPG차량 규제 완화

-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37년간 유지됐던 LPG규제를 전면 폐지했음
- 이 가운데 LPG튜닝전문브랜드 로턴은 2017년부터 규제가 완화된 RV/SUV LPG 모델을 개발해 튜닝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로턴은 완성차 업계는 물론, LPG 연료 계통 에프터 튜닝마켓에서도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현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LPG 차종은 매우 제한적이고 새 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임
- 하지만 로턴 LPG튜닝은 타던 가솔린 차량을 튜닝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2019. 03. 이투데이>

○ 2018년 변경된 자동차 기술 관련 제도 및 정책

구분	정책 및 제도	주요내용	관련법규
교통 안전	연비 과다표시 경제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의 연비가 과다표시된 경우 시정조치를 같음하여 경제적 보상 실시</li> </ul>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3항
	검사용진단기 자료제공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용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정비매뉴얼 등을 교통안전공단에 무상으로 제출 의무</li> </ul>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3항
	결함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제공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부는 결함정보 자료 수집 확대를 위해 제작자의 자료제출 의무화</li> <li>-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li> <li>- 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li> <li>-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li> </ul>	-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
	리콜자체시정 보상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함사실 공개 1년 전 또는 제작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기간 산정</li> </ul>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결함사실과 시정계획을 소유자에 통지 시 성능시험 대행자에 의뢰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함사실과 그 시정계획을 소유자에게 통지 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의무화</li> </ul>	- 자동차관리법 제31조6항
	리콜사실 통지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송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콜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 시 우편발송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추가</li> </ul>	- 자동차관리법 제31조1항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작사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도입,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결함, 결함·손해의 인과관계 추정), 공급자 책임강화 도입</li> </ul>	- 제조물책임법
환경 기술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승용차,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2016년부터 단계적 적용</li> </ul>	-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방법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li> <li>-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16</li> </ul>
	LPG 자동차용 연료 사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종류 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 (5인승 RV)도 LPG 연료 사용 허용</li> </ul>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7. 10. 개정>

## ○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 • 자동차부품기업글로벌진출적극지원

- 글로벌부품 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인력·금융·컨설팅·IP대응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 글로벌 부품 수출 지원을 위해 미·EU 등 지원센터 설치(Auto-Parts Park,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나고야)
- 부산에 '자동차글로벌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여 중소부품 기업인증지원

### • 중소중견기업 육성산업 생태계 구축지원

- 중소중견기업 주도로 개발 가능한 핵심 부품을 발굴·지원하고, 대기업이 견인해야 하는 시스템 레벨의 연구개발에 중소중견기업 참여확대
- 복수 수요기업 참여형 및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형과 같은 신 R&D 협력모델을 추진하여 수평 분업형 산업생태계로 전환유도

## 나. 천연물 소재산업

### □ 국내

- **(정부사업과의 연관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부문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부문이 본 사업과 부합함
  -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 구축함
  -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 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촌 체질 개선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구분	주요내용
목표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국정과제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li> <li>▪ (제약, 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li> </ul>
목표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정과제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산업부, 국토부,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재정립하여 지역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 지원</li> <li>▪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강화 통한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의 자율·책임성 강화</li> <li>▪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 유치 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li> </ul>
목표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과제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li> <li>▪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에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amp;D 투자 확대</li> <li>▪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li> </ul>

자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특히 충북지역 공약으로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와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교육·체험·연구) 조성이 선정됨

## 충북 지역발전 비전 및 공약

지역	발전 비전 및 공약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중부권 중핵경제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li> <li>- 충주 당노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및 <b>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b></li> </ul> </li> <li>■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li> <li>■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li> <li>■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li> <li>■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li> <li>■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li> <li>■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li> <li>■ <b>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교육·체험·연구) 조성</b></li> </ul>

자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유관 정부정책 및 상위계획

구분	내용	세부내용
상위 정책 및 계획	현 정부 국정과제	•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li> <li>•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li> </ul>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4대 전략과제 중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에 스마트팜이 포함</li> <li>• 지능형 혁신 프로젝트 세부목표로 스마트팜 확산, 농업로봇 혁신, 스마트 재해대응체계 구축을 제시</li> </ul>
	정부 R&D 투자 혁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산업 혁명 대응을 위해 기술-산업-R&amp;D-제도를 패키지 사업군으로 구성하여 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li> <li>• 스마트팜은 혁신성장 동력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할 8개 분야로서 R&amp;D 패키지 모델 개발 우선 대상으로 선정</li> </ul>
부처 정책 및 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	• ICT를 활용한 농산업 분야에 대한 첨단화 추진계획 수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li> <li>• 중점 추진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등</li> </ul>
	스마트팜 확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 성공모델 확산으로 혁신동력 창출</li> <li>• 농가보급 확산(7,000ha, 5,750호)</li> </ul>
지역 발전 계획 등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과 제조, 서비스, ICT·BT 등 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li> <li>•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li> </ul>
	2025 장기발전계획	• 특화분야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기반을 활용한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6대 전략산업 선정	• <b>바이오</b> , 화장품, 태양광, <b>유기농·식품</b> , 항공MRO, ICT 융합산업
	3.3.7 바이오밸리 프로젝트	• 한방바이오 특화산업 기반 바이오밸리 프로젝트 추진

‘자료 :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 지역발전위원회, 2014

제천 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제천시청, 2013

### □ 해외

- **(법률 동향 : 중국 법안)** 지난 3월15일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 회사가 중국시장에 진입할 때 합작법인 설립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됨
  - 이로써 외국 완성차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2. 경제/산업 동향

### 가. 자동차 부품산업

#### □ 국내

- **(2019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2019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선진권의 경기 둔화, 개도권의 성장 정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제유가 횡보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폭 제한, 반도체 가격 인하 등 부정적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보다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여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생산은 수출 둔화 및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주력산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부진할 전망이다
- 반도체(6.8%)는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목적의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 증가가 예상됨
- 그간 부진을 지속해 온 조선(8.4%)은 2017년 이후 수주회복기 고가 LNG운반선의 본격 건조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보임
- 내수는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재부품산업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됨
- 자동차, 의류, 가전, 정보통신기기, 음식료 등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 내수가 증가하겠으나, 수요산업의 국내생산 부진에 따라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류의 내수는 둔화할 전망이다

<자료 : 산업연구원>

#### ○ **(현대차 그룹, 전기차 3단계 Roadmap)**

- 1단계: 친환경 전용 모델 Ioniq Line-up 구비, Ioniq Electric: 주행거리 191km, 미국 연비 136MPG2로 최고 수준임
- 2단계: 18년 소형 SUV(KONA), Niro EV 출시: 주행거리 320~400km로 확대됨
- 3단계: 20년 경 제네시스 고성능 전기차 출시, 500km 이상 주행 -> 럭셔리 세단 전기차와 경쟁함

## □ 해외

- (중국 : 수소차 굴기) 주도권은 한국과 일본이지만, 시장은 중국 정부 지원으로 주도권 확보 스타트

### 매일경제

2019년 04월 18일 목요일 A03면 종합

## “韓日 따라잡겠다” 中 수소차 굴기… 얼굴 굳은 한국업체

상하이 모터쇼 전시공간 늘려  
동평의 수소차 SUV ‘에어루스’  
수소차 스타트업 ‘그로브’ 각광  
中 “2030년까지 100만대 보급”

“수소차 주도권을 한국·일본이 쥐고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처럼 수소연료전지차 시장도 방심하면 바로 추락당한다.”  
“2019 상하이 모터쇼(오토 상하이)” 개

막을 앞두고 미리 설치된 중국 동평자동차 부스에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전시물이 속속 모여들었다.

동평자동차는 전체 공간의 3분의 1 정도를 아예 친환경차 전용 부대로 마련했는데 그 중심에 동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에어루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연료전지차(FCEV)가 있었다.

전시장에 나타난 동평차 관계자가 “최근 수소차 연구기관을 세워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친환경차 규제에 발맞춰 수소차 라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거침없이 자사의 수소

차 역점을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져 갔다.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더불어 확인된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수소차 굴기다. 중국 로컬 기업 중 에어루스 담당하는 동평뿐만 아니라 2013년 중 시장에 설립된 중국 중소 완성차 업체 ‘원자동차’까지 수소차 SUV 콘셉트카를 전시하며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다.

아예 수소차 전문 기업을 표방한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그로브(Grove)’라는 이 업체는 동평자동차 BMW 출신 임직원

이 공격 세운 곳이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 업계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소차 개발과 생산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굴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기차(EV) 시장에서 선두로 최고 나간 가운데 수소차까지 주도권을 쥐겠다는 야심이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현대차, 일본 도요타·혼다자동차와 더불어 중국의 동평·상하이자동차·모든(상용차)·라이프버스플래그 수소차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꼽고 있다.  
중국에서 지난해 팔린 수소차는 1800

여 대로 추산된다. 대부분은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상용차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를 전국에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00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장 올해 베이징·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70여 개 충전소가 가동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과 현지 기업들의 빠른 추격에 자칫 한국이 수소경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와 한 관계자는 “현재 수소차 기술력을 국가별로 냉정하게 평가하면 일본이 2~3년 앞서 있고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은 사실상 현대차 홀로 수소차 개발에 나섰는데 중국은 우수주조소로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중국에 기술 우위를 내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태아/이종혁 기자

- (LG화학) 중국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에 투자한 결실이 보임



▲ 중국 난징 신장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LG화학의 전기차배터리 1 공장. <LG화학>

- 2019.04.10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동평르노 전기차 4종에 보조금 지원 여부가 5월 발표됨
- 동평르노의 전기차 4종은 중국 공업신식화부의 보조금 형식승인을 받았음
- 이 차량이 최종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LG화학은 현지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빠르게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됨
- LG화학은 중국 난징시의 신장 경제개발구에 1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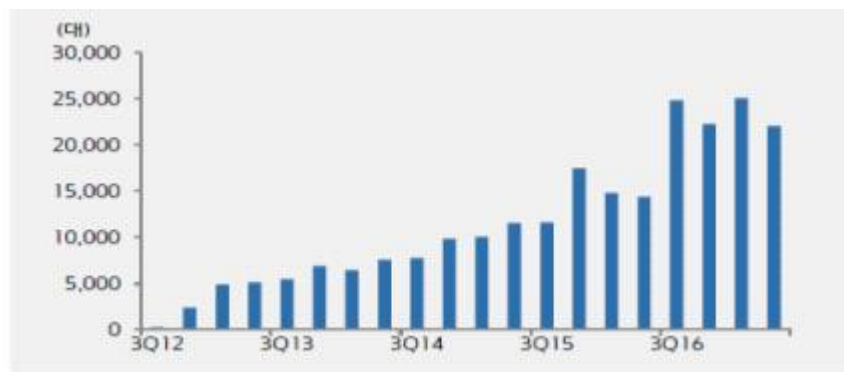


- 중국 정부가 전기차 지원정책의 기초를 자국업체 보호에서 기술 수준 향상으로 바꿔 잡으며 진입장벽을 허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 앞서 3월26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내놓은 새 전기차 보조금정책에 따르면 전기차의 최소 주행거리 제한이 150킬로미터에서 250킬로미터로 높아짐
- 전기차가 탑재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최소 요구치도 킬로그램당 105와트시에서 125와트시로 상향됨

<자료: 비즈니스 포스트>

#### ○ (전기자동차 OEM업체 사례별 전략) Tesla 성공 비결

- 전기차 판매량: 15년 50,658대(YoY 60%) -> 16년 76,295대(YoY 51%), 미국 점유율 30%로 압도적 1위임
- 역발상: 프리미엄 대형 세단(Model S)부터 접근, '명차' 이미지를 구축함
- 파격적인 디자인, 전기차 중 최고 성능임(주행거리, 속도, 출력, 제로백 등)
- 진취적인 IT DNA: 자율주행 기능(Autopilot), 대형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임
- 배터리 기술 우위 - 에너지 밀도 높은 원통형 배터리 채택, 배터리팩 제어 기술 확보 - Model S용 85kWh 배터리: 7,104개 원통형 셀 장착, 에너지 밀도 Leaf의 2배 수준, 전지 가격은 20~30% 저렴함



Tesla 전기차 판매량 추이

자료 : 전기차와 이차전지, 2017, 키움증권

○ (Gigafactory로 차별화)



Gigafactory 1

자료 : 전기차와 이차전지, 2017, 키움증권

- 배터리 제조원가 30% 절감 목표, Model 3부터 Gigafactory 1 배터리 탑재함
- Gigafactory 1 생산능력: 2단계 공사 완료 시(20년) 셀 단위 35GWh, 팩 단위 50GWh 확보 -> 전기차 연간 50만대 생산 지원함
- 20년까지 40~50억 달러 투자 예정: Tesla 20억 달러, Panasonic 16억 달러, Nevada 주 12.5억 달러 세제 혜택 예정 중임
- 2017년 중 Gigafactory 3, 4, 5 부지 선정 예정임(Gigafactory 2는 New York 태양광 공장)

○ (Model 3는 첫번째 보급형 모델) 유례없는 반응: 16년 3월 공개 일주일 만에 예약 건수 32만 5천대, 매출액 140억 달러 해당됨



Mode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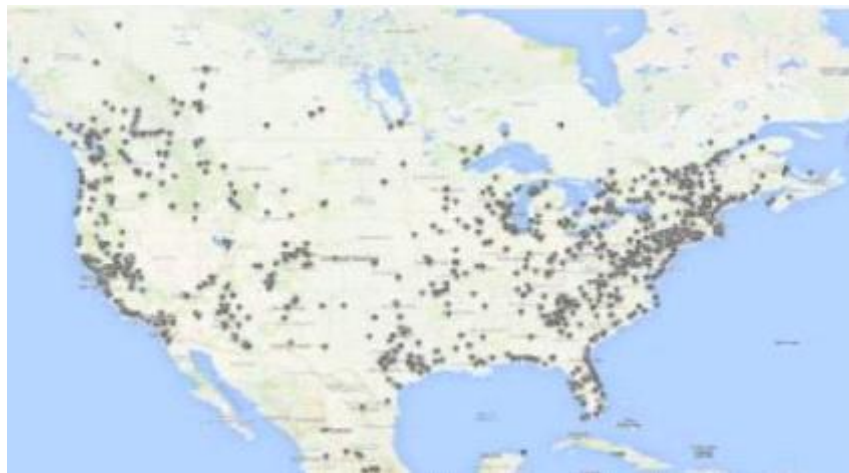
자료 : 전기차와 이차전지, 2017, 키움증권

- 비결: 1) Tesla 특유의 파격적인 디자인, 2) 1회 충전 215마일(345km) 주행거리, 3) 제로백 6초 등 우수한 주행성능, 4) 기본형 3만 5,000달러 경쟁력 있는 가격, 4) 상당한 수준 자율주행 기능, 5) 최고 안전성 등급 등

- 배터리 성능 향상: 용량 최대 75kWh - 21700 규격 원형 셀 처음 채택 <- 기존 18650 대비 성능 30% 향상됨
- 생산 일정 - 17년 8월 100대/월 -> 9월 1,500대/월 -> 연말 2만대/월 -> 18년 4만대/월 - 4Q17부터 생산량 급증 사이클 진입 - Model S/X 포함한 생산능력 18년 50만대, 20년 100만대 목표임

○ (무료 급속충전소 **Supercharger** 보급 전략) 120kWh 직류 방식, 충전 시간 크게 단축: 배터리 용량 90kWh(Model S) 30분 충전 시 270km 주행, 완충 시 75분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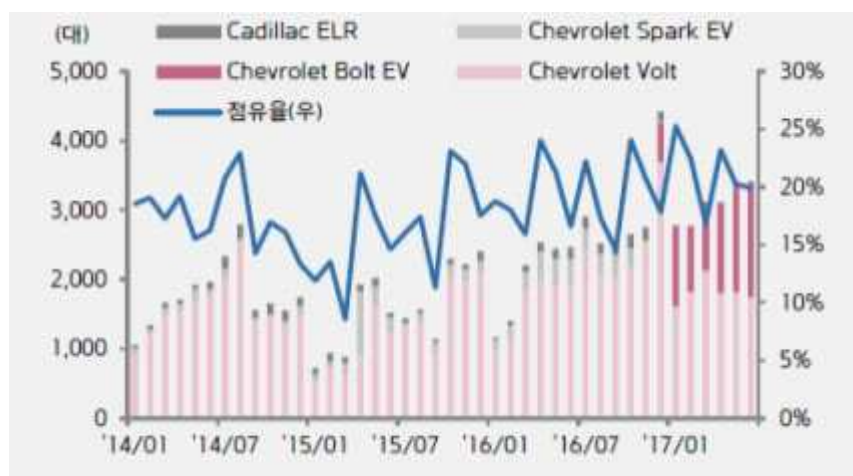
- 17년 세계 Supercharger 두 배로 늘려 10,000개 이상 구축 계획 - 16년 9월말 기준 세계 715개 Supercharger 충전소에 4,461개 충전기 설치 -> 미국 인구의 97%, 서유럽 인구의 68%가 150마일 이내에서 Supercharger 접근 가능함



미국 Supercharger 커버리지

자료 : 전기차와 이차전지, 2017, 키움증권

○ (GM, Bolt로 Game Changer 시도) 내연기관 OEM 중 선도적 행보



GM 미국 전기차 판매 동향

자료 : 전기차와 이차전지, 2017, 키움증권

- Volt(PH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의 성공, 16년 Model S 이어 미국 내 2위임
- 2세대 모델: 전기차 모드 시 주행거리 85km, 엔진 가동 시 676km, 배터리 용량 18.4kWh로 확대함
- GM 미국 전기차 점유율 16년 18% -> 1H17 21%로 상승, Bolt 선전 탓임

#### ○ Bolt, 2세대 전기차의 시작



Chevrolet Bolt EV 배터리 시스템

자료 : 전기차와 이차전지, 2017, 키움증권

- 현존 최장 주행거리 구현(판가 USD 50,000 이하): 1회 충전으로 238마일 (383km) 주행 <- 당초 목표치(320km) 상회함
- 판매 가격 37,495달러부터 시작: 연방 세제 혜택 7,500달러 감안 시 소비자 부담금 3만 달러 수준임
- 배터리 성능 우월: 용량 60kWh: 경쟁 차종 20~30kWh 대비 2배 이상 - 배터리 가격: 초기 셀 기준 145달러/kWh -> 19년까지 유지 -> 22년 100달러
- 구동모터: LG전자가 생산,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36.8kg.m, 제로백 7초, 최고속력 145km 등임
- 첨단 IT 기능 적용: 10.2" 대화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착, 4G LTE 텔레매틱스에 의해 다양한 운전자 지향 기술 지원 - 독창적 레이더와 카메라 시스템 기반 ADAS 기능 강화함
- LG전자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 구동모터 포함 핵심 부품 11종 공급 - Bolt 제조 원가 40%, BOM cost 60% 차지: LG전자 대당 매출 13,000달러 수준으로 추정함
- 판매량: 1H17 미국 내 7,592대 -> 미국 연간 2만대 가능할 듯함

## 나. 천연물소재산업

### □ 제천 지역 경제부문 현황

-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2016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평균 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은 제주특별자치도(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전국	3.3	2.8	2.8
충청북도	4.8	4.5	5.8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

- 충청북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4년 기준 약 49조 8천억원으로 '11년 이후로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의 GRDP는 24.4조원으로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고 충주시(5.7조원), 음성군(5.6조원), 진천군(4.8조원)에 이어 제천시(2.9조원)는 다섯 번째 순위로 나타남
- 제천시의 GRDP은 '14년 약 3조원으로 도내 GRDP 비중의 6.0%를 차지함

#### < 충청북도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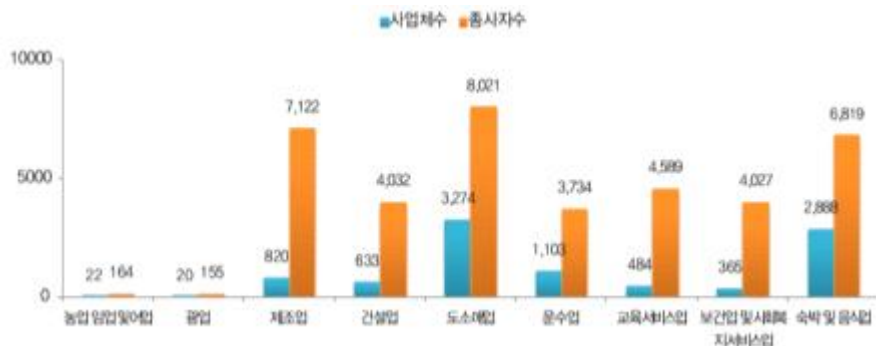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행정구역(시·군)별	2011	2012	2013	2014
충청북도	42,488,939	43,627,948	47,401,836	49,790,670
제천시	2,484,060	2,474,945	2,527,357	2,963,985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

### □ 제천 지역 산업부문현황

- (높은 사회간접 및 서비스업 의존도) '15년 기준 사업체수 12,380개소, 종사자수는 50,221명이며, 사회간접 및 서비스업의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85%이상을 차지함



제천시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 **(산업단지 현황)** 총 9개의 산업 및 농공단지가 지정되어있으며, 한방·바이오 분야 관련 기업체의 입주에서부터 공장설립, 사후관리까지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


제천시 산업단지 현황

단위: m<sup>2</sup>, 억 원, 원/m<sup>2</sup>, 개, 명

구분	단지명	소재지	조성면적	사업비	분양가	입주업체	고용인원	지정일
일반	제1산업단지	왕암동 1000번지 일원	1,195,415	4,440	79,783	44	2,005	'94.12.13
	제2산업단지	봉양읍 일원	1,306,957	1,449	105,270	37	797	'07.02.02
	제3산업단지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89,163	1,877	-	-	-	'15.12.31
농공	봉 양	봉양읍 제원로 80-50	133,098	33	22,082	2	192	'90. 1. 24
	금 성	금성면 청풍호로24길 39	86,023	18	12,259	12	125	'88. 11. 19
	송 학	송학면 송학로10길 3	90,067	23	25,250	8	146	'89. 11. 15
	고 암	내토로 73길 76	168,073	35	22,400	16	253	'89. 12. 12
	강 저	강저로 6길 24	141,776	27	15,375	27	310	'87. 9. 22
	양 화	금성면 양월로 46-12	148,639	106	78,350	3	-	'14. 7. 18

- **(대규모 약초시장 보유)** 우리나라 3대 약령시장 중 하나인 제천약초시장은 총 60여개 품목을 유통하며 특히 황기의 유통량은 연 3만 톤으로 전국의 80%를 차지함

< 제천약초시장 현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충북 제천시 원화산로121(화산동)</li> <li>▪ (규모) 2,853평, 건물 7동</li> <li>▪ (업체수) 74개 업체, 종업원 145명</li> <li>▪ (유통량) 연 3만 톤 (황기는 전국약초의 80% 유통)</li> <li>▪ (매출액) 연 500억 원 정도</li> <li>▪ (주요품목) 황기, 당귀, 황정, 더덕, 천궁, 홍화, 오가피, 만삼, 생강, 인삼, 강활, 길경, 두충, 목단, 방풍, 사삼, 산수유, 시호, 울무, 인진쑥, 작약 등 총 60여개 품목 유통</li> </ul>	

□ 제천지역 기업/기술 동향

- **(일반현황)** 제천은 충청북도 북부에 위치하는 중부내륙의 중심지역으로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지역임
- 해발고도가 높고, 비교적 바다와도 거리가 멀어서 한서의 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냄



### 제천시 입지현황

구분	경도 및 위도			위치
	지점	동경	북위	
극동	송학면 장곡리	128°20' 10"	37°12' 50"	
극서	백운면 덕공리	127°55' 25"	37°13' 25"	
극남	덕산면 월악리	128°13' 05"	36°48' 35"	
극북	백운면 운학리	127°58' 55"	37°15' 20"	

### ○ (기상 개황) 농작물 재배에 최적인 심한 일교차 및 풍부한 일조량

#### 제천시 시설농업 재배환경

단위 : °C, mm, %, h, m/s

구분	온도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량	바람		
	평균	평균 최고	평균 최저		평균	최소		평균 풍속	최대 풍속	최대 순간풍속
2013	10.1	16.6	4.4	1,437.1	72	43	2,023.5	1.4	4.2	7.3
2014	10.6	17.3	4.6	913.6	69	12	2,106.2	1.5	8.2	16.4
2015	11.1	17.8	5.1	803.4	68	6	2,242.7	1.5	9.0	18.4

자료 : 청주기상지청 제천시 기상개황, 2018

### ○ (인구 현황) 제천시 인구는 감소추세이나 농가인구는 소폭 증가세

- 제천시의 '12년 인구는 137,521명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0.2% 감소하여 '16년 136,517명으로 나타남
- 제천시의 농가인구는 '12년 기준 16,985명(남 8,312명, 여 8,673명)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1.2% 증가하여 '16년 17,789명(남 8,938명, 여 8,851명)으로 나타남

#### < 제천시 인구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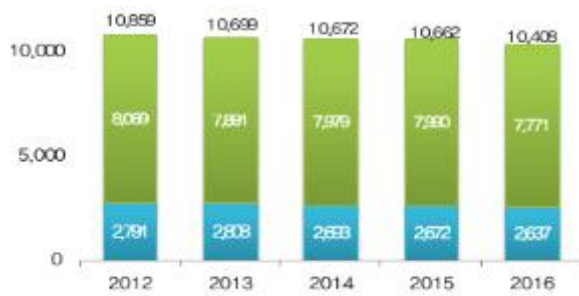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전체 인구	137521	137204	136805	136138	136517	-0.2%
농가 인구	16985	17049	17876	17353	17789	1.2%
비중	12.4%	12.4%	13.1%	12.7%	13.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정보시스템), 통계청

### ○ (경지면적 현황) 높은 밭 경지면적 비율

- 제천시 내 경지면적은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12년 10,859ha에서 연평균 0.84% 감소하여 '16년 10,408ha로 나타남
- 이 중 논은 '12년 25.7%에서 '16년 25.3%로 약 0.4%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밭은 '12년 74.3%에서 '16년 74.7%로 약 0.4% 증가함



< 제천시 경지면적 >



< 제천시 가구당 경지면적 >

• (약용작물 생산현황) 약용작물 재배 특화

- 제천시 1,078호의 농가가 40종의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16년 기준 전국 약용작물의 16.4%에 해당하는 2,948톤을 생산, 약 427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
- 특히 제천시의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12년 529.3ha에서 '16년 689.6ha로 약 30.3%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12년 2,342M/T에서 '16년 2,948M/T로 약 25.9% 증가



[제천시 약용작물 재배현황('10~'16)]



[제천시 GAP인증 약용작물 재배현황('10~'16)]

제천시 약용작물 재배현황

(단위 : 건, ha)

구분		2015		2016	
		경영체수	면적합계	경영체수	면적합계
약용작물	당귀	28	10.10	30	11.61
	천궁	16	5.77	29	9.66
	백출	69	27.66	110	51.70
	지황	16	4.88	21	5.44
	하수오	182	61.38	149	40.83
	용담	1	0.16	1	0.16
	구기자	6	0.93	9	0.65
	홍화(잇꽃)	7	0.64	6	0.36
	삼	5	2.29	5	9.59
	감초	42	16.52	46	16.50
	백합	3	2.33	3	2.0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2017



## ○ 시설농업현황

### • (온실 현황) 온실 재배면적 및 경영체수 증가추세

- 제천시의 '15년 온실 경영체수는 577건으로, 연평균 6.8% 증가하여 '16년 616건을 기록
- 제천시의 '15년 온실 재배면적은 107.3ha로, 연평균 8.6% 증가하여 '16년 116.5ha\*로 나타남  
(경질판 0.5ha, 비닐 114.7ha, 유리 1.2ha)

### • (약용작물 재배현황) 약용작물 시설재배 면적은 미미함

- '16년 제천시의 약용작물 전체 재배면적은 666.36ha이며, 이중 시설 재배 면적은 1.4374ha 임
- 제천시 주요 재배작물인 당귀, 천궁은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시설재배로의 전환이 필요
- 혈당상승 억제, 항암 등의 기능을 갖춘 당조고추와 항암배추가 '16년 기준 전국에서 각각 6,000톤, 26,000톤 재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천시의 시설재배 인프라 활용 시 생산성 향상 및 전국단위의 유통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제천시 시설 재배면적

(단위 : 건, ha)

구분		2016	
		경영체수	면적합계
온실	경질판	3	0.5
	비닐	610	114.7
	유리	3	1.2
	소계	616	116.5
육묘장	경질판	2	0.1
	비닐	558	13.8
	유리	2	0.4
	소계	562	14.3
재배사	소계	9	3.4

제천시 약용작물 시설 재배면적

(단위 : 건, ha)

구분		2016	
		경영체수	면적합계
약용작물	백출	2	0.1707
	지황	3	0.4417
	하수오	2	0.0665
	용담	1	0.0990
	구기자	-	-
	홍화(잇꽃)	-	-
	삼	1	0.0953
	감초	1	0.0214
	백합	1	0.3712
	기타	4	0.1716
	소계	15	1.437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2017

### • (유통지원 시설) 유통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유통 활성화



제천시 유통시설(APC 등) 보유 현황 세부

- 제천시 내에는 백운농협, 남제천농협 2개소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을 수집해 공동출하 함으로써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또한 제천시는 저장고, 전처리 가공시설, 전시홍보실을 갖춘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구축하여, 한약재 품질관리 향상 및 한방산업 육성에 기여

## □ 사회/문화 동향

### ○ 토지이용 현황

- **(농촌형 토지이용형태)** 제천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전체면적 883.17km<sup>2</sup>중 6.4%인 56.69km<sup>2</sup>가 도시지역이며 도시화율은 1.1%로서 매우 낮은 편임
  - 주거지역 11.99%, 상업지역 2.07%, 공업지역 5.79%, 녹지지역 80.15%

### ○ 도시계획 현황

- **(생태 웰빙 체험의 건강한 자연도시)** '2020년 제천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웰빙도시, 관광도시, 물류 유통도시, 한방산업도시의 4가지 도시개발목표를 지향하고 이를 구체화함

제천시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분		면적(m <sup>2</sup> )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구역 현황도
시가화 예정용지		6,850,000	
보전용지		841,270,000	
시가화용지	소계	34,350,000	
	주거용지	12,141,000	
	상업용지	1,203,000	
	공업용지	4,129,000	
	관리용지	16,87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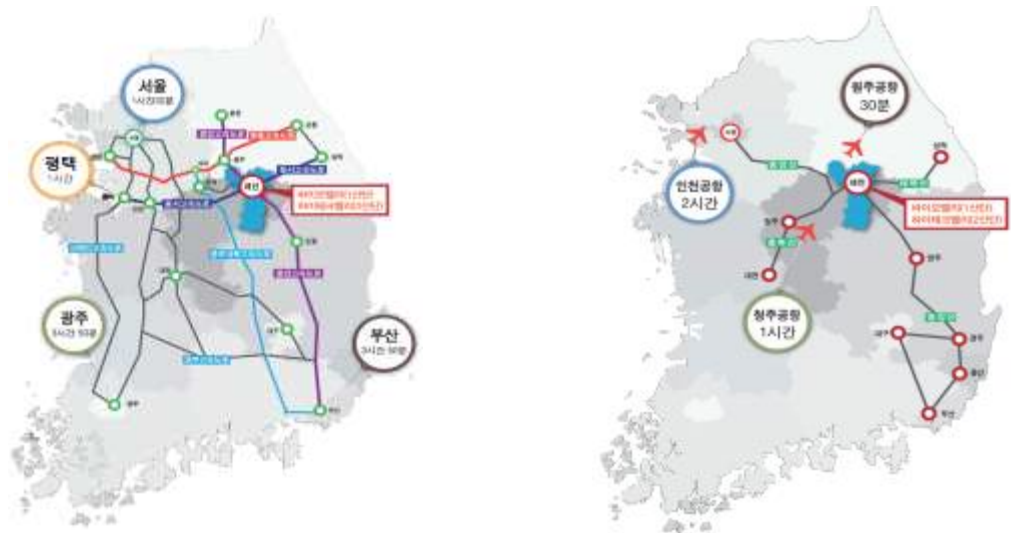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2017

### ○ 교통 환경 현황

- (광역 교통망 확보) 제천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는 충청북도의 국토 중심부에 대한 위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양한 형태의 광역 교통망이 주변에 구축
- (개통 예정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지는 3개 국도, 중앙고속도로가 인접(2km이내)하며, 동서고속도로(평택~삼척)도 개통 예정이며, 충청고속화도로(청주~충주~제천)는 계획 추진 중

## 제천시 교통 환경 현황

구분	현황
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 평택제천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동서고속도로 평택-제천-삼척 구간 개통 예정
국도	• 5번, 36번, 38호선이 지역 간 교통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기능 담당
지방도	• 82호선이 남·북간을 축으로 주간선기능 담당 • 지방도 402, 522, 532, 534호 4개 노선이 제천시 지역 간 간선기능 수행
철도	• 충북선(조치원-제천시), 중앙선(수도권-제천시), 태백선(제천시-영동지역) 등의 3개 철도노선의 결절지로서 철도망 발달, 오송 고속철도와 1시간 거리
항공교통	• 청주 국제공항이 위치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



< 충청북도·제천시 접근성 >

## 3.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국내 완성차업체 미래 친환경자동차 기술경쟁력 선점 및 양산 체제 확보 주력)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차 부품의 핵심 기술 부품 개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제천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등 기 인프라 활용 연계하여, 관련산업 육성 필요함
-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시장 확대에 대비 국내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  
국내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선 급변하는 시장동향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수송기계소재부품 관련 주요 전시회 참가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시장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필요함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SWOT 분석[TP]

##### □ 자동차 부품산업

##### SWOT요인

Strengths (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산업(전기차, 자율주행차, ESS, 스마트 그리드) 정부주도 고부가가치 사업화 추진</li> <li>정밀기계 및 전장부품구성 22개사 클러스터 회원사 보유, 3대 분과운영 추진 중</li> <li>자동차부품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자동차 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산업협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제건인할 산업 인프라 부족</li> <li>기술산업동향 급변, 기업R&amp;D역량 미흡</li> <li>경쟁지역에 비해 혁신기반 상대적 부족</li> <li>인구증가세 둔화 및 고령화 가속화</li> </ul>
Opportunities (기회)	Threats(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북 주력산업인 수송기계소재부품 육성과의 연계협력 가능</li> <li>3도 접견지역 이점을 살린 연계 사업 촉진과 지역활성화 가능</li> <li>자동차산업이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시장경쟁체제 변화에 따른 국내 외 지역 간 경쟁심화 가속</li> <li>저성장 장기화, 경기 위축, 투자 유치 어려움</li> <li>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li> </ul>

##### ○ 추진방향

- 제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센터 연계 신규사업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클러스터 회원사 증가로 클러스터 운영 전문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산학연관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기업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함

## □ 천연물소재산업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외부환경 분석</div> <div>내부환경 분석</div> </div>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시 11대 약용작물 등 지역 특화 재배작물 기반조성 우수</li> <li>• 연구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지역 낙후도</li> <li>• 기업 인프라 및 기업지원시설 미흡</li> <li>• 기술 전문 인력 부족</li> </ul>
기회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농산물 및 약용작물 시장 확대</li> <li>• 농작물 생산성 증가 및 부가가치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의 약용작물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용작물 산업 관련 기업 및 생산</li> <li>• 연구시설 집적화 실현</li> <li>•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및 기술개발 여건 마련</li> </ul>
위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li> <li>• 시장개방, 자재값 급등에 따른 우리 농업 경쟁력 약화</li> <li>• 생물자원 확보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의 낙후도 개선</li> <li>• 지역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정책 마련</li> <li>• 관련산업 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용작물 육성 촉진을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조성</li> <li>• 바이오, 약용작물 산업의 확대 및 첨단화를 통한 1차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li> </ul>

## ○ 추진방향

- 천연물 조직배양 및 식물공장을 활용한 무병주묘 및 신품종 개발
- 학·연·관·농가와와의 추진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
- 지역 농가의 재배 작물에 대한 타겟 작물 선정
- 학·연간 연계를 통한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 연·관간 연계를 통해 지역 농가에 우수묘 보급

**나. 기본방향[제천시] : 제천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 및 지역특화, 차별화 사업 필요 → 일자리 창출 → 소비활성화 → 지역균형발전**

□ 천연물소재산업

○ 비전 및 목표

<b>비전</b>	충북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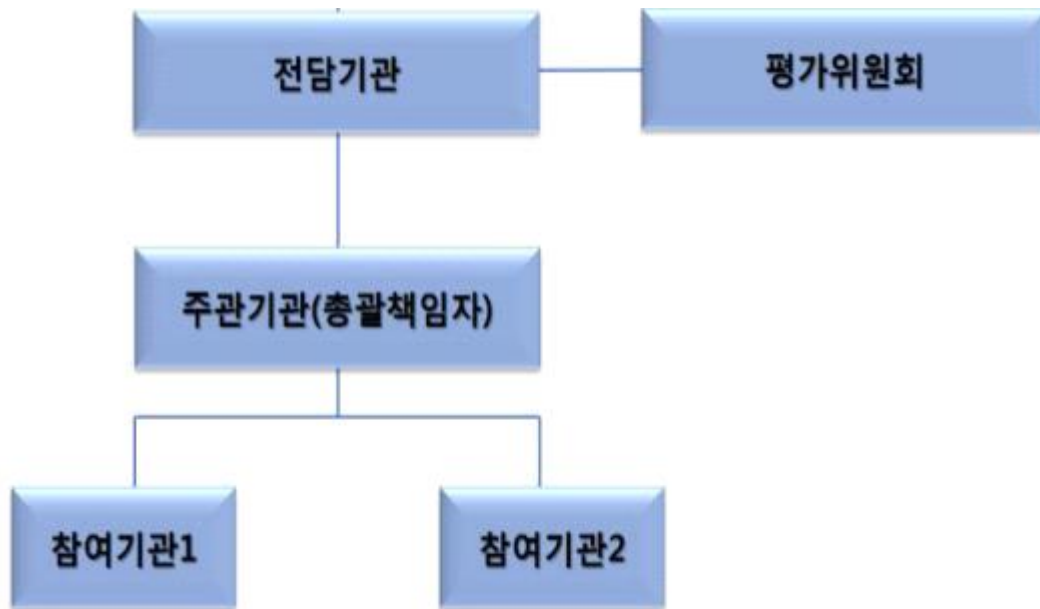
<b>전략목표</b>	천연물 신소재 개발 기술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농생명 산업 생태계 조성
-------------	--

<b>성과지표 · 목표치</b>	<p><b>(기술적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기능 무병주 개발 건수</li> <li>- 신품종 개발 건수</li> </ul> <p><b>(경제적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물 신소재 개발 관련 고용확대</li> <li>- 사업종료 이후 수혜농가의 소득 조사</li> </ul> <p><b>(사회적 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고기능 무병주 개발 시스템 확립으로 인한 유망기업 육성</li> <li>- 사업 진행기간 및 종료이후 소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조사</li> </ul>
---------------------------	--

<b>추진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물 조직배양 및 식물공장을 활용한 무병주묘 및 신품종 개발</li> <li>• 학·연·관-농가와와의 추진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li> </ul>
<b>추진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농가의 재배 작물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 - 타겟 작물 선정</li> <li>• 학-연간 연계를 통한 신품종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li> <li>• 연-관간 연계를 통해 지역 농가에 우수묘 보급</li> </ul>
<b>투자 기본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로의 고기능 무병주묘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중점투자</li> <li>• 최적의 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li> <li>• 고기능 무병주묘 개발 및 R&amp;D를 위한 연구역량강화</li> </ul>
<b>중점 투자분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산업에 중점 투자</li> </ul>

## 다. 추진체계

### □ 자동차 부품산업



- 예산심의 : 충청북도, 제천시, 사업타당성 검토, 예산심의평가
- 전담기관 :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계획수립, 평가위원회, 사업비 관리 운영
- 참여기관 : 수요기업(비R&D과제 기획, 수행 주관), 공급기업(서비스 제공) 등

### □ 천연물소재산업

- 전략 1. 천연물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한 고기능 무병주 선발
  - 사업목적 : 기존 재배되고 있는 작물보다 우수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주 선발
  - 추진방안
    - 제천지역 11대 우수약초 및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여 작물의 생육 및 수량 등 상품성이 저하된 작물을 대상으로 무병주 개발 실시
    - 신품종 개발을 위해 우수 무병주 개발을 원하는 농가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 대상 작물의 성장점 배양을 통한 무병주 기내도입, 우수 Cell line 선발
  - 추진체계 : (재)충북테크노파크

□ 전략 2. 선별된 고기능 무병주 증식 및 기내순화

- 사업목적 : 고기능 무병주의 대량 육묘를 위한 증식, 기내순화 실시
- 추진방안
  - 농가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기내에 있는 묘를 분주하여 대량 증식
  - 약 2개월간 기내에서 배양 실시
  - 어린 배양묘를 기내에서 외부환경에 적응시키는 기내순화 실시
- 추진체계 :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 전략 3. 기외순화 및 육묘실시

- 사업목적 : 수경재배 방법을 이용하여 기외순화를 하고 순화가 완료된 묘를 포트에 이식하여 농가에 보급
- 추진방안
  - 수경재배법을 활용하여 대상 작물에 적합한 기외순화 환경 조성
  - 순화가 완료된 무병주 기외순화 및 육묘 실시
  - 포트에 육묘된 포트묘를 농가에 보급
- 추진체계 : 세명대학교(고기능 LED 약용작물연구소)

□ 추진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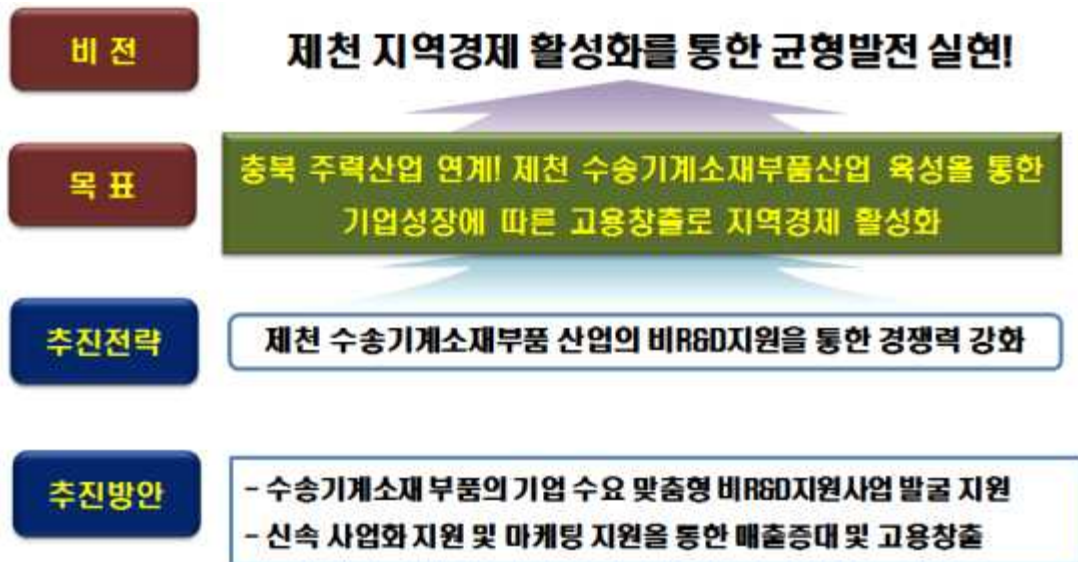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명칭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산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 및 수송기계 등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경량화 소재부품의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제천 지역 기존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제품의 제조를 포함하는 산업</li> <li>충북 주력산업인 스마트IT부품(전기전자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동력기반기계부품)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산업의 에너지신산업(이차전지)의 융합산업으로서 친환경 수송 기계소재부품산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li> </ul>		
핵심 KSIC 코드	KSIC코드*	세세분류업종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유망 제품 (기술)	유망분야	주요기업	생산품목
	자동차부품	(주)일진글로벌	휠 베어링
	자동차부품	(주)애크맥스	차량용 반도체 릴레이
	자동차부품	(주)엔켐	전기차 배터리 전해액
	철도부품	(주)아세아테크	차륜재생기술
	선박부품	동연보트	콤비보트, 고무보트
	자동차부품	(주)엔바이오니아	차량용 경량화 소재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 □ 자동차 부품산업



### □ 천연물소재산업

#### ○ 비전 및 목표

비전	충북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목표	천연물 신소재 개발 기술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농생명 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지표 · 목표치	(기술적 성과) - 고기능 무병주 개발 건수 - 신제품 개발 건수 (경제적 성과) - 천연물 신소재 개발 관련 고용확대 - 사업종료 이후 수혜농가의 소득 조사 (사회적 성과) - 우수 고기능 무병주 개발 시스템 확립으로 인한 유망기업 육성 - 사업 진행기간 및 종료이후 소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조사
추진방향	천연물 조직배양 및 식물공장을 활용한 무병주묘 및 신제품 개발 학·연·관-농가와와의 추진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
추진전략	지역 농가의 재배 작물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 - 타겟 작물 선정 학·연간 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연·관간 연계를 통해 지역 농가에 우수묘 보급

투자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로의 고기능 무병주묘 보급 •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중점투자</li> <li>• 최적의 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li> <li>• 고기능 무병주묘 개발 및 R&amp;D를 위한 연구역량강화</li> </ul>
중점 투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헬스산업에 중점 투자</li> </ul>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수송기계소재 부품산업 비R&D사업화 지원사업	수요맞춤형 비R&D사업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비R&amp;D지원 및 산학연 전문가 연계를 통해 기업이 당면한 애로 해결 및 사업화 경쟁력 제고</li> </ul>

#### 가. 제천시 수송기계소재부품 특화산업 육성

##### □ 자동차 부품산업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9. 12. 31 (10년간)
- 총사업비 : 10억 (비R&D지원 1억/년)
- 지원대상 : 제천 관내 수송기계소재부품기업

##### ○ 비R&D 기업지원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수요 맞춤형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비R&D)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유 형	프로그램(예)				
제품 성능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기타
제품 판로 개척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기타

□ 제품 성능 개선 지원 : 기술지원

- 컨설팅 및 기술지도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생산, 기술, 공정 개선 지원
- 시제품제작지원 : 조기에 시제품 제작을 통한 납품 승인 등 고객 맞춤지원
- 금형제작지원 : 양산을 위한 금형제작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 인증특허지원 : 지재권 확보 및 제품관련 인증 획득으로 신뢰성 확보 등

□ 제품 부가가치 제고 및 판로 개척 지원 : 사업화지원

- 컨설팅 및 제품고급화 지원 : 마케팅 로드맵 수립 등 경쟁력 강화 지원
- 디자인 및 브랜드개선 지원 : 제품 디자인 개선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지원
- 전시회 참가지원 : 관련 전시회 참가 부스 및 바이어 상담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 마케팅 지원 : 기타 홍보물, 브로셔 등 마케팅 관련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도모

□ 프로세스

- ①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② 지원사업공고 ③ 과제평가 ④기업과제수행  
⑤ 최종보고 ⑥ 사업비 정산 ⑦ 성과활용 모니터링 추진 등

- 투자계획 ( 도비 50% , 시비 50% )

재원별	총사업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10	1	1	1	1	1	1	1	1	1	1
도 비	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시 비	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 천연물소재산업

- 투자방안

구분	추진전략	투자전략
연구개발	고기능 무병주요 개발 신품종 개발	연구수행,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	기내순화 대량증식	연구수행, 기반조성
농가지원	기외순화 농가보급	지원체계구축

○ 투자 효율화 제고방안

- 대학-연구소-기관-농가를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농가맞춤형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세분화된 맞춤형 농가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농생명산업 분야 생태계 조성 및 강화

○ 투자계획

구분	추진전략	지원규모	투자계획(백만 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연구개발	고기능 무병주묘 개발 신품종 개발	우수 Cell Line 개발	100	50	25	25
연구개발	기내순화 대량증식	기내순화 실시	50	25	12.5	12.5
농가지원	기외순화 농가보급	포트묘 농가 보급	50	25	12.5	12.5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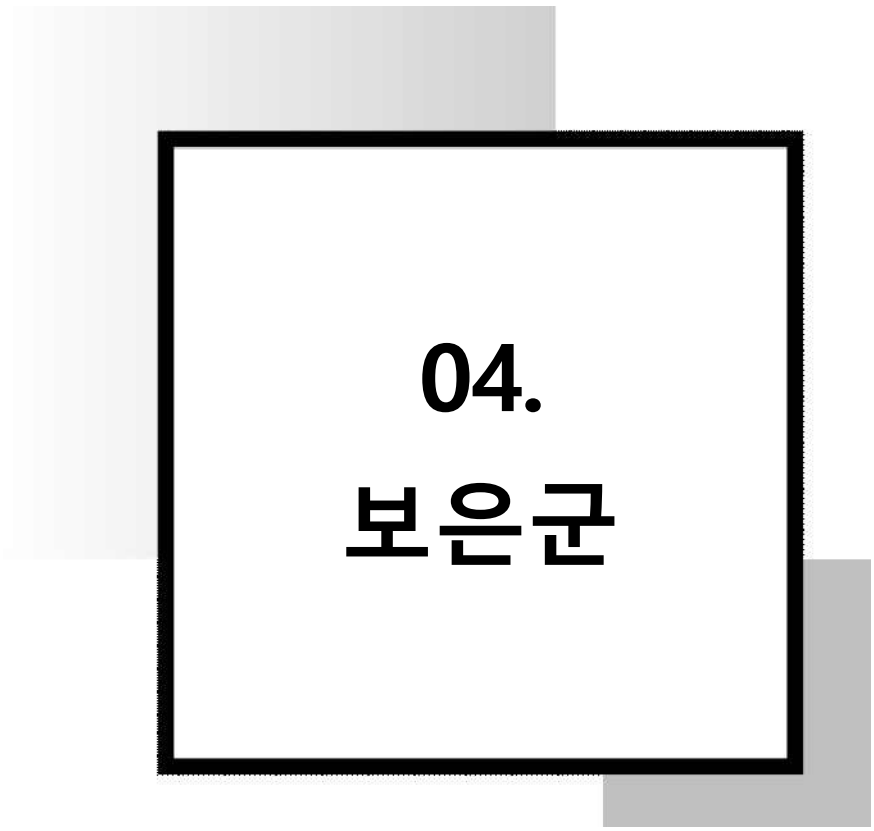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약21.6억 원	약6.2억 원	약2.5명

자료 : 충북기준,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 투입금액 및 관련 계수 적용

### 나. 정책적 효과

- 긍정적 영향의 부품군 내 부품회사는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
-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부품의 기존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
- 기존제품 다변화 및 전기차시대 유망부품으로의 전환 추진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04. 보은군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보은군, 정착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동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

-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일본 도시들의 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20~39세 여성 인구'를 비교하였고,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경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음
- 해당 기준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내의 한 언론사가 우리나라 도시의 소멸 가능성을 예측하였고 분석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30%(85개) 정도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충북에서는 괴산군, 보은군 등 5개 군이 포함되었다.
- 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인구통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데, 지나친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도시 활력의 저하로 이어짐

□ 보은군은 관광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 중

- 문제는 현재까지 보은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 대다수 관광산업 혹은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정책이라는데 있음
- 보은군은 기존 2018년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음
-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시설현대화 지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공모사업, 보은종합시장 특성화 시장 공모사업, 전통시장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 혁신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였음
- 관광산업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은 대다수 개인사업체 즉, 경제활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수혜자가 없는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임
- 물론 단순 매출증대 혹은 부가가치 창출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정착인구의 유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증대까지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본질적인 시군 활성화 추진 필요

- 보은군은 경제활성화라는 과제와 정착인구유입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특화산업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특히 개인 혹은 가족단위가 아닌 법인단위의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특화산업에 걸맞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보은군에 정착인력과 정착기업이 증대되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 추진목적

####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중심의 특화산업 발굴

- 지금까지의 보은군 경제활성화 및 활력증진을 위한 대책이 관광객 유입 및 소상공인 활력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과업을 통해 보은군은 발굴된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소 법인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전개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기존 개인 혹은 가족단위에 제공되는 것으로 그쳤던 지원 혜택을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법인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어느 누구에게만 제공되어 사라지는 프로그램이 아닌, 다수를 위해 제공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정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중소 법인 유입 증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전개로 정착 인구의 유입, 본질적 활력공급

- 또한, 관광객의 유입은 유동인구의 증대를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유입인구 증대에는 사실상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착기업 및 정착인구의 증대를 위해 본 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유동인구가 증대되는 것보다는 정착을 위한 유입인구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기업에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기업에는 보은군에 정착할 명분을 마련하여 기업과 인구가 동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민선 7기의 군정이념과 운영전략의 수용을 통한 미래형 발전방향 설정

- 민선 7기 도정의 비전인 “일등경제 충북 실현, 충북경제 4%시대 실현”이라는 도정이념과 운영전략을 수용하여 미래 보은군의 발전방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급변하는 지역개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여건변화를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은 차원의 전략적인 기업진흥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도의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보은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특화산업 발굴 및 장기발전전략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2. 추진경과

### 가. 특화산업 발굴 추진경과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

##### □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2007~2011)

###### ○ (천연자원물 웰빙센터 클러스터구축)

- 창업지원 및 R&D센터 건립
- 대추 명품화 집단시설 개선
- 대추 한정식 개발
- 대추홍보관 보수

##### □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2012~2016)

###### ○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
- 혁신역량강화사업(지역리더 양성)

##### □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2017~2021)

###### ○ (친환경 휴양·힐링산업 육성사업)

-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
- 혁신역량강화사업(지역리더 양성)

#### 〈연계사업〉

###### ○ 2008. 12. 19. (보은 대추·한우 특구 지정)

###### ○ 2008~계속 (대추 관련 특화사업 추진)

###### ○ 2017. 5. (보은군 생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결초보은” 사용)

###### ○ 2019~2021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농식품부 사업 신청))

##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시군 참석회의(2019. 2. 28/충북도청)

- 전형적인 농업군인 보은군의 주요 농특산물인 대추, 사과, 쌀, 산나물, 산약초 등과 연계하여 특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컨설팅 (2019. 4. 18./충북지식산업진흥원)

- 보은군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조업을 특화 육성하여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성 제기

## II.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가. 지리적 특성

- 충청북도 중부에 위치한 보은군은 동쪽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서쪽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충청북도 옥천군, 북쪽으로는 괴산군과 청주시에 접하고 있음



보은군 지리

- 보은군은 1973년 7월 1일 보은면이 보은읍으로 승격되면서 1개읍 10개면의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총 면적은 584.3km<sup>2</sup>로, 충청북도 총면적 7,407.1km<sup>2</sup>의 7.9%에 해당함
- 보은군 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속리산면(92.2km<sup>2</sup>)이며,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삼승면(28.3km<sup>2</sup>)임

## 나. 위치

- 보은군은 충청북도 남중부에 위치하며, 도내 3시 10군 중 하나로 소백산의 높은 준령과 노령산맥 사이에 있는 전형적인 분지를 이룸
- 북쪽과 서쪽으로는 충북 청원과 동으로는 경북 상주, 남으로는 충북 옥천과 인접해 있음
- 또한 서울로부터는 약 196.0km 거리에 있으며, 도청 소재지인 청주로부터 43.5km, 충주로부터는 77.7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음
- 보은군의 면적은 충청북도 전체면적의 7,434km<sup>2</sup> 중 7.9%에 해당하는 584km<sup>2</sup>로 도내 최대인 충주시(984km<sup>2</sup>)의 5분의 3정도에 해당하며, 제천시(883km<sup>2</sup>), 영동군(846km<sup>2</sup>), 괴산군(842km<sup>2</sup>), 청원군(814km<sup>2</sup>), 단양군(781km<sup>2</sup>)에 해당하는 비교적 군세가 약한 편임
- 보은군의 제일 큰 면인 속리산면은 92.15km<sup>2</sup>로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일 작은 면은 삼승면으로 28.28km<sup>2</sup>로 4.8%를 차지함

보은군 위치

군청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동단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동경 127° 54'	동서간
	서단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동경 127° 31'	약 35.052km
	남단	보은군 마로면 세종리	북위 36° 22'	남북간
	북단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북위 36° 36'	약 27.129km

자료 : 보은군청



보은군 위치

자료 : 보은군청

## 다. 행정구역

- 보은군의 총 면적은 584km<sup>2</sup>로 충북의 약 7.9%를 차지함
- 행정구역은 1개의 '읍'(보은읍), 10개의 '면'(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247개의 '리', 835개의 '반'이 있음



보은군 행정구역

보은군 행정구역

단위 : km<sup>2</sup>, %

읍면동	면적(km <sup>2</sup> )	비율(%)
보은읍	62.32	10.67
속리산면	92.07	15.78
장안면	29.86	5.11
마로면	68.46	11.72
탄부면	31.61	5.43
삼승면	28.29	4.84
수한면	48.73	8.43
회남면	46.45	7.95
회인면	54.03	9.25
내북면	63.46	10.86
산외면	58.71	10.05
합계	583.99	100.00

자료 : 보은군청 홈페이지

## 라. 인구 및 세대

### □ 인구변화

- 보은군은 충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급격한 인구 감소 중에 있었으나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보은동부일반 산업단지에 단독 분양된 우진플라임이 본격 가동되면서 감소세가 둔화되었음
- 보은군 인구는 16,600세대, 33.6천명으로 전국인구의 0.065%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북도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성비는 100.07으로 비슷한 수준임
- 사회복지교육원 개원, 보은산업단지 기업 유치 등 일자리인프라 구축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될 전망임

보은군 인구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률) (‘17년 대비)
전체 인구		34.0	33.7	감(0.1)
경제활동인구	소계	29.3	29.0	감(0.1)
	취업자	18.8	18.9	증(0.5)
	실업자	0.2	0.2	-

자료 : 보은군청

### □ 고용동향

- 보은군은 2017년 대비 30세~49세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상승하였으며 15~29세 취업자 수는 변동이 없는 상황임
- 보은군의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수준인 39%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연령별 취업자 수의 불균형이 매우 큰 수준임
- 2017년 고용률에 비해 2018년 고용률은 다소 증가하였음

보은군 고용동향

단위 :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감(률) (‘17년 대비)
고용률	소계	72.2	73.0	증(0.8)
	청년고용률	33.5	38.7	증(5.2)
	여성고용률	65.7	68.3	증(2.6)
실업률		0.8	0.9	증(0.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817	7,139	증(4.73)
상용근로자수		5,100	5,100	-

자료 : 보은군청

## 마. 경제 · 산업

### □ 산업구조

- 보은군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1~4명 규모의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준으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중견기업수가 총사업체의 0.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대형사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을 알수있음

보은군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단위 : 개사, 명

구분	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명 이상
사업체	2,948	2,524	223	115	58	22	6
종사자	12,394	3,995	1,434	1,566	1,751	1,450	2,198

자료 : 보은군청

### □ 산업체 현황

- 2017년 보은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보은군 내 사업체수는 2,948개소이며 종사자는 12,394명으로 나타남
- 사업체수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9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658개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6개소, '제조업'이 281개소로 나타남
- 종사자수에서는 '제조업'이 3,288명(26.5%)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도매 및 소매업' 1,359명(11.0%), '숙박 및 음식점업' 1,307명(10.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통계청 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업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중 '기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농림어업' 순으로 나타남
- 전국과 충청북도 대비 보은군의 사업체수를 비교해보면 '기타 서비스업'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전국과 충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제조업'은 전국 대비 적은 사업체수 비율이지만 충북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농림어업'은 전국과 충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0년 대비 2016년 보은군 사업체수는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2015년)와 비교할 때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농림어업' 사업체수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보은군 사업체 총괄

단위 : 개소, %

구분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계	2,948	100	12,394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20	0.7	125	1.0
광업	4	0.1	30	0.2
제조업	281	9.5	3,288	26.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0.1	65	0.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	0.3	98	0.8
건설업	154	5.2	880	7.2
도매 및 소매업	790	26.8	1,359	11.0
운수업	225	7.6	444	3.6
숙박 및 음식점업	658	22.3	1,307	1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0.8	102	0.8
금융 및 보험업	39	1.3	303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	1.7	91	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1.2	166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	0.9	114	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9	1.3	1,052	8.5
교육 서비스업	101	3.4	849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3.4	1,207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7	2.3	349	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6	11.1	565	4.6

자료 : 2017년 보은군 통계연보

보은군 지역산업구조(사업체수) 변화추이 현황 표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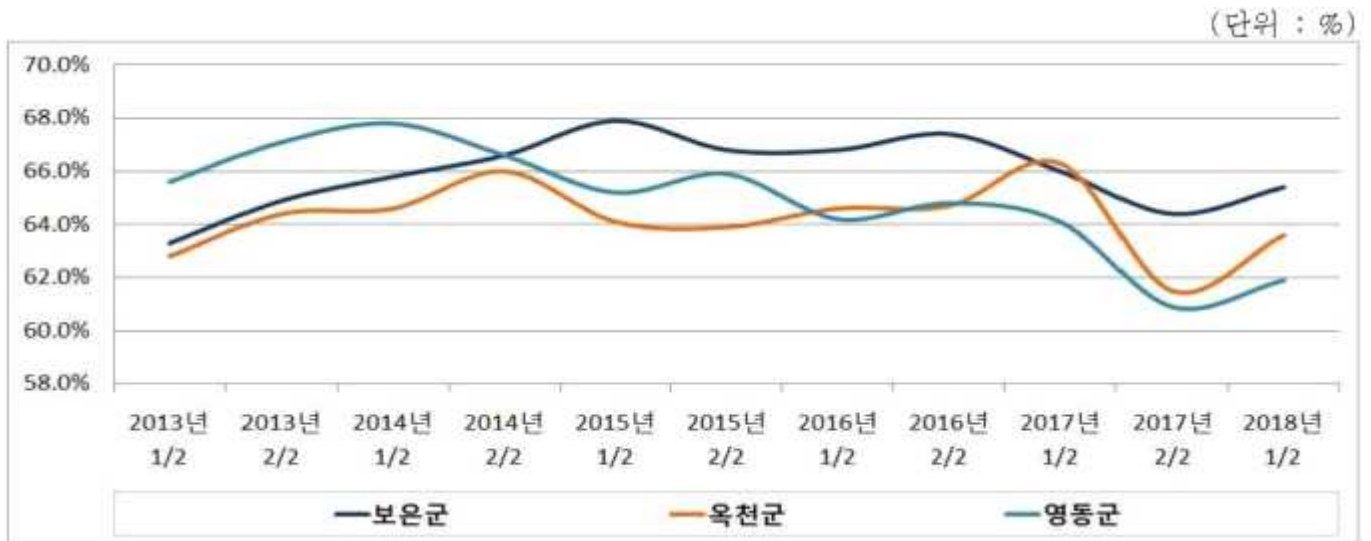
구분	전국			충청북도			보은군		
	2010	2015	2016	2010	2015	2016	2010	2015	2016
농림어업	2,354	3,288	3,638	118	187	233	9	20	20
	0.1	0.2	0.2	0.2	0.3	0.3	0.6	1.2	1.2
제조업	326,813	413,849	416,493	9,073	12,100	12,302	237	276	281
	17.7	19.4	19.0	15.2	17.5	17.3	16.8	17.1	17.2
숙박 및 음식점업	634,500	710,699	729,395	22,249	25,525	26,368	570	652	658
	34.3	33.3	33.4	37.2	36.9	37.0	40.4	40.2	40.2
기타 서비스업*	885,103	1,005,208	1,033,243	28,341	31,411	32,223	594	673	678
	47.9	47.1	47.4	47.4	45.3	45.4	42.2	41.5	41.4
합계	1,848,770	2,133,044	2,182,769	59,781	69,223	71,126	1,410	1,621	1,63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은군 통계연보

\* 기타 서비스업 : 정보, 기술, 사업지원, 교육, 사회복지, 여가, 개인

□ 경제활동 현황

- 2018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기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 2018년 상반기 고용률은 65.0%로 0.6%p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남부 3군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낮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은 0.5%로 0.4%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주 : 우측은 고용률, 좌측은 실업률임

고용률 및 실업률

자료 : 통계청

## 바. 건설 · 교통

### □ 주택매매거래량

- 2018년 11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은 39건이 거래된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 동월 대비 6건(18.2%)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주택매매거래량 추이

자료 : 한국감정원

### □ 자동차등록대수

- 2018년 11월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18,474대인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 동월 대비 464대(2.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 □ 지역 대표기업 현황

##### ○ (주)한화/방산 보은사업장

- (주)한화는 1952년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창업이념으로 삼아 설립된 한화그룹의 모태로서 축적된 화약기술을 바탕으로 1974년 방위산업에 진출했으며, 현재는 유도무기, 탄약 그리고 우주사업에까지 투자하여 국산 무기 첨단화를 주도하고 있음
- 서울 본사 외에도 대전, 경북 구미, 전남 여수, 충북 보은 등 4곳에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보은에서는 유도무기 탄두 조립과 공병 탄약을 생산하며 약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 (주)우진플라임

- 우진플라임은 2014년 10월 충북 보은군 장안면 약 21만 평 규모의 부지에 국내 최초로 사출성형기 전용사업장(우진테크노밸리)을 구축하고 사업장을 인천에서 보은으로 이전했음
- 2015년 3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12월에는 5,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음
- 우진플라임은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사출성형기 제조업체로서 기존의 유압식 사출성형기는 물론 전동식 사출성형기까지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계장비 전문업체로서 사출성형기는 플라스틱 수지를 넣어 갖가지 제품을 찍어 내는 기계를 말함
- 그릇, 완구, 화장품 용기에서부터 의료기기, 휴대전화 케이스 등 각종 정보기술(IT) 제품, 자동차 범퍼, 항공기 부품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전 분야에서 활용되며, 국내 사출성형기를 쓰는 기업 7000곳 중에서 5500곳 정도가 우진플라임 제품을 쓰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주요 고객임
- 현재 약 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이킴

- 이킴은 2005년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매출 280억원 및 7개국 1,400만 불 수출을 달성한 김치류 제조회사임
- 2014년 9월 (주)진미에서 (주)이킴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보은농공단지 및 보은삼승농공단지 2개의 공장이 있음
- 1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로부터 2016년 노인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018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음

□ 사업체 현황

- 2017년 보은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보은군 내 사업체수는 2,948개소이며 종사자는 12,394명으로 나타남
- 사업체수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9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658개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26개소, '제조업'이 281개소로 나타남
- 종사자수에서는 '제조업'이 3,288명(26.5%)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도매 및 소매업' 1,359명(11.0%), '숙박 및 음식점업' 1,307명(10.5%) 순으로 나타남

보은군 사업체 총괄

단위 : 개소, %

구분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계	2,948	100	12,394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20	0.7	125	1.0
광업	4	0.1	30	0.2
제조업	281	9.5	3,288	26.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0.1	65	0.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	0.3	98	0.8
건설업	154	5.2	880	7.2
도매 및 소매업	790	26.8	1,359	11.0
운수업	225	7.6	444	3.6
숙박 및 음식점업	658	22.3	1,307	1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0.8	102	0.8
금융 및 보험업	39	1.3	303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	1.7	91	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1.2	166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	0.9	114	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9	1.3	1,052	8.5
교육 서비스업	101	3.4	849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3.4	1,207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7	2.3	349	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6	11.1	565	4.6

자료 : 2017년 보은군 통계연보

- 한편, 통계청 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업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중 '기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은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농림어업' 순으로 나타남
- 전국과 충청북도 대비 보은군의 사업체수를 비교해보면 '기타 서비스업'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전국과 충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제조업'은 전국 대비 적은 사업체수 비율이지만 충북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농림어업'은 전국과 충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0년 대비 2016년 보은군 사업체수는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2015년)와 비교할 때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농림어업' 사업체수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보은군 지역산업구조(사업체수) 변화추이 현황 표

단위 : 명, %

구분	전국			충청북도			보은군		
	2010	2015	2016	2010	2015	2016	2010	2015	2016
농림어업	2,354	3,288	3,638	118	187	233	9	20	20
	0.1	0.2	0.2	0.2	0.3	0.3	0.6	1.2	1.2
제조업	326,813	413,849	416,493	9,073	12,100	12,302	237	276	281
	17.7	19.4	19.0	15.2	17.5	17.3	16.8	17.1	17.2
숙박 및 음식점업	634,500	710,699	729,395	22,249	25,525	26,368	570	652	658
	34.3	33.3	33.4	37.2	36.9	37.0	40.4	40.2	40.2
기타 서비스업*	885,103	1,005,208	1,033,243	28,341	31,411	32,223	594	673	678
	47.9	47.1	47.4	47.4	45.3	45.4	42.2	41.5	41.4
합계	1,848,770	2,133,044	2,182,769	59,781	69,223	71,126	1,410	1,621	1,63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통계청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은군 통계연보

\* 기타 서비스업 : 정보, 기술, 사업지원, 교육, 사회복지, 여가, 개인

## 나. 생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경제활동별	2013	2014	2015	2016
보은군 지역내 총생산	916,525	804,176	1,063,103	1,127,804
순생산물세	41,857	44,867	67,720	74,051
총부가가치(기초가격)	874,668	759,309	995,383	1,053,752
농림어업	124,306	127,605	155,020	117,152
광업	310	5,136	16,621	10,600
제조업	242,433	54,005	233,484	321,661
전기,가스,증기및수도 사업	928	1,190	1,816	1,977
건설업	49,429	101,639	86,506	85,157
도매및소매업	29,867	31,417	23,624	23,781
운수업	31,350	37,636	44,657	42,948
숙박및음식점업	16,583	17,382	20,527	22,630
정보및통신업	6,568	6,418	6,725	6,329
금융및보험업	41,723	44,613	46,774	51,310
부동산업및임대업	45,096	46,690	45,762	46,920
사업서비스업	6,488	13,875	9,132	8,864
공공행정,국방및사회 보장행정	172,899	193,535	206,783	210,110
교육서비스업	34,807	14,486	17,259	15,18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9,513	35,260	55,473	59,250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2,370	28,422	25,221	29,881



## 다. 고용현황

### □ 고용현황

- 2017년 보은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보은군 내 고용 현황은 총 12,394명으로 나타남
- 종사자 별로 '제조업'이 3,288명(26.5%)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359명(11.0%), '숙박 및 음식점업'이 1,307명(10.5%) 순으로 나타남

보은군 고용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사업체수	구성비	종사자수	구성비
계	2,948	100	12,394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20	0.7	125	1.0
광업	4	0.1	30	0.2
제조업	281	9.5	3,288	26.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0.1	65	0.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	0.3	98	0.8
건설업	154	5.2	880	7.2
도매 및 소매업	790	26.8	1,359	11.0
운수업	225	7.6	444	3.6
숙박 및 음식점업	658	22.3	1,307	1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0.8	102	0.8
금융 및 보험업	39	1.3	303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	1.7	91	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1.2	166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	0.9	114	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9	1.3	1,052	8.5
교육 서비스업	101	3.4	849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3.4	1,207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7	2.3	349	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6	11.1	565	4.6

자료 : 2017년 보은군 통계연보

## 라. 연구동향

### □ 보은 동충하초 대량생산 사업화 추진

- 도원홍초 동충하초는 지난 2014년부터 균을 자연에서 채취, 배양을 통해 대량생산의 길을 열어왔음
- 동충하초는 식용 및 사료용 원료로 사람에게서는 면역력 증강을 통한 노화방지와 각종암 등 질병예방에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아 그동안 각종 한약재, 음료 및 첨가제로 시장을 넓혀 오고 있음
- 도원홍초 동충하초를 발효해 소, 돼지, 닭, 계란, 염소 등 우제류에게 투여한 결과 동물 면역력을 높여 구제역 및 AI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육질과 맛 또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런 효과를 내는 주요 성분은 '코디세핀'으로 항암제의 표적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식품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높여 원형을 유지토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충남대 연구결과로 알려 졌으며 식약처에는 생리활성 물질 2급으로 등재되었음
- 이렇게 충분한 기술 확보와 약리성 증명, 가축의 구제역 및 질병예방 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과 AI가 극성을 부리면 농림식품부나 충북도 등이 그때만 잠시 반짝 관심을 보이면서 재배면적의 영세성과 가공, 유통, 판매망 구축에 있어서 자금력 등의 문제로 농가 보급에 애로를 겪었음
- 그러던 중 미래 먹거리 및 농업의 4차 산업화를 위해 블루오션을 찾던 서울 '세븐스톱 금융그룹'에 의해 눈에 띄며 투자를 받아 생산, 마케팅, 수출 등으로 확대에 나섬
- 그 첫 번째 단추로 생산기지는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에서 생산하고 청주시 오창읍에서 동충하초 재배농가 및 전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축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 전문 공장과 판매장을 오픈 하였음
- 이것을 시작으로 (주)알파세븐은 무항생제는 기본으로 동충하초의 주성분인 '코디세핀'을 함유한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협과 협력해 전문점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원홍초 사료를 급여하는 축산농가에는 장려금을 지원해 농가소득도 높이고 국민들의 먹거리 걱정을 덜어 준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세븐스톱 금융그룹은 동충하초 발효 사료는 기존에는 가루형태로 사료와 함께 급여했지만 앞으로는 첨단기술을 접목해 간편하게 하루 분량의 양을 캡슐에 담아 급여하는 등 과학적인 연구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하였고, 무한 가능성이 있는 농업의 블루오션을 찾아 4차 산업으로 확대해 국민들에게는 안심축산물을 제공해 먹거리 걱정을 덜고 농가에는 가축질병에서 해방시키고 해외 수출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주)알파세븐이 가진 기술력에 금융 및 컨설팅을 더해 농업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 할 것을 약속함

- 현재 보은에서는 한우사육 8농가가 도원홍초 발효 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며 이 농장에는 초기 농장 안정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또 이렇게 사육된 한우는 음성도축장에서 따로 도축해 농협 매장에서 판매될 계획이며, 보은에서는 보은한우 전문식당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임
- 동충하초는 다른 버섯과는 달리 곤충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고 겨울에는 죽은 곤충의 몸에 기생하지만 여름이 되면 버섯으로 성장함
- 동충하초에는 에르스테롤과 만니톨 성분이 있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인체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체력향상, 감기, 천식, 만성기침, 폐결핵, 고혈압과 당뇨, 혈액순환, 간 해독, 아토피 완화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동충하초에서 추출한 '코디세핀' 성분이 각종 암에 대한 표적제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성분으로 가축용 사료로 만들어 시험 사육한 결과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구제역과 AI 유행 당시에도 발효 동충하초 사료를 급여한 농가는 피해를 입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은재배지에 실사단을 파견해 자료요청 및 효과 조사를 하는 등 향후 농업과 축산업계의 면역력 향상을 통한 질병예방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음

## □ 미꾸리 치어부화 성공

- 보은군의 역점사업이었던 미꾸리 치어부화가 일단은 성공하여 1차 관문을 넘었음
- 우리나라 열대관상어 양식의 40%를 차지하는 선두주자로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와 보은군이 3억, 동명양어장이 9억 원을 자부담해 미꾸리 치어부화에 도전해왔음
- 보은군은 미꾸리 치어 부화에 성공할 경우 2개월을 길러 농가에 분양시켜 농가소득 및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명양어장에 의뢰하였음
- 해당 기업은 80회의 번식 시도 끝에 치어 부화에 성공하고 생존에 가장 큰 고비인 2개월을 넘기고 생존율이 95%에 달하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미꾸리는 바닥에 몸을 붙이고 좌우로 몸을 움직이며 몸속의 먹이를 소화시키는 특이한 방법으로 물속의 산소농도가 떨어질 경우 피부호흡으로 30% 가량을 충당하고 수온이 25도일 때 가장 성장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춘 양식에 까다로운 물고기임
- 또한 물속의 질산성 질소에 민감하여 화학비료, 우분 등의 수치가 올라가면 집단 폐사하는 등 수질에 민감하게 반응함

- 미꾸리는 특별한 시설 없이도 논 등 자연생태양어장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종으로 알려져 왔으나 종묘를 자연에서 포획해 일정기간 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기에 지금까지 종묘생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가 분양 및 대향사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이에 보은군은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일정하게 종묘만 생산된다면 치어를 농가에 분양해 농외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치어 양식에 성공하였으나 아직 넘어야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임
- 우선 치어 생산 성공 시 20가구에 우선 분양이 목표였지만 보은지역에서 생태양어장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농약, 비료, 우분, 수질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주변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농가의 소득종목으로 육성을 위해선 최소 500~1,000평 규모가 필요하며 시설비 및 사료값 등을 더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적당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 보은군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100ha의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오는 2023년까지 매년 20ha씩 확대하는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엔비사과는 뉴질랜드가 사과품종 개량을 목적으로 개발한 품종으로 클립폼종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중에 있는데 이는 재배는 농민이 하고 수확, 포장, 유통 등을 계약재배 회사가 전량 책임지고 매입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장기간 저장에 따른 부담 및 손실을 줄이고 판로 개척 등의 걱정을 덜며 가격 등락이 심한 공판장 출하보다 높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엔비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일반 사과에 비해 당도가 높아 장거리 수송 및 수출에 유망한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갈색무늬병, 탄저병의 저항성이 높아 병해 관리가 쉬운 장점으로 시장경쟁력이 높음
- 보은군은 이러한 엔비사과 재배신청 농가에 재배적지, 생산기반, 사업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함
- 생명산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인 엔비사과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로 구성되어 사과과원조성,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과수생산기반시설, 원예생산기반시설, 지주목 설치, 야생동물 방지지설, SS기계, 승용제초기 등 농기계와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함

## □ 보은대추 쌀막걸리 특허 및 세계화 추진

- 대보 영농조합법인은 보은 대추를 활용한 먹거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 2007년 보은대추 쌀 막걸리 특허출원하여 시판하게 되었음
- 현재 보은지역의 대표 먹거리 사업으로 2010년 현대화 설비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생산 시판이 진행되어 특히 보은대추축제 기간 동안 시음행사 진행 등으로 인지도를 넓혀왔음
- 보은 대추 쌀막걸리는 우리쌀 100%와 보은 대추가 주원료로 입국부터 사입실(숙성실)에서 3~4일간 자연 발효 후 주모를 당화과정을 거쳐 완전 발효 시킨 뒤에 제정단계를 거쳐 10일간 숙성과정 속에 탄생됨
- 현재 보은대추축제의 최고 인기상품으로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박람회, 전통축제 등에 시음 행사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춰 현재 일본, 대만 시장으로의 수출을 진행 중에 있음
- 일본, 대만 등지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 외 동남아시아와 미주, 유럽지역 등 세계 각지로 수출 활로를 개척 중임

## 마. 기업 투자동향

### □ 신우코스텍(주) 43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 신우코스텍(주)는 30년간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공장자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오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6년 보은군과 연을 맺어 현재 보은공장에서 3D 플라스틱 성형용기 및 성형기계를 생산하고 있음
- 금번 투자협약으로 신우코스텍(주)은 총 5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19년 1월 보은 1공장에 150억 증설 투자협약에 이어 보은산업단지 2공구에 2공장을 430억을 투자해 신설할 계획임

### □ 농협 생명자원센터 유치

-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각지의 회원 농축협과 연계하여 산지, 도매, 소매 등 모든 유통 채널을 아우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농축산 유통기업임
- 보은군은 지난 2019년 4월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도지사, 정상혁 보은군수,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등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억원 규모의 '농협 생명자원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함
-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농협 경제지주는 투자 이행 및 투자규모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자재 구매, 지역민 우선채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약함

- 이번 협약으로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농협직영 11개 도축장에서 1차 처리 후 정제한 동물혈액으로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과정을 통해 고급 사료 원료 및 식품첨가제를 생산하는 '농협생명자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임

#### □ (주)한국카본, (주)한국신소재 보은산단 신재생사업 SPC 1,735억원 투자

- 보은군이 보은산업단지에 (주)한국카본, (주)한국신소재, 보은산단 신재생사업 SPC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73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 (주)한국카본과 (주)한국신소재는 건축자재 및 자동차, 항공, 선박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은산업단지에 3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은산단 신재생사업 SPC는 보은산업단지 내 20MW급 신재생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중부발전, 호반건설, 대화건설, 드림엔지니어링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1,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특히 2018년 100MW급 연료전지 발전 투자에 이어 20MW급 신재생발전시설이 유치되어 향후 신재생산업육성의 성장거점지역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임

#### □ (주)키코로 200억 규모 투자 '장마늘' 조성

- (주)키코로는 전국 판매망을 갖춘 유통전문업체로 보은군에 2022년까지 5년간 200억 원을 전통장류공장 신축 투자를 협의함
- 총 투자금 200억 원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제조하는 '전통장류공장'과 절임류, 약선식품 등 생산하는 전통식품 공장 그리고 '전통 장마늘' 조성에 투자될 계획임
- 향후 전통장류공장이 신축되면 농가에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가능해지며 업체는 원료 수급 원활화의 효과와 신규 일자리 창출 126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바. 혁신자원 현황

###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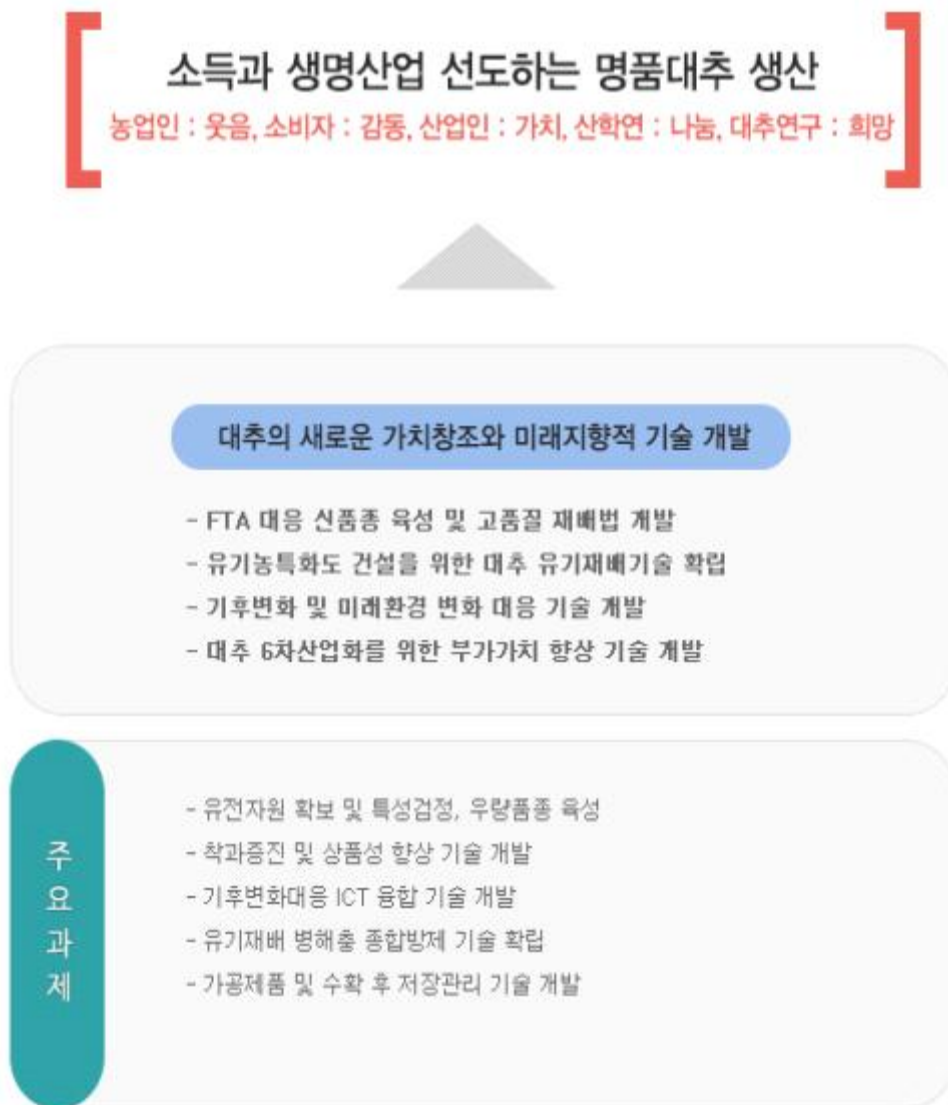
○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전국제일의 명품대추와 쌀, 사과, 한우 등을 집중 육성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주요시설

- 농기계임대사업소 :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 소형농기계부터 중·대형 부착작업기 중심으로 확보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
- 토양검정실 : 작물 재배를 위한 작물에 필요한 토양의 이화학적 기본특성과 유효성분 함량 분석, 작물재배 전에 작물별로 화학성분들의 필요한 시비량을 예측해주며, 비료의 사용여부, 비료의 종류와 시비량 등을 추천하여 양분의 과다·결핍을 사전에 예방
- 과수인공수분센터 : 개약기, 약채취기, 약정전기, 화분정전기 등 채취시설을 갖추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인공수분을 할 수 있도록 인공교배기 20대, 미스트기(엔진형) 7대, SS기 장착형 5대를 화분매개 활용과 수분요령에 대한 지도와 함께 농가에 대여
- 친환경미생물공급 : 농업용, 축산용 미생물을 농가에 제공하여 병해예방, 당도증가, 저장성 증대, 유기물 분해, 가스제거 등의 효과 창출

- 상록수교육관 : 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농업인교육장 신축으로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새 기술 신속 보급, 농업인대학, 귀농·귀촌 교육,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충북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비전 및 전략목표

-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에 위치한 대추연구소는 충청도와 보은군이 대추연구소를 통해 대추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기술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능

- 고품질 대추 신품종 육성 연구
- 대추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 대추 친환경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 대추 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산학협동 및 기타 대추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 보은군 삼승면에 위치한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는 보은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보은군 전략사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총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함

○ 기능

- 중소기업 창업 및 연구 지원
-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성의 공동 이용
-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지원 및 육성사업 지원
- 생산 및 실용화 사업 지원
-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1에 위치한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보은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조직도

○ 기업과 인재의 성공 취업 파트너 ONE-Stop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 보은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취업, 일자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상담 - 훈련안내 - 취업알선 - 사후관리)를 추구하는 전문고용서비스 기관임
- 기업과 인재의 성공취업파트너를 목표로 보은군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채용 정보 제공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음

## 사. 정책지원현황

### □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공시

- 보은군이 고용률 73.5%를 달성하기 위한 '2019 일자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임
- 이는 지난해 고용률 실적 73%보다 0.5% 높은 수준임
- 군은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보은군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2019년 4월 공시하였음

보은군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비 전	천지개벽의 일자리 현장 충북 보은군	
⇓		
민선7기 일자리목표 (2020년)	전체 고용률 74.2% 달성! 일자리 2,715개 창출	
⇓ ※ 1%(증) 목표		
2019년 일자리목표	전체 고용률 73.5%달성 일자리 2,689개 창출	
⇓		
5대 핵심전략	10대 실천과제	65개 세부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통한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업경쟁력 향상</li><li>산업단지 특화일자리</li><li>사회적경제육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기업의 일자리창출 경쟁력 강화</li><li>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li><li>사회적경제육성 통한 일자리창출</li><li>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강화 등</li></ul>
주력산업 특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능형농산업발전</li><li>대추·한우사업 브랜드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농산업 유통 지원 강화</li><li>대추산업 글로벌화 가속화</li><li>보은한우 경쟁력 확대 등</li></ul>
지역 계층별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청년일자리 확대</li><li>경력단절여성지원</li><li>중장년 및 취약계층 지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청년층 취창업지원</li><li>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li><li>중장년 재취업지원</li><li>다문화 가정취업지원</li><li>취약계층일자리지원 등</li></ul>
보은형 문화체육 및 관광을 통한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체육 및 관광 강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은형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li><li>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li><li>스포츠산업 특화 관광문화 확대 등</li></ul>
공공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공분야 일자리 연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회간접자본효과적 지원을 통한 공공 분야 일자리창출</li><li>특색 있는 직접일자리사업 추진</li><li>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li></ul>

#### □ 보은 대우·한우 특구 지정

- 보은군은 대추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보은 대추·한우 특구」로 지정받았음
- 보은군은 명품 대추생산지구 조성사업, 보은대추 브랜드 마케팅, 보은대추축제의 정기적 개최 및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 및 교육, 대추 가공식품 개발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 그동안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에도 청주권과 타시군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단계 사업을 통해 보은군은 창업지원 및 R&D센터 건립, 대추명품화 집단시설 개선, 보은대추 한정식 개발, 대추홍보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동부산업단지 조성, 스포츠파크 조성 및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음
- 현재 3단계 사업 추진 중으로 지역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웰빙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유동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 도내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보은군은 지역개발사업을 토대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공모사업비 72억원 확보

- 보은군은 2019년 1분기에 중앙과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총 12개 분야에서 모두 71억 8,300만원의 상사업비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음
- 2018년 같은 기간 중앙과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9건이 선정돼 46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에 비해 건수로는 133% 증가하고 확보한 사업비로는 155% 증가한 수치임
- 중앙부처의 주요수상 내역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19 전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취약지역개조사업 공모사업' 등으로 중앙에서 총 8건이 채택되어 26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음
- 도단위에서도 '2018년도 농특산물 판매 우수시군 평가', '기업정주여건 개선공모 사업' 등 총 4건에 45억 2,2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수상하였음

#### 나. 드론 상설 실기시험장 운영

- 중부권 드론 자격증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관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실기시험장을 운영함
- 드론조종사 증명제도는 현행 항공안전법 125조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상업목적으로 12kg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보은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용협약을 체결해 스포츠파크 일원에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운영할 계획임('19년 1월)
- 드론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드론조종자 증명 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거점별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을 운영하고자 함

#### 다. 보은산단 세계 최대 연료전지발전소 조성

- 보은산업단지에 세계 최대규모의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임
- 충북도청에서 '보은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진천그린에너지 발전소 80MW를 넘는 100MW급 세계 최대연료전지발전소로 공사 기간은 총 15개월이며, 운영은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운영될 예정임

- 6천 368억 원의 총 공사비가 투자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보은에 건설되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연료전지 3세대 기술로 미국의 블룸에너지사의 독점기술인 고체산화물(SOFC)을 이용한 고효율, 친환경적인 미래에너지 시스템임
- ㈜한프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832G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충북 전체전력 소모량의 3.5%이며 보은군 전력 소모량의 100%를 충당 가능한 발전량에 해당함
- 연간 전력판매 금액은 총 2천 122억 원으로 20년간 약 4조 2천 44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됨
- 발전소 건립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으로 매년 약 15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어 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기간 동안 약 2,500명 정도의 건설인력 채용과 상시근로 30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다.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 보은군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
- 보은군은 5년간 엔비사과 재배단지 100ha조성을 목표로 신청을 받아 현재 18ha 면적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매년 20ha씩 확대한다는 계획임
- 엔비사과는 뉴질랜드가 사과품종 개량을 목적으로 20여 년간 공을 들여 개발한 품종으로 클립품종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음
- 클립품종 관리 시스템은 재배는 농민이 하고 수확, 포장, 유통 등을 계약재배 회사가 전량 책임지고 매입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장기간 저장에 따른 부담 및 손실을 줄이고 판로개척 등의 걱정을 덜고 가격 등락이 심한 공판장 출하보다 훨씬 더 높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엔비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일반사과에 비해 당도가 18브릭스까지 나와 장거리 수송 및 수출에 유망한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음
- '엔비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과 생산량 및 수입과일 증가에 대응하고, 생산과 유통을 분리한 새로운 유통체계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은군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농업인은 수확 이후 관리, 농산물 출하 작업의 노동력 부담이 없으며, 전량 관리업체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심한 공판장 출하에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음
- 보은군은 이러한 엔비사과를 전략육성 및 수출품목으로 선정하고 지난 2017년 업무대행사인 (주)에스티아시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 한국에서는 보은군과 경북 예천 충남 예산 등 일부 지역에서 앤비사과를 재배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음
- 보은군은 2019년 앤비사과 재배신청 농가에 재배적지, 생산기반, 사업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3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생명산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인 앤비사과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로 구성돼 있으며 사과과원조성,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과수생산기반시설, 원예 생산기반시설, 지주목 설치, 야생동물 방지시설과 SS기계, 승용제초기 등 농기계와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함
-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앤비사과 재배 면적을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ha씩 늘려 1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삼승면 보은산업 단지 내 부지에 산지와수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해 현재 사업계획서를 충북도를 거쳐 농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한 상태임
- 산지와수유통센터 건립은 공모사업으로 약 152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센터 안에는 선별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예냉고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완공되면 충북원예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앤비사과는 물론 지역 과수의 안정적인 집하, 선별, 보관, 포장, 출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흉작과 풍작 어느 때나 걱정을 해야만 했던 과수농업의 근본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음

## 라. 보은종합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선정

- 보은종합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18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부문에 선정됨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정형화된 관 주도 방식의 사업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아이디어를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고민 후 사업을 제안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상향식 프로젝트 방식임
- 2019년 2월까지 3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들여 5대 기본 핵심과제인 편리한 지불결제, 가격·원산지 표시, 친절·청결 등 3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추가적으로 상인조직, 시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2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시장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해 기초수준(특성화 첫걸음)과 심화수준(희망사업 프로젝트)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전개할 방침임

## 마. 지역특화 육상토탈 매니지먼트 사업 본격 실시

- 보은군은 스포츠와 관광, 의료가 융·복합된 지역특화 육상토탈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지역특화 육상토탈 매니지먼트 사업은 협력기관과 더불어 육상 체험 프로젝트와 육상 전문 프로젝트로 구분됨
- 미션러닝과 오리엔티어링은 나침반과 지도를 갖고 지역 곳곳에 산재한 문화재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이며, 재활 및 체력관리 프로그램은 하계 전지훈련 기간에 '케냐 선수들과 함께하는 속리산 전지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선수단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의 도움을 받아 약 20일간 스포츠파크 체육회관 2층에서 선수들에게 물리치료·스포츠마사지·보강운동·재활상담 등 최상의 재활 및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

## 바. 속리산 마늘 재배단지 조성에 3억원 투입

- 충청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지역별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함
-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해 예산, 핵심기술,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하고 특화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농업 활성화와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9년에는 보은군의 '속리산 고품질 마늘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3억 원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사. 대한민국 최대 유통기업 유치

- 보은군에 축산바이오산업을 이끌 최대 유통기업이 유치되었음
- 2019년 4월 보은군은 약 190억 원 규모의 농협생명자원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음
- 충청도와 보은군은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농협경제지주는 투자 이행 및 투자규모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자재 구매, 지역민 우선채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최대한 힘쓰기로 협약하였음
-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각지의 회원 농축협과 연계하여 산지, 도매, 소매 등 모든 유통 채널을 아우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농축산물 유통기업임



- 금번 협약으로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농협직영 11개 도축장에서 1차 처리 후 정제한 동물혈액으로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과정을 통해 고급 사료 원료 및 식품첨가제를 생산하는 '농협생명자원센터'를 2021년까지 보은산업단지에 신설할 예정임

## 아. 보은대추, 코리아 탐 어워드 브랜드 대상 수상

- 보은대추는 '2019년 코리아 탐어워드' 시상식에서 특산물 브랜드 부분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달성했음
- 한국언론인협회, 서비스마케팅학회가 주최하고 코리아탐드어워드 운영사무국이 주관한 이번 상은 각 부분별로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이미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지난 2019년 4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음
- 보은군은 그동안 '대추는 과일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대추로 소비되던 대추시장을 생대추로 전환시켜 우리나라 대추시장의 판도를 바꾼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 또한, 생대추 생산에 특화된 비가림 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선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추대학을 운영해 개별농가의 재배기술 수준을 높이는 등 전문농업인을 육성한 점도 보은대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했음
- 특히 매년 보은읍 일원에서 10일간 열리는 보은대추축제는 보은군 공무원들과 각급 사회단체 등 많은 군민이 자원봉사로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한 결과 2018년 90만 명 방문, 50여종 농특산물 95억 원 판매라는 대성공을 거둔 점이 크게 부각됐음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가. 보은군 경제활성화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황

- 보은군은 대추를 중심으로 속리산 사과, 배, 쌀, 한우 등의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보은군의 특산물은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보은대추축제 등의 지역 축제 활성화를 통해 보은군의 농업을 육성하고 있음
- 이러한 보은군의 농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 상황 속에 보은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산업과 결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나.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 추진에는 한계점이 존재, 2차 산업의 유연성 및 발전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 성장에 초점 필요

- 현재 보은군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보은대추축제에서 보은의 대추 판매와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하지만 보은대추축제 기간 외에 추가적인 홍보 방안 및 관광활성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보은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대추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진행 중임 (군위군 의흥 대추공원, 경산군 경산대추축제)
- 보은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농산물 판매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2차 산업과 보은군의 농특산물을 연계한 신규 산업 개발이 필수적임

### 다. 2차 산업 중에서도 “중소”, “법인” 이 키워드가 된 산업진흥 필요

- 보은군만의 독창성 및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농특산물 가공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상 상품에 대한 유연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분석됨
- 특히 보은군 내에 입주해 있는 식품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보은군 농특산물 가공식품 연구개발 진행할 시 내 자체 산업 기반시설 확장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원물가공식품 산업

###### □ 국내

###### ○ 식품에 대한 규제합리화 전개

- (제품이 아닌 '인체' 중심 유해물질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흡입·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였음
  - 개정안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대상 및 수행, 위해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임
  -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일반식품 건강효과 표시허용 예정) 2019년 3월 제정·공포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도 건강상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TF를 운영해 식품표시법 하위 규정에 건강상의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을 담을 예정임
  - 식약처는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시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을 명확히 할 계획임
  -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기법을 도입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생산지역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는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했음
  - 수입관리 단계에서는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춰 수입 건강기능식품에도 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음
  -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분

금지 규제(조합, 분할) 완화 등 시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 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음

- (80g 이하 건기식 포장규제 미적용) 과대포장을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재포장이 금지되지만, 소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포장규제가 완화됨
  - 환경부는 소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장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함
  - 개정안은 내용물 80g 이하 건강기능식품과 30g 이하 소량 제품에는 포장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 기존에는 완충·고정재를 사용할 때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해 포장공간 비율을 산정토록 했으나,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해 과대포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산수치를 5mm로 축소했음
  -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을 측정할 때에는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했음

## ○ 중소 식품기업 육성정책 전개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202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 식품기업 육성정책을 전개하고자 함
  - 식품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5대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음
  - 농식품부는 가정간편식(HMR)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개발, 식재료 및 포장 등 연관산업 성장기반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성과중심의 R&D 지원체계 구축,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식품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중소식품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 외식업 경영안전망 구축, 협력·발전모델 발굴 등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
- (농공상융합형 중소식품기업 육성정책) 농공상융합형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농어업부문의 신사업 기회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함
  - 2011년도에 정부가 마련한 농공상융합형 중소식품기업 육성전략의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문별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농공상융합형 중소식품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음
  - 농공상융합형 기업에게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13년부터 배정되었음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었음
- 2017년도에 중소식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배정된 총 예산 77억8백만 원의 11.7%에 해당하는 9억 원이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 육성 사업에 할당됨

####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 육성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00	600	600	420	900
지정사업 관리	80	50	50	30	65
찬들마루 지원	-	-	80	160	108
홈쇼핑 입점 지원	-	-	90	49	124
바이어 상담회	-	100	80	60	32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390	180	180	45	276
해외 판로개척 지원					230
홍보 및 사업관리비	130	150	120	76	65
기타(직무교육, 연구용역)	-	120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해외

### ○ 중소 식품기업 육성정책 전개

- (일본, 농상공 제휴촉진 제도) 일본은 2008년도에 '농상공 등 제휴 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을 근거로 농상공 제휴기업에 대한 지정(인정), 관련 법률의 특례를 적용한 정부의 정책적인 금융지원 및 신용보증, 조세특례,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EU, 중소기업 지원정책)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중소기업을 최우선한다는 원칙(Think Small First)에 기반하여 중소기업과 관련한 제반 정책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채택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법(SBA)에 준하는 지원 정책들은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을 기본으로 함
  - 동 중소기업법(SBA)의 10대 원칙으로는 ① 기업가정신 고양, ② 재기의 기회 제공, ③ 미소기업 우대, ④ 수요지향형 행정, ⑤ 공공부문 조달접근, ⑥ 금융자금 접근, ⑦ EU단일시장, ⑧ 기술과 혁신, ⑨ 환경의 도전을 기회로, ⑩ 국제화 지원임
  - 유럽연합의 공통적인 중소기업정책 중점 추진 및 지원 분야는 (1)투자 및 성장을 위한 금융 접근 여건 개선, (2)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3)역내 시장(Internal Market) 지원, (4)기업가 정신, (5)

고용 창출 및 동반 성장 촉진 등임

- 유럽연합의 국가별 중소기업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대비 한국의 중소기업 비중은 99.4%, 부가가치 비중(제조업 부문)은 2011년 47.3%, 2012년 47.7%로 중소기업 비중은 비슷하나 부가가치는 유럽연합의 평균수준(56.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 농식품 혁신 정책) 네덜란드는 세계 각국의 농업·바이오 집중 육성 사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가진 국가임
  - 네덜란드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EZ)는 2010년 이후 선도 산업정책(Top Sector Policy)을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관련 자금을 수출주도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각 선도 산업의 R&D 발전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NWO)을 통해 TopSector R&D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집행된 금액 중 Top Sector 연구개발과 관련된 금액은 총 2억 750만 유로에 달하였으며, 2016년~2017년 중에는 5억5천만 유로가 집중 투자될 예정이었음

## ○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 (프랑스, 건강·영양프로그램 새 권고사항 추가) 최근 프랑스 국립보건기구에서는 프랑스인의 건강·영양 프로그램(PNNS, The Frenc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Programme)과 2019년 트렌드를 주도할 건강식품군을 발표했음
  - 프랑스인의 건강·영양 프로그램은 국민들의 건강한 식단과 균형 잡힌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2001년에 처음 발행되었음
  - 지난 2019년 1월에는 식품군별로 적절한 섭취빈도를 권장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 또한 프랑스 국립보건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성인인구의 과반수가 과체중 혹은 비만이며, 이러한 현상은 10여 년째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프랑스 국립보건기구는 심각해지는 비만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만세를 도입하는 한편 설탕과 지방이 과다 함유된 식품에 붉은색 라벨을 부착하는 유색코드제를 시행중임
  - 그 일환으로 최근 프랑스인의 건강·영양 프로그램에는 발간 이래 최초로 영양점수 라벨링이 추가되었음
  - 가공 식품에 부착된 영양점수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영양등급을 식별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가공식품의 영양점수는 최고점수 -15에서 최하점수 +40까지 구분되며, 이러한 검사결과에 따라 가공식품의 건강함을 연두색에서 진한주황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의 색상의 라벨로 구분됨
  - 최고등급의 가공식품은 -15점, 녹색(A)라벨이며 최하등급은 +40점, 진한주황(E)라벨임
  - 영양점수 라벨링은 프랑스에서 2017년에 고안된 이래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 (미국, GMO 식품 표기법 최종 확정) 2018년 12월, 미 농무부(USDA)는 GMP 식품 표기법의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음
  - GMO식품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시켜 만든 식품으로 콩, 옥수수, 감자 등 농작물의 면역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품종을 개량한 작물을 원료로 함
  - 법안에 따라 GMO로 만든 식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소매로 식품을 판매하여 라벨을 붙여야 하는 업체는 해당 식품의 포장에 이를 표기해야 함
  - GMO가 아닌 ‘생명공학’식품으로 표기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따라 ‘Bio-engineered’ 또는 ‘BE Foods’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음
  - 표기법은 다양한데, 문구·심벌·전자, 디지털 링크(QR코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 또는 작은 포장 제품의 경우, 전화번호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 다만 식품의 재배·수확 또는 유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유전물질이 식품에 포함되는 경우, 유전물질이 5% 이하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GMO 라벨 표기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GMO 작물을 원료로 사용했지만 최종 제품에서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도 라벨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전자 변형 사료를 섭취한 가축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우유, 달걀 포함)도 제외됨
  - 해당 규정은 2020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25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체에서는 2021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단 2022년부터는 모든 업체가 본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 수입 식음료 문호확대 국가 증대

- (수입식품 개방잠재력 매우 큰 미얀마) 미얀마는 반세기가 넘는 군사통치 기간을 종식시키고 2010년에 민주정부가 들어섰음
  - 이와 함께 나라 경제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았으나, 외국자본의 유입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정서로 인해 현재에도 산업과 경제는 낙후되어 있음
  -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것이 식음료분야이며, 수입주류의 판매금지는 심각한 수준임
  - 주류업계와 정부의 오랜 줄다리기에 끝에 일부 고급호텔과 면세점에서 수입주류 판매를 허용했으나 아직 대다수 주류 매장에서의 판매금지 조치는 여전히 존재함
  - 이에 일부 주류매장에서는 값싼 미얀마 위스키 뒤에 수입주류들을 숨겨놓고 지인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
  - 금지령 단속 이후 현지 가게들은 하루에 15%의 매출이 하락했다고 함
  - 아직은 미얀마의 경기 국면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미얀마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수입 식음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미얀마어 라벨 의무부착) 발표, 유통업(소매) 분야의 외국자본 투자허용 등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 미얀마 곳곳에서 변화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식음료 분야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성장을 위한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임
-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다양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 (해외직구 문 활짝 연 중국) 지난 2018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해외직구 수입정책을 연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함
  - 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 해외직구 정책이 적용되는 도시도 22곳이 추가되며 북경, 심양, 남경, 무한, 서안, 샤먼 등 22개 도시에 해외직구 종합 실험구를 새롭게 설립할 예정임
  - 현재까지 해외직구 정책이 적용되어 온 도시는 천진, 상해, 항주, 닝보, 정주, 광주, 심천, 충경, 복주, 평담, 합비, 청두, 대련, 칭다오, 소주 등 15개 도시임
  -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직구 수입상품은 수입화물로 취급해 종합세를 부과하는 한편 대다수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수요를 감안하여 1회당 거래금액 한도를 기존의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1인당 연간 거래금액 한도도 2만 위안에서 2만 6천 위안으로 상향조정함
  - 향후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이 금액은 재조정될 예정임
  - 거래금액 한도 내 해외직구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 적용하고 수입 시 증치세와 소비세에 대해서는 법정 납세액의 70%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임



## 2. 경제/산업 동향

### 가. 원물가공식품 산업

#### □ 국내

- **(개요)** 웰빙트렌드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식품유형인 원물 가공식품은 식품공전에 별도의 정의 및 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매시장에서도 아직 명확한 정의와 분류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견과류나 과일 등을 원물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식품'으로 지칭하고 있음
  - 시장에서 출시된 제품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원물 가공식품을 정의해 보면, 원물 가공식품이란 '첨가물을 포함하지 않고 거의 원물만을 이용하여 단순 가공처리 한 가공식품 유형으로 주로 간식으로 편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정의함
- **(원물 가공식품 주요 제품 생산 증가세)** 과채가공품(건조 과채류)의 생산액은 2010년대비 2016년에 50.7%(2,228억 원→3,357억 원)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은 354.2%(892억 원→4,052억 원), 건조 고구마가 포함된 서류가공품은 401.2%(202억 원→1,015억 원) 증가함
  -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과일 및 채소류, 견과류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포장 원물 가공식품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음. 그에 따라 생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건조저장육류(육포)의 경우, 공식적인 생산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4년 이후의 실적을 보면 두드러진 증가세는 없이, 2천 톤 후반대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수출 상승세)** 원물 가공식품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866톤에서 2016년 3,539톤으로 최근 10년간 약 4배 증가함
  - 같은 기간 수출액은 342만 달러에서 3,162만 달러로 약 9.2배 증가함
  - 각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 확대 노력 및 한류의 복합인 영향으로 인해 원물 가공식품의 수출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15년부터는 수출이 다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데, 이는 '허니버터 아몬드'의 중국 및 홍콩 등 아시아권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같은 기간 수입량은 6만 4,131톤에서 8만 8,105톤으로 37.4%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81.6% 증가함

- 원물 가공식품의 주요 구성품인 땅콩,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과 같은 견과류 가공품과 건포도, 건자두, 건파인애플, 건망고 등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국내에서 원물 가공식품 시장이 형성되기 전부터 꾸준히 수입되고 있어 수입과 수출 규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판매현황)** 원물 가공식품은 대부분 B2C 시장으로 유통(95% 이상)되고 있으며, B2B로의 유통비중은 5% 이하임
- **(주요 소매채널 중심 판매 규모 증가세)** 주요 대형소매채널(대형할인점 3사, 체인슈퍼 4사)의 원물 가공식품 판매 규모는 2016년 기준 5,367억 원으로, 2014년 3,826억 원 대비 40.3% 증가함
  - 2016년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견과류(71.4%)이며, 이어서 맛밤류(13.2%), 육포(9.6%), 건조 고구마 및 건조 과채류(5.7%)로 나타남
  - 특히 최근에는 육포가 술안주 및 등산 간식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로 인해 매출규모가 2014년 326억 원에서 2016년 517억 원으로 58.5% 증가함
- **(소비시장 특성)** 원물 가공식품 시장은 원물 100%의 무첨가물 원물 가공식품 인기, 믹스(mix) 제품의 인기 증가, 여름 시즌 소비 증대를 위한 원물 가공식품 제품 등장이 주요 변화 요인으로 나타남
- **(원물 가공식품 대표 소비상품은 견과류 가공품)** 처음 먹어본 원물 가공식품 제품은 무엇인지 조사해 본 결과, 견과류 가공품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육포류(30.4%), 과일/견과류 등 믹스제품(14.4%) 등으로 나타남
  - 2017년에 구매 경험이 있는 제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견과류 가공품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육포류(23.8%), 과일/견과류 등 믹스제품(19.9%) 등으로 나타남
  - 견과류 가공품이 원물 가공식품의 대표 소비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물 가공식품은 건강한 영양간식)** 원물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일반 간식에 비해 영양적으로 건강한 간식이라서'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과일, 고구마 등을 대신해서 간편하게 먹기 좋아서'라는 응답(21.0%)이 이어서 나타남
- **(여성은 간식으로, 남성은 간식 외에 술안주로)** 원물 가공식품은 주로 언제 소비하고 있는지 조사해 본 결과, '오전, 오후 등 출출할 때 간식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여성(79.2%)과 40대(73.0%)가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13.6%)과 30대(11.0%)가 술을 마실 때 안주로 먹는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원물 가공식품으로 인식되는 원물 비중은 80% 이상일 때)** 원물 가공식품은 제품 별로 원물의 비중이 상이하지만, 원물의 비중이 최소 몇 % 이상일 때 원물 가공 식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의 35.2%가 90% 이상이라고 응답함
- '80% 이상일 때'라는 응답이 22.4%로 나타나, 80%~100%에 대한 응답 비중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69.8%가 최소 원물 비중이 80% 이상일 때 원물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해외

- **(세계 시장은 소폭 성장세)** 세계 원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10억 달러이며, 2012년 208억 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준임
  - 그러나 서양권에서 아시아로 원물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2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2016년 기준 미국의 원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97.2억 달러이며, 2012년 83.4억 달러 대비 16.5%의 성장률을 보이며 점차 증가 추이를 나타냄
  - 견과류 가공품(Nuts, Seeds and Trail Mixes)은 미국 원물 가공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견과류 가공품은 2016년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원물 가공식품 시장은 2021년 115.9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2016년 기준 중국의 원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71.7억 달러이며, 2012년 49.6억 달러 대비 44.7% 증가함
  - 견과류 가공품(Nuts, Seeds and Trail Mixes)은 중국 원물 가공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원물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원물 가공식품 시장은 2021년 94.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 2016년 기준 홍콩의 원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2,230만 달러이며, 2012년 1,900만 달러 대비 17.4% 증가함

- 미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견과류 가공품(Nuts, Seeds and Trail Mixes)는 홍콩 원물 가공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는 품목임
  - 이에 따라 2021년에 2,65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2016년 기준 일본의 원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8.3억 달러이며, 2012년 8.1억 달러 대비 2.4% 성장함
- 견과류 가공품(Nuts, Seeds and Trail Mixes)이 일본 원물 가공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조 과일(Dried Fruit)규모도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함
  - 향후 전 연령층에서의 소비 증대로 인해 시장규모가 2017년 대비 2021년에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원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4,650만 달러이며, 2012년 3,500만 달러 대비 32.9% 성장함
- 이 중 건조 과일(Dried Fruit)이 30~40%의 시장점유율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향후에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32.6%의 성장세가 기대되며, 특히 육포(Meat Snacks)의 경우, 같은 기간 69.4%의 성장세가 예상됨

### 3.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가. 지역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이며, 문화·관광 등 산업과의 우수한 연관성

- 식품산업은 보은군 지역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으로나 해당 지역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가 될 수 있으면서 농업 뿐 아니라 문화·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경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임
- 국산 농산물 구매액 68조 중 식품·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 43.4%(29.5조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나.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내 식품산업

- 정부가 육성·진흥 관점에서 식품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는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음
-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이 2016년 기준 21개사로 2007년(8개사)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업 전체 고용인원도 약 35% 가량 증가하였음
- 한국식품의 맛과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져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액 및 외식기업의 해외진출도 크게 늘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다. 그러나, 영세업체가 다수이기에 혁신동력 내재화 필요

- 국내 식품산업 뿐 아니라 보은군의 식품산업도 마찬가지로 영세업체가 대다수인데다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 및 수익성이 낮아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동력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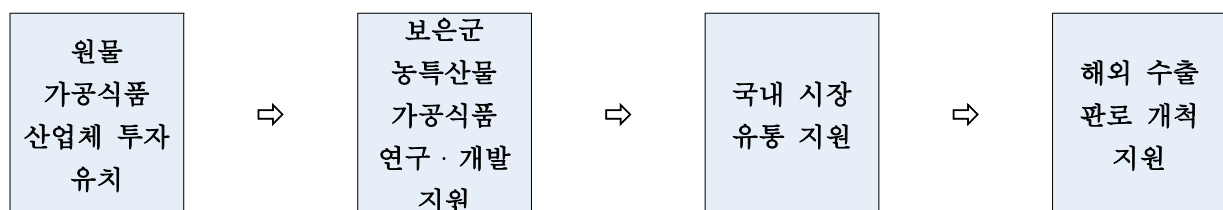
#### 가. SWOT 분석

지역경쟁력 SWOT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1. 관광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 중 2. 귀농귀촌 인구의 꾸준한 증가 3. 중견 제조업체 본격 가동으로 이촌향도 감소세 둔화 4. 대추의 고품질화로 생대추가 높은 가격 형성 5. 대소비자인 수도권과 2시간대 거리	1.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정착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 2.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3. 1~4명 수준의 영세기업이 다수 4. 고령화로 인한 대추 전문 후계 인력의 부족 5. 직거래 증대로 인한 전문 마케팅 조직의 미비
기회(Opportunities)	SO전략	WO전략
1. 보은대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계속 증가 2. 정부의 산림자원 6차산업화 지원 정책 증가	☞ 보은대추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군 내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 보은 대추의 전국 유통망 구축을 통한 대추 시장점유율 강화 ☞ 보은 대추를 활용한 신산업 개발 지원 정책 수립	☞ 인구 이탈 방지를 위한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 대추산업 증진과 청년층의 군 내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지원 및 정착 지원 정책 마련
위협(Threats)	ST전략	WT전략
1. 국내외 대추 주산지 생산량 증가로 경쟁 치열 2. 대추 가공제품과 가공산업의 미약으로 시장 확대 정체	☞ 타 지역과 차별화된 대추 가공산업 육성 ☞ 고품질의 생대추 생산, 주문 당일 배송 시스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차별화 정책 시행	☞ 청년인구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정착 사업 등 군 내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 나. 기본방향

□ '결초보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원물 가공식품 산업 육성

#### 다.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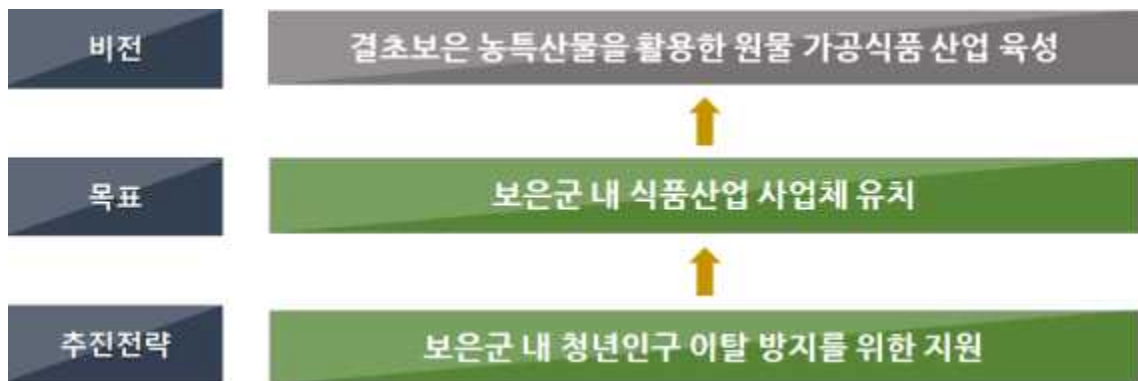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 □ 원물 가공식품 산업

- 원물 가공식품은 별도의 정의 및 분류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 '견과류나 과일 등을 원물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한 식품'으로 통칭하고 있음
- 원물 가공식품 산업의 수요는 웰빙 트렌드와 함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은군의 농특산물과 연계한 원물 가공식품 개발을 진행하고자 함
- 보은군은 주력 농특산물인 보은 대추를 중심으로 속리산 사과, 속리산 배, 속리산 쌀, 속리산 한우와 그 외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 특히, 보은군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자체 브랜드인 '결초보은'을 활용한 마케팅 및 결초보은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판매 등의 보은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충청북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기반 구축 전략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R&D	• 보은군 원물 활용 기술개발사업
비R&D	• 원물가공식품 제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 원물가공식품 사업화 지원사업
	•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지원사업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 가. 보은군 원물 활용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보은군 지역 원물(과일, 채소 등 식품 소재) 활용을 극대화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식품가공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보은군에 소재하고 있는 가공식품 관련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대상분야 : 보은군 지역 원물 활용 3개 과제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총 예산	3억 원
대상과제	3건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1억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 체결예정

##### □ 가점우대제도

- 컨소시엄 구성 기업(관)



## 나. 원물가공식품 제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보은군 내 원물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기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설립 컨설팅, 연구소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보은군 소재 원물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희망기업 및 기보유 기업

구 분		대 상
컨설팅	신규설립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희망기업
	재설립	•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으나 인력문제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자격 상실 기업 중 1년경과 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취득 희망 기업
KOITA 서비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 ○ 지원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컨설턴트의 컨설팅 3회 이상 수행
  - 법인 지정 온라인 필수 교육(4개 교육) 수료
- KOITA회원 서비스 활용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
  - 입회비와 연간회비(12개월) 완납

### □ 지원조건 및 내용

- 사업기간 : 1년 이내
- 사업비 : 총 4천만 원
- 지원한도 : 기업 당 200만원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160만원)
  - KOITA 서비스 활용 지원(40만원)

- 지원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160만원/사)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 전문가 컨설팅 지원 4회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및 지원제도 전문가 지도 등
- 연구소 KOITA 회원사 서비스 활용 지원(40만원/건)
  -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KOITA 회원사 가입은 별개 사항임

## 다. 원물가공식품 사업화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보은군 내 원물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기술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사업화 촉진 을 위하여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원자격

- 보은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 대학, 연구소, 센터, 기업 등이 공급기관으로 참여가능
- 동일 대표자가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기업 지원

#### ○ 우대사항

- 국가/도·군비지원 R&D사업 개발완료제품인 경우 우대
  - 사업신청서에 체크 및 국가/도·군비지원 R&D과제 요약문 작성 제출
- 구매처P/O(Purchase Order)에 의한 기존보유개발제품 변경 지원과제 우대
  - 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협약 시 수요처 구매확약서 제출 필수(외국어인 경우 번역본 첨부 요망)

구매확약서 인정 증빙	매매계약서, 주문서, 개발계약서, 판매계약서, 각서송장
필수기재사항	주문수량, 주문금액, 개발품목명, 개발품목 사양, 계약기간

- 특허, 실용신안, 기술이전 과제 우대
  - 접수 시, 신청서에 체크 및 증빙자료 첨부 요망(미첨부시 우대 인정불가)
  - 기술이전 과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기능성 검증(시험평가, in vivo/vitro 테스트 지원) / 인증·인허가
  - 주의사항 : 업체당 1개 과제 지원
- 지원분야 : 원물가공소재를 활용하여 식품 분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과 관련한 기술분야
  - 시제품 제작 / 기능성 검증(시험평가, in vivo/vitro 테스트 지원) / 인증·인허가
- 지원규모 : 5백만 원/건 이내
  - 기술료 면제
- 지원상세내용
  - 전문지원기관(업)을 통해 애로기술 해소를 지원받고 소요된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별 연 1회 지원
  - 단, 신청기업은 현금 매칭 20% 이상의 의무부담
  - 협약 후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검토 후 50% 지급

## 라.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보은군 내 원물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보유업체를 수행기관(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제품등록 및 판매대행을 지원하는 사업

###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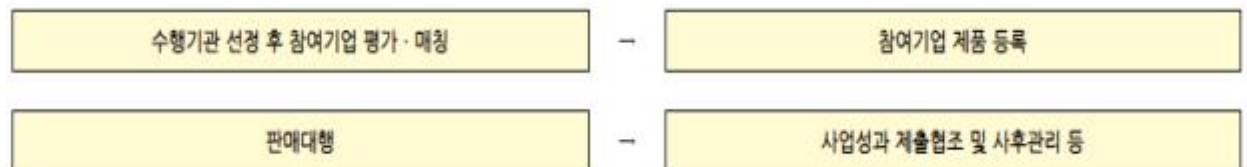
- 보은군 소재 원물가공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지원조건 및 내용

- 사업내용 :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보유업체를 수행기관(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참여 중소기업 제품등록 및 판매대행(제품등록, 배송, C/S 등 처리능력)을 갖춘 온라인쇼핑몰 운영기업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모집규모 : 참여기업 20개사(수행기관 2개사)

- 1개 수행기관 당 평균 10개사 내외 참여기업 매칭 예정  
(수행기관 규모, 참여기업 요청·수요 등에 따라 매칭기업수 조정)
- 지원내용 : 참여 중소기업 당 5개 내외 제품을 수행기관에서 등록 및 판매대행
- 지원방식 : 매칭 참여기업 당 5백만 원 한도로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지급

#### □ 지원절차



## 4. 기대효과 (김푸름 주임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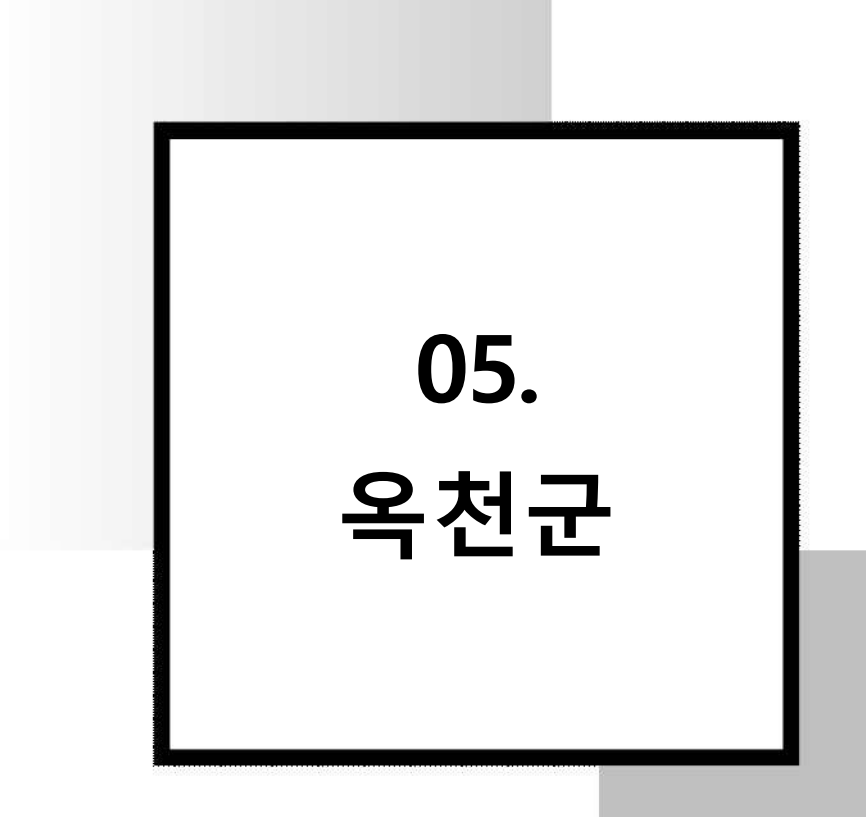
### 가. 경제적 효과

- 지역의 산업 매출 증대효과
  - 보은군의 주요 산업인 농업과 이를 활용한 제조업의 성장이 동시에 가능함
  - 보은군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을 통한 매출액 및 제조업 매출액 약 5%의 성장 효과가 기대됨
- 지역내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효과
  - 보은군의 농산물을 활용한 산업육성으로 농업 및 제조업 부분에 신규 고용이 약 4% 성장이 기대됨
- 원물 가공식품 산업 육성 효과
  - 보은군의 신산업 육성 및 기존의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효과가 기대되며 보은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정책적 효과

- 보은군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은군 농특산물 브랜드인 '결초보은' 브랜드 이미지 및 마케팅효과를 통해 보은군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효과와 원물 가공 식품 업체의 입주를 통한 보은군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세수 확대 등을 통해 군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 보은군 내 입주 기업들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은군 창업교육 및 R&D센터의 활성화와 주요 연구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 사업을 통한 보은군의 연구개발 네트워크 확대가 가능함
- 보은군 내 산업 유관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군내의 연구개발 기관의 활성화와 보은의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기술 및 품종 개량 등의 연구개발을 통한 고품질화와 이를 통한 원물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원물 가공식품 산업 기업의 입주를 통해 보은군 제조업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보은군내 설립된 산업단지와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보은군의 기업 입지 여건에 대한 비 입주기업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창출하여 신규 기업들의 보은군 투자 유치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됨



## 05. 옥천군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옥천군은 2008년부터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기계부품·의료기기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함
- 1단계 (2008년~2012년)에 8,675백만 원을, 2단계(2012년~2016년)에 4,000백만 원을 대상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3단계(2017년~2021년)에는 식품기업을 추가하여 5,6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7월 준공예정인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2018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 지역 내 뿌리 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육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나. 추진목적

- 옥천군이 10여 년간 지속 육성해온 전략산업(기계부품, 의료기기, 식품산업)에 대해 지역 산업 육성의 집중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함
- 농기계·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기계부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옥천군이 충북을 대표하는 뿌리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농공단지와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옥천 의료기기밸리 구축을 통해 충청북도 바이오 4각벨트 완성과 충청북도의 산업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추진경과

### 가. 특화산업 발굴 추진경과



###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옥천군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업협의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2019.3.27. /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소회의실 / 00개 기업
  - 옥천군 산업의 중심이 되는 농기계·자동차부품 산업의 지역 특화 육성 필요성 제기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계획 반영을 요구함
- 옥천군 의료기기 클러스터 기업협의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2019.04.17. /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소회의실 / 00개 기업
  - 옥천의료농공단지에 이어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준공 예정인 상황으로, 더 많은 의료기기 기업 입주와 옥천 의료기기밸리 완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함
- 충북테크노파크(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수탁기관) 의견 수렴
  - 2019.04.17. /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사무실
  - 옥천군 기계부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계산업·뿌리산업 분야 특화 산업 육성 전략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 집중 유치 및 지원기관(금형/주형지원센터 등) 유치 또는 건립 지속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II.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 인구구조 현황

- 옥천군의 인구는 전국 농촌지역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추이를 보면 2005년 56,134명에서 2018년 51,465명으로 감소함
- 인구 비중은 전국의 0.1%, 충청북도의 3.2%에 해당되며, 인구밀도는 96명/km<sup>2</sup> 임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세대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세대 당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어 가구 분화현상 등 도시형 가구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 읍·면별 인구분포를 보면, 옥천읍이 29,443명으로 옥천군 전체인구의 7.2%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남면은 1,447명으로 전체인구의 2.8%에 불과한 실정으로 읍·면간 인구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옥천군 행정구역(읍·면)별 인구 및 세대수(2018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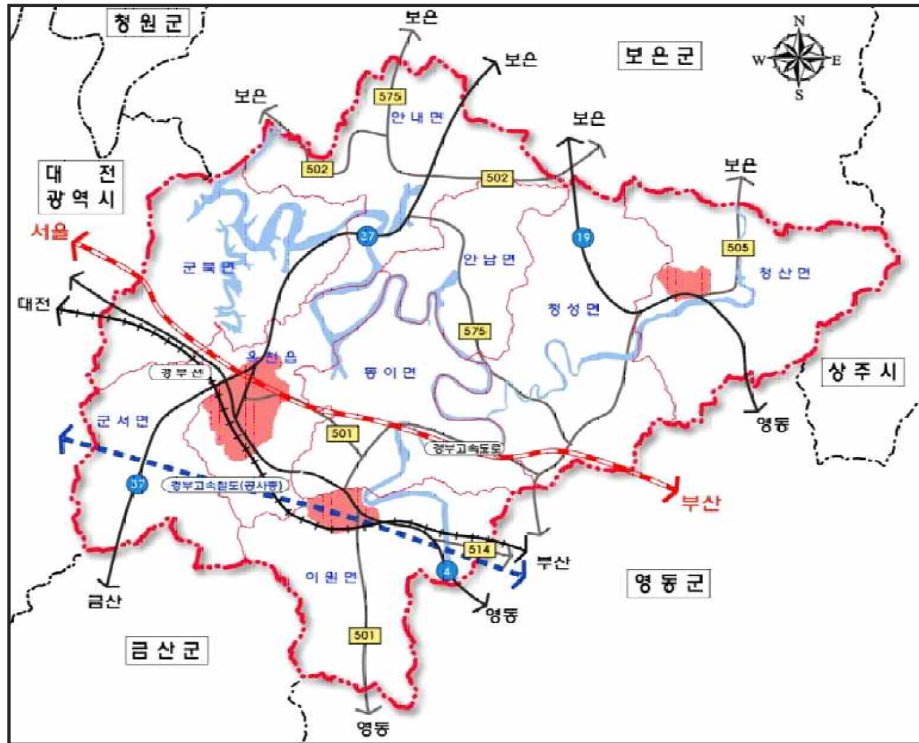
구분	계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세대(호)	22,494	11,176	1,571	762	1,118
인구(인)	53,468	30,128	3,451	1,492	2,149
구분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세대(호)	1,366	1,739	2,179	1,121	1,462
인구(인)	2,536	3,460	4,678	2,422	3,152

자료 : 옥천군 내부자료

#### □ 지리적 여건

- 옥천군은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 3개의 국도(4호선, 19호선, 37호선)로 연결되어 광역교통의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구 148만 명의 대전시와 접하고 있어 향후 도시발전 잠재력이 강한 지역임
- 경부고속도로가 옥천군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국도 4호선이 동서축을 형성하고 있고, 국도 19호선 및 37호선이 남북축을 형성하여 지역 간 연계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옥천 IC가 입지하고 있으며, 용산 IC가 옥천군과 영동군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과의 연계 및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옥천군 도로현황도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 □ 지역 대표기업 현황

- 옥천군 대표기업인 국제종합기계(주)는 1968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설립된 후, 2003년 옥천군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임
- 2017년 기준 매출액은 1,755억 원으로 동종업계 3위에 해당하며 고용인원이 약 400명으로 관내 기업 중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기업임
- 또한 관내에는 국제종합기계(주)의 협력사 00개사가 국제종합기계에 농기계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국제종합기계를 중심으로 농기계 제조기업이 집적화 되어있음

#### □ 기업체 현황

- 옥천군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2014년 기준 총 568개로 이 중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11개(1.9%)임
- 기계부품산업(제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을 영위하는 기업은 175개(30.8%), 식품산업(식료품, 음료)를 영위하는 기업은 186개(32.7)인 것으로 분석됨

옥천군 제조업체 현황(2014년 기준)

산업별	사업체수	
	사업체수	제조업 대비
<b>제 조업 합계</b>	<b>568</b>	<b>100.0%</b>
식료품	173	30.5%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70	12.3%
기타 기계 및 장비	47	8.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5	7.9%
비금속광물제품	43	7.6%
섬유제품 ; 의복 제외	34	6.0%
제1차 금속산업	21	3.7%
가구 및 기타제품	21	3.7%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	3.5%
전기장비	14	2.5%
음료	13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1	1.9%
목재 및 나무제품 ; 가구제외	1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6	1.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4	0.7%
기타 운송장비	3	0.5%
가죽, 가방 및 신발	2	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	0.4%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	0.4%

## 나. 생산현황

- 옥천군 내 10인 이상 제조업체는 2011년 119개에서 2016년 139개로 20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나, 생산액은 2011년 1조 3,024억 원에서 2016년 1조 2,354억 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명, 백만 원)

연별	제조업 현황(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	연간급여액 (퇴직금제외)	생산액	출하액	완제품· 반제품· 제공품 재고액	주요 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
2011	119	4,160	109,510	1,302,434	1,270,384	95,305	927,450	374,984	369,726
2012	121	4,035	114,106	1,205,032	1,211,981	76,758	944,384	260,648	358,828
2013	126	4,229	120,888	1,497,966	1,489,670	83,184	959,680	538,286	359,826
2014	130	4,225	136,582	1,278,317	1,276,428	80,044	901,527	376,790	407,281
2015	138	4,424	145,454	1,262,266	1,262,266	87,797	841,217	421,649	393,731
2016	139	4,352	145,344	1,235,443	1,234,065	88,842	812,608	422,835	456,670

자료 : 옥천군 통계연보(2017)

## 다. 고용현황

- 옥천군 내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경우 2014년 기준 총 5,651명의 근로자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산업 165명(2.9%), 기계부품산업 2,698명(47.8%), 식품산업 1,125명(19.9%)순으로 분석됨

옥천군 제조업체 종사자 현황(2014년 기준)

산업별	종사자수	
	종사자수	제조업 대비
<b>제조업 합계</b>	<b>5,651</b>	<b>100.0%</b>
식료품	1,010	17.9%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546	9.7%
기타 기계 및 장비	1,207	21.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73	11.9%
비금속광물제품	208	3.7%
섬유제품 ; 의복 제외	293	5.2%
제1차 금속산업	292	5.2%
가구 및 기타제품	167	3.0%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4	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362	6.4%
전기장비	267	4.7%
음료	115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65	2.9%
목재 및 나무제품 ; 가구제외	48	0.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4	0.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5	0.1%
기타 운송장비	10	0.2%
가죽, 가방 및 신발	4	0.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1	0.4%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4	0.2%

## 라. 연구동향

- 옥천군에서는 지역 특화산업 발전과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6년 131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군 균형발전사업 및 금형지원 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함
-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8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사업에 '첨단부품 금형/주형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신청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신청하는 등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을 추진함

## 마. 기업 투자동향

- 지난 5년간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신규 입주 기업 증가 및 개별입지 증가 등으로 연평균 26.8개 기업이 관내에서 신규 설립 되었으며, 관내 폐업기업은 연평균 7.8개로 나타남
- 관내 제조업체수는 공장 등록 기준으로 2014년 385개에서 2018년 445개로 60개 기업이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제조업체 투자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신규설립	34	26	26	19	29	26.8
폐업	9	8	10	6	6	7.8
전체 제조업체	385	402	413	426	445	414.2

자료 : 팩토리온(factory on) 자료 검색 (공장 등록 기준)

### □ 국제종합기계(주)

기업명	국제종합기계(주)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주요생산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고용인원	439명	매출액	2,034억 원

- 1968년 설립된 국제종합기계(주)는 옥천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농기계업계 국내 4위에 해당하는 기업임
- 2011년에는 기업 경영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2016년 동양물산에 인수되면서 워크아웃을 종료하고 흑자 전환됨
- 2018년에는 연구개발비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내외 영업망을 확장하는 등 기술 개발과 마케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해 2017년에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농기계 박람회인 'AGRITECHNICA 2017'에 참가해 독일, 프랑스, 터키 등에 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 옥천산업(주)

기업명	옥천산업(주)		
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주요생산품	자동차 시트 프레임
고용인원	86 명	매출액	1,007억 원

- 1991년 설립된 옥천산업(주)는 2013년 매출액 550억 원에서 2018년 1,007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고용인원도 2013년 77명에서 2018년 86명으로 11% 증가함
- 이는 2015년 용접공정의 자동화 라인 구축과 2016년 파이프 성형공정 자동화 설비 개발 등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제조원가 절감 등의 성과로 분석됨

## □ 에이스메디칼(주)

기업명	에이스메디칼(주) 옥천공장		
업종	의료기기	주요생산품	마취가스 주입회로, 수액세트
고용인원	160 명	매출액	170억 원

- 2013년 170억 원을 투자해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에 2공장을 설립한 에이스메디칼(주)는 2015년 당시 고용인원 95명, 매출액 143억 규모에서 2018년에는 고용인원 160명과 매출액 170억 규모로 성장함
-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2017년에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인 'MEDICA 2017'에 참가해 스페인, 독일, 일본 등에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충북일보** | 충청 | 지역 | 경제 | 사회 | 의료 | 의료산업 | 충북 | 충북지

최근기사 | 1.충북일보+충북 | 한국산업경제연구소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속한다 서울에 있는 의료기 제조업체 등

충북도 옥천군, 에이스메디칼(주) 등과 투자협약

충북도 옥천군과 에이스메디칼(주)은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에이스메디칼(주) 대표이사 미종위, (주)에디텍 대표이사 이준호, 김승태(주) 대표이사 손문배 등과 208억 원의 투자협약을 했다.



충북 옥천군 지역산업의 핵심인 농기계 제조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5개 기업이 독일 하노버와 뒤셀도르프 등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박람회에 참가한다.

**옥천지역 5개 기업 '독일 농기계·의료기기 박람회' 참가**

충북 옥천지역 5개 기업(에이스메디칼, 에디텍, 에디텍, 에디텍, 에디텍)이 독일 하노버와 뒤셀도르프 등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박람회에 참가한다.





## □ (주)교동식품

기업명	(주)교동식품		
업종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주요생산품	삼계탕, 육개장, 갈비탕
고용인원	146 명	매출액	347억 원

- 1998년 옥천군에서 (주)교동식품을 설립한 이후 2014년 2공장, 2018년 3공장을 추가 건립하였으며 운영해왔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1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4공장을 설립하는 등 지역 내에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주)교동식품은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는 다양한 간편식 개발을 통해 2015년 매출액 150억 원에서 2018년 347억 원으로 130%이상 성장하고, 고용인원도 2015년 75명에서 2018년 14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



## 바. 혁신자원 현황

### □ 충북테크노파크

○ 조직/인력 : 2단 4센터 2실 / 155명(정규직 104명, 계약직 51명)

○ 장비보유현황 : 576종 782대

특성구분	부서명								합계	
	스마트 시스템센터		IT융합센터		바이오센터		한방천연물센터			
	종	대	종	대	종	대	종	대	종	대
개방실험용	7	26	-	-	51	87	21	22	79	135
시험분석용	38	54	156	173	86	103	44	51	324	381
시생산지원용	8	10	1	1	48	54	21	21	78	86
교육훈련용	1	18	-	-	-	-	-	-	1	18
기초장비	27	42	12	12	9	17	46	91	94	162
합 계	81	150	169	186	194	261	132	185	576	782

○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지역 전략산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기업 맞춤형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역량강화 및 생산성 강화를 도모함

○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첨단부품 금형·주형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단계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지원함

충북테크노파크 시설현황





- 2016년 9월 9일 옥천 지역 기계부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옥천군 기계 기업을 대표해 국제종합기계(주)·옥천군·충북테크노파크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함
- 협약 체결로 옥천군 소재 기계·기업은 충북테크노파크의 장비 시험 수수료 감면 지원, 시험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정기 업무 협의회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 상호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협약서 및 협약식 체결 사진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조직/인력 : 7개 청사, 17개 지원, 7개 해외지원 / 000명
- 장비보유현황 : 000종 000대
-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옥천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 내 공용장비실 운영 및 옥천군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해 왔음
- 특히 의료기기 분야 시험 및 인증·평가와 기계분야 전자파 평가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 제품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업무 분야



- 또한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국가의 인증, 컨설팅, 시험/검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판로 확장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조직 : 2실, 1본부, 4센터
-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2010년 12월 설립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충청북도 의료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바이오 의약품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도내 기업들에게 시험·평가, 장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100여대의 전문 장비를 운영하며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장비사용,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충청북도·옥천군과 함께 '충북 의료기기 산학관 협력구축사업'등 도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 □ 충북도립대학교

- 조직 : 대학교본부(2처 1국), 학과(11개 학과), 부속기관(8개 센터), 부설기관(평생교육원)
- 인력 : 교직원 - 65명(교원 42명, 사무직원 23명)/ 학생 - 866명
- 장비보유현황 : 15종 29대
- 옥천군에 소재한 충북도립대학교는 공립전문대학교로 42명의 교수진과 800명의 재학생이 활발한 연구 및 학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과 다양한 협업 활동을 해오고 있음
- 2018년 11월에는 산·학·관 취업연계를 위해 충북도립대학, 하노이 기술대학, 옥천군 기계부품 클러스터 간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학생의 유학부터 취업까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임
- 옥천군에서는 대학 재학생의 지역 내 취업연계를 위해 충북도립대학취업지원 특별창구를 운영하여 지역 졸업생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대학과 지역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사. 정책지원현황

### □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육성 사업을 추진해왔음
  - 2007년~2016년 : 기계부품, 의료기기
  - 2018년~2021년 : 기계부품, 의료기기, 식품가공 산업에 대해 집중 육성 사업추진
-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품질혁신 지원, 생산성 강화지원, 경영혁신지원, 제품경쟁력 향상지원, 마케팅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기술홈닥터 사업(옥천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기술홈닥터 사업은 옥천군 내 기계·의료기기·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1:1맞춤형 기술진단, 기술지도와 현장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함
- 유럽 및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국내·외 인증 및 시험을 지원하는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개척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혁신역량 강화교육 추진

-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상 산업군의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함
- 2017년 : 집합교육 7회 / 20백만 원 / 누적인원 274명
- 2018년 : 집합교육 7회 / 현장교육 2회 / 15백만 원 / 누적인원 147명





## □ 의료기기 산·학·관 협력구축사업(충북도·옥천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2018년부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충청북도와 옥천군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의료기기업과 의료기기 관련 학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기기 산·학·관 협력구축사업'을 추진함
- 본 사업을 통해 산·학·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의료기기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내 유망 중소기업 애로해결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의료기기 산·학·관 협력구축사업 추진체계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 충청권 뿌리산업 특화지역 도약

- 정부에서는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뿌리산업이 밀집화 되어 있거나 예정인 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환경·에너지·공정 설비 등의 공동활용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단지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음
- 2019년 5월 현재까지 전국 25개소를 지정한 상태임
- 옥천군은 조성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71,058m<sup>2</sup>에 대해 2018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충청권 최초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음
- 이로 인해, 뿌리기업 집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뿌리기업들이 공동활용 시설을 구축하거나 공동혁신활동 과제를 수행할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됨

忠清日報

2018년 07월 17일 (화)  
지역 15면

## 옥천 제2 의료산업단, 뿌리산업 메카 되나

산자부, 올해 특화단지 지정  
공동 시설 등 국비 지원 가능  
郡, 급행·주형 지원센터 추진

충청 옥천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역  
점 추진 중인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8년도 뿌리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16일 군에 따르면 제2의료기기산업단  
지 총 조성면적 29만1068㎡ 중 의료기기  
용 분야 전용 제1단지는 2018년 6월 15일  
부터 뿌리산업 특화지구로 지정됐다.

군은 지난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했으며, 역점과 기대 효과 등

을 밝히며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  
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3개월여 만에 특  
화단지로 지정 받았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  
면처리의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물을 연  
속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전국 25개의 뿌  
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올해는  
옥천을 포함해 4개 단지를 지정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과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  
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정 신청할 수 있  
다.

특화단지별 지정되면 폐수처리시스  
템·폐열회수시스템 등 공동 활용시설이  
나 공동혁신과제의 기획, 기업 간 협업  
활성화 등의 공동 혁신활동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군은 이번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뿌리기  
업을 적극 유치하고 충청도·충북테크노  
파크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부를 급행·주  
형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서 경제정책실장은 "충청도의 뿌  
리산업 육성 정책이 옥천군 뿌리산업 특  
화단지 지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  
로 옥천군이 충청도 제조업을 뒷받침하  
는 뿌리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확장해가겠다"고 말했다.



충청 옥천군이 옥천읍 가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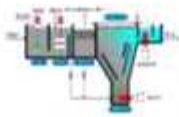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는 2018년  
말까지 옥천읍 가동·사북·구암리 일원에  
29만1068㎡ 규모의 의료기기 특화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을  
은 50%다.

/옥천=이능희기자  
295 X 108 mm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보도자료

- 이에 따라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경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 공동폐수처리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 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01



### 공동폐수시설 구축

- 오염수 및 폐수에 대한 공동시설구축을 통한 특화단지기업의 환경비용 절감

02



### 폐열스팀활용시설 구축

- 금형/주물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공동사용을 위한 스팀공급시설 구축

03



### 공동인력양성 추진

- 특화단지 설계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청년 인력확보 추진

04



### 기업지원 기관설립

- 첨단부품 금형/주형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지원시설 구축 및 기업지원

## □ 옥천의료기기밸리 구축

- 옥천군은 2011년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의료기기 농공단지를 준공하여 에이스메디칼㈜ 등 10개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의료기기밸리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20년 7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준공함으로써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함
-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는 전체 산업시설용지 242,709m<sup>2</sup> 중 95,770m<sup>2</sup>를 의료기기 산업 입지로 배치하고 국내외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지역 대표기업 현황)** 옥천군 대표기업인 국제종합기계(주)은 매출액 1,755억, 동종업계 3위의 기업임
  - 고용인원은 400 명으로 관내 기업 중 고용인원이 가장 많음
- **(옥천군 경제의 기반, 기계 산업)** 옥천군 내 뿌리산업 및 기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142개로 군내 전체산업의 31.8%에 해당함
  - 뿌리산업 및 기계산업은 1차 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포함함
  - 옥천군 내 제조업체(factory on 등록 기준)는 2019년 5월 현재 446개임
  - 종업원 수 기준으로는 전체 6,501명 중 2,738명으로 전체의 42.1% 해당되어 지역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국제종합기계(주)와 협력업체가 17개 기업, 678명으로 기계 산업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음
  - (주)인지컨트롤스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부품 업체가 19개, 812명으로 다른 한축을 형성하고 있어 옥천군 기계산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버팀목이라 할 수 있음
- **(옥천군 신성장 동력 의료기기 산업)** 옥천군은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산업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인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지속 추진 중임
  - 충북 내 의료기기 기업 118개 중 옥천군에 21개 기업이 위치하여 17.8%를 차지하고 있음
  -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2020년부터 의료기기 기업의 추가 입주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충북의료기기 기업의 3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특화발전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집중 지원과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됨
- **(기계 및 의료기기 산업에 유리한 환경여건)** 기계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은 옥천군에서 산업을 영위하기에 있어 좋은 환경적 여건이 구축되어 있음
  - 옥천군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옥천군 균형발전사업 및 금형지원 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으로 기계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포함되어 있음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기계산업

- (중앙정부정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미세화, 정밀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
- 국가기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은 '국가주력제품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임
- 2000년 이후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기업 및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제조기반 6대 분야 기반구축사업(2000년~2009년 / 342억 원),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2003년~2009년 / 274억 원) 등
  - 2006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부품소재 발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수립으로 제조기반 분야 육성 확대
  - 2012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2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내역(산업부)

'10.05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11.0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정
'12.03월	「핵심뿌리기술」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6호)
'12.03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설·지정(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12월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산업부 외 5개부·청)
'13.01월	「2013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산업부 외 5개부·청)
'13.12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03월	「201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산업부 외 6개부·청)
'15.02월	‘주력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첨단뿌리기술 66개 선정’(산업부 보도자료)
'15.03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시행
'16.03월	2016년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17.11월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 수립

- (충북도 정책)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충북도 6대 신 성장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별 융·복합 산업 생태계 클러스터 조성 및 3대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수립함

○ **(충북의 뿌리산업 육성 정책)** 충청북도는 2017년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육성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시작함

- 2017년 11월에는 충북뿌리산업협의회가 창립되었고, 2018년 12월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뿌리기술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옥천군은 기계부품 산업의 전문화 및 규모 확장을 위해 조성 중인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71,058m<sup>2</sup>에 대해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해 7월 '옥천군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

-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공동활용시설이나 공동혁신활동 지원기반을 마련함
- 전국 25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충청권에 지정된 유일한 단지임



뿌리산업 특화단지 육성 계획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내 뿌리기업의 집적화 및 지역 특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제종합기계(주)를 중심으로 옥천군 기계부품 클러스터의 확장이 기대됨

□ **(옥천군정책)** 옥천군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 의료기기 및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해옴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 사업

구분	기간	사업비 (백만 원)	육성 산업
1단계	2008~2011	8,675	기계부품, 의료기기
2단계	2012~2017	4,000	기계부품, 의료기기
3단계	2017~2021	5,600	기계부품, 의료기기, 식품

○ 산업군별로 대규모 국제 전시회 공동전시관 구성을 통해 옥천 기계부품 클러스터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더욱 확고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임

주요 전시회 참가 성과

구분	연도	전시회명	전시지역	계약성과
기계분야	2015	AGRITECHNICA 2015	독일 하노버	870만 달러
	2017	AGRITECHNICA 2017	독일 하노버	700만 달러

## 나. 의료기기산업

□ (중앙정부정책) 중앙정부는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2014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이며, 이를 위해 동 기간까지 수출액 13.5조원, 세계 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 명을 달성하는 목표 설정

### 4대 전략

구분	전략내용
1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2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3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4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 혁신형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제시

- (2015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 4대 전략

구분	전략내용
1	미래 유망 기술 중심의 R&D 추진
2	혁신 제품의 조기 시장진출 지원
3	맞춤형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인프라 간 연계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전략 제시

- (2016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제시함

- 이 중 의료기기 분야는 '첨단·고부가가치 기기 개발 등 의료기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함

### 5가지 과제

구분	전략내용
1	유망기술(제품)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2	미래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3	국내 사용경험 확대 및 유통·관리제도 선진화
4	의료기기 글로벌 진출 인프라 확대
5	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반 강화 제시

- **(충북도 정책)**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충북도 6대 신 성장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별 융·복합 산업 생태계 클러스터 조성 및 3대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수립함

충북도 6대 신성장산업

구 분	특 화 분 야
<b>바이오산업</b>	바이오의약, 한방바이오, 의료기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당노바이오, 감염병 대응
태양광·신에너지 산업	-재생에너지 : 태양광, 바이오매스 -신에너지 : 이차전지, 연료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화장품·뷰티산업	-화장품산업 : 향노화물질, 기능성화장품 -뷰티산업 : K-뷰티산업, 뷰티헬스 등
<b>유기농산업</b>	유기농산물 생산, 유기농 가공식품 및 발효식품
신교통·항공산업	-신교통산업 : 미래철도, 자율주행자동차 -항공산업 : 항공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청주국제공항) -서비스산업 : 복합운송물류서비스
ICT융복합산업	IT,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스마트센서, 웨어러블디바이스

- **(충북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 충북도는 2018년부터 바이오 경제 중심의 충북 실현을 위해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충북바이오밸리 완성)**
  -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산실
    - 임상시험센터 건립(301억 원, 2019 설계 착수)
  - 신종 감염병 치료제 개발
    -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건립 타당성 용역 실시
  - 융합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GLP시험시설 구축(30억 원, '18.12월 준공)
  -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바이오교육원 건립
- **(세계시장을 주도할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
  - 보건의료헬스 연구개발 및 지원기관 유치(1개 기관)
  - 미래 핵심원천기술 보유 유망기업 유치(6개 기업)
  - 희귀 난치성 질환 연구 특성화 병원 유치(1개 기관)
  - 바이오의약 연구개발 지원시설 확보(2개소)

○ (의료기기산업 고도화 및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

-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14.~'19. 351천m2)
- 첨단의료기기 글로벌 기술개발 기반 구축('17.~'20. 168억 원)
-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기반 구축('15.~'19. 5,013m2, 198억 원)
-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구축('16.~'20. 100억 원)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융합벨트

□ (옥천군 정책) 옥천군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의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 의료기기 및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해옴

옥천군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 사업

구분	기간	사업비 (백만 원)	육성 산업
1단계	2008~2011	8,675	기계부품, 의료기기
2단계	2012~2017	4,000	기계부품, 의료기기
3단계	2017~2021	5,600	기계부품, 의료기기, 식품

- 에스메디칼(주)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및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내 의료기기 기업들과 산학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음
- 옥천군은 옥천의료기기밸리 구축을 위해 2011년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의료기기 농공단지'를 준공하여 에이스메디칼(주)등 10개 기업이 입주, 활발한 기업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2020년 준공예정인 361,661m<sup>2</sup> 규모의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통해 중부권 의료기기 특화도시로 육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산업군별로 대규모 국제 전시회 공동전시관 구성을 통해 옥천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더욱 확고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임

주요 전시회 참가 성과

구분	연도	전시회명	전시지역	계약성과
의료기기 분야	2018	KIMES 2018	서울	23억 원
	2019	KIMES 2019	서울	33억 원



전시회 참가 사진

□ **(의료기기 산업 주요국가 정책동향)** 성장하는 의료기기 산업에 관련하여 각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 세계최대의 의료기기 생산지이며 시장이나, 경제산업정책은 자유경쟁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 산업의 발전로드맵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세계적인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은 R&D투자, 벤처캐피탈 및 다른 자원조달 원천에의 접근성, 높은 진입장벽, M&A전략, 효율적이며 예상 가능한 인허가체계 등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세계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국가이나, 이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추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이는, 업계의 자율적 경쟁전략 및 세계적인 대형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성과임
  - 정부의 민간의료기기 산업부문 지원은 R&D투자, 세금 감면 등으로 최소화됨

• 최근 의료기기 관련 정책현안 및 동향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통한 의료보험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내 3,200만명의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li> </ul>
의료기기 특별 소비세 2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보험개혁법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에 부과된 2.3%의 특별소비세가 2017년까지 2년 동안 유예되어 50억 달러 이상의 감세효과가 기대됨</li> <li>이에 따라 최근 저조했던 미국 내 의료기기 R&amp;D 투자 증가와 고용비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li> </ul>
의료기기 고유식별번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의료기기에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 등 시판 후 조사시스템 강화가 기대됨</li> </ul>
헬스케어 관련 IT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정부는 자가진단, 모바일 건강관리 등 예방 의료를 위한 온라인상의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인 관련 IT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li> <li>의료기기 기업은 데이터 분석기술과의 조합 등 복합적인 제품 개발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미국 내 웨어러블 의료기기, 홈헬스케어 기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li> </ul>

○ (중국) 중국 정부의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확대, 산업지원정책 강화, 의료기기 세대교체 수요 및 소득의 증대, 노령화 심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중국 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의료산업 혁신 방안 발표

2020년까지 건강서비스산업 1,400조원 이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후된 의료서비스 개혁을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수립, 보건의료 체제의 개혁 심화, 단독 투자녀 정책 허용 등으로 중국의 의료서비스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li> </ul>
중국 7개 도시 외자 독자병원 설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4년 8월 발표된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상무부 외자 독바정원설립 시행 작업에 관한 통지’에 따라 중국 7개 도시(북경, 천진, 상해,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에 외국 자본이 단독 투자한 병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병원 및 의료서비스의 중국진출이 기대되며, 이와 함께 국산 의료기기제품의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li> </ul>
新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는 중국 내 의료기기 연구개발,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까지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로,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위험도가 높고 값비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이 주목됨</li> </ul>

- 중국의 자국 보건의료산업 관련 진흥 및 보호정책

‘Buy China’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2009년 5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Buy China’지침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자국 내 생산 가능한 의료기의 경우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임</li> </ul>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통한 비관세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관세 장벽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인허가 절차도 까다로워 품목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짐</li> <li>• 특히 2015년 5월, 신설·공포된 수입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행정등록비로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무역장벽이 더해짐.</li> </ul>
중국제조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육성전략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함</li> <li>• 의료기기를 포함한 10대 핵심산업을 선정하여 향후 전략적인 육성의지를 천명함</li> </ul>
Healthcare Service Plan 2015–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1월 발표된 중국의 의료체제개혁안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의료서비스 균형과 확대, 공공의료 개혁, 민영의료 확대를 위한 민간자본 투입 장려 등이 포함됨.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면서 의료기기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공립병원 개선 정책으로 인해 중국 의료기기 시장 내 가격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li> </ul>



## 2. 경제/산업 동향

### 가. 기계산업

- **(생산동향)** 2019년 3월 기준, 기계산업 생산은 수송기계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함
  - 수송기계는 철도장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일반기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정밀기계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전기기계는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금속제품은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중심으로 감소하였음
- **(출하동향)** 2019년 3월 기준, 기계산업 출하는 일반기계, 정밀기계, 전기기계 업종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6.0% 감소함
  - 수송기계는 철도장비, 금속제품은 구조용 금속제품 중심으로 증가함
  - 일반기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정밀기계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전기기계는 절연선 및 케이블 중심으로 감소함
- **(수출동향)** 2019년 3월 기준, 기계산업 수출은 금속제품, 전기기계, 일반기계 업종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15.1% 감소한 177억 8천만 불임
  - 국가별로는 중국(-15.5%), 일본(-3.5%), 독일(-2.9%)에서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중동(-25.6%), 유럽(-8.6%), 아시아(-2.9%) 감소함
- **(수입동향)** 2019년 3월 기준, 기계산업 수입은 금속제품, 전기기계, 일반기계 업종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15.1% 감소한 95억 2천만 불임
  - 국가별로는 미국(-29.0%), 일본(-28.3%), 독일(-26.6%)에서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중동(-60.6%), 북미(-28.6%), 유럽(-11.4%)감소함

기계산업(조선제외) 생산 · 출하 · 재고 동향

(단위 : %)

구분	'17	'18	'19. 1/4
생산	6.0	-1.6	-5.8
출하	5.9	-1.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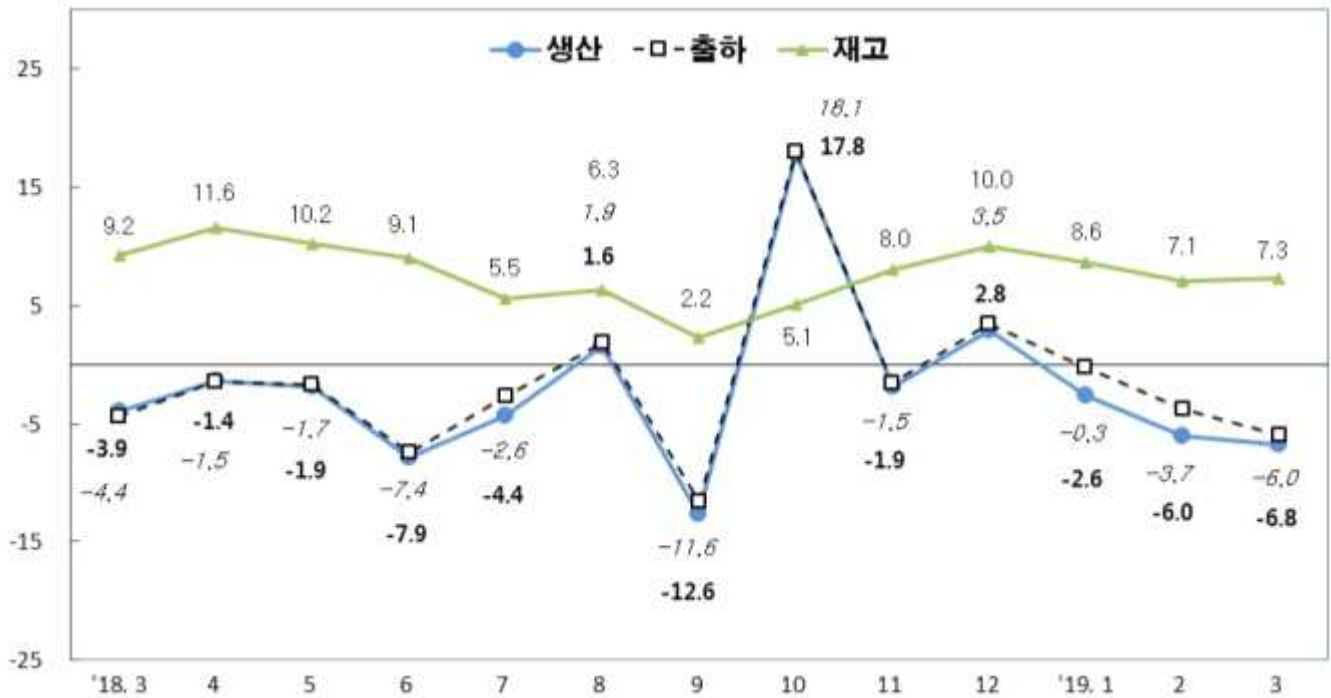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본제공제조업, 기계산업 통계월보

기계산업(조선제외) 수출 · 수입 동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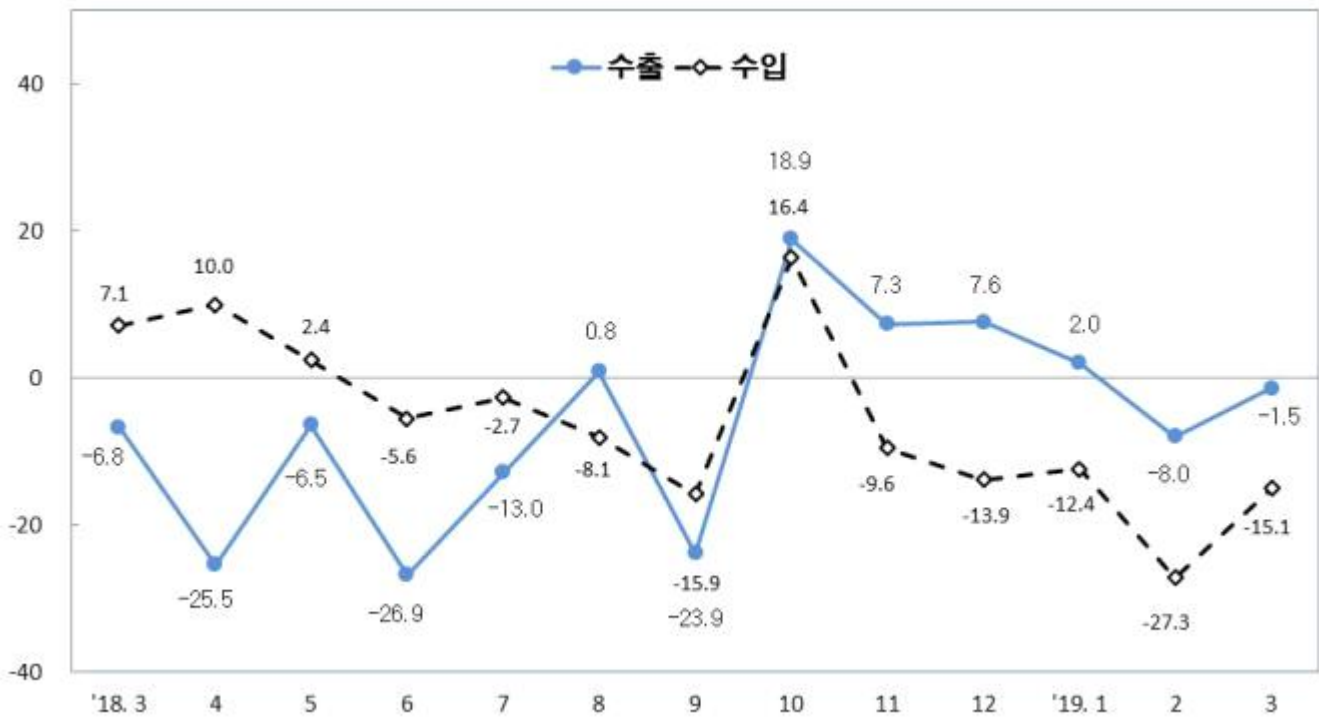
구분	'17	'18	'19. 1/4
수출	181,802 (6.7)	186,299 (2.5)	44,147 (1.3)
수입	114,258 (17.1)	115,463 (1.1)	25,222 (-17.8)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본제공제조업, 기계산업 통계월보



기계산업 생산·출하·재고 추이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본제공제조합, 기계산업 통계월보



기계산업 수출·수입 추이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자본제공제조합, 기계산업 통계월보

□ (국내 뿌리산업 현황) 2016년 기준 국내 뿌리기업은 25,787개 기업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6.2%를 차지하며, 매출은 약 133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매출의 8.6%의 비중을 차지함

○ 뿌리기업 중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업이 64.7%를 차지하지만 매출은 전체의 8.1% 수준에 해당하는 반면, 50인 이상 기업은 뿌리기업의 9.3%에 해당하지만 매출은 전체의 71.6%를 차지하고 있어 양극화 양상이 나타남

뿌리산업 사업체 수

(단위 : 개사)

구분	2015년	2016년
뿌리 산업	26,398	25,787
주 조	1,397	1,289
금형	6,515	6,399
소성가공	5,908	5,494
용접	5,522	5,243
표면처리	6,135	6,319
열처리	921	1,043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뿌리 산업	504,386	534,819
주 조	36,580	34,873
금형	92,503	94,119
소성가공	99,617	123,484
용접	157,665	165,478
표면처리	105,697	103,662
열처리	12,325	13,203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뿌리 산업	131,756,379	132,939,161
주 조	12,876,744	10,863,517
금형	16,445,310	16,971,390
소성가공	32,875,743	37,770,815
용접	39,449,471	43,103,205
표면처리	27,507,577	21,784,362
열처리	2,601,533	2,445,872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해외 주요 수출국 동향) 기계분야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의 연평균성장률은 3.1%로 나타났으며, 미국, 중국, 베트남이 수출액 기준 상위 국가에 위치해있음

○ 증가율 순위로는 베트남이 33.3%로 급격히 성장해 2012년 6위에서 2017년 3위로 상승했으며, 멕시코 10.9%, 영국 10.3% 순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국가별 기계산업 수출현황

(단위 : 억 달러, %)

번호	국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계		1,003	1,108	1,130	1,146	1,112	1,169	3.1
1	미국	299	324	366	401	374	367	4.2
2	중국	354	411	396	379	342	322	-1.9
3	베트남	38	59	58	90	93	160	33.3
4	일본	72	67	72	66	72	75	0.8
5	독일	33	41	39	35	38	48	7.8
6	멕시코	31	31	33	44	51	52	10.9
7	인도	46	41	41	40	38	39	-3.2
8	러시아	78	79	64	29	31	43	-11.2
9	캐나다	33	33	33	32	36	32	-0.6
10	영국	19	22	28	30	37	31	10.3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 (해외 주요 수입국 동향) 기계분야 수입 상위 10개국 수입의 연평균성장률은 3.5%로 나타났으며, 일본, 중국, 미국이 수입액 기준 상위 국가에 위치해있음

○ 증가율 순위로는 대만이 16.7%, 싱가포르 16.2%, 네덜란드 14.4% 순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국가별 기계산업 수출현황

(단위 : 억 달러, %)

번호	국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계		817	831	840	833	823	970	3.5
1	일본	214	194	176	162	181	235	1.9
2	중국	223	238	216	208	202	224	0.1
3	미국	158	155	162	177	175	202	5.0
4	독일	114	127	140	142	127	131	2.8
5	네덜란드	24	28	31	29	31	47	14.4
6	싱가포르	17	11	16	19	17	36	16.2
7	대만	12	12	13	14	17	26	16.7
8	프랑스	19	26	36	31	29	24	4.8
9	영국	16	19	24	27	24	24	8.4
10	이탈리아	20	21	26	24	20	21	1.0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 **(주요국가의 산업동향)** 주요 선진국들은 뿌리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첨단 제조업 국가전략계획'을 발표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 미 정부는 첨단제조업 파트너십(AMP)과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첨단 제조업 R&D에 22억 달러를 배정하고, R&E (Research and Experimentation)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흥을 꾀하고 있음
- 제조업혁신 네트워크 R&D 활동이 제조업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신(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것임
- 이를 통해 제조업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과정이나 첨단재료 등을 중심으로 잠재된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임
- 그리고 제조혁신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계해 미국 내의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이외에도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제조업 부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노동과 기술·비즈니스 관행, 설비, 위치, 운송, 시장 접근성, 규제·조세 등 7대 요인에 대한 정책 전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2·5규획'을 통해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와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음

- 그 일환으로 중국은 뿌리산업이 속한 기초재료, 기초부품과 관련해 연구개발을 위한 지역별 산업기지기반 산학연 공동 R&D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 판금에서부터 부품과 모듈 등에 사용되는 금형과 특수재료 활용 및 정밀 또는 미세 성형을 위한 금형산업 육성을 통해 85% 이상의 국산화율을 도모하고 있음
- 그리고 2015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혁신, 녹색 성장 등을 골자로 새롭게 중국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기도 했음
- 이로써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게 중국의 계획임

○ **(일본)** '신 소형재 산업비전'전략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전략에는 소형재 R&D 인력 배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형재 특화교육 및 대규모 산학연 연구개발거점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 혁신의 실현과 신산업 창출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음
- 특히, 소형재 산업과 IT를 결합하고 기술정보의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함

○ **(독일)** '첨단기술전략(HTS) 2020'에 제조업 육성 전략을 담아 추진하고 있음

- 주된 내용은 미래형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시장 지향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뿌리기술을 포함한 17대 첨단기술과 5개 중점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음
-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이 고급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
- 독일이 17대 첨단기술로 지정한 분야는 나노기술과 바이오, 미세먼지 시스템, 광학, 재료, 정보통신, 생산, 선박, 안전 기술 등임
- 그리고 5대 중점기술은 기회변화와 에너지, 보건과 영양공급, 이동성, 보완, 정보통신 등을 아우름
- 생산기술과 재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클러스터 운영 등과 같은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음
- 제조업 강화 전략으로는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을 통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독일 제조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나. 의료기기 산업

-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3%의 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음
- 2016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액은 5조 6,031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2.0% 증가 하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도 9.6%로 생산규모가 계속 성장해 오고 있음
- 수출액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1.2%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3조 3,869억 원 수출로 2015년 대비 10.4% 확대됨
- 2016년 의료기기 수입액은 2015년 대비 9.8% 증가한 3조 6,572억 원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5.7%을 기록
- 2016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702억 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고, 2016년 수입의존도는 62.27%로 전년대비 0.99%p 감소
-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5% 증가하면서 약 5조 8,733억 원에 이르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3% 성장

국내 의료기기 시장동향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12~'16)
생산(A)	3,877,374	4,224,169	4,604,814	5,001,618	5,603,064	9.6
증감률	15.2	8.9	9.0	8.6	12.0	
수출(B)	2,216,074	2,580,862	2,714,058	3,067,147	3,386,946	11.2
증감률	19.5	16.5	5.2	13.0	10.4	
수입(C)	2,931,014	2,988,241	3,129,111	3,331,170	3,657,161	5.7
증감률	4.9	2.0	4.7	6.5	9.8	
무역수지(D) (D=B-C)	-714,940	-407,379	-415,053	-264,023	-270,215	-21.6
증감률	-23.9	-43.0	1.9	-36.4	2.3	
시장규모(E) (E=A+B+C)	4,592,314	4,631,548	5,019,867	5,265,641	5,873,279	6.3
증감률	6.6	0.9	8.4	4.9	11.5	
수입점유율(F) (F=C/E×100)	63.82	64.52	62.33	63.26	62.27	-
산업규모(G) (G=A+C)	6,808,388	7,212,410	7,733,925	8,332,788	9,260,225	8.0
증감률	10.5	5.9	7.2	7.7	11.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각 연도

□ (의료기기 수출 현황) 의료기기 수출은 등급별로 수출액과 비중에서 차이를 보임

- 등급별로 살펴보면, 2016년 1등급 의료기기 제품의 수출은 2015년 대비 17.4% 증가한 2.8억 달러로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9.8%를 차지하였음
- 2등급 의료기기는 7.1억 달러로 전년대비 51.8% 감소하면서 24.3% 비중을 차지하였고,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의 수출은 16.9억 달러로 전년대비 97.4%의 성장률로 전체 58.1%의 비중을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4등급 의료기기 제품은 전년대비 66.3% 증가하면서 7.9%의 점유율을 보임

의료기기 등급별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5년 대비 증감률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등급	308,565	12.0	242,632	9.0	284,823	9.8	17.4
2등급	1,570,926	61.0	1,471,105	54.3	708,400	24.3	-51.8
3등급	634,255	24.6	858,260	31.7	1,694,604	58.1	97.4
4등급	63,168	2.5	138,718	5.1	230,698	7.9	66.3
합계	2,576,914	100.0	2,710,715	100.0	2,918,523	100.0	7.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각 연도

□ (의료기기 수입 현황) 의료기기 수입은 등급별로 수출액과 비중에서 차이를 보임

- 2016년 1등급 의료기기 제품의 수입 점유율은 2015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등급 의료기기 제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하면서 약 29%에 이르는 점유율을 보임
- 반면,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이 15.0% 증가하면서 수입 비중 또한 2.4%p 증가하였고, 4등급 의료기기는 전년대비 2.9% 증가함

의료기기 등급별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5년 대비 증감률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1등급	575,025	19.4	567,344	19.3	628,756	20.0	10.8
2등급	1,142,033	38.4	934,164	31.7	922,452	29.3	-1.3
3등급	773,305	26.0	955,786	32.5	1,099,381	34.9	15.0
4등급	480,632	16.2	486,762	16.5	500,778	15.9	2.9
합계	2,970,995	100.0	2,944,056	100.0	3,151,367	100.0	7.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각 연도





연도별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규모) 2016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5년 대비 4.5% 증가한 약 3,395억 달러로 추정되며(BMI Espicom, 2017), 2012년 이후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지만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4.9% 증가(3,560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의료기기 시장현황 및 전망(매출액 기준)

자료 : KOTRA 의료기기 산업동향과 투자유치방안, 2017

○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전망성) 향후 세계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규모는 2022년 약 5,3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IT 기술력 발전에 따른 첨단의료기기 사용 증가,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은 타 산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체외진단, 심장학(cardiology), 영상진단, 정형외과 분야 등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면역/분자진단 적응 분야 확대, 로봇수술 및 로봇대행 수술, AI(인공지능), 모바일 의료기기 및 3D프린트 활용 확대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의료기기 시장 패러다임 진화에 따라 다이내믹한 성장이 전망됨
- 분야별 매출기준 시장규모는 체외진단 분야(IVD)가 2022년 708억 달러 규모로 전체에서 약 13.4%를 차지하면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심장학 분야가 연평균 5.7%로 성장하면서 2022년 62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진단영상 분야는 503억 달러 규모의 큰 시장이나, 연평균 성장률(3.6%)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
- 성장률 측면에서 전체 의료기기 연평균 성장률의 평균(5.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신경학과(Neurology)(7.6%), 내시경(6.8%), 안과(5.8%), 치과(5.7%), 당뇨병 관리(5.7%), 체외진단(5.6%) 등의 분야로 전망됨
-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공통점은 검진/진단 시장에 속하거나 고령화 사회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임
- 노년층의 치료 개발 수요가 높으며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은 카테고리로 향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 시장 규모는 2017년 북미/남미 지역이 1,753억 달러(49.2%)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이 856억 달러(24.1%)로 연평균 1.1%,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은 713억 달러(20.0%)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중동지역도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CAGR ('12~'17)
북미/남미	1,580	1,653	1,753	4.6
아시아/태평양	630	679	713	2.3
중앙 및 동유럽	138	136	145	-4.4
중동/아프리카	90	89	93	2.9
서유럽	812	838	856	1.1
합계	3,249	3,395	3,560	2.7

자료 : BMI Espicom(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국 현황)** 의료기기 수출 상위 국가들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부분 성장하였고 상위 10개국 수출의 연평균성장률은 2.3%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9.6%로 가장 높고, 멕시코 8.8%, 아일랜드 5.8% 순으로 나타남

주요 국가 의료기기 수출현황(2015~2017)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CAGR ('12~'17)
1	미국	443	442	450	1.0
2	독일	271	278	279	0.5
3	네덜란드	167	174	177	1.3
4	중국	143	143	153	5.6
5	벨기에	127	127	130	3.9
6	아일랜드	114	119	125	5.8
7	스위스	107	108	108	0.9
8	멕시코	85	91	98	8.8
9	싱가포르	59	67	77	9.6
10	프랑스	75	77	74	-3.9
14	한국	25	28	30	7.6
상위 10개국 합계		1,590	1,626	1,670	2.3
합계		2,090	2,140	2,199	2.2

자료 : BMI Espicom(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글로벌 의료기기 수입국 현황)** 의료기기 수입 상위 10개국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증가율 추정치는 2.7%로 나타났고, 상위 10개국 중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7.8%이며, 다음으로 미국 4.9%, 영국 2.8%의 성장률을 기록함

- 세계 의료기기 최대 수입국인 미국의 2017년 수입액 추정치는 459억 달러이며, 독일이 186억 달러, 중국 150억 달러로 나타남

주요 국가 의료기기 수입 현황(2015~2017)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CAGR ('12~'17)
1	미국	415	439	459	4.9
2	독일	176	183	186	1.9
3	중국	128	137	150	7.8
4	네덜란드	136	144	147	2.1
5	일본	109	117	117	-2.0
6	벨기에	108	106	109	3.2
7	프랑스	103	108	107	-0.7
8	영국	86	82	84	2.8
9	이탈리아	58	60	58	-0.4
10	캐나다	52	51	50	-1.9
16	한국	31	33	34	3.3
상위 10개국 합계		1,372	1,426	1,467	2.7
합계		2,077	2,157	2,217	2.1

자료 : BMI Espicom(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3.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국내 기계산업은 2000년대 들어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 감소로 인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임
- **(뿌리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 뿌리기업의 소공인 기업의 수가 64.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0% 미만인 상황임
- **(선진국들의 뿌리산업 지원정책 강화 및 추진)** 현재 선진국들은 뿌리산업 강화를 위한 국가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기계산업의 투자 필요)** 기계산업은 자본집약적 분야인 동시에 끊임없는 전문인력 창출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생산기반기술의 저비용/고효율화 추세에 따른 유한 자원의 순환사용 또는 저에너지화 제품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품의 경박단소, 초소형화, 초대형화 대응 및 성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생산기술 개발이 요구됨
-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6.3%의 성장세를 지속해오고 있음
  - 2016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액은 5조 6,031억 원이며, 2015년 대비 12.0% 증가하였음
  -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도 2015년 대비 4.5% 증가한 약 3,395억 달러이며, 2022년에는 5,3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뿌리기반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지원 필요)** 산업의 주요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시장전망 또한 긍정적인 의료기기 산업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한 적절한 산업지원이 필요함
  - 뿌리산업은 국가산업에 있어 기틀이 되는 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지만, 국내 뿌리산업은 소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며 매우 영세한 상황임
  - 뿌리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영세 소기업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의료기기산업은 시장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산업임
  - 이러한 산업의 선행기술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더 발 빠르게 대응하여 포지셔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약간의 지원을 통한 도움닫기를 기업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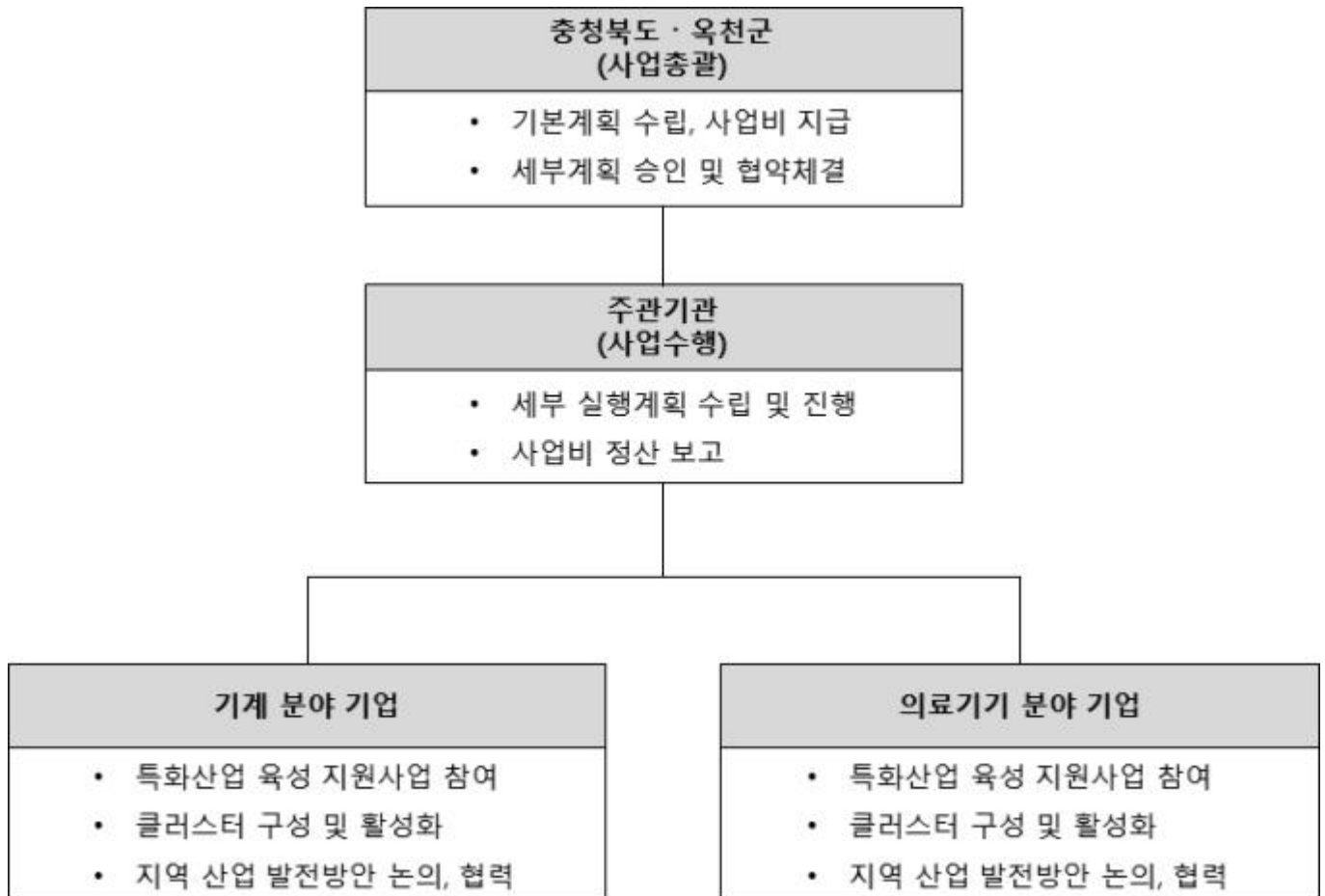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특화산업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SWOT 분석

<p>지역경쟁력 SWOT분석</p>	<p><b>강점(Strength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여 년간 전략산업 육성 사업 추진으로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li> <li>2. 국제종합기계를 거점으로 하는 기계분야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관련분야 다수 기업 집적</li> </ol>	<p><b>약점(Weaknesse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규제에 의한 산업입지 제한</li> <li>2. 지역 정주인프라 부족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li> </ol>
<p><b>기회(Opportunitie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여 년간 지속적인 전략 산업 육성사업 추진</li> <li>2. 대전시 인접지역으로 인력수급 용이</li> </ol>	<p><b>S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산업 육성 추진</li> <li>- 특화산업 분야 공모사업 등 연계 사업 추진</li> <li>☞ 주변 도시 노후산업단지 입주 기업대상 기업유치 집중 추진</li> </ul>	<p><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종합기계 중심의 농기계 클러스터를 토대로 환경유해 업종 외 기계산업 특화 발전</li> <li>☞ 인근 대전시의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정주여건 취약점 해소 및 spin off 기업 유치 용이</li> </ul>
<p><b>위협(Threat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 및 충북 북부권 집중화</li> <li>2. 수자원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 점증</li> </ol>	<p><b>S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전략산업 중심의 특화 틈새시장 발굴 및 육성</li> <li>☞ 기계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화 인프라 확충 추진</li> </ul>	<p><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산업 분야 우량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 성장지원</li> <li>☞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업 생산성 증대 지원</li> </ul>

## 나. 추진체계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 □ 기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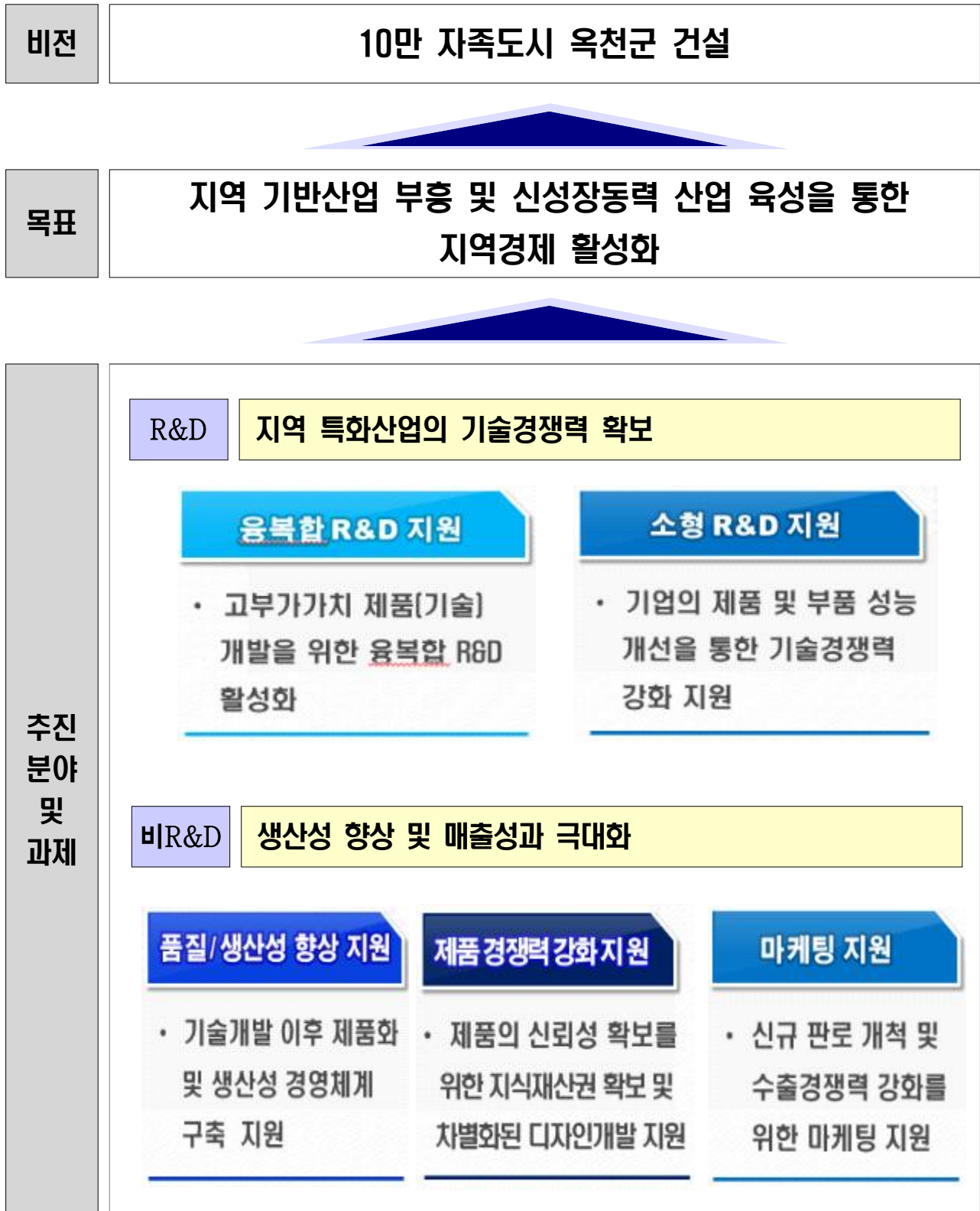
명칭	기계산업		
산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산업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란 인력을 직접 쓰지 아니하고 자연의 원동력을 이용하여 여러 부품이 조합되어 어떤 일정한 일을 하는 장치를 말함</li> <li>- 그러나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화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기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li> </ul> </li> <li>• 기계산업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산업은 동력의 발생, 인간과 화물의 이동, 제품의 제조, 음식료품의 재배와 가공, 미지에의 탐험, 진단 및 치료, 제어·계측·측정 등 인간 생활의 전반에 걸쳐 있으며 산업화 등 인류발전의 전환기에 핵심적이 역할을 수행함</li> </ul> </li> </ul>		
핵심 KSIC 코드	KSIC코드	분류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유망 제품	유망분야	주요기업	생산품목
	농기계	국제종합기계(주)	트랙터, 콤파인, 이앙기
	농기계	태산기계공업(주)	트랙터, 이앙기
	자동차	인지컨트롤스(주)	자동차 엔진부품
	자동차	(주)미래한빛	자동차 엔진부품

## □ 의료기기산업

명칭	의료기기산업		
산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뜻함(의료기기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li> <li>◆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li> <li>◆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li> <li>◆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li> </ul> </li> </ul> </li> <li>●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제품군, 신융합 분야로 시장 확장</li> <li>-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li> <li>- 글로벌 기업 주도 및 높은 진입장벽</li> <li>-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와 밀접한 관련성</li> <li>- 자본·기술 의존형 산업</li> </ul> </li> </ul>		
핵심 KSIC 코드	KSIC코드	분류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유망제품	유망분야	주요기업	생산품목
	마취및 호흡기기	(주)에이스메디칼	마취가스 주입회로, 정량 주입 자가 통증 조절기
	채혈기기	(주)바이오뱅크	자동채혈기, 혈관투시기
	시력보정용안경	(주)씨월드광학	안경 렌즈
	시력교정용렌즈	(주)드림렌즈기술연구소	드림렌즈
	시력교정용렌즈	(주)비전케어텍	드림렌즈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전략산업 기술개발 지원	융복합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술 향상 및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li> <li>• 산학연 융복합·혁신기술 개발 지원</li> </ul>
	소형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부품) 성능 향상,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li> </ul>
맞춤형 산업육성 지원	품질/생산성 향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형개발(제작) 및 시제품 제작 지원</li> <li>• 공정개선 실행지원</li> <li>• IT정보화 및 기업정보시스템 구축 지원</li> </ul>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li> <li>•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li> <li>•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li> </ul>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li> <li>•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li> </ul>

## 가. 융복합 R&D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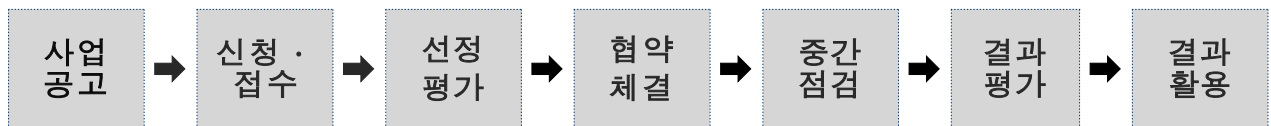
### □ 추진개요

- 특화산업 기술경쟁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 국산화가 시급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 품목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

###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기계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 지원내용 : 보유기술 향상과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제품)개발 지원, 산학연 융복합·혁신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별 1억 원 이내 / 기업 자부담 20% 이상

### □ 프로세스



###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이후
합 계	500	100	100	100	200
도 비	250	50	50	50	100
군 비	250	50	50	50	100

## 나. 소형 R&D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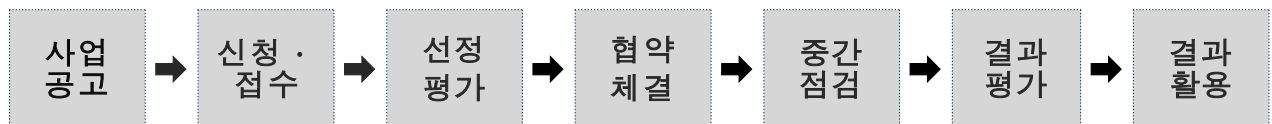
### □ 추진개요

-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한 소형 기술개발 지원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기계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제품(부품) 성능 향상 및 공정개선(자동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별 5천만 원 이내 / 기업 자부담 20% 이상

### □ 프로세스



###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이후
합 계	500	100	100	100	200
도 비	250	50	50	50	100
군 비	250	50	50	50	100

## 다.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

### □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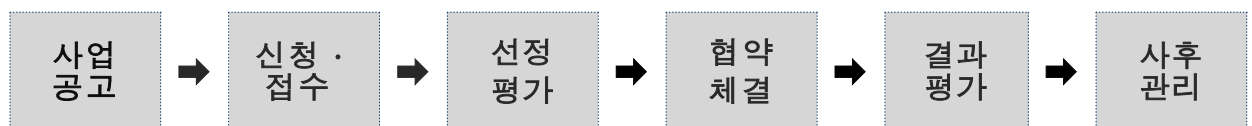


- 기술개발 이후 제품화 지원을 통한 조기 사업화 유도 및 생산성 경영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

###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기계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 지원내용 : 금형개발(제작)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공정개선 실행지원, IT정보화 및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별 5,000천원 ~ 20,000천원 / 기업 자부담 20% 이상

### □ 프로세스



###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이후
합 계	200	40	40	40	80
도 비	100	20	20	20	40
군 비	100	20	20	20	40

## 라.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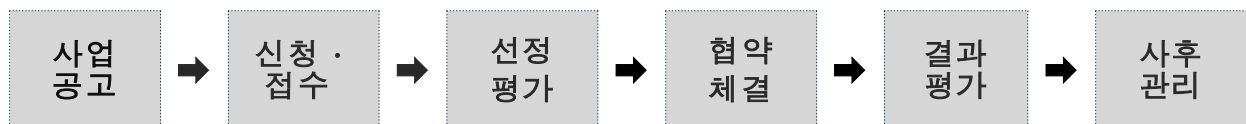


- 기업 경영 및 제품 판매를 위한 각종 인증 및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한 권리화 지원으로 제품의 조기 사업화 지원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
- 기업 및 제품 브랜드와 디자인 지원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강화

###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기계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 지원내용 : 각종 인증 및 시험·평가 지원,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 기업 및 제품 브랜드·디자인 지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별 5,000천원 ~ 15,000천원 / 기업 자부담 20% 이상

### □ 프로세스



###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이후
합 계	150	30	30	30	60
도 비	75	15	15	15	30
군 비	75	15	15	15	30

## 마. 마케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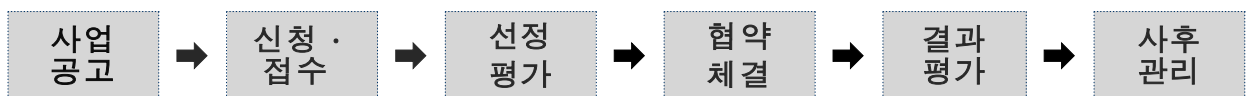
### □ 추진개요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내수시장 한계 극복 및 수출지향형 강소기업 육성
- 다양한 판매루트 모색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 및 기업이미지 강화

###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기계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브로슈어·홍보동영상 등 각종 광고 제작 지원 등
- 지원조건 : 과제별 5,000천원 ~ 15,000천원 / 기업 자부담 20% 이상

### □ 프로세스



### □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이후
합 계	150	30	30	30	60
도 비	75	15	15	15	30
군 비	75	15	15	15	30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 □ 매출액 증대

- 옥천군의 주요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기계산업임
- 뿌리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집중 육성 및 발굴은 매출액의 5% 증대를 기대함

#### □ 고용률 증가

- 지역 주요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인력 고용 또한 3%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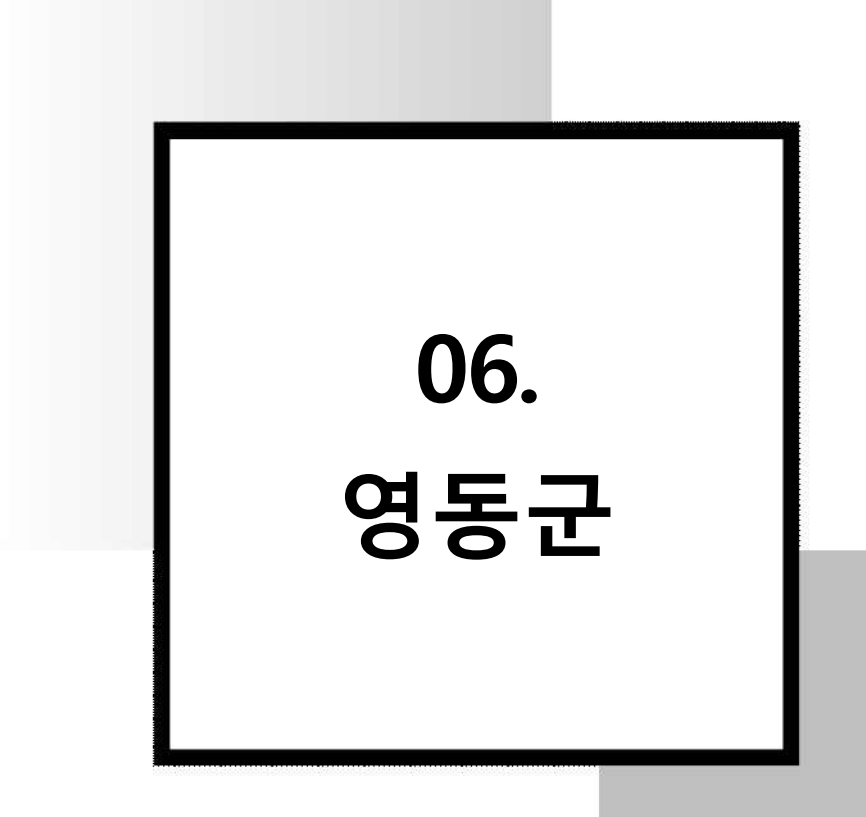
#### □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한 잠재성장력 높음

- 의료기기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규모가 확대될 산업임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큰 잠재 성장력을 내제하고 있음

### 나. 정책적 효과

- 융복합 R&D지원, 소형R&D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지원은 기업으로 하여금 큰 파급력 있는 기술력과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음
- 품질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은 기업의 조기사업화 유도 및 경영체계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시키고 이는 기업의 고객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군내 소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이러한 모든 지원활동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매출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확보하여 지역 내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06. 영동군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충청북도 영동군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은 지역이며, 대부분이 화강편마암 지대로서 석회반암과 규장석은 용산면·학산면·양산면 등에 소지역으로 산재해 있고 중생대 지층은 용산면·영동읍·양강면에 분포하며, 화강암은 실천면·양산면·용산면 일대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소백산맥이 북동부에서 남동부로 달리고 있어 남동부는 높고 북서부는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음
- 경제성 있게 생산 가능한 일라이트 광산이 부존되어 있으며, 일라이트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주로 영세업자에 의한 단순 채광 및 파·분쇄 후 판매(1차 산업군)와 토양보조제 및 가축사료(2차 산업군)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광물의 우수한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나. 추진목적

- 충청북도 영동군의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
  - 충북 영동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이자 경제적 측면에 있어 관련 분야의 산업 육성이 용이한 일라이트를 기반으로, 산업화 거점 조성 및 지역산업과의 선순환 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다양한 수익기반과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가 선도사업으로서의 미래 경쟁력 확보
    - 세계적으로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일라이트를 활용하여 BT(Bio-Technology) 및 NT(Nano-Technology)와 결합하는 신사업분야를 발굴·육성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요한 국가 선도산업으로서의 미래 경쟁력 확보
  - 일자리 창출 및 정주인구 유치
    - 일자리 창출, 정주인구 유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청년창업 인력양성 등을 통해 공동체 회복 및 산업화지원 기틀 마련

## 2. 추진경과

### 가. 특화산업 발굴 추진경과

#### □ 지자체간 협의

##### ○ 충청북도와 일라이트 관련 협의(2019.01.17.)

관련 협의

구분	일시 : 2019.01.17. 10:00	장소 : 충청도청 바이오산업과
내용	주민참여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사업내용과 연결 필요 민간기업과 연계한 사업 실행 사업비 및 사업내용 조정 필요 일라이트 광산사례 비교 부각 필요 균특법 제29조에 따른 '(가칭)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할 협의	
사진		

##### ○ 관계부처간 협의

- 각 사업별 연계부처인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과 기존 국고보조사업과의 중복성과 정책 부합성 등 문의 및 협의 중

###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주민의견 수렴

##### ○ 사업발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2019.01.18.)

주민의견 수렴 여부

구분	일시 : 2019.01.18. 11:00	장소 : 영동군청 대회의실
내용	시범사업 계획(안) 설명 주민 의견 수렴 및 방안 모색	
사진		

## □ 관련부서의견 수렴

- 관련부서 대상 시범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2018.12.10.)
- 관련부서 대상 일라이트 관련 의견 수렴(2017.06.19.)(2017.01.11.) (2016.10.25.)

관련 부서의견 수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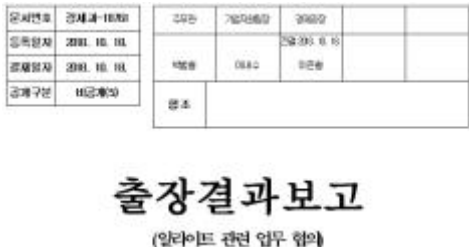

구분	일시 : 2018.12.10. 09:00 장소 : 영동군청 회의실	일시 : 2017.06.19 장소 : 영동군청 회의실
내용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사진		
구분	일시 : 2017.01.11 장소 : 영동군청 회의실	일시 : 2016.10.25. 09:00 장소 : 영동군청 회의실
내용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사진		

## □ 관련기업의견 수렴

- 관내 관련기업과 일라이트 사업 관련 워크숍 개최(2018.11.09.~10.)
- 일라이트 관련 우수업체 업무협의 및 관련 자료조사 (2018.10.18.) (2014.01.14.)

관련기업 의견 수렴 여부

구분	일시 : 2018.11.09.~10(1박2일)	장소 : 광주 및 목포 일원
내용	일라이트 관련 우수산업체 견학 및 간담회	
사진		

구분	일시 : 2018.10.18. 장소 : 충북도청 바이오 산업과	일시 : 2014.01.14. 장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전)
내용	일라이트 관련 우수산업체 업무협의 및 자료조사	
사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가칭)영동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할 협의 중에 있음(2019.01.17.)
- 실적(영동군발주)
  - 2006.04~11 : 영동군 일라이트 활용방안 연구용역
  - 2014.04~12 :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 제품 실용방안 연구
  - 2018.07~12 : 일라이트 고부가가치 상용화 연구 용역

## II. 영동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 인문자연 현황

##### ○ 위치 및 면적

- 영동군은 남한의 중앙,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경북 김천, 상주시, 서쪽은 충남 금산군, 남쪽은 전북 무주군, 북쪽은 충북 옥천군과 인접함
- 영동군 중앙에서 고속도로와 국도(19번, 4번)가 교차되고 있어, 교통 요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영동군의 전체면적은 845.4km<sup>2</sup>, 용산면은 66.9km<sup>2</sup>로 나타남

##### ○ 인구현황

- 영동군 전체인구는 49,177명이며, 남자 24,380명, 여자 24,797명, 24,328가구로 나타남
- 영동군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은 29.4%로 나타남

#### □ 역사문화 현황

##### ○ 문화재

- 영동군은 총 58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 ○ 지역축제

- 영동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영동포도축제와 영동난계국악축제 임
- 영동의 대표축제인 영동포도축제는 매년 8월 진행, 2017년 기준 약 20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음
-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매년 10월 진행하는 종합국악 페스티벌로, 난계 박연선생의 업적과 국악을 알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16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 되었음

##### ○ 특산물

- 영동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포도, 쌀, 곶감 등으로 나타남
- 영동군의 포도 재배면적은 8.4km<sup>2</sup>로 전국 최대면적이며, 생산량은 14,414.6M/T으로 전국 생산량의 12.8%를 차지하고 있음

## □ 토지이용 현황

### ○ 토지이용

- 영동군 토지는 임야 658.8km<sup>2</sup>, 과수원 6.8km<sup>2</sup>, 답 55.9km<sup>2</sup>, 전 53.3km<sup>2</sup>, 하천 24.4km<sup>2</sup>, 도로 17km<sup>2</sup>, 기타 29.2km<sup>2</sup>으로 구성되어 있음

토지이용 현황

구 분	면적(km <sup>2</sup> )	영동군 토지이용 현황(km <sup>2</sup> )						
	영동군	임야	과수원	답	전	하천	도로	기타
영동군	845.4	658.8	6.8	55.9	53.3	24.4	17.0	29.2

자료 : 2017년 영동군 통계연보

### ○ 용도지역

- 영동군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31.3km<sup>2</sup>, 비도시지역 814.1km<sup>2</s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의 비중이 큼

용도지역 현황

구 분	계	도시지역(31.3km <sup>2</sup> )									비도시지역(814.1km <sup>2</sup>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 환경 보존
		일반 주거1 종	일반 주거2 종	준 주거	일반 상업	일반 공업	준공업	보전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영동군	845.4	1.4	2.3	0.1	0.4	2.2	0.2	1.3	22.0	1.4	225.6	587.4	1.1

자료 : 2017년 영동군 통계연보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단위 : 개소

행정구역 (읍면)별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합 계	3,547	13	303	197	895	272	770	1,097
영동읍	2,050	5	106	139	592	147	421	640
용산면	236	2	53	12	41	19	52	57
황간면	333	0	48	16	67	28	78	96
추풍령면	128	1	13	4	19	12	40	39
매곡면	82	0	11	2	22	6	13	28
상촌면	126	1	6	2	24	6	53	34
양강면	117	0	15	2	30	12	14	44
용화면	41	1	4	1	8	1	9	17
학산면	118	0	14	3	28	12	24	37
양산면	131	2	7	6	23	7	40	46
심천면	185	1	26	10	41	22	26	59

○ 2015년 말 영동군 산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895개소, 25.2%로 가장 많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770개소, 21.7% 순으로 나타남

○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사업체 수는 13개소로 전체 0.4%를 차지하여 비교적 적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 명

행정구역 (읍면)별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합 계	15,289	78	2,817	1,509	1,863	625	1,642	6,755
영동읍	9,027	45	614	1,142	1,263	316	922	4,725
용산면	1,753	10	1,239	48	68	105	86	197
황간면	1,355	0	493	68	135	82	196	381
추풍령면	356	8	70	13	35	18	59	153
매곡면	506	0	105	115	55	6	26	199
상촌면	278	2	10	2	46	6	102	110
양강면	497	0	61	3	85	14	34	300
용화면	127	3	12	3	8	1	14	86
학산면	324	0	67	11	49	12	36	149
양산면	405	7	20	19	36	7	88	228
심천면	661	3	126	85	83	58	79	227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8. 03



○ 2015년 말 영동군 산업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2,817개소, 18.4%로 가장 많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863개소, 12.2% 순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산업별 사업체 현황에서 도매 및 소매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것에 비하면 종사자 수는 비교적 적게 나타남
-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종사자 수는 78명으로 전체 0.5%를 차지하여 비교적 적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 산업·농공단지 현황

단지별	단지 수 (개)	총면적 (km <sup>2</sup> )	분양대 상면적 (km <sup>2</sup> )	입주업체수(개)			종업원 수(명)	생산액 (억원)	수출액 (천불)
	소계	소계	분양 면적	소계	가동 업체	가동 률(%)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3	456	393	16	12	75	919	2,367	13,794
영동농공 단지	1	71	58	7	5	71	221	422	21
용산농공 단지	1	262	243	3	2	67	479	1,152	12,348
법화농공 단지	1	123	92	6	5	83	219	793	1,425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018. 03

○ 2015년 말 기준 영동군 내 농공단지는 총 3개소가 있으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총 16개로 가동률 75%를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 수 919명이 있음

#### □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순번	농공단지명	주요생산품
1	영동농공단지	LED등, 화장품, 스치로폴 등
2	용산농공단지	면, 마방직, 자동차부품 등
3	영동법화농공단지	세라믹분말, 산업용 고무 등

□ 관리사무소 현황

단 지 명	회 장	사업비 (천원)	종업 원수	규 모(㎡)		준공일
				부 지	건 물	
영동농공단지	이명열	91,611	1	2,034	374	88.10.30
영동법화농공단지	-	98,205	-	1,895	143	98.10. 1

※ 영동농공단지 업체현황(조성면적 : 73,989㎡, 22,381평)

단 지 명	대표자	조성 년도	생 산 품	종업 원수	규 모(㎡)		입 주 계약일	완 료 신고일
					부 지	건 물		
계 (9개업체)				215	60,688	32,431		
명성철망(주)	이명열	86. 08.02 - 87. 06.16	철선제품	10	5,755	3,780	99. 9. 6	99. 9.17
(주)사임당화장품	이형규		화장품		3,821	2,758	95. 6.12	95. 6.12
(주)케이알티	신은미		LED옥외용등기구	6	1,685	1,060	14.12.10	05. 3. 3
(주)엔텍(제1공장)	박진우		주방용품	91	18,165	7,139	86. 8. 8	87.10.13
(주)엔텍 (영동제2공장)			가스렌지	9	4,165	1,627	96. 3.22	96. 3.22
한신기업(주)	이규형		자동차부품	46	8,730	4,916	88. 8.16	04. 6.14
한신기업(주)	이규형		마그네슘빌렛	7	3,932	1,250	15. 2.25	16. 7. 4
세경산업(주)	심현일		스치로폴	16	9,321	6,678	94. 4.22	94. 4.22
(주)네온웨이	이동재		텔레비전	30	5,114	3,224	15. 1.14	

※ 용산농공단지 업체현황(조성면적 : 261,896㎡, 79,223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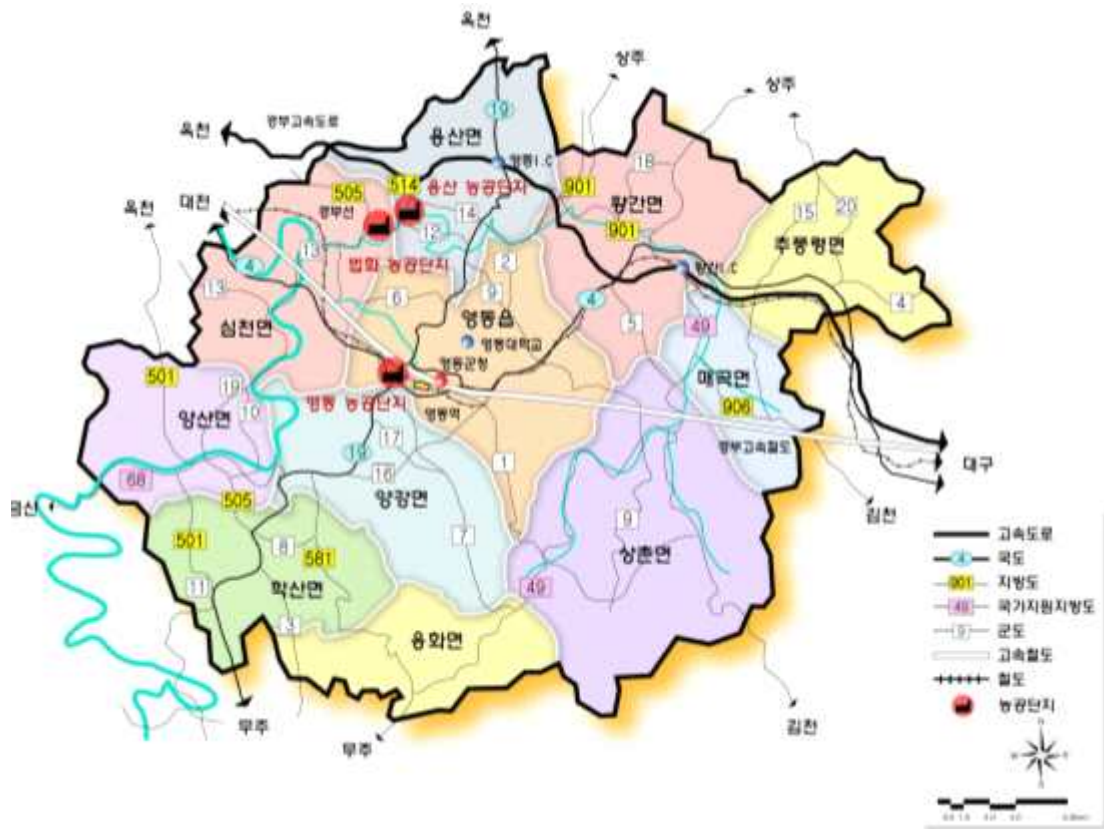
단 지 명	대표자	조성 년도	생 산 품	종업 원수	규 모(㎡)		입 주 계약일	완 료 신고일
					부 지	건 물		
계 (3개업체)	-	-	-	472	242,529	60,893	-	-
(주)풍안방직	최천웅	87. 01.28 - 88. 11.30.	면,마방직		162,945	21,881	87.02.12	88.11.28 (가동정지)
동성금속(주)	유시영		자동차부품	214	34,778	15,575	88.12.14	89.11. 2
유성기업(주)	유시영		자동차부품	258	44,806	23,437	88.12.29	91.12.23

※ 영동법화농공단지 업체현황(조성면적 : 122,991㎡ , 37,204평)

단 지 명	대표자	조성 년도	생산품	종업 원수	규 모(㎡)		입 주 계약일	완 료 신고일
					부 지	건 물		
계 (6개업체)	-	-	-	227	91,783	37,285	-	-
(주)현진티엔아이	김영서	96. 04.29 - 98. 08.28	가스저장탱크	16	7,277	2,397	05. 3.10	05. 7.28
(주)동우신소재	조우성		세라믹분말	24	10,825	4,044	03. 3.14	03.11.24
우리판넬(주)	정보화		샌드위치판넬	23	10,930	3,091	09. 2.18	09. 2.18
(주)현진티엔아이 제2공장	김영서		가스저장탱크, 벌크로리	32	7,939	2,421	16. 7.29	16.11.11.
동신기업(주)	노근진		산업용고무제품	15	8,620	3,220	11. 2.28	11. 7.13
(주)신안주철	이진우 이상훈		상하수도 주철관	117	46,192	22,112	01. 9.25	01.12.18

자료 : 영동군청 행정자료, 3개농공단지 458,876㎡ (138,809평 : 18개 업체)

영동군 농공단지 위치현황도



## 나. 공장 및 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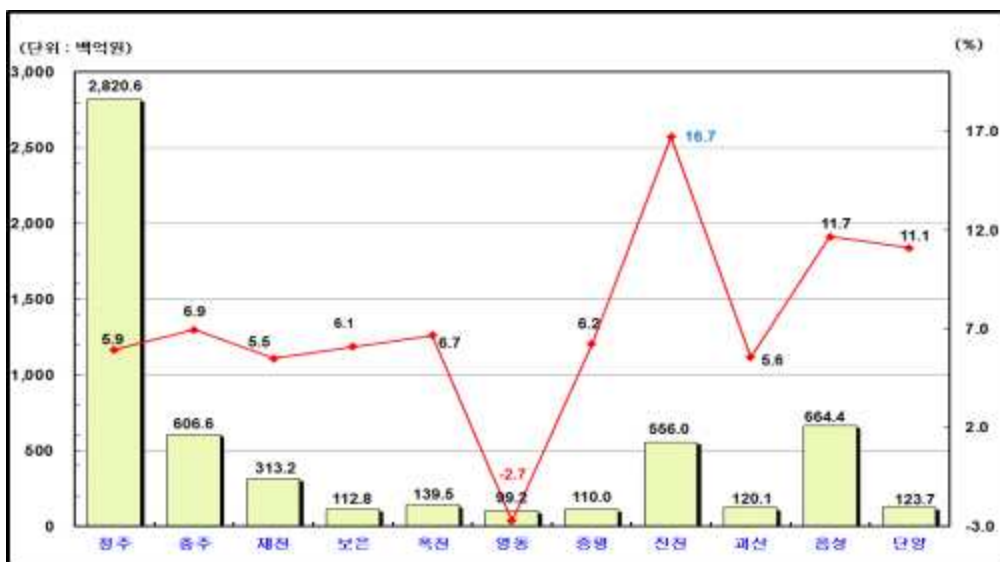
계		음식료제조업		섬유·가죽		목재·가구		전기·전자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152	2,746	44	490	4	63	10	89	5	55
화학·석탄		금속·기계		비금속		제지·인쇄		자동차(부품)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17	117	25	713	26	537	1	9	5	556
고무·플라스틱		기 타							
공장수	종업원	공장수	종업원						
9	89	6	28						

○ 2019. 3월 현재 영동군 공장 수는 152개사, 종업원 2,746명임(휴업 6개사, 건설 중 13개사)

## 다. 지역내총생산

- 충북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규모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상위3개 지역은 청주시(49.8%), 음성군(11.7%), 충주시(10.7%), 하위3개 지역은 보은군(2.0%), 증평군(1.9%), 영동군(1.8%)로 영동군이 최하위에 있으며, 상위 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충북 전체의 72.2%임
-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규모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진천군(16.7%), 음성군(11.7%), 단양군(11.1%), 충주시(6.9%), 옥천군(6.7%), 증평군(6.2%), 보은군(6.1%), 청주시(5.9%), 괴산군(5.6%), 제천시(5.5%)가 증가한 반면, 영동군(-2.7%) 감소하였음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및 증감률



## 라.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시 지역 평균 31,609천원, 군 지역 평균 45,875천원
- 영동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9,690천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다소 적음
- 7천만 원 : 진천군(76,296) / 6천만 원 : 음성군(64,071)
- 4천만 원 : 단양군(40,702)
- 3천만 원 : 청주시(33,639), 보은군(33,017), 괴산군(30,817)
- 2천만 원 : 증평군(29,708), 충주(29,001), 옥천(26,692), 제천(23,082)

## 시군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 마. 연구동향

### □ 영동군 일라이트 R&D추진실적

#### ○ 1차년도 연구[2017.07.01.~2017.12.31.(6개월)]

##### 1차년도 연구내용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소재분석(이화학적/생물학적 평가), 마스터배치 제조
결정구조	• 백운모의 결정성 보임(국제 유통체계상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정성분석	• Si-O-Si와 O-H의 영역대입
세포독성	• 세포독성 없음(활성도 100%이상 시 독성없음으로 평가)
마스터배치 제조	• 세라믹 소재의 함량이 높은 마스터 배치 생산을 위해 마스터배치 장비를 이용하여 세라믹 소재의 종류, 함량을 변경하여 소재를 제조

#### ○ 2차년도 연구[2018.01.01.~2018.12.31.(12개월)]

##### 2차년도 연구내용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소재분석(입도크기 제어 및 방사능 테스트), 마스터배치 특성비교 및 필름제조
입도분석	• 4.35~4.82 $\mu$ m
성분분석	• SiO <sub>2</sub> , Al <sub>2</sub> O <sub>3</sub> , Fe <sub>2</sub> O <sub>3</sub> 5.98%
마스터배치 활용 필름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름 내 세라믹 소재의 함유량을 확인하기 위한 SEM분석 진행</li> <li>• 3차년도에 본연구내용을 토대로 실제 영동군에서 생산에 적용할 필름의 생산조건을 확보하여 실증적용을 통해 필름의 기능을 확인할 예정</li> </ul>

○ 3차년도 연구[2019.01.01.~2019.12.31.(12개월)]

3차년도 연구내용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세라믹/고분자 복합 마스터배치 특성평가(세포독성/항균특성)
실증제품군 선정 및 적용	• 영동군 대표 작물 포장재, 영동일라이트를 활용한 뷰티케어용 소재개발

○ 소재분석 및 항균특성 등 관련 사전연구 진행 완료

## 바. 혁신자원 현황

### □ 시군소재 혁신자원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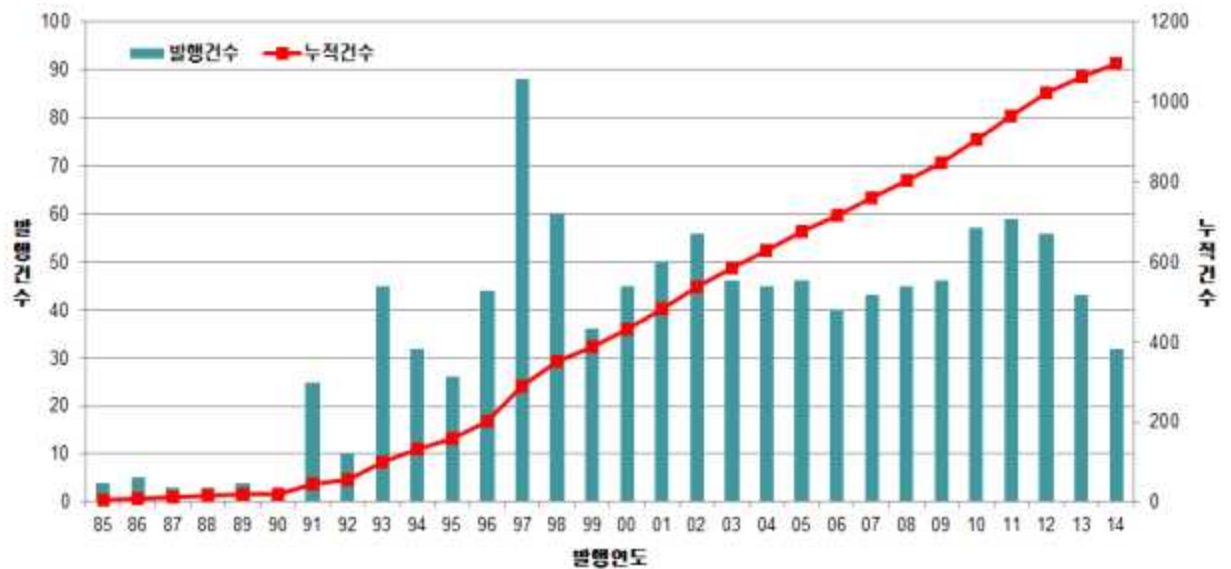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시군 전체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하연구기관 포함)	유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유원대학교
	기업연구소					
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하연구기관 포함)	유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유원대학교
	기업연구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와인연구소		

### □ 일라이트 현황

#### ○ 국내·외 일라이트 관련 연구현황

- 일라이트는 내화재, 도기, 타일 등 중요 요업원료로 사용되어 비금속 자원 조사 및 연구의 일환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됨
- 1985~2019년 기간 중에 일라이트(illite) 관련 국제학술지논문 969건, 국내학위논문 361건, 학술지논문 856건으로 나타남
- 연도별 일라이트 관련 학술지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라이트 연구가 활성화된 시기는 1997년으로 확인되며, 매년 3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이 꾸준히 발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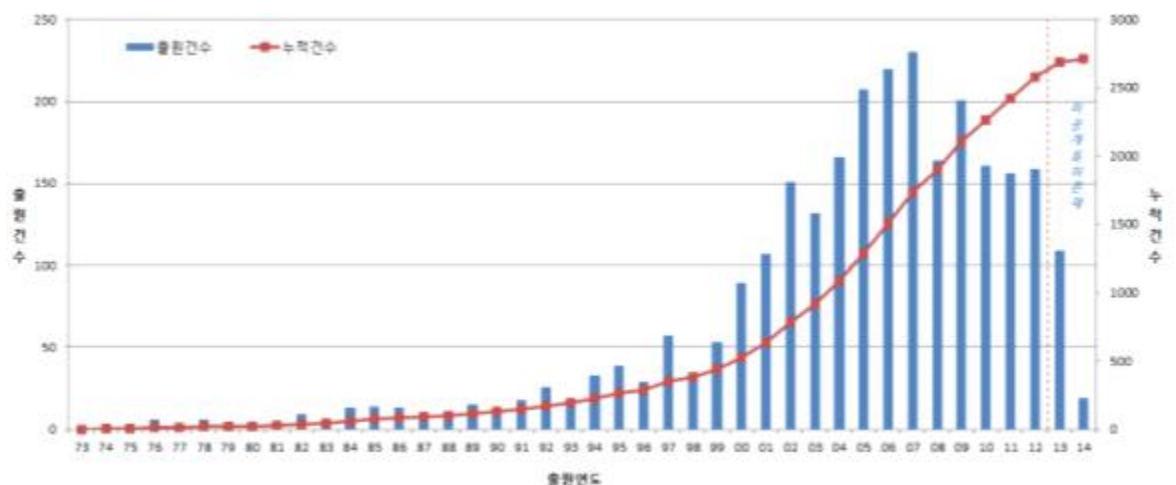
연도별 일라이트 관련 학술지 발행 현황



#### ○ 국내·외 일라이트 관련 특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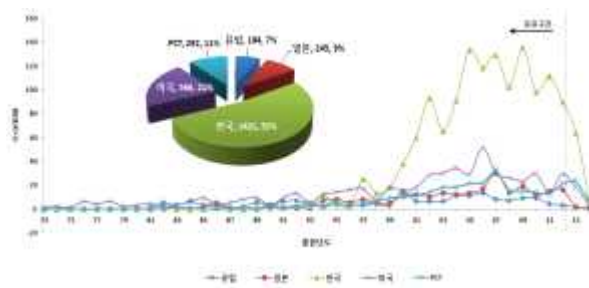
- 웹스(전세계 특허정보 검색) 상 2014년까지 일라이트(illite) 관련특허출원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특허협력조약에서 1997년을 시작으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공개 특허가 존재하는 2013~2014년을 제외하면 연간 100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음
-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우리나라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0년 전후로 특허 출원이 증가하였음
- 기술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분야(염료, 무기소재, 유기고분자화합물 등) 44%, 생활필수분야(농업, 임업, 축산, 의학 등) 21%, 처리 분야(물리, 화학, 장치) 16%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도별 일라이트 관련 특허출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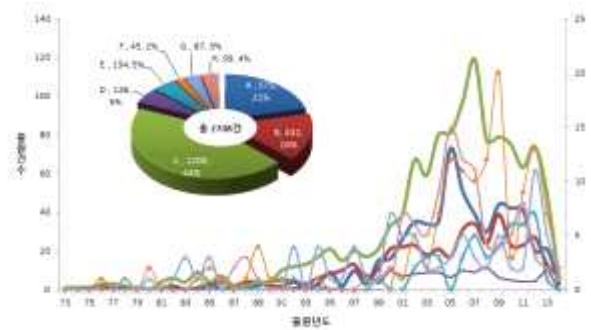




국가별 일라이트 관련 특허출원 현황



기술별 일라이트 관련 특허출원 현황



#### ○ 국내·외 일라이트 관련 산업현황

- 일라이트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소량 분포하지만 수백만 톤 이상 매장 된 곳은 **국내의 충북 영동군(광산 4개)이 유일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라이트는 주로 요업원료로 사용되며, 화장품용은 전량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 의약품, 수처리제, 토양개량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규 주택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해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국내 **법적 규제가 시행되면서 일라이트를 사용한 친환경마감재 개발 등 기능성 건축자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국내 일라이트의 매장량에 비하여 **일라이트 관련 산업 및 제품 개발의 실적은 미비한 실정임**

## 사. 정책지원현황

### □ 상위계획 및 연계사업 현황

#### ○ 충청북도 발전계획(2014~2018)

- 최종목표 :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 추진전략 : 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문화융성·생태복원, 복지·의료 개선

구분	내용
생활권	남부생활권(옥천·보은·영동)
발전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 차원에서 연계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유도</li> <li>• 지역축제의 공동 개최, 연계관광코스개발, 산업단지의 유치 등 환경보전 및 도시관리의 연계협력 방안 모색</li> </ul>

### □ 2020 영동군 기본계획

#### ○ 도시의 미래상 : “생명문화창조의 도시” 영동

#### ○ 계획목표 : 첨단과학 영농도시, 물류·생명 산업도시, 연구개발 교육도시, 쾌적한 환경생태도시, 관광·휴양 레저도시

구분	내용
생활권	북부생활권(심천면·용산면)
발전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중심 기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도모</li> <li>• 영동지방산업단지의 추진으로 중부내륙의 산업유통의 중심지로 개발</li> <li>• 영동종합레포츠단지 조성으로 늘머니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도모</li> </ul>

충청북도 발전계획-지역생활권



2020 영동군 기본계획-지역개발도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경쟁국 일라이트 산업현황(중국 길림성 안도현 일라이트)

- 2011년 : 안도현 경내에서 특대형 사질 일라이트 점토 광산 발견
- 2011년 12월 : 일라이트 신재료 산업원구 설립 320ha, 매장량 2억 톤, 안도경제 개발구 지정 318ha
- 2017년 : 안도현 혁신창업기지 건설

안도현 혁신창업기지 현황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계	과학봉사센터	일라이트 공사센터	표준화 공장
면적(ha)	18.5	11.5	223	0.6	9.9

- 주요산업 : 의약품, 식품, 일라이트 및 고신기술 중점 추진
- 안도현 혁신창업기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에 기술제휴를 요청하였으나, 기술유출 우려로 인해 거절함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국내 유일 일라이트 자원을 보유한 영동군

- 일라이트는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분포하지만 수백만 톤 이상 매장 된 곳은 충북 영동군이 유일함
- 영동군은 2007년부터 3회에 걸쳐 일라이트 산업화 관련 연구용역으로 학술적기반 구축
  - 유해물질 탈취·흡착효과 우수(90~100%) 원적외선 방출 등
- 영동군관내 일라이트 광업권은 총 23개 지적에, 2,648ha의 채굴권이 출원되었으며 영동군에서도 채굴권 5개 광구(318ha)출원
- 관내 채굴 가공업 4개업체와 생산판매 1개업체가 있으며 관외 40여개 기업이 일라이트를 소재로 산업 활동
- 충청북도에서도 천연광물 新바이오소재 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사업 계획으로 **(1단계)실증연구 → (2단계) 제품화 → (3단계,'20년~) 일라이트 산업화지원 센터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 일라이트 사업화의 필요성

- 첫째, 국외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경우에도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환경 및 보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일라이트를 비롯한 자연추출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은 2015년에 길림성지역의 안도 일라이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라이트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 둘째, 충북 영동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순도 일라이트가 다량(5억 톤 추정) 매장되어 개발 경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즉, 일라이트의 채취 및 정제를 위한 비용이 국내 타 지역 및 국외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아 경제적 측면에 있어 관련 분야의 산업 육성이 용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셋째, BT(Bio-Technology) 및 NT(Nano-Technology)는 IT와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나노기술 및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융합에 따라 환경은 물론, 의료, 미용, 식품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기대되는 일라이트 가공품은 미래 산업의 고부가가치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비금속광물

###### □ 국내

-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광업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2차 광업기본계획은 국가가 국내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매 5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 종합계획임
- 오는 2024년까지로 설정된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은 국내 광업이 당면해 있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장기적 정책 추진 기본방향의 하나임
- 체계적 광업 육성은 물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전략, 주요 실행과제를 도출해 내기 위한 청사진으로 광업법 제835조에 근거하고 있음
- 제2차 광업기본계획 목표·전략과 추진 과제로는 '개발 중심'에서 '광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정책 목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있음
- 우선 확보광량은 2013년 기준 170억 톤에서 2025년 195억 톤(15%↑)을 비롯해 △생산성 38톤/인→ 2025년 47톤/인(24%↑) △비축일수 30일→2025년 60일(100%↑) △100만 명당 재해율 28.6→2025년 25(13%↓) 등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 장기 목표임
-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는 △광물자원 개발의 지속가능성 제고 △광업 전주기와 ICT융합 △광물자원 안보 실현 △광산안전 관리강화 △지원체계의 효과성 제고 등에 방점을 두기로 했음

###### □ 해외

- (중국, 광산자원 정책 백서) 흑연, 인, 황, 칼리암염 등 비금속류 광물자원 91종을 비롯하여 지하수·광천수 등 3종의 액상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7천 여 개 광산을 포함하여 모두 1만 8천에 가까운 광산을 가지고 있음
-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금속류 광물자원의 개발에 있어서의 지형적·기술적 우위를 십분 발휘하여 관련 산업의 가공 수준과 집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새로운 발전 영역을 창출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구

-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반복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보급하는 한편 비금속류 광물자원 및 대체 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적·사회적 수요를 분담하는 정책을 시행
- **(각국의 광물자원개발 정책 동향)** 최근 10년간 미국과 유럽은 자원개발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중국, 호주, 남미 등은 같은 시기에 자원개발 산업 확충
- 중국은 2조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활용, 국영기업-정부 주도로 공격적인 자원 확보 추진
  - 해외자산 및 기업매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차관 및 ODA(공적개발원조), 부채탕감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자원협력 기반을 강화함
- 일본 역시 ODA 등을 통한 자원보유국과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Inpex(정부지분30%) 및 종합상사 위주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있음

## 2. 경제/산업 동향

### 가. 비금속광물

#### □ 국내

- **(비금속광물의 산업)** 점토광물은 산업광물이라고 불리는 비금속광물로 암석이나 광물의 풍화와 분해, 변성 작용에 의해생긴 미세한 입자의 집합체인 점토로 구성되어 있는 광물이며, 고령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등이 대표적임
- 토목 및 건설, 세라믹&제지, 고양이 깔짚, 충전제, 페인트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화장품·미용 등 펠라테라피, 식품 및 제약산업 등 고부가 바이오산업에 활용도가 높음
- 국외에서는 점토광물 중 벤토나이트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령토, 산성백토, 벤토나이트, 규조토 등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주로 토목용, 주물용 등 저가 산업재로 사용됨
-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는 보령 머드 축제와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이 대표적이며,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용 점토광물 원료는 적합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식품산업)** 규조토, 백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탈크, 펄라이트 등 총 6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광물
- 특히, 산성백토는 강한 흡착력을 지녀 음료와 양조 시 여과보조제로 사용되며 규조토는 간장이나 설탕의 정제, 탈크는 껌(gum)의 물성 개선을 위해 사용
- **(제약산업)** 경구투여 시 점토광물은 소화기를 따라 도포되면서 위액, 장액 등의 체액, 점막 조직과 반응하여 약리 활성화, 알약이나 위산제거제 등에 20% 정도 함유되어 사용
- 최근에는 표적치료를 위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특정 시간 동안 특정 농도로 약물이 방출되는 제어방출 약물전달체로 활용하는 연구 진행

## □ 국외

- **(다양한 산업부문에 벤토나이트 활용)** 벤토나이트는 가장 대표적인 점토광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0만 톤 정도가 생산되며, 매장량은 북미가 가장 많아 전체의 62% 차지
  - 주요 생산국은 2012년 기준 미국 480만 톤, 터키 200만 톤, 그리스 90만 톤 순
  - 미국의 벤토나이트 판매량은 2011년 352만 톤 정도로 시추용 이수, 애완동물 배설물 흡수제, 철광석 및 펄릿 제조, 주물사 등에 주로 사용
- 미국은 내수(273만 톤)보다 수출(352만 톤) 비중이 다소 높으며, 주로 재래산업에 활용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헬스케어용 보조 식품 판매
  - 독성 물질의 흡착과 체내 배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기하여 시판
- 유럽에서는 유럽산업광물협회(IMA Europe)를 중심으로 역내 산업광물 생산업체들이 타 산업과 융합토록 지원
  - 산업광물을 대표하는 10개 협회로 구성되어 700여 개의 광산과 750여 개의 생산 공장 지원

### 3.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비금속광물 산업)** 석회석, 규석 등 비금속광물 자원은 자급도가 70%를 상회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광업은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른 정부규제 강화, 광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증가, 최저 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인력의 충원부족에 의한 노령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음
- 국내 광물 생산이 어려워지면 국가 기간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자원을 현재의 가격보다 2~3배의 비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음.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로 비화될 원인이 될 수 있음
- **(국내 유일 일라이트 자원을 보유한 영동군)** 일라이트는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분포하지만 수백만 톤 이상 매장된 곳은 충북 영동군이 유일함
- 영동군은 2007년부터 3회에 걸쳐 일라이트 산업화 관련 연구용역으로 학술적 기반을 구축함
- 채굴 가공업, 생산판매, 여러 기업이 일라이트를 소재로 산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도 천연광물 新바이오소재 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라이트 산업화지원센터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나노기술 및 바이오기술과의 융합에 따라 환경은 물론, 의료, 미용, 식품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기대되는 일라이트 및 비금속광물의 가공품은 미래 산업의 고부가가치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환경 및 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 일라이트를 비롯한 자연추출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일라이트와 같은 자급도가 높은 비금속광물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체계를 가동해야 함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SWOT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b>지역경쟁력 SWOT분석</b></p>	<p style="text-align: center;"><b>강점(Strength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금속광물 자원 보유</li> <li>• 일라이트의 고부가가치 사업화를 위한 거점 및 지원체계를 구축</li> <li>• 과수, 원예 등 복합영농기술 발전 및 생산시설 기반 구축</li> <li>• 가축 전염병이 없는 무결점 청정지역(최근 구제역, AI 발생 'Zero')</li> <li>• 교통의 중심지로 국토 중심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고장</li> <li>• 금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자연과 농촌자원을 중심으로 한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자원 발달</li> <li>• 중부지방 최대의 편백숲 조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약점(Weakness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 환경 악화, 기업의 신규 투자 기피</li> <li>•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li> <li>• 숙박시설 및 관광인프라가 취약</li> <li>• 영동군 전체면적의 77.8%가 임야로 정밀 농업 확대 공간 부족</li> <li>• 영동군 내 쇼핑 등 문화시설이 부족</li> <li>• 관련 기술 R&amp;D 기반 시설이 부족</li> <li>• 힐링융복합산업 관련 전후방 제조업체 부족, 유치 노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회(Opportuniti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위 광물자원 보유</li> <li>• 부존량 풍부, 매장상태 양호, 자립도 높음</li> <li>• 광물자원의 국가전략적 보호 분위기</li> <li>• 친환경 건축, 화학, 뷰티, 의학, 푸드, 관광 등 전후방산업 호황</li> <li>• 자원강국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강력한 정부 의지</li> <li>• 정부 주도의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li> <li>• 가치창조의 농업인 육성 전략 및 농산촌자원의 6차산업화</li> <li>• 정부 차원의 농림식품 R&amp;D 제도 선진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S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위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li> <li>☞ 인프라확충 및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도모</li> <li>☞ 힐링관련 전후방산업 생산기술 접목 통한 산업 활성화</li> <li>☞ 도시-농촌 융복합산업 연계한 힐링관련 기술 연구 개발 및 연계를 위한 기반 조성</li> <li>☞ 소비자 가치변화 트렌드에 맞춘 신사업 발굴 및 6차산업화 등 다변화 추진</li> <li>☞ 힐링융복합산업 소재 가공 및 기술 응용제품 확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재 확보 수출 억제와 자원 안보화 전략</li> <li>☞ 힐링융복합지원센터 설립과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산업경쟁력 강화</li> <li>☞ 중장기적 전략로드맵 마련으로, 기술 및 산업변화에 능동적 대처</li> <li>☞ Value chain에 입각한 전후방 산업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li> <li>☞ 근접도시에 숙박시설 활용 방안 강구</li> <li>☞ 농업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힐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기반 조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위협(Threat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기술 인프라 취약</li> <li>• 기술낙후, 개발인력부족</li> <li>• 한정된 국내 시장</li> <li>• 정부의 체계적 추진 전략, 지원책 미비</li> <li>•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 미비</li> <li>• 물적자원의 내부 소비인구 감소</li> <li>• 농산물의 품질, 안전성, 소비자 요구도 증가</li> <li>• 타 지자체의 힐링산업 육성 활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S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라이트 광물의 고품위화 기술접목으로 고부가가치화</li> <li>☞ 정부의 체계적 전략 마련을 통한 적극적 재정, 인프라 지원</li> <li>☞ 지역대학 및 산업단지 등 산학 연계하여 적극적인 R&amp;D 및 사업 추진</li> <li>☞ 주변 권역과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자원 활용 극대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힐링융복합산업의 구축 및 지원으로 미래 국가핵심산업 육성</li> <li>☞ 전주기적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기초역량 강화</li> <li>☞ 농촌지역 토지이용과 보전의 질서 확립</li> <li>☞ 6차산업과 연계한 농촌지역의 활력 증대</li> </ul>

## 나. 기본방향

□ 일라이트와 미생물 접착제를 이용한 친환경 블록 제조

□ 추진개요

### ○ 일라이트

- 일라이트는  $\text{SiO}_2$ ,  $\text{Al}_2\text{O}_3$ ,  $\text{Fe}_2\text{O}_3$ ,  $\text{CaO}$  및  $\text{MgO}$ 의 함량이 대부분으로 중금속 및 유독가스에 대한 우수한 흡착·탈취·분해력, 상온에서의 높은 원적외선 방사와 음이온 발생능력, 항균성 및 항바이러스 능력 등을 가진 친환경 재료임
- 매우 희귀한 광석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소량분포 하지만 대량 매장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영동군이 유일함



(a) 일라이트 광맥



(b) 일라이트 분말

일라이트 광맥 및 분말

- 현재 국가차원의 친환경 인증제도, 녹색기술 인증제도 등 건설 공사에 있어 환경부하저감 및 친환경 재료의 유효한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법규제정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등 대부분의 주요 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및 친환경 재활용인증재료 사용 권장
- 일라이트는 국내 매장량이 5,156천 톤으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서 밖에 생산되지 않는 매우 유용한 광물이나 현재 국내 일라이트 생산량은 5.5천 톤으로 매장량 대비 0.1% 이하의 수준으로 개발의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판단됨

## 일라이트 통계



### ○ 미생물 접착제

- 일라이트 입자는 점토 성분으로 매우 약한 결합력을 가져 벽돌의 강도 증진에 악영향
- 일라이트 벽돌 제조 시 탄산칼슘 형성능력을 가진 미생물 접착제를 첨가하면 미생물이 일라이트 벽돌의 강도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미생물접착제는 일라이트 배합, 양생 과정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포자(spore)를 형성하여야 하고, 일라이트 원재료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 (탄산칼슘 등)을 분비, 형성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함
- 일라이트의 결합력을 유지하기 최적의 미생물 접착제 및 첨가 조건 선정 필요
- 일라이트는 건설 산업에서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재료이지만 균열이 쉽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내구성이 악화되는 일이 잦다. **본 연구의 최종결과물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적 혼화제로 만든 일라이트와 시멘트가 혼합된 벽돌의 비환경적이고 비지속적 강도로 유발되었던 문제들을 해결 할 것임.**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된 원리와 검증된 결과들은 다양한 일라이트 건설재료에 사용될 수 있음

미생물 접착제를 이용한 모래 벽돌



## □ 세부내용

- 기존 일부 연구자료를 통해 수질정화, 유해가스 흡착, 내부양생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고 일부 제품화가 이루어져 페인트의 첨가재료, 미장용 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일라이트는 미용, 제약, 농업 보조제 및 미장재료 산업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건축 재료로서의 사용은 약 10 % 미만의 국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활용 및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

일라이트의 산업적 이용(일라이트 친환경 건축자재화 연구, 2013)

종류	가공 및 입도	용도
분말형	1000 mesh	의약품, 화장품, 미용팩
	325 mesh	상수도 정수제, 사료보조제, 건축마감재, 폐수처리제
	50 mesh	토양개량제, 사료보조제, 건축마감재
과립형	1000 mesh	미용팩, 음식물 세척
	1000 mesh, 소성	정수제, 공기 정화제
입상형	5 ~ 10 mm	건축마감재, 바닥재
	2 ~ 5 mm	잔디 등의 바닥재, 호수등의 바닥재
	2 ~ 1 mm 이하	화문제, 어항 등의 바닥재
원형	소성가공	매트, 방석
구형	25 mm	건강보조기구
	3 mm	정수, 필터 재료
	1 mm 이하	필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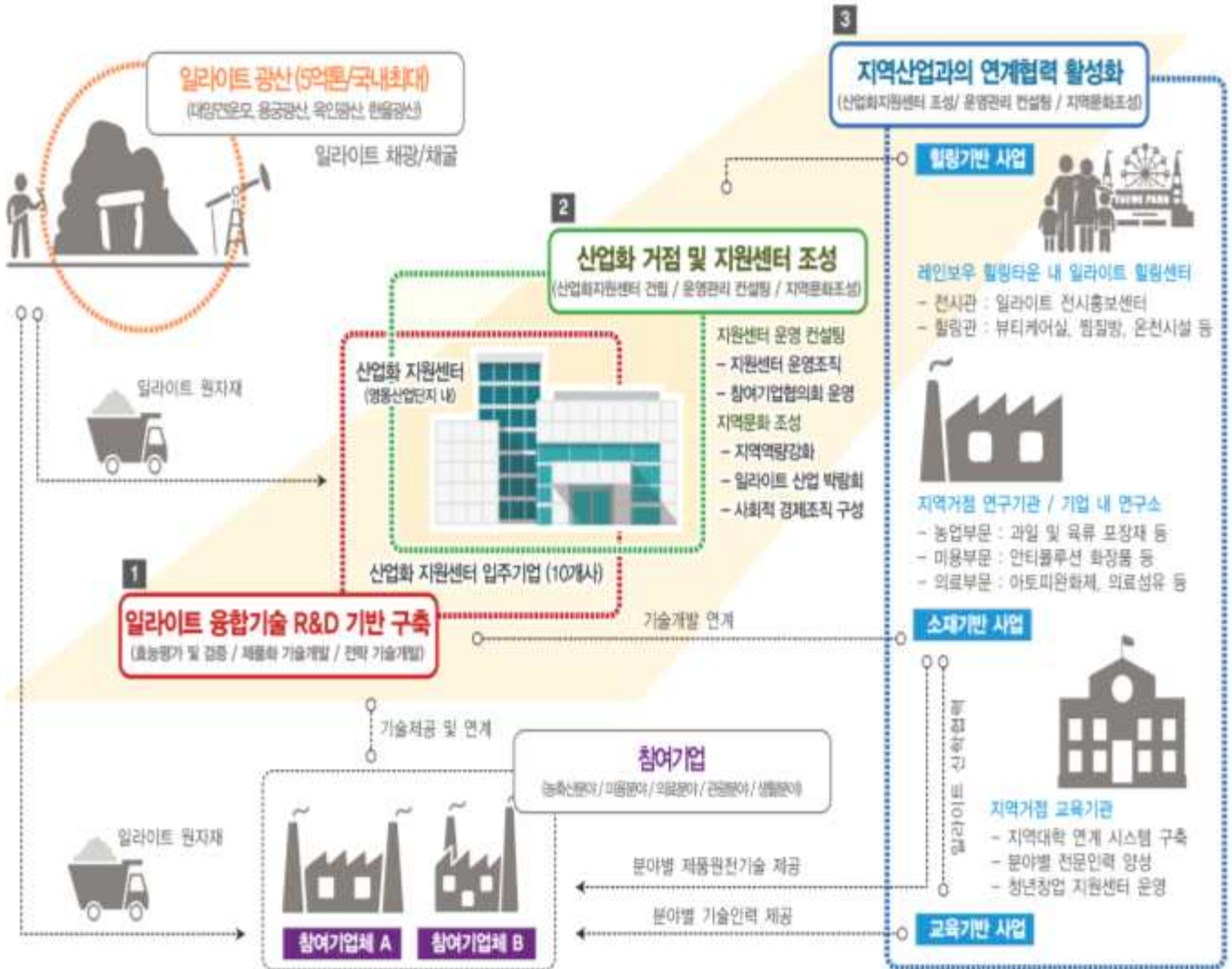
- 건설용 기능성 재료로서의 일라이트의 용도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고 아울러 기존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참신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명칭	비금속광물 산업		
산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일부 연구자료를 통해 수질정화, 유해가스 흡착, 내부양생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고 일부 제품화가 이루어져 페인트의 첨가재료, 미장용 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li> <li>친환경적 요소를 부각시킨 일라이트 파생상품의 개발 가능</li> </ul>		
핵심 KSIC 코드	KSIC코드*	세세분류업종명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유망 제품 (기술)	유망분야	주요기업	생산품목
	가전제품	메덱스힐링	찜질기, 돌침대, 반신욕기
	생활용품	생활도감	치약, 샴푸 등
	음용수 적용 제품	유경바이오	세라믹볼(찜질, 정수용 등)
	가전제품	한국건강	온수매트, 돌침대, 반신욕기
	음용수 제품	한모금	1회용 음용수

## 가. 기본방향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명칭	비금속광물 산업		
산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일부 연구자료를 통해 수질정화, 유해가스 흡착, 내부양생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고 일부 제품화가 이루어져 페인트의 첨가재료, 미장용 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li> <li>친환경적 요소를 부각시킨 일라이트 파생상품의 개발 가능</li> </ul>		
핵심 KSIC 코드	KSIC코드*	세세분류업종명	
	07110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유망 제품 (기술)	유망분야	주요기업	생산품목
	가전제품	메덱스힐링	찜질기, 돌침대, 반신욕기
	생활용품	생활도감	치약, 샴푸 등
	음용수 적용 제품	유경바이오	세라믹볼(찜질, 정수용 등)
	가전제품	한국건강	온수매트, 돌침대, 반신욕기
	음용수 제품	한모금	1회용 음용수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 비전 : 세계적 비금속광물 연구·개발 경쟁력 기반 마련
- 목표 : 비금속광물산업 육성
- 추진전략 : 비금속광물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 비금속광물산업 핵심기술(응용연구) 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 공모
  - 비금속광물산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 4.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영동군 비금속광물산업 육성 전략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영동군 비금속광물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비금속광물산업 핵심기술(응용연구) 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 공모
	비금속광물산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 가. 비금속광물산업 핵심기술(응용연구) 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 공모 사업

### □ 사업개요

- 영동군 비금속광물산업분야 벤처기업,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신규 착수 예정 핵심기술(응용연구)의 연구개발기관(업) 선정 공모

### □ 지원분야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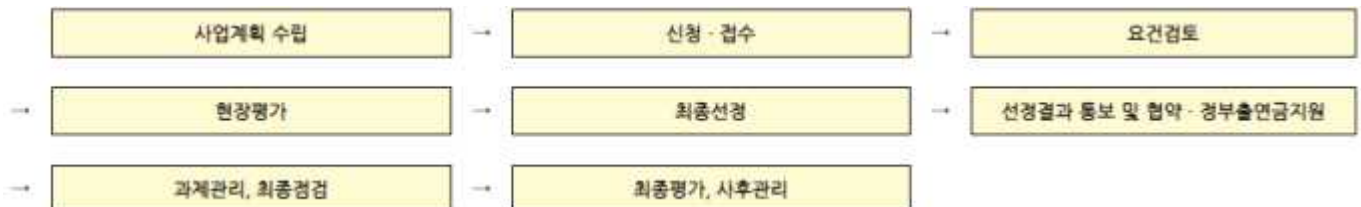
- 충북 영동군 특화산업(비금속광물 가공) 관련 기업(관)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1개 이상 영동군에 위치한 기업(관)
- 제안기관 자격요건
  - 전문연구기관,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부속연구소 등
  - 컨소시엄 구성 시 컨소시엄 기관(업)은 제안서에 참여범위 및 비율을 명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업)을 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해당 기관의 참여를 명시하여 협력기관의 권익을 보장

###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 2억원
- 지원내용

공모과제	접수기간	사업기간
영동군이 보유한 비금속광물자원을 활용한 제품(기술) 연구·개발 지원	2020.02.03.~02.28	최대 1년

### □ 지원절차



### □ 가점우대제도

- 학·연·산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가점 우대

## 나. 비금속광물산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영동군 비금속광물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

### □ 지원분야 및 대상

- 충북 영동군 특화산업(비금속광물 가공) 관련 제조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 소재지가 1개 이상 영동군에 위치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최근 3년 평균 12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매출제한 없음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및 제품제조 여부 확인)

###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 1억 원, 5개사

####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제조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준
  - 지원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 □ 신청기간

사업명	프로그램명	차수	접수기간	비고
비금속광물산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제품개선	1차	2020.02.03.~02.28	자유공모
		2차	2020.07.01.~07.31	
	공정개선	1차	2020.02.03.~02.28	자유공모
		2차	2020.07.01.~07.31	

## □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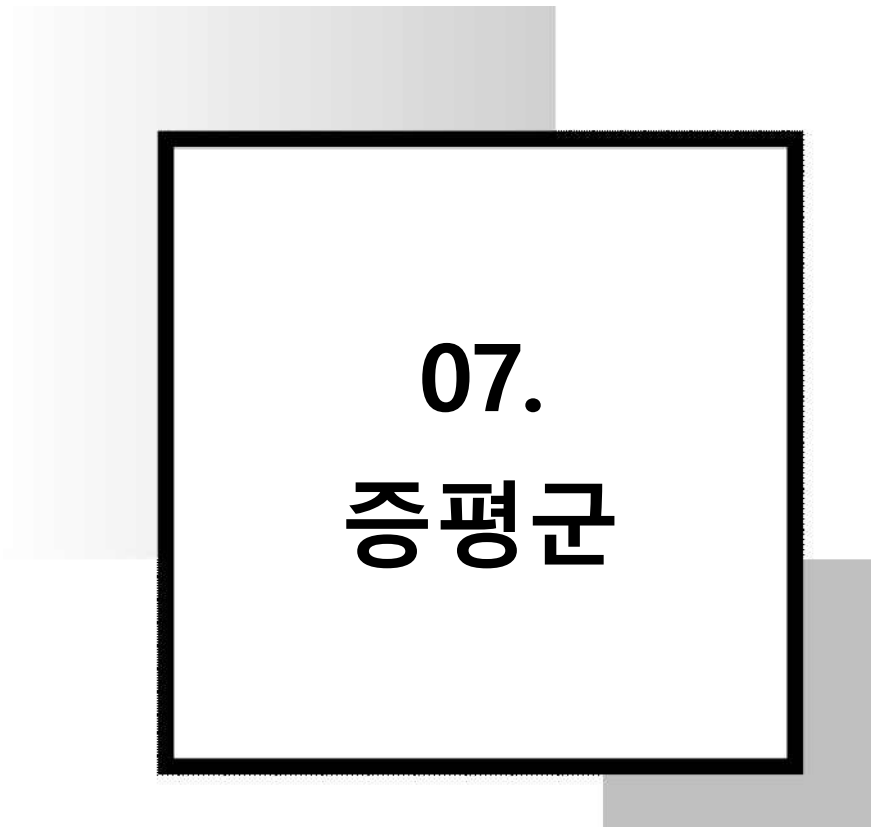
# 5.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 영동 비금속광물자원의 효능 우수성 확보 및 다양한 고부가 프리미엄 제품화 개발을 통해 영동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영동군 통계연보 기준 최근 5년간 영동군을 찾는 관광객은 약 165만 명으로 비금속광물과 연계하여 10%의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약 176억 원의 간접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농축산·친환경건축·미용·의료 등 비금속광물 응용에 따른 복합사업화 분야의 직접편익 및 이에 따른 간접편익까지 고려할 때 영동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예상됨

## 나. 정책적 효과

- 비금속광물자원 응용 분야의 특허 및 기술연구 점유율을 높임으로서 우리나라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하는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07. 증평균

## I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증평군은 2003년 개청하여 1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후발 자치단체로서 지리적으로 1읍 1면의 소규모 행정체제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국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81.83km<sup>2</sup>)을 가진 자치단체임
- 그러나 인구의 95% 이상이 증평읍 중심지에 거주하는 콤팩트시티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40.9세로 전국 82개 군단위 중 5번째로 젊은 인구분포를 갖고 있어 지역활력도와 성장잠재성이 높음
- 다른 시, 군, 구와 비교하여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1, 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6개사의 태양광에너지기업 및 15개사의 기능성식품 소재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였음
- 한편으로 증평의 특산품인 인삼과 홍삼포크를 활용한 '증평 인삼골축제'와 좌구산 휴양랜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2017년에는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로 에듀팜 특구(총사업비 1,594억 원)가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위와 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홍삼가공제품을 근간으로 한 증평의 식품산업군은 단순 식품시장에서 뚜렷한 성장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에 기반을 둔 증평군의 미래산업은 (1)기존 식품 산업군의 기능성화, 그리고 (2)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지리적으로 근접한 충주국가산단 및 청주/오송의 첨단의료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시너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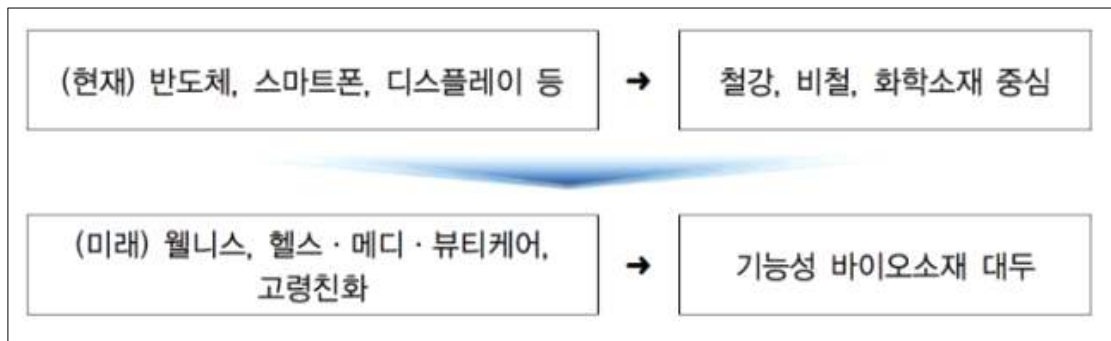


자료: 차세대바이오그린21 성과보고서(2017)

※ 기능성 바이오소재의 예

인삼에서 진세노사이드를 농축하고 특이 사포닌으로 변환하여 건강기능성 소재나 의약품 소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가 1,000배 이상 상승한다.

- 최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 뷰티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질환 증가로 경 조직 재생관련 관심 증대
- 선도유지 및 다이어트 효과 등 산업용 기능성 소재 수요 확대
- 국가 부의 창출은 IT소재에서 BT소재로 전환 중
  - 고부가가치 바이오 제품화를 위해서 후방산업인 소재와 바이오 콘텐츠 연계 필요
  - 국내 바이오산업은 가치사슬(value chain)의 근간이 되는 소재 기술이 취약함



※ 4D바이오융합소재는 지속성(Durable), 환경적응성(Dynamic), 방향성(Directional)구조 재현성(Dimensional)이 구현된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말하며 주름개선제, 점안제(인공눈물), 유착방지제(수술후), 연골치료제 등에 적용되는 소재를 말한다.

## 나. 추진목적

- 증평군은 본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1)기존의 식품 산업군의 기능성화 및 (2)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개발 및 기업육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후방산업인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을 위해 증평군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총사업비 215억)를 유치, 차세대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을 특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혁신기반자원을 보유한 상태임

- 따라서 증평군은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기존 식품산업군 기업의 기능성화 및 신규 기업들의 기능성 바이오소재 분야 R&D 및 시제품 제작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선 순환적구조 방향으로 향후 조성 예정인 제3 산업단지로의 정착을 유도하여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단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이러한 증평군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향은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충주와 청주로 대표되는 바이오산업군의 고도화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성 바이오소재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제공하여 주변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시너지 역할을 하고자 함

## 2. 추진경과

### 가. 특화산업 발굴 추진경과

추진일정	내용	추진주체
2017.05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사업 선정 ※ '17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 (세부사업명:시스템산업거점지원사업)	충청북도 증평군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학교
2017.05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협약 체결(1차년도) ※ 5자협약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충청북도, 증평군,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약동일)	(주관)충북테크노파크 (참여)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03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협약 체결(2차년도)	(주관)충북테크노파크 (참여)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3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협약 체결(3차년도)	(주관)충북테크노파크 (참여)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3.22	2020년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계획 보고 (4D센터와 연계 추진) 	증평군
2019.04.09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개소식 및 GMP착공식 개최 	(주관)충북테크노파크 (참여)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05~	2020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 진행 중 	증평군 4D센터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



- 증평군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사업 선정 및 구축사업 '순항', 지원센터 개소 등
- 증평군 현안사업 정상 추진 중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 증평3일반산업단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 성장잠재력 높은 증평군 현안사업 적극 지원 의지 밝힘 (이시종 충북지사)

[illegible]

##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특화산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내·외부 의견 수렴

#### ○ 의견수렴 개요

- 목 적 :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 선호도 분석으로 지원프로그램 도출

### □ 의견수렴 결과 분석

- 증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3산업단지 구축 및 기업유치 의지가 높음
-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내 산학협력 지원 기능 강화 추진 중으로 지역혁신거점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와 함께 4D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를 함께 구축 중임
- 마크로케어 등 증평 산업단지 입주 바이오 관련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확장 의지
- 홍삼제품 전문기업 농협홍삼은 홍삼제품에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에 도전장을 내고 '한삼인' 브랜드의 가치 제고 프로젝트 진행

####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주요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특화산업육성의 저해요인	집중산업 육성 미흡	전문관리기관의 부재	기업지원 정책 부족
지역 맞춤형 특화산업군	기능성바이오소재	기능성식품	첨단소재
지원희망 프로그램 부문	R&D 지원·기술지원	장비활용 분석지원	비R&D (시제품제작, 마케팅지원 등)

#### [증평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향 설정]

특화산업육성 기반마련	지역 맞춤 특화산업군의 집중 지원육성과 관리기관 구축을 통한 바이오소재기업 발전 토대 마련
지역특화산업군	기존 육성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b>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b>
주요 프로그램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화단지 입주지원(세제혜택)</li> <li>•시제품 제작 지원 / 공동 연구개발 지원 / 분석장비·GMP시설 연계 지원</li> <li>•네트워크 구축 지원(연계 협력체 운영, 기술교류회 등)</li> </ul>

### Ⅲ.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 지리적 이점

- 증평군은 충북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화도시와의 연계가 가능하며, 특화도시 간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호남고속철 등 주요 광역 교통망과의 인접으로 수도권 및 중부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남
- 또한, 괴산군(청안면, 사리면), 청주시(북이면), 진천군(초평면), 음성군(원남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는 차량으로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여 동일한 생활·산업·경제권을 형성
- 충북 내 첨단의료기기 바이오밸리의 브릿지 역할로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허브 역할, 기능성 바이오 소재 분야 특화

## □ 주요 활용 인프라



- 증평군은 산업단지, 관광/휴양지, 지역혁신기관 등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IT, BT, NT, GT 융복합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 제조 및 생산까지 가능하며,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의 ALL-IN-ONE 시스템 구축하여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산업단지 : 증평일반산업단지(IT기반 융·복합 산업 거점), 증평2일반산업단지(그린 IT산업 거점), 증평3일반산업단지(기능성 바이오 소재산업 거점, 착공예정)
- 관광/휴양자원
  - 에듀팜특구(도안면 연촌리 일원) : 휴양콘도/숙박, 농촌테마파크, 식물원, 대중골프장 등
  - 좌구산 휴양랜드(증평읍 울리 일원) : 자연휴양림, 천문대, 휴양촌 등
- 지역혁신기관 :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내)
- 교육기관 :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보건/식품/바이오 특화)
- 지역특화작물 : 인삼, 홍삼 관련 창업지원센터, 산업체 입지(NH한삼인)
- 기타 : 증평군내 첨단기술 기업체 다수 입지 (SK이노베이션(주), (주)신성이엔지 등)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 □ 지역 대표기업 현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직원(명)	생산품목
1	풀무원 건강생활(주)	여익현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267	녹즙, 화장품
2	(주)에프앤피	김신제	증평군 도안면 노암로 60	29	홍국미
3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	이규보	증평군 도안면 행갈길 179	24	홍삼제품
4	(주)청술생약	윤영주	증평군 도안면 인삼로 741-2	5	한약
5	증평농수축특산물 유통영농조합법인	임재욱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31	10	홍삼, 홍삼농축액
6	장딸영농조합법인	김태곤	증평군 증평읍 삼성길 47	5	식물성 유지
7	(주)휴먼에프앤비	양호열	증평군 증평읍 대봉산길 9	9	홍삼진액, 홍삼차
8	건미바이오	강성도	증평군 증평읍 진지내길 5	-	화장품
9	죽리토종식품	공병임	증평군 증평읍 원평길 234-1	2	청국분말
10	(주)농협홍삼	안종일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150	홍삼 가공제품
11	마크로케어	이상린	증평군 도안면 증평2산단	46	의약/화장품 원료
12	씨솔	나기혁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국제관 310호)	1	화학수지
13	최고사이언스	이동관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국제관 309호)	1	연구용역
14	(주)코리아테라퓨틱스	원영욱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국제관 317호)	1	면역세포치료제
15	(주)시큐웨어	김승용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국제관 316호)	15	응급의료시스템개발 등

#### □ 군내 기능성 소재 기업 현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직원(명)	생산품목
1	(주)그린위치	유종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 52번지	30	분말조미료
2	(주)농협홍삼	허정덕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310-1번지	150	홍삼 가공제품(홍삼, 홍삼차, 홍삼엑기스 등)
3	(주)뉴테크	류인선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662번지	27	인쇄회로기관
4	(주)대유통신	김명희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186-1번지	47	헤드폰, 이어폰, 마이크 Cord
5	(주)덕유	정재윤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302-1번지	94	플라스틱파레트, 상자
6	(주)두산	이재경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661번지	531	동 박적층 판
7	(주)두원전기소방	김동욱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497-3	8	태양광구조물, 태양광발전장치
8	(주)디엔피코퍼레이션	윤주민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697번지	130	인쇄회로기관
9	(주)리틀환경산업	장현민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67-2번지	3	소켓트, 비닐패드
10	(주)메이준바이오텍	우석훈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18번지	50	카카오닙스, 아시아베리

11	(주)바이오제네틱스	하관호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06-1번지	127	콘돔,의료용고무장갑,지삭크
12	(주)비젠	이종경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671번지	5	허브음료
13	(주)빛글산업	박경자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29-3번지	4	종이가방
14	(주)서흥	양주환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00번지 (4B)	40	레저용캡슐
15	(주)세스코	전찬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342-4번지	36	의약품, 가정용 전기기기, 전기장비 외
16	(주)세종	정혜정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146-8번지	3	테프론 가공품
17	(주)신성이엔지	이완근 외 2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045번지	117	태양전지, CR
18	(주)신일	지순규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130-7번지	2	입국,냉동생지
19	(주)씨비티	전순표, 전찬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342-4번지	4	바퀴약, 손세정제(Gels)
20	(주)씨앤비	류일형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735-1	10	플라스틱직물포대
21	(주)에스지텍	김동연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32-2번지	250	LCD용 광학필름
22	(주)에프앤피	김신제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30-1번지	29	홍국쌀, 건강기능성 식품
23	(주)에프앤피2	김신제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30-4번지	25	유채씨유
24	(주)영창화학기계	원선희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23번지	11	추출, 농축기 등 각종 플랜트 설계,시공
25	(주)오리엔탈스페이스	김태옥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165-4번지	2	천체망원경, 천체 돔
26	(주)청가원	신재곤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128-0	13	도시락김,재래전장김, 김자반,군고구마스틱
27	(주)청솔생약	윤영주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134-5번지	5	한약제조
28	(주)청암식품	강민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01-1번지	31	닭고기 부분육
29	(주)청호흙사시	윤광근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2-3번지	3	창호
30	(주)캠테코	오세훈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32번지	14	특수 그리스, 윤활유
31	(주)케이에스피	김정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388-1번지	7	자외선 차단용 시트, 친환경 난연시트
32	(주)코스모텍	심동욱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532-1 번지	304	D/S인쇄회로기판, S/S인쇄회로기판
33	(주)코스텍	김정태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194-1번지	21	GEL BATCH, Liquid Bath, Silicone Toner
34	(주)태림피앤비	연재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0번지 10B 2L	7	지관,합지,원지슬리터(재단)
35	(주)피엔티코리아	박종국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 110-5	10	식품용기및우유용기
36	(주)피유팩토리	김경삼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 47-1번지	3	폴리우레탄 및 기타 합성수지
37	(주)한국알미늄	오지구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7번지	140	알미늄호일/식품포장지
38	(주)한인엠시티	이원일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36번지	10	활성탄소
39	(주)해마루	최진호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419-8번지	15	김치
40	(주)호혜글로벌	배상덕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1037번지	21	섬유사염색
41	(주)휴먼에프앤비	양호열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967번지	9	홍삼진액,홍삼차,홍삼절편,캔디,양념소스



42	SK이노베이션(주)	김준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071번지	1,055	LIBS, FCCL
43	강산FS	김만중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485-5번지	2	햄버거 패티,떡갈비
44	거광스톤	채길홍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9-2번지	4	경계석, 석물, 건축자재
45	건미바이오	강성도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24번지 한국교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11호	2	화장품 원료, 천연화장품
46	금강제재소	김정태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403-4번지	3	목재
47	금산웬스개발(주)	백금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산 1-2번지	10	스틸디자인웬스,알 미늄웬스,창살웬스, 기타
48	농업법인 친농(주)	이선영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453	20	고추가루, 고추, 배추, 야채
49	농업회사법인 다인(주)	윤수환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415-1번지	20	부분절단육(육계,오리) ,오리훈제
50	농업회사법인 명가(주)	경인주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154-1번지	10	한과
51	농업회사법인 (주)찬선	정동수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산 61-9	10	김치
52	농업회사법인 (주)새싹	윤희남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342-1번지	5	발효식초
53	대림통상(주)	이재만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039번지	180	수전금구류
54	대연식품	황병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83-1번지	5	육포
55	대원산업(주)	권선욱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71번지	15	배전반, 자동제어반, 통신단자함
56	대원산전(주)	권소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72	6	옥내,옥외 광고물(간판)
57	대원전기(주)	권세원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27-1	15	태양광 발전기
58	대율기업	최동일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548번지	2	패션니트장갑
59	도안농업기계(주)	박노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95번지	8	금속탱크, FRP 이중탱크,벤티질절단기
60	동양라바	박돌자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134-4번지	2	가정용고무장갑
61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	강희태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30번지	813	과일,채소 전처리, 소포장, 축산가공
62	롯데제과(주) 증평공장	민명기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71번지	255	빵류
63	미곡종합처리장	김규호	증평군 증평읍 죽리 65번지	6	임가공도정
64	벌벌돌	김미정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74	3	인형(드레스인형,봉 제인형)목재소품
65	보온장갑	최용자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380번지	5	면장갑
66	본푸드	최명남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156번지	5	고춧가루
67	비엠생명공학(주)	김희구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43번지	4	의료용 패드, 의료기기 등
68	비전테크(주)	조성웅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759번지	10	금형,인쇄회로기판
69	산에산푸드	박광현 외1인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227번지	6	두부
70	삼화제재소	최강자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08-1번지	2	목재(각재, 판재)
71	상호포장	정호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28번지	5	골판지상자

72	성산하이텍	장경식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146-8번지	4	전자부품
73	아벨정밀(주)	연세흠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268-1번지	17	전자부품, 저항기
74	영림푸드	송정현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94	5	지옥,정옥
75	온세산업개발(주)	이선자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876-11번지	8	세라믹코팅제
76	용마식품	김용진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319-8번지	2	된장,청국장, 소스용 효소
77	일진기업사	최정남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399-4번지	5	시멘트벽돌
78	장뜰영농조합법인	김태곤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370번지	5	농산물가공품, 참기름, 들기름
79	장안하이텍	박찬희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24번지	15	SMC 판넬(건축자재)
80	정우세라믹	김정수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573번지	6	탄화규소질도가니,흑 연발열체,PLPP세라믹
81	제일테크(주)	최승우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86	26	자동차 도어 손잡이
82	(주)대영	신종덕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588-1	4	스피드앵커
83	(주)대원플랜트	이근섭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499	4	건조기, 탈수기
84	(주)대일	송영섭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288-5번지	10	플라스틱창호제
85	(주)비에스티코리아	정인환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243	13	음식물처리기, 노출클리너
86	(주)엑셀	서기원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23-1번지	1	load cell
87	(주)에스이에이	신재호 장경문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29번지	42	Solar cell 제작용 장비 외
88	(주)제이텍	김관수 외 2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285-1번지	30	전기전자부품
89	(주)청우	안종근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826-7번지	4	철 구조물
90	(주)청우	안종근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036번지	30	철구조물, 용접(송유,가스관등)
91	(주)퓨엠	송재범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35번지	14	산업용 가스, PET
92	(주)한미에프앤에프	박승백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128-0	13	곤약국수, 곤약묵, 조미볶음, 조미소스,
93	(주)한백티에프	오세형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916번지	13	쇠고기맛플러스, 육수용소스
94	(주)엠에스정보통신	김현일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41-6번지	4	IP카메라
95	주앤보(주)	홍경표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204-2번지	6	막구조물, 일반철구조물
96	중부유로품	이형만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47-1	5	유로품
97	증평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조영석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616번지	6	비료
98	증평농수축특산물 유통영농조합법인	임재욱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82 외 5 필지	10	홍삼,홍삼농축액, 홍삼음료
99	증평탁주합동제조장	우종인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36-1번지	1	탁주
100	천두식품(주)	이두희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244	10	만두
101	청보	박종명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316-1번지	16	꽃게장, 육가공식품
102	충북인삼농협 고려인삼창	이규보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131-2번지	24	홍삼제품



103	케이아이씨(주)	조용구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315-5번지	11	접착제
104	코파마테크(주)	최검우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767번지	9	탄산리튬미순쇄 품
105	태인기업	변정옥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1051번지	15	콘크리트 2차 제 품
106	푸른절임배추	연대수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560-1번지	10	절임배추
107	풀무원건강생활(주)	여익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56번지	141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녹즙
108	풍남레미콘(주)	정성화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778-1번지	13	레미콘
109	플래티넘크래프트(주)	배문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88번지	15	맥주
110	피엔티코리아	이승복 박종국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81-11번지	13	식품용기 및 우유용기
111	피엠화학	민병기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95번지	11	플라스틱 재생원료
112	한국철강(주)증평공장	문종인, 이수하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044번지	4	경질형 태양전지 모듈
113	한그루식품	이수천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52-5번지	8	두부
114	한그루식품 2공장	이수천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553-7번지	6	두부,묵
115	형제ENG	이형관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93번지 인텍	3	플라스틱시트
116	후지라이테크(주)	김민철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1037번지	121	LCD용 CCFL전극, LED조명
117	흥진두부공장	임옥열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1046번지	5	두부,순두부
118	마크로케어	이상린	증평군 도안면 증평2산단	46	의약/화장품 원료
119	씨솔	나기혁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국제관 310호)	1	화학수지
120	최고사이언스	이동관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국제관 309호)	1	연구용역
121	(주)코리아테라퓨틱스	원영욱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국제관 317호)	1	면역세포치료제
122	(주)시큐웨어	김승용	증평군 증평읍 대학로 61(국제관 316호)	15	응급의료시스템개발 등

## 나. 생산현황

### □ 지역총생산 현황

- 증평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2017년 이래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증평군의 지역총생산(GRDP)은 2016년 1,100십억 원으로 충청북도 지역총생산(GRDP)의 1.9%를 차지
- 증평군의 1인당 GRDP는 28,950천원으로서 충청북도의 83%(28,950천원) 수준임

지역내 총생산 비교

구 분	충청북도			증 평 군		
	GRDP (십억)	인구(명)	1인당 GRDP(천원)	GRDP (십억)	인구(명)	1인당 GRDP(천원)
2011년	42,489	1,588,633	26,746	935	34,420	27,164
2012년	43,628	1,590,457	27,431	828	34,707	23,857
2013년	47,402	1,600,163	29,623	1,058	35,035	30,227
2014년	49,791	1,609,588	30,934	1,125	35,358	31,817
2015년	52,655	1,616,589	32,572	1,035	37,260	27,778
2016년	56,660	1,627,124	34,822	1,100	37,996	28,950

자료 : GRDP-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충청북도 및 증평군 통계연보 2017

### □ 지역총생산 전망

- 과거추세연장법(등차·등비급수법과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여 산출평균)에 의해 증평군 지역총생산을 전망한 결과 2030년 목표년도에 2조 1,750억원에 이를 전망임
- 또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1인당 43,500천원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증평군 총생산 추정

구분	단위	2020년	2025년	2030년
GRDP	십억 원	1,587	1,887	2,175
계획인구	인	42,000	48,000	50,000
1인당 GRDP	천 원	37,770	39,310	43,500

자료 : 2030증평군기본계획 2017

## 다. 고용현황

### □ 경제활동 인구 현황

- 저 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증평균은 조금씩 인구가 증가하여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는 2011년 27.6천명에서 2016년 30.3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2011년 고용률이 67.6%로 떨어졌다가 기업유치로 인한 증평균내 일자리 창출로 2016년 69.2%로 다시 증가했으며, 2016년 증평균의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30.3천명이며 총인구의 약 82.6%에 달하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0천명으로 나타남

증평균 경제활동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경제활동 가능인구	경제활 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 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2013년	27.6	17.6	17.3	0.4	10	63.9	67.6	2
2014년	28.1	18.6	18.4	0.2	9.5	66.2	70.8	1.3
2015년	29.9	19.6	19.1	0.6	10.3	65.6	68.1	2.8
2016년	30.3	19.9	19.6	0.3	10.4	65.8	69.2	1.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증평균 통계연보

### □ 각 산업별 종사자 비율 현황

- 증평균의 산업별 종사자수는 산업단지의 꾸준한 개발 및 기업유치로 인하여 2011년 10.8천명에서 2016년 12.5천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종사자 비율

(단위 : 명)

구 분	충청북도(종사자수)				증 평 균(종사자수)			
	합계	농림 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농림 축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2011년	551,917	1,739	192,898	357,280	10,845	6	3,963	6,876
	100%	0.3%	35.0%	64.7%	100%	0.1%	36.5%	63.4%
2012년	569,550	1,654	195,143	372,753	11,443	27	4,551	6,865
	100%	0.3%	34.3%	65.4%	100%	0.2%	39.8%	60.0%
2013년	591,509	2,183	204,790	384,536	11,157	45	4,130	6,982
	100%	0.4%	34.6%	65.0%	100%	0.4%	37.0%	62.6%
2014년	620,557	2,145	219,649	398,763	11,955	53	4,726	7,176
	100%	0.3%	35.4%	64.3%	100%	0.4%	39.5%	60.0%
2015년	648,454	2,348	233,519	412,587	12,040	69	4,249	7,722
	100%	0.4%	36.0%	63.6%	100%	0.6%	35.3%	64.1%
2016년	667,315	2,684	242,150	422,481	12,492	68	4,318	12,424
	100%	0.4%	36.3%	63.3%	100%	0.5%	34.6%	99.5%

자료 : 충청북도 통계연보, 산업별 종사자 비율

## □ 경제활동 전망

-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에는 65%인 20,394명으로 추정됨
  -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현황을 고려하여 65%, 실업율은 2%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
- 증평균의 취업인구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으로 2020년 17,911명에서 2030년 19,985명으로 약 2,07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농림축산업 종사자수는 점차 감소하다가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제조업 종사자수는 취업인구의 55%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증평균 경제활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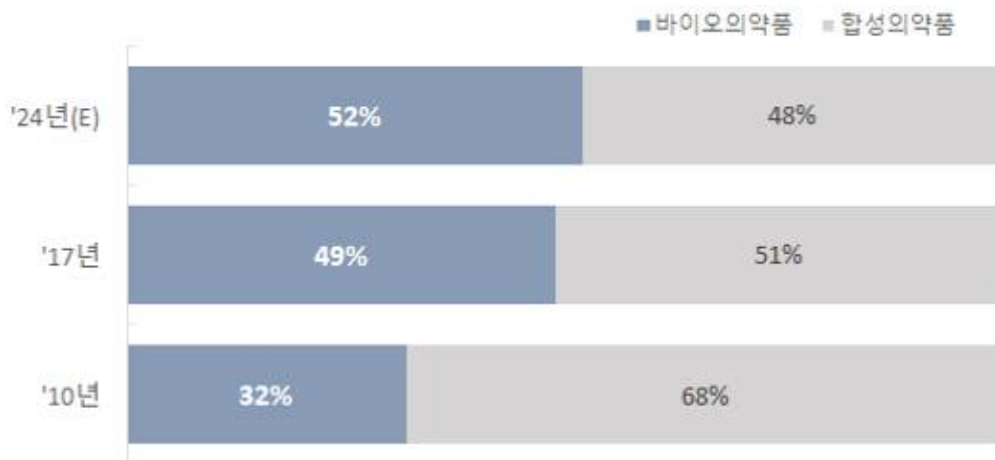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20년	2025년	2030년	
증평균 인구			명	42,000	48,000	50,000	
생산가능 인구	소계		명	28,603	31,215	31,375	
			%	68	65	63	
	경제활동 인구	소계	명	18,277	20,134	20,394	
			%	63.9	64.5	65.0	
		취업 인구	명	17,911	19,773	19,985	
			%	98.0	98.2	98.0	
		실업 인구	명	366	362	408	
			%	2.0	2.0	2.0	
		비 경제활동 인구		명	10,326	11081	10,981
				%	36.1	35.5	35,0
산업별 인구	농림축산업		명	199	324	447	
	제조업		명	8,060	9,886	10,992	
	서비스업		명	9,652	9,563	8,546	
증평 지역 총생산			10억 원	1,330	1,790	2,300	
1인당지역총생산			천원	31,670	37,290	45,100	

자료 : 2030증평균기본계획 2017

## 라. 연구동향

### □ 기능성바이오의약 기술동향

-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4년에는 약 3,83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이라 전망함
- 합성의약품 중심이었던 제약시장은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전 세계 매출 상위 100대 의약품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17년 49%로 급증하였으며, 2024년 에는 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7년 전 세계 매출 상위 10위 의약품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이 8개를 차지하며, 전체의약품 중 점유율 증가와 함께 특히 블록버스터급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 매출 비중 (%)

자료 :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18, Outlook to 2024 (2018.6)

-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중 보나 나운 과학기술정책이 요구되는 '12대 유망기술'을 선정·발표하였음
- '12대 유망기술'중 바이오테크 분야가 2위를 차지하였고, 첨단소재 및 나노소재가 9위, 3D 프린팅 기술이 12위로 선정함
- 세계적으로 바이오테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매우 유망한 기술로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첨단소재 및 나노소재 그리고 3D 프린팅기술 또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소재로서 평가되고 있음
- 미국 헬스케어 IT 뉴스에서 '2017년에 주목되는 27개 보건기술 및 소재기술(27 hot health techs to watch in 2017)' 특집 기사를 '16년 12월 보도함
- 바이오의약품의 미래성장가치 및 잠재력으로 보아 우리 정부도 바이오의약품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였고 계속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마. 기업 투자동향

- SK이노베이션, 마크로케어, 한국알미늄 등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공장 증축계획 수립 및 추진중
- 코리아테라퓨틱스 등 신규 창업기업 해외 투자유치 중
- 증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계획
  - (주)신성이엔지
    - 입주 위치 : 일반산업단지(증평읍 미암리 1045번지)
    - 주요 사업 : 클린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 투자 계획 : 태양광 모듈 및 셀 사업 확장 계획
  - 코파마테크(주)
    - 입주 위치 : 증평일반산업단지(증평읍 도안면 노암리 767번지)
    - 주요 사업 : 탄산리튬 등
    - 투자 계획 : 리튬분쇄 공장 증설 계획
- (주)넥스플렉스는 핸드폰소재 연성회로 필름 제조기업으로 증평 1산업단지에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충북도 증평군과 협약하고 2023년까지 설비투자 예정임
- 로레알등 세계 굴지의 화장품 회사에 원료를 납품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주)마크로케어는 2022년 매출 200억, 수출 1,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증평산단에 2,400평 규모 공장 증축 완료함
- 우진산전은 전기버스 및 철도차량 제작을 위한 4만평 부지에 조립 공장 건축 중
- 현대종합특수강은 10만톤 규모 신공장 건설에 1,380억원 투자하여 2019년 하반기 가동 예정
- SK이노베이션(주)은 휴대폰 시장 성장에 따른 리튬이온 분리막 설비 증설에 1,750억 원 투자 중

## 바. 혁신자원 현황

### □ 지역특화발전특구 증평 에듀팜특구 조성

- 2007년 특구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도농교류 교육문화 특구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 하고 특구 개발을 추진하여, 2016년 민간사업자인 블랙스톤에듀팜 리조트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에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선포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구분	내용	부지면적(m <sup>2</sup> )	비 고
지역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35,203	- 사업기간 : 2009년 ~ 2022년 - 사 업 비 : 1,594억원
교육지구	· 복합 연수시설, 승마장 · 각종체험장(곤충, 마늘, 야영 등)	348,632	
도농교류지구	· 농촌테마파크 · 귀촌체험센터 / 체험농장	684,476	
레포츠지구	· 골프장, 스키장 및 루지	908,833	
숙박지구	· 콘도, 펜션단지	236,952	
힐링지구	· 식물원, 휴양촌, 양떼 체험장 · 섬머랜드, 야외공연장	282,534	
보전지구	· 저수지 보전	412,378	
공공시설	· 도로, 주차장, 수도공급설비	161,398	

### □ 기업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및 전국단위의 바이오, 화장품, 의료기기에 활용될 차세대 기능성 바이오융합소재의 기술개발, 기업 기술지원,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지역혁신기관임
- 청주, 충주, 음성, 오창을 중심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군을 대상으로 군 기업성장과 고용창출 확대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 센터는 제품분석 및 기술지원센터와 생물학제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GMP생산 지원시설을 구축하여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역거점기관으로써 증평군내 기능성바이오소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바이오, ICT, 기계, 등 다양한 분야별 인프라 확보 및 공간, 장비,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ONE-STOP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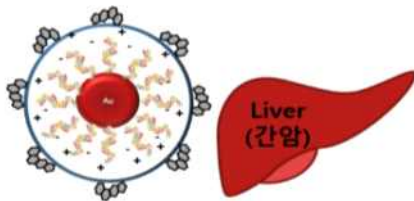
충북의 기능성바이오 소재 산업분야메카로서 중심 역할  
배양부터 분석까지 ONE-STOP 수행 > 시간효율성/결과신뢰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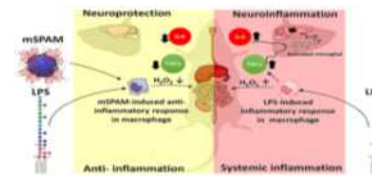
먹는 당뇨병치료제 개발(이용규교수)  
» 기술가치: 4조원 (NOVONODISK)



자연분해가능한 냉매팩개발 (다모아패키지, 이용규교수팀)  
» 기술가치: 300억원(미세플라스틱방지)



간암치료제(LGG화학과와의 협업중)



파킨슨, 알츠하이머나 패혈증 등 염증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전남대의대 벤처기업 설립, 한국대학신문)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지원 사례

### □ 지역자원 현황

자원명		주요특성 및 연계가능성
시설 자원	증평문화센터	• 지역의 문화 관련 강좌운영 : 연간 5,664명 참여
	여 성 회 관	• 여성 여가 문화교실 운영 : 연간 26,200명 활용
	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운영 : 연간 6,916명 이용
	증평군립 도 서 관	• 북카페,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생학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4년 개관한 시설로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학습 공간 • 영화관, 천문대, 전시실, 옥상문화광장 등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경관 자원	보강천 미루나무숲	• 지역 주민의 주요 여가문화공간으로 미루나무숲, 자전거길, 체육공원 등이 조성되어 교육문화프로그램의 활용공간으로 이용 가능
	증평인삼골축제	• 증평 대표축제로 특산품인 인삼과 홍삼포크를 알리기 위해 9~10월에 개최되며 전국적으로 6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 • 본 사업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성과를 축제와 연계 공연·전시
관광 자원	에듀팜 특구 (추진 중)	• 증평군-한국농어촌공사-블랙스톤(민간) 협력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가족호텔, 골프장, 힐링산책로와 수목원, 양떼목장과 승마체험장, 복합연수시설(2,622,825㎡ / 1,594억 원)
	독서광 김득신 문학관	• 조선시대 최고의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테마화한 그의 묘소가 있는 율리 마을 일원을 스토리가 있는 테마마을로 조성 • 김득신 책방, 독서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연계 가능
자연 자원	좌구산 휴양랜드	• 증평 최고의 문화관광명소인 좌구산휴양림, 녹색길, 생태공원, 율리휴양촌, 천문대, 별천지 공원 등 조성으로 연중 관광객 방문 • 주민참여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활용 공연·전시 용이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바이오산업,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융합산업으로 발전
- 기능성소재산업+바이오산업, 지역 내 유망 산업 분야로 대두
- 성장하는 콤팩트도시 증평,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의 허브도시 구축

#### □ 바이오산업,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융합산업으로 발전

- 바이오산업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융합산업으로 발전하며 기존의 산업 부문의 경계를 넘고 있음.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의 사회적 영향은 바로 산업 육성 정책과 시장 확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 기능성소재산업+바이오산업, 지역 내 유망 산업 분야로 대두

- 최근 산업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 뷰티케어 소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대응 조직재생소재, 선도유지 및 다이어트 등의 산업용 기능성 소재 산업이 지역 내 유망 산업 분야로 대두됨
  -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사업 대통령 공약 선정(2017)

#### □ 성장하는 콤팩트도시 증평,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의 허브도시 구축

- 바이오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학이 긴밀히 상호작용해 혁신적인 바이오융합 기술개발이 활성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산업적 특성은 증평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혁신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증평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됨, 이와 동시에 충주와 청주로 대표되는 바이오 산업군의 고도화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수행하여 충북도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과 육성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증평의 대표적인 산업군은 홍삼 가공제품을 근간으로 한 가공 식품이 대부분이나 단순 식품 시장으로는 성장 한계 직면하였음. 따라서, 기존 바이오산업 가치사슬의 근간이 되는 소재기술의 취약 취약점을 개선한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이 필요함
- 증평군 소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연계 가능한 군내 기업의 R&D, 비R&D지원이 가능한 통합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
- 특히 군내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센터의 중요성이 대두됨
- 4D 바이오 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헬스산업(차세대 기능성 소재개발)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설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를 4D센터에 입주 및 육성과정을 통해 앞으로 조성되는 3산업단지 입주와 연계하여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건강 소재 산업육성 및 체험형 힐링 바이오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
- 증평 제3산업단지 내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특화 단지로 육성이 필요함

## IV.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국내

- 우리나라는 바이오 신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초·원천 및 공공의료 분야 R&D를 중점 지원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7),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
-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생명공학 분야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정책 수립\*
  - 과학기술기본계획 (최상위 계획)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상위 계획) – 생명 연구 자원관리기본계획/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
- '16년 5월 관계부처합동 '바이오 중기('16~'18) 육성전략'을 통 해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ICT 융복합 의료기기 등 기술개발 및 바이오 규제관리 선진화 전략\*을 수립
  - 신기술·신제품의 신속심사 제도 마련, 첨단융합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등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을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을 통해 본격 바이오경제 시대 준비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주요 R&D 정책

구분	주요 계획
신약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바이오 의약품 R&D 지원
진단	'14년부터 유전체 맞춤의료 기반조성을 위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추진, 유전체 정보이용기술개발, 대규모 인구집단 유전체 코호트 구축을 추진
첨단 재생의료	국내기업의 줄기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15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착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 발표, '15년 의료기기 R&D 신규 과제의 30% 이상을 ICT 융합 진단 과제 등에 투자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 계획 추진 ('20년까지 의료기기 펀드를 500억 원으로 확대)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 동향 및 기술전략, 산업기술전략 브리프 2017-6호(2017)

## 나. 해외

- 첨단의료기기, 고령화 추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의료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기 산업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전략적 투자 및 신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 추진 중
  - 미국은 11,367개로('2012년 기준) 가장 많은 바이오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보건의료' 적용 기업 비중이 높음
  - ICT 헬스케어 산업융합은 상대적으로 5.4%씩 연평균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 기업이 헬스케어 기업을 투자 목적으로 인수하는 사례도 증가
  -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이 헬스어로 이동 중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음
    -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의료 정보, e-Commerce 등에 집중 투자
- 미국 등 선진국의 바이오헬스 생태계는 민·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협력 체계와 원활한 '기술 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선순환 고리'로 역동성 보유
  - 미국의 바이오의료 분야 R&D는 국립보건원(NIH)를 중심으로 미국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예산의 약 90% 투자

[주요국의 바이오 융합소재 육성 정책 자료]

주요국	담당 부처	해당 정책 및 주요 내용
미국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NASA 국립 과학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개부처 협동으로 미래 신소재 기술개발 정책 운영</li> <li>NAMII에 3,000만 달러 투자</li> </ul>
일본	경산성 제조산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5월 미래소재 최우선 과제 개발</li> </ul>
영국	기술 전략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전체 첨삭가공 투자금 1조 4,000만 달러</li> </ul>
독일	Fraunhofer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혈관 바이오 프린팅 성공</li> </ul>
중국	과학기술부, 공업정부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년간 15억 위안 투자</li> </ul>
싱가포르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3년 3월 Future of Manufacturing 발표</li> <li>향후 5년간 5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 발표</li> </ul>

자료 : Wohlers Associates, IRS GlobalS

## 2. 경제/산업 동향

### 가. 국내

#### Key Point



- 국내 바이오산업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핵심소재기술의 취약으로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함

-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콘텐츠와 소재의 융합화로 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바이오산업 성장주도
- (생산) 2017년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10조 1,264억 원으로 '16년 대비 7.8% 성장함
- (수출입) 2017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은 5조 1,497억 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조 6,4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3조 5,041억 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

2015년~2017년 바이오산업 수급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공급				계	수요			
	생산		수입			내수		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5년	85,039	85.8	14,087	14.2	99,126	56,266	56.8	42,861	43.2
2016년	92,611	86.4	14,597	13.6	107,208	60,898	56.8	46,310	43.2
2017년	101,264	86.0	16,456	14.0	117,720	66,223	56.3	51,497	43.7
연평균 증감률	9.1		8.1		9.0	8.5		9.6	

## 나. 해외

### Key Point



- 기존 소재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기능성 소재 및 치료기술 개발로 임계성능향상 및 신 시장 창출

#### □ 일반 동향

- 바이오 산업은 의약품 위주의 레드 바이오, 농업, 식품 위주의 그린 바이오,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화이트 바이오로 구분되는데, 산업 전체에서 70%를 차지하는 의료 바이오 부분 탓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불림
- 2016~2017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4.8% 성장했는데, 이 중 70%가 제약 바이오 부문이며, 이러한 바이오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40%를 미국 중심의 북아메리카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음
- 바이오 기술은 점차 높은 개발 비용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합성 화학 위주의 신약개발에 의존한 제약 산업에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
- 최근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대형 화학기업들 바이오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온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의료 바이오 시장에 또 다른 변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산업동향

-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은 2012년 2,524억 달러에서 연평균 8.8%씩 성장하여 2016년 3,539억 달러 규모를 형성
- 2016년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각각 12.9%와 5.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646억 달러, 882억 달러 규모로 성장

글로벌 바이오산업 현황(2012-2016)

연도	금액(억 달러)	성장률(%)
2012	2,524	-
2013	2,634	4.4
2014	3,030	15.1
2015	3,344	10.3
2016	3,539	5.9

자료 : MARKETURNE, Global Biotechnology(2017.10)

### 3.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바이오 분야는 미래유망신기술(6T) 중 하나인 국가적 신 성장 동력분야로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 영역 및 공백분야 발생과 같은 문제점 해결과 효율적인 연구개발예산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기술 혁신과 소득 증대로 인해 개인별 맞춤의료 및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물질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효용성이 감소한 가운데, 합성의약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가 요구됨
- 따라서 기존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질병을 치료 가능하게 하는 천연물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등과 같은 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발굴 및 적용이 요구됨
- 이와 동시에 소형화, 개체화로의 바이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바이오의약산업화 시대로의 본격화 진입 준비가 필요하며 바이오 자원 확보 등에 대한 사회, 종교, 윤리적 수용과 천연물의약품의 과학화, 표준화, 규격화 등을 통해 약효 신뢰성 확보와 같은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의 해결이 중요한 사안임

## 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SWOT 분석

<p><b>지역경쟁력 SWOT분석</b></p>	<p><b>강점(Strength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듀팜 특구, 좌구산 휴양랜드 등 힐링 특화 자원 보유</li> <li>2. 지역유망특화작물 인삼 산지</li> <li>3. 충북 중심부 위치로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지역 교류 용이</li> <li>4. 읍 소재지 밀집한 콤팩트 시티</li> </ol>	<p><b>약점(Weaknesse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국에서 규모적으로 가장 작은 지자체임</li> <li>2. 제조업 기반 기업수가 적음</li> <li>3. 주변도시 의존도 심화로 자립성 부족</li> <li>4. 후발 지자체로 인프라 낙후</li> </ol>
<p><b>기회(Opportunitie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 기업 유치 기반 확보</li> <li>2. 4D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 유치를 통한 바이오소재 기업 발전기반 확보</li> <li>3. 젊은층 인구가 많은 성장 가능성 잠재 지역</li> <li>4. 워라벨 확산에 의한 개인 여가 활용 여건 조성</li> </ol>	<p><b>S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 건강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li> <li>☞ 휴양시설(에듀팜특구, 좌구산 휴양림) 연계 인근 대도시권(수도권,대전,청주,세종) 배후 여가 생활 연관 지역 산업 육성</li> </ul>	<p><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의약품 소재 연구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 추진력 확보</li> <li>☞ 바이오헬스산업의 주요중심지 청주-충주의 허브 역할 수행</li> </ul>
<p><b>위협(Threat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 정체로 인한 인구 감소</li> <li>2. 열악한 지방재정</li> <li>3. 지역 특화 상품 및 산업에 대한 인식 저조</li> <li>4. 산업 인프라 부족에 의한 인구 유출 우려</li> </ol>	<p><b>S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강점 활용한 체험형 힐링 바이오 신산업 육성</li> <li>☞ 힐링 산업과 특화된 명품 브랜드 육성</li> </ul>	<p><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육성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능성소재를 부각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li> <li>☞ 신성장 융합소재 중심 기업의 적극적 유치 필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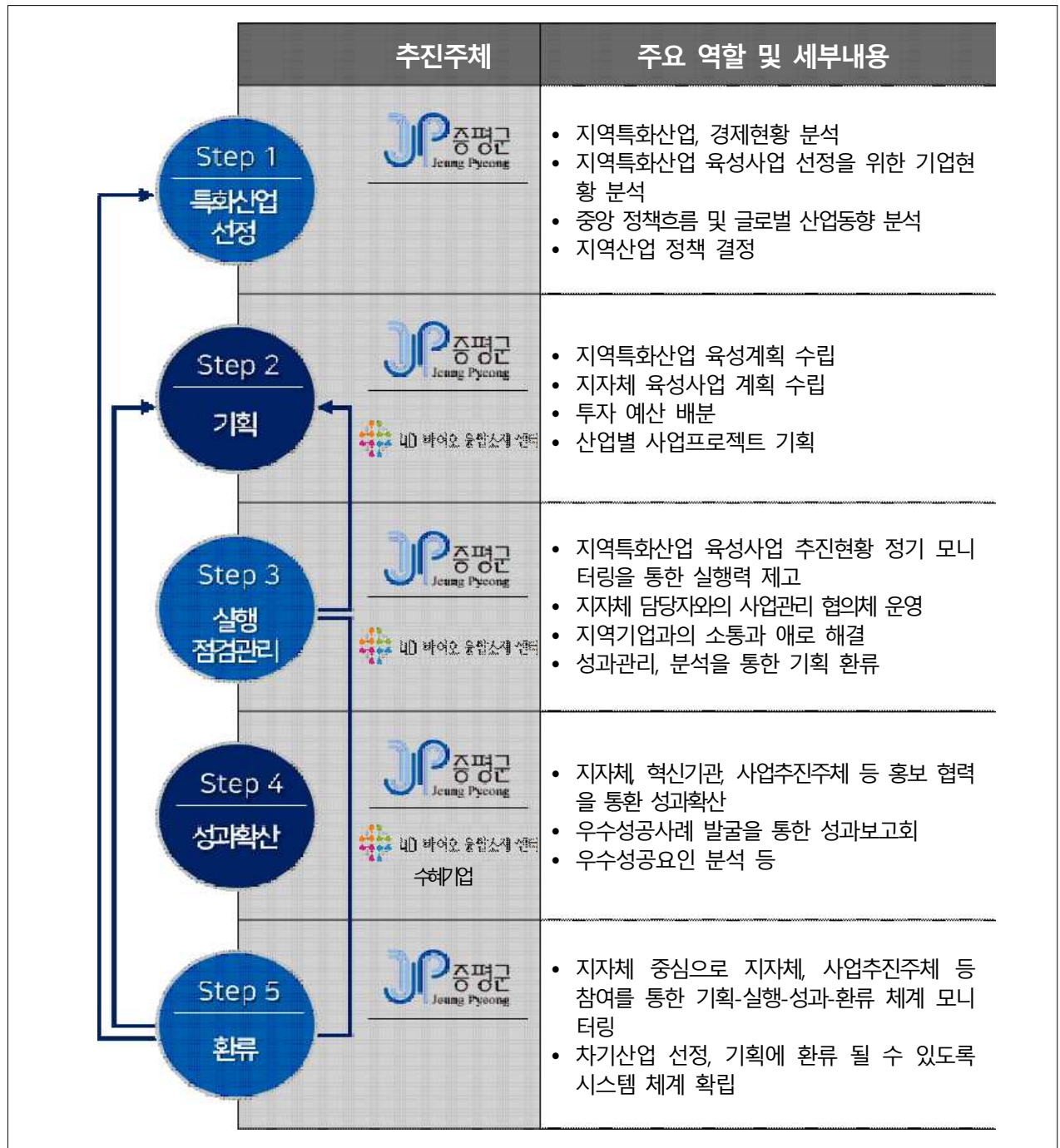
#### 나. 기본방향

- 특화산업군 활성화 지원을 통한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중점 육성
  - 특화산업단지 조성/ 유망품목 R&D,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필요
- 지역 특화기관과 연계협력 통한 기업지원 인프라 지속적 구축
  - 지역혁신기관 간 오픈 네트워크 구축, 각 시군별 유관산업 연계 협력체 운영 등
-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과의 동반성장 도모



## 다. 추진체계

- 증평군청 경제과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테크노파크로 구성되어진 4D바이오소재사업단이 사업 수행 주체로 육성 사업 추진함
- 특히, 4D바이오소재사업단을 구성하는 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테크노파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의약품 소재 연구지원 및 기업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함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 □ 기능성 바이오소재 산업

- 기존의 바이오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령화된 바이오장기의 수요증대, 재생 의학의 보급화를 위해 지속성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소재(IT), 환경조건에 반응하는 소재(NT/IT), 3차원 바이오프린팅용 천연고분자 소재(BT/NT/IT), 다양한 목적(의료 기기, 치료효능, 기능성 등)을 가진 소재(BT/NT/IT)를 기능성 바이오소재라 하며 이러한 물질을 제조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 BT+IT+NT 기반기술 융합하여 자가기능을 갖는 스마트구조/표적질환 맞춤 소재로서 높은 산업적 적용 가능
- 바이오의약/제약산업, 화장품 산업, 의료·정밀기기 산업, 소재 관련 전·후방 산업 등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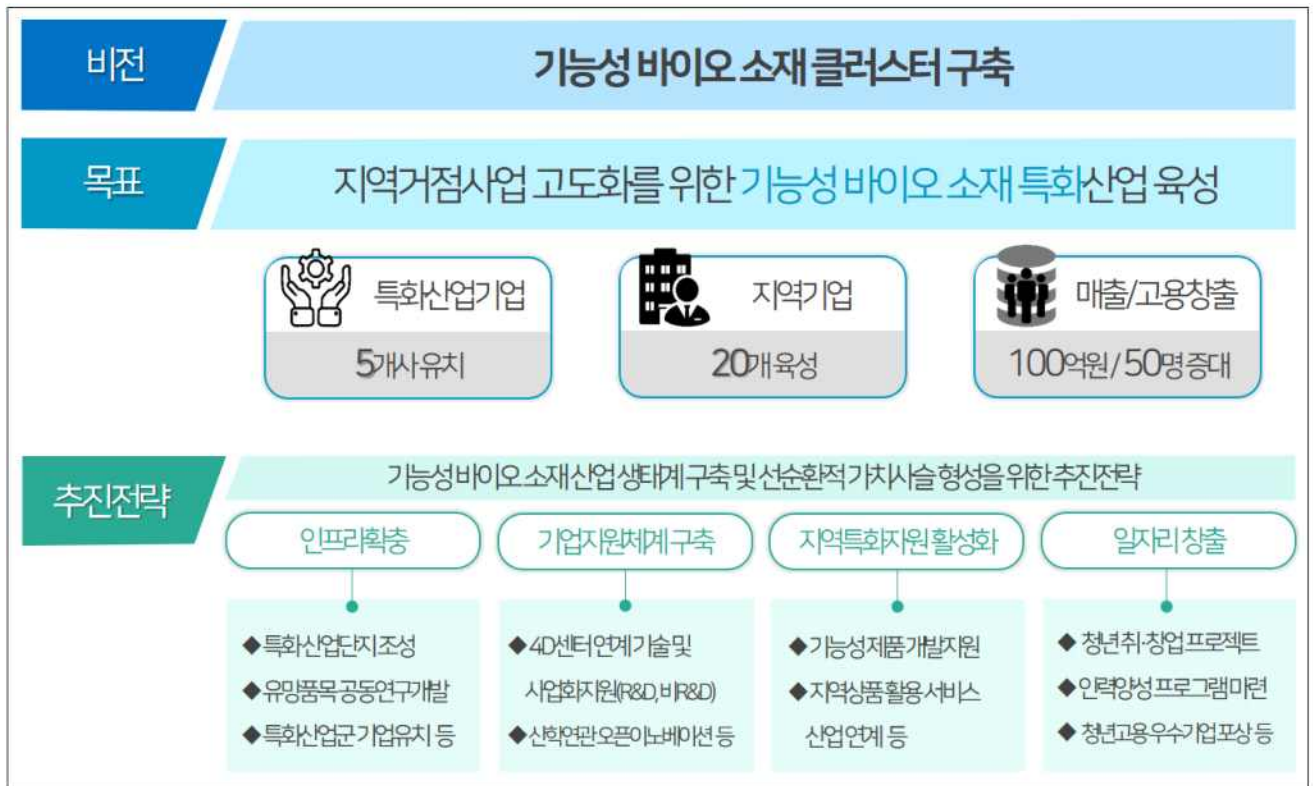


<기능성 바이오 소재 활용 분야>

## □ 바이오 소재 산업관련 KSIC 코드 분류

번호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 설명	관련 기업
1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에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약품 물질이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주)그린위치, (주)농협홍삼, (주)뉴테크,(주)대유통신 (주)덕유,(주)두산, (주)두원전기소방, (주)디엔피코퍼레이션, (주)리틀환경산업, (주)메이준바이오텍, (주)바이오제네틱스, (주)비젠, (주)서흥 (주)세스코, (주)세종, (주)신성이엔지, (주)씨비티,(주)에스지텍, (주)에프앤피, (주)오리엔탈스페이스, (주)청솔생약,(주)케이에스피,(주)코스모텍, (주)코스텍,(주)테림피앤비, (주)피유팩토리, (주)한국알미늄, (주)한인엠시티, (주)휴먼에프앤비, SK이노베이션(주), 건미바이오, 농업회사법인(주)새싹대원전기(주), 도안농업기계(주), 비엠생명공학(주), 비전테크(주), 성산하이텍, 아벨정밀(주), 온세산업개발(주), 장안하이텍, 정우세라믹, 제일테크(주), 주식회사 대영, 주식회사 액셀, 주식회사 에스이에이, 주식회사 제이텍, 주식회사엠에스정보통신, 증평농수축특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케이아이씨(주), 코파마테크주식회사, 풀무원건강생활(주), 한국철강(주)증평공장, 형제ENG, 후지라이테크(주), 씨술, 최고사이언스, (주)코리아테라퓨틱스, (주)시큐웨어
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074	각종 식품을 가공 및 조리하는데 보조재료로 사용되는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장류, 식초 및 유사 식품, 정제 및 발효 조미료, 혼합 조제 조미료, 고기 유화제 및 기타 식품 첨가제를 생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3	기타 식품첨가물 제조업	10749	기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 및 효모를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천일염 또는 정제염(기계염)을 구입하여 식탁용으로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	화장품 제조업	20423	향수 및 화장수, 화장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미용 또는 안면 보호용, 두발용 또는 면도용, 목욕용 조제품과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5	기타 미분류 화학제품	20499	향수, 식품, 음료 등의 향료로 사용되는 동·식물성의 방향유(정유), 동식물성 수지질 재료로 만든 레지노이드, 정유 농축물, 정유의 테르펜계 부산물·혼합물·수성 증류액 및 용액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광물성, 동물성 및 식물성 재료 등을 혼합·조합하여 각종 재료 처리용 조제 윤활제품(석유 성분 함유량 70% 미만)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필기용 잉크, 용접용 분 또는 페이스트 및 금속 표면처리 용제, 활성탄, 고무 가황 촉진제, 촉매제 및 기타 산업용 화학제품, 안티녹제, 부동액, 실험실용 또는 진단용 시약(혈액형 분류용 또는 환자 투여용 제외)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인간 또는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혈액, 미생물 및 그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백신, 항독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 및 합성품, 천연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의약품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여 약물 유효 성분인 의료 화학제제 및 원료 형태의 항생물질 제조, 약용 식물 및 동물의 약용 부분이나 분비물 등을 조제·가공한 생약제제, 단일 또는 몇 가지 종류의 의약제제를 배합·조제하여 분말제, 정제, 캡슐제, 시럽제, 주사제, 연고 등 일정한 형태의 의약 제제품과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7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1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품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 상태의 향생 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9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 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	피부 미용업	96113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스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 □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화산업군 활성화 지원
- 특화산업을 통한 선 순환적 가치사슬 형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인프라 확충	·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특화단지 조성
	· 유망품목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기업지원체계 구축	·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지원센터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 (R&D, 비R&D)
	· 산학연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
	· 각 시군별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 연계 협력체 운영
지역특화자원 활성화	· 지역특화자원 활용 기능성 제품 개발지원
	· 지역상품 활용 서비스 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 청년고용 우수기업 포상제도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 가. 기능성바이오소재 산업군 인프라 확충

- 추진개요 :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의 증평균 정착 및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특화단지 조성으로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20	'21	'22	'23	'24	'25	'26-27	'28-29
특화산업군 활성화지원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특화단지 조성					
	유망품목 공동연구개발지원사업							
	특화산업군 기업유치							

#### □ 세부내용

##### ○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특화단지 조성

-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지원 등을 집중하여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 체계 마련
- 기능성 바이오 소재 관련 특화단지 집적화 추진 및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출현 촉진을 위해 전후방 연관 기업 특화단지 입주 중점 지원
- 기능성 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 조세 감면 혜택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도모
-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증평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전후방 연관 산업)	
형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감면율	75% 감면	25% 과세
취지	·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기능성 바이오소재 관련 중소기업 지원	· 지방재정 확충 · 조세 형평성 확보

- 유망품목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 나. 기업지원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증평군에 유치한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연계한 기술사업화(장비활용·시제품제작·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 연계 협력체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하여 기업/제품 기술력을 강화하고 기업성장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20	'21	'22	'23	'24	'25	'26-27	'28-29
기업지원 체계구축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운영							
	*	산학연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						
		특화산업 연계 협력체 운영						

\* 전문가 POOL구성 및 협력MOU 체결

### □ 세부내용

#### ○ 기술사업화(장비활용·시제품제작·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 증평군내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업의 사업화 촉진 도모를 위해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를 연계한 시제품제작, 공동연구개발 등 지원
-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분석장비 및 GMP시설 연계 지원
  -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평가 및 화학분석 기술지원
  - 첨단분석 장비 및 GMP시설을 활용한 기능성바이오소재 기업의 신제품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 상용화 및 고급화를 위한 고급·첨단기술 활용, 기술협력을 통한 엔지니어링기술 지원
- 제품화 촉진을 위한 신제품·소재 개발, 품질개선 중심 공동연구개발 지원 강화
  - 특화단지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
  - 기능성 바이오소재 및 제품 개발에 특성화된 4D센터 연구/분석 장비를 활용한 샘플 제작, 측정, 분석 등 기업 개발 제품 고급화 지원 강화
  - 군내 관련 기업의 연구·기획 역량 제고를 통해 전략적으로 R&D를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주도형 R&D체계 구축을 지원.

#### ○ 산학연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애로기술상담, 기술교류회 등)

- 기업의 지원요청에 대한 실시간 지원을 위해 상시 애로기술 상담 및 기술진단 체계 운영
  - 기업의 애로 해결 요청에 대한 실시간 기술지원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
  - 현장맞춤형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Pool 및 상시 인력 제공 등 솔루션 시스템 구축
  -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최신 기술 정보 및 동향 제공

- 기능성 바이오소재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류회 정기적 개최
  - 기능성 바이오소재 정보 교류 및 보급을 위한 산학연 공동 강연회 개최
  -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애로기술 및 선행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 기업 주도형 R&D 기획 및 발굴을 위한 공동R&D 발굴 협의체 운영

○ 각 시군별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 연계 협력체 운영

- 증평군 기술개발전략을 추진을 위한 연구 협력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다. 지역특화자원 활성화

- 추진개요 : 증평군 지역특화자원(인삼, 홍삼)의 기능성화 지원을 통해 원료 생산부터 제품생산과 함께, 지역 내 서비스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상품 활용촉진을 도모하여 이를 통한 지역특화자원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20	'21	'22	'23	'24	'25	'26-27	'28-29
지역특화자원 활성화	지역특화자원 활용 기능성 제품 개발지원사업							
	지역상품 활용 서비스산업 연계							
							지역상품 브랜드화	

□ 세부내용

○ 지역특화자원 활용 기능성 제품 개발지원사업 운영

- 지역특화자원 활용한 기능성 제품개발 및 품질 인증 지원사업
  - 기능성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한 제품화 지원(연구개발비, 제품화지원, 마케팅 등)
  - 품질(성능) 인증 지원(인증비용 및 수수료, 품질인증 컨설팅 등)
- 4D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분석장비 및 GMP시설 연계 지원
  - 화학분석 및 안정성평가 기술지원
  - 첨단장비 및 GMP시설을 활용한 기능성바이오소재 기업의 신제품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역상품 활용 서비스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상품 브랜드화 시도



## 라. 일자리 창출

- 추진개요 : 지역특화산업군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체계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인력공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증평군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분야	1단계			2단계			3단계	
	'20	'21	'22	'23	'24	'25	'26-27	'28-29
일자리 창출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							

### □ 세부내용

-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진행
  - 지역특화산업관련 정보제공 및 취업 및 창업 박람회 정기적 개최
  - 취업지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 지역특화산업관련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세미나 실시
  - 취업·창업 대상자 및 중소기업 대상 리더십 강연 실시
- 청년고용 우수기업 포상제도 시행
- 지역맞춤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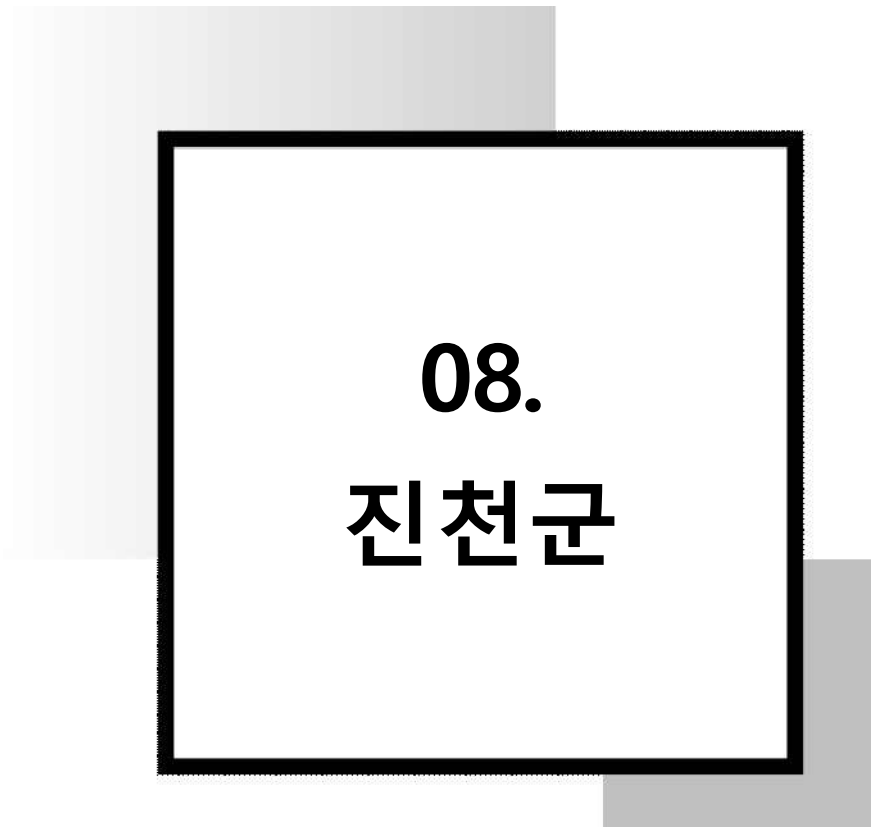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 지역 내 기능성바이오 융합소재산업 활성화
  - 기능성바이오 융합소재 산업 생태계 형성
  - 기업 유치 및 지역투자 유치 효과 상승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및 신규 매출 증대
- 기능성바이오 융합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 관련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첨단 장비 활용을 통한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발 기술 지원
  - 관련 혁신기관의 종합 지원을 통한 기능성바이오 융합소재산업의 제품화 촉진

### 나. 정책적 효과

- 맞춤형 기능성바이오융합소재 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소재 산업 활성화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능성바이오융합소재 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 인접한 충주/청주의 첨단 의료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기능성바이오소재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상생적 지역발전 기여



## 08. 진천군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진천군 군정목표

- 진천의 군정목표에는 진천경제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목표가 있음
- 해당 전략목표의 이행과제로는 '더불어 성장하는 진천경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구축'이라는 이행과제가 계획되어 있음
- 해당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수반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진천의 주요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함

### 나. 추진목적

- 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진천경제 활성화 구현"의 목표를 달성
  - 더불어 성장하는 진천경제의 세부 목표 중 생산적 일자리 사업 운영,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서민이 체감하는 안정적 물가관리 달성을 목표로 함
  -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진천경제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고자 함

## II.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가. 기본현황 (2019년 3월 말 기준)

- 면 적 : 407.26km<sup>2</sup> (충청북도의 5.5%)
- 인 구 : 36,108세대 / 85,586명 (외국인 6,060명 포함)
- 행정구역 : 1읍 6면 298리 905반
- 공무원수 : 정원 717명 (공무원 1인당 군민 119명)
- 예산규모 : 5,263억 원 (일반 4,545 / 특별 718) \*2019년 1회 추경 기준
- 제조업체 : 1,322개소
- 산업단지 : 18개소 (산업단지 10개소 / 농공단지 8개소)

#### 나. 자연환경

- 위치·면적
  - 진천군은 충청북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내륙도시로 반경 40km내에 청주, 음성, 괴산, 안성, 천안 등이 위치함
  - 서울, 수원, 전주 등과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도시권에서의 접근성이 편리
  - 진천군 1읍 6면의 총 면적은 407.25km<sup>2</sup>로 전국 대비 0.4%, 충북 대비 5.5%임
- 지형·지세
  - 북서부 지역은 금북정맥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있음
  - 남동부는 해발 400m이하의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부는 길게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U자형의 지형을 보이고 있음
  - 지형은 대부분 구릉지로 표고 200m 이하가 5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평지는 시가지와 논으로 이용되고 있음
- 수계·기상·기후
  - 미호천은 상류부에 진천분지, 중·하류부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청주·증평 일대에 걸친 광대한 청주분지를 이룸

- 중부내륙 분지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자연기상조건이 안정되어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음

#### □ 토양·수문·경관

- 하천을 중심으로 양질토가 분포하고 있어 벼농사에 적합하고, 넓은 진천평야가 발달되어있음
- 여기서 생산되는 생거진천쌀은 좋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음
- 미호천, 백곡천, 초평천 3대 하천과 지류인 30여개의 소하천이 분포하며, 이들의 의해 만들어진 여러 호수들 중에서 초평호와 백곡호는 낚시터로 유명함

## 다. 인문환경

#### □ 토지이용현황

- 진천군의 전체면적은 407.25km<sup>2</sup>로 지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임야 56.13% > 답 14.44% > 전 8.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읍면별로 살펴보면 임야는 백곡면, 전은 진천읍, 답은 이월면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교통망 체계

- 남북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진천군을 통과하며, 진천군 북부지역의 동서로 평택제천 고속도로 통과함
- 동서남북의 사통팔달로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와 근접하여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 원주기업도시의 중간적 위치에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와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요구됨에 따라 진천군의 지리적 위치는 그 무한한 잠재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간 도로로 국도 17번(여수~용인), 21번(남원~이천), 34번(당진~영덕)이 진천군 도심에 서로 교차하여 교류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가능케 함
- 철도는 경부·호남고속철도의 오송역이 진천군과 50km 떨어져 있으며 소요시간은 40분정도 소요되며, 충북선 오근장역은 25km로 20분 정도 소요됨
- 공항·항만의 경우 청주국제공항과 25km로 20분, 평택항과 65km로 50분 정도 소요됨

## 라. 산업환경

### □ 사업체수

- 진천군의 2017년 말 기준 총 사업체수는 6,406개이며,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49,827명으로 나타남

### □ 산업단지 지정현황

- 진천군은 일반산업단지 10개소, 농공단지 8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2019년 3월 말 기준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은 5,672천㎡, 농공단지 지정면적은 1,285천㎡이며 조성률은 91.9%, 분양률은 99.8%임

산업단지 현황 (2019년 3월 말 기준)

(단위 : ㎡, %)

단지명	지정면적	지정면적에 대한 개발현황			개발면적에 대한 분양현황				
		개발 면적	미개발 면적	조성율	분양대상 면적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분양율
<b>총 18개</b>	<b>6,956,893</b>	<b>6,396,117</b>	<b>560,776</b>	<b>91.9</b>	<b>5,029,151</b>	<b>4,338,061</b>	<b>4,331,446</b>	<b>6,615</b>	<b>99.8</b>
<b>일반 10개</b>	<b>5,672,338</b>	<b>5,111,562</b>	<b>560,776</b>	<b>90.1</b>	<b>4,014,162</b>	<b>3,325,779</b>	<b>3,319,164</b>	<b>6,615</b>	<b>99.8</b>
이월일반산업단지	299,659	299,659	0	100.0	218,935	218,935	218,935	0	100.0
신척산업단지	1,513,634	1,513,634	0	100.0	1,074,753	1,074,753	1,074,753	0	100.0
문백태흥일반산업단지	36,002	36,002	0	100.0	22,656	22,656	22,656	0	100.0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118,240	118,240	0	100.0	69,609	69,609	69,609	0	100.0
초평은암일반산업단지	611,283	452,348	158,935	74.0	416,685	0	0	0	100.0
산수일반산업단지	1,304,560	1,304,560	0	100.0	988,842	988,842	988,842	0	100.0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399,948	399,948	0	100.0	158,418	158,418	158,418	0	100.0
죽현일반산업단지	144,838	144,838	0	100.0	118,549	118,549	118,549	0	100.0
케이푸드밸리	829,070	729,840	99,230	88.0	663,789	597,615	591,000	6,615	98.9
에스폼산업단지	415,104	112,493	302,611	27.1	281,926	76,402	76,402	0	100.0
<b>농공 8개</b>	<b>1,284,555</b>	<b>1,284,555</b>	<b>0</b>	<b>100.0</b>	<b>1,014,989</b>	<b>1,012,282</b>	<b>1,012,282</b>	<b>0</b>	<b>100.0</b>
덕산농공단지	90,360	90,360	0	100.0	82,095	82,095	82,095	0	100.0
광혜원농공단지	86,291	86,291	0	100.0	81,507	81,507	81,507	0	100.0
진천농공단지	57,734	57,734	0	100.0	48,308	48,308	48,308	0	100.0
이월농공단지	127,283	127,283	0	100.0	112,467	112,467	112,467	0	100.0
초평농공단지	135,779	135,779	0	100.0	119,548	119,548	119,548	0	100.0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123,592	123,592	0	100.0	112,780	112,780	112,780	0	100.0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328,523	328,523	0	100.0	214,270	214,270	214,270	0	100.0
광혜원제2농공단지	334,993	334,993	0	100.0	244,014	241,307	241,307	0	100.0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www.industryland.or.kr>)

## □ 농업현황

- 진천군의 전체 경지면적은 8,162ha(2016년 말 기준)이며, 전체 면적의 2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약 50ha가 감소했음
- 경지면적 중 논은 5,022ha로 경지면적 중 61.5%를 밭은 3,140ha로 경지면적 중 38.5%를 차지하고 있음
- 진천군의 농가인구는 4,925세대, 11,929명(2016년 말 기준)이며, 2015년까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혁신도시 입주로 인한 전체적인 인구 증가로 농가인구 또한 증가세로 전환됨

## 마. 생활환경

### □ 주택보급률

- 2016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20.1%로 충청북도 평균 110.7%보다 약 1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 학교

- 2017년 4월 기준 총 45개교, 454학급, 10,778명의 학생, 1,010명의 교직원이 있음
- 학급 당 학생수는 23.7명으로 충청북도 평균 31.5명보다 적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12.7명으로 충청북도 평균 16.8명보다 적음

### □ 의료기관

- 2016년 말 기준 총 병원수는 60개로 충청북도 전체 1,723개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1개소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의 의원임
-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254명으로 충청북도 평균 792명에 비해 높음

### □ 사회복지시설

- 2016년 말 기준 총 사회복지시설 수는 351개로 충청북도 전체 5,782개의 6.07% 차지
- 시설별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279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여성복지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47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 공원

- 2016년 말 기준 자연공원은 없으며 도시공원은 총 52개소, 면적 1,181천㎡로 어린이 공원 18개소, 근린공원 20개소, 체육공원 3개소, 기타공원(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11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가 있음
- 읍면별로는 덕산면 30개소, 진천읍 13개소, 광혜원면 6개소 순임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10인 이상 제조업)

구분		2015	2016	2017	증감률	대표기업
C 제조업	사업체수	455	446	456	0.22%	
	종사자수	22,324	24,296	24,791	11.05%	
	부가가치	3,138,780	3,716,769	4,116,727	31.16%	
C10 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	70	69	69	△1.43%	씨제이제일제당 체리부로 우리델리카
	종사자수	4,317	5,336	5,425	25.67%	
	부가가치	622,300	679,604	732,440	17.70%	
C11 음료제조업	사업체수	4	3	3	△25.00%	삼양패키징 서울장수 서울향료
	종사자수	366	306	367	0.27%	
	부가가치	292,038	290,541	293,575	0.53%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사업체수	11	9	10	△9.09%	금화 지테크 선우교역
	종사자수	176	146	158	△10.23%	
	부가가치	20,111	17,440	25,492	26.76%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사업체수	6	7	6	0.00%	SY에너지 한국목업 영진전선드럼
	종사자수	74	111	160	116.22%	
	부가가치	6,768	7,312	16,467	143.31%	
C1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체수	4	4	9	125.00%	세림 오티케이씨앤티 텍스마스타
	종사자수	125	163	311	148.80%	
	부가가치	14,510	19,661	40,201	177.06%	
C18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사업체수	3	2	4	33.33%	삼본스크린 에이스코리아 한화특수포장
	종사자수	54	-	75	38.89%	
	부가가치	5,358	-	4,425	△17.41%	
C19 코크스, 연탄및석유 정제품제조업	사업체수	3	2	3	0.00%	썬에너지 엠케이페트로 케이디페트로
	종사자수	57	-	54	△5.26%	
	부가가치	10,030	-	8,774	△12.52%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사업체수	38	40	40	5.26%	한국다우케미칼 덕산약품공업 피존
	종사자수	1,368	1,360	1,662	21.49%	
	부가가치	318,549	334,516	500,531	57.13%	
C21 의약품물질및의약품 제조업	사업체수	16	14	13	△18.75%	이연제약 유영제약 동국제약
	종사자수	1,079	988	977	△9.45%	
	부가가치	390,764	411,394	521,841	33.54%	



구분		2015	2016	2017	증감률	대표기업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사업체수	73	70	69	△5.46%	극동전선 타파웨어브랜즈 청호나이스
	종사자수	3,123	3,195	3,077	△1.47%	
	부가가치	321,251	389,695	426,139	32.65%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사업체수	25	22	21	△16.00%	영신쿼츠 디어포스 금성개발
	종사자수	733	719	765	4.37%	
	부가가치	102,785	92,344	121,182	17.90%	
C24 1차금속제조업	사업체수	24	26	23	△4.17%	두하 예림금속 금문철강
	종사자수	777	980	996	28.19%	
	부가가치	87,981	125,629	142,880	62.40%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사업체수	55	63	69	25.45%	대우에스티 한국야금 삼목에스폼
	종사자수	2,257	2,774	2,735	21.18%	
	부가가치	292,556	382,401	327,829	12.06%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사업체수	13	12	9	△30.77%	한솔테크닉 한화큐셀 현대모비스
	종사자수	1,791	1,996	1,203	△32.83%	
	부가가치	18,573	234,792	100,396	440.55%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사업체수	4	4	6	50.00%	우영메디칼 에코트로닉스 정림메디칼
	종사자수	290	309	1,102	280.00%	
	부가가치	29,774	31,472	198,318	566.08%	
C28 전기장비제조업	사업체수	21	17	18	△14.29%	한미전선 대룡전선 동일전선
	종사자수	917	965	890	△2.94%	
	부가가치	95,323	144,072	87,598	△8.10%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사업체수	37	41	40	8.11%	에버다임 에이엔디전자저울 조이테크
	종사자수	2,031	2,301	2,214	9.01%	
	부가가치	218,164	263,496	268,453	23.05%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사업체수	42	35	37	△11.90%	선일다이파스 캠텍 이래에이엠에스
	종사자수	2,526	2,306	2,322	△8.08%	
	부가가치	269,081	258,802	273,185	1.53%	
C32 가구제조업	사업체수	4	4	4	0.00%	인인시스 코리나 씨원에스
	종사자수	81	77	72	△11.11%	
	부가가치	4,743	4,559	4,926	3.86%	

자료 : 2017년 충청북도 광업제조업 통계

## 바. 연구동향

### □ 식료품제조업

#### ○ CJ제일제당

##### CJ 제일제당 연구동향

연구과제	연구기관	제품명
HMR 국탕찌개 상품화	식품연구소	• 비비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HMR 일품요리 상품화		• 고메 마크니커리치킨 • 칠리치즈포테이토 • 비비고 돼지갈비찜
수산 HMR		• 계절어보 바로먹는 매운 큰꼬막 • 황태구이 • 북어채무침
비비고 죽		• 비비고 죽 6종 (소고기, 전복, 外)
냉동면 상품화		• HMR 냉동면 4종 (비비고 얼큰버섯칼국수, 비비고 진한교자칼국수, 고메 중화짬뽕, 고메 나가사키 짬뽕)
편의형 식초		• 백설 맛술 2종 (생강, 로즈마리)
김 상품화 연구		• 비비고칩 3종 (오리지널, 스위트콘, 포테이토)

#### ○ 체리부로

##### 체리부로 연구동향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HACCP 인증 컨설팅	(주)체리부로 중앙연구소	• 당사 고유의 무항생제 농장관리 방법 구축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닭고기 생산
살모넬라 부재 병아리 생산		
무항생제 사육 닭고기 생산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한화큐셀

한화큐셀 연구동향

연구과제	기술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고출력 태양광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퀀텀 기술1</li> <li>• 하프셀 기술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큐피크 듀오 G6 (기존 일반 태양광 모듈 대비 10%이상 고출력)</li> </ul>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 연구동향

연구과제	연구기관	제품명
공기청정기 스마트 IoT 접목	환경기술연구소	• 휘바람-IV IoT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기능 향상		• 휘바람-IV 공기청정기

- 청호나이스는 2016년 당사 제품 기술 연구조직인 환경기술연구소를 10년만에 확대·이전하고 연구개발 투자액을 2015년 대비 2배로 늘렸음
- 연구인력 또한 대폭 확대하였음

## 사. 기업 투자동향

□ CJ제일제당

(단위 : 십억 원)

기업	공장	투자금액	투자시기
CJ 제일제당	진천공장	541.0	17년 6월
		361.3	18년 2월
CJ 프레시웨이	진천공장	5.0	18년 1월

자료 : 한경컨센서스(증권사 리포트)

- CJ제일제당이 생물자원 사업부문의 국내 사업을 물적 분할해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한다고 공시함
- 회사 측은 이번 사업 분할은 생물자원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독립 경영을 통해 국내 사료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CJ제일제당 양대 주력 사업인 식품과 바이오 분야에 역량과 자원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아. 혁신자원 현황

### 정보통신·기술 기능군

배 너	사 진	주 요 업 무
 <b>nipa</b>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ll>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li> <li>• 정보통신 및 융합분야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li> <li>•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li> </ul>
 <b>KISDI</b> 정보통신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정보사회의발전을 위한 정보화정책연구</li> <li>• 정보통신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li> <li>• 통신·방송 및 전파관련 정책연구</li> </ul>
 <b>국가기술표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제품안전, 인증, 기술규제 총괄기관</li> <li>• 범부처 국가표준 총괄업무</li> <li>• 공산품·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업무</li> </ul>
 <b>KISTEP</b>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mall>Korea Institute of S&amp;T Evaluation and Planning</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정책·계획 수립 지원</li> <li>• 과학기술 예측 및 전략수립 지원</li> </ul>

### 교육·인력개발 기능군

배 너	사 진	주 요 업 무
 <b>한국교육개발원</b> <small>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연구개발</li> <li>• 학교교육현장 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평가 연구개발 장기발전 방안 연구</li> <li>• 교과용 도서편찬 및 검·인정 업무</li> <li>• 교수·학습 연구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개발·평가</li> <li>•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li> <li>• 법무행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li> </ul>

공공서비스 기능군

배 너	사 진	주 요 업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 관련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 사업</li> <li>• 가스 안전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li> <li>•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li> <li>• 소비자 권익증진, 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정보·고용전산업무계획 수립</li> <li>•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 분석</li> </ul>

## 자. 정책지원 현황

### □ 진천 케이푸드밸리 조성



진천케이푸드밸리

#### ○ 사업개요

- 위치 : 진천군 송두리, 가산리 일원
- 사업규모 : 829,069m<sup>2</sup>
- 사업기간 : 2015 ~ 2020
- 사업비 : 1,400억 원
- 개발방법 : 특수목적법인 설립(진천군, 태영건설, 삼우건설)

#### ○ 추진상황

2015.7.	진천송두산업단지 투자방향서 제출
2016.7.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2016.8.	관리기본계획승인 고시
2016.11.	산업단지 공사 착공
2017.2.	산업단지 분양 공고
2017.9.	수용재결 심의 완료
2018.8.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고시
2018.10.	CJ제일제당 생산개시(1차)

#### ○ 향후 추진계획

2019.5.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9.6.	산업단지공사 준공



## □ 에스폼산업단지 조성사업



에스폼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회죽리 일원
- 사업규모 : 415,104m<sup>2</sup> (12.6만평)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사업비 : 522억 원
- 시행자 : 삼목에스폼(주)외 2개사[에스폼(주), 동일제강(주)]
- 유치업종 :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추진상황

2015.3	광혜원면 주민설명회
2015.6	MOU 추진계획 보고 의원간담회
	충청북도, 진천군, 삼목에스폼(주) MOU체결
2015.11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2015.12	주민합동설명회 개최(광혜원면 회의실)
2016.9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2018.7	공사착수
2018.8	주민설명회 개최
2018.8	문화재 시굴조사 및 부지공사 착수
2018.9	문화재 시굴조사 부분 완료 및 학술자문위원회

### ○ 향후 추진계획

2020.12	공사 준공
---------	-------

□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진천읍 초평면 은암리 산 35-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611,283㎡(18.5만평)
- 사업기간 : 2009년 ~ 2019년
- 사업비 : 510억 원(민자)
- 사업시행 : 동신개발(주)
-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추진상황

2009.10	은암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2010.1	실시계획승인고시
2014.5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
2016.5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
2016.8	넥스트림에너지(주) MOU체결
2016.12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
2018.6	초평은암산업단지 확장 계획(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2019.10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9.12	산업단지 준공인가

□ 태양광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

○ 에너지자립형 융·복합 솔라 허브타운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충북 혁신도시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업비 : 3,400억 원(국비1,800억 원, 지방비 1,100억, 민자 500억)
  - 솔라에너지 자립 실증단지 조성 및 지역 에너지 공급 플랜트 구축(1,250억 원)
  - 에너지 융·복합 기술·제품 종합 성능·품질 표준화 기반 구축 R&D 기관 설립 (750억 원)
  -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 산업·체험·관광 융합지구 조성(1,400억 원)

○ ICT 기반의 태양광·건물 융합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 사업위치 : 충북 혁신도시 일원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4년)
- 사업비 : 290억 원(국비 200, 지방비 70, 민자20)



- 사업내용

- 솔라에너지 자립 실증단지 조성 및 지역 에너지 공급 플랜트 구축 (1,250억 원)
- 에너지 융·복합 기술·제품 종합 성능·품질 표준화 기반구축 R&D 기관 설립 (750억 원)
- 기술·사업화 지원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에너지 산업·체험·관광 융합지구 조성 (1,400억원)

## □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조성

###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위치 : 진천군 혁신도시 공공시설 일원(면적 72,000M<sup>2</sup>)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4년)
- 사업비 135억 원(국비 105, 도비 12, 군비 18)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시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사업내용
  - 기본방향 : 태양광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에너지 100%자립 타운 구축
  - 사업형태 : 하수처리장 연계 신재생 융복합 형
  - 설치용량 : 태양광 850kw, 연료전지 10kw, 태양열 1,600m<sup>2</sup>, 히트펌프 525kw, 계간축열조 4,000m<sup>2</sup>

### ○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계획

- 위치 :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산 11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6년)
- 사업비 : 383억 원 (국비 24, 도비 12, 군비 12 민자 335)
- 사업규모 : 부지 51,648m<sup>2</sup>, 건축 13,154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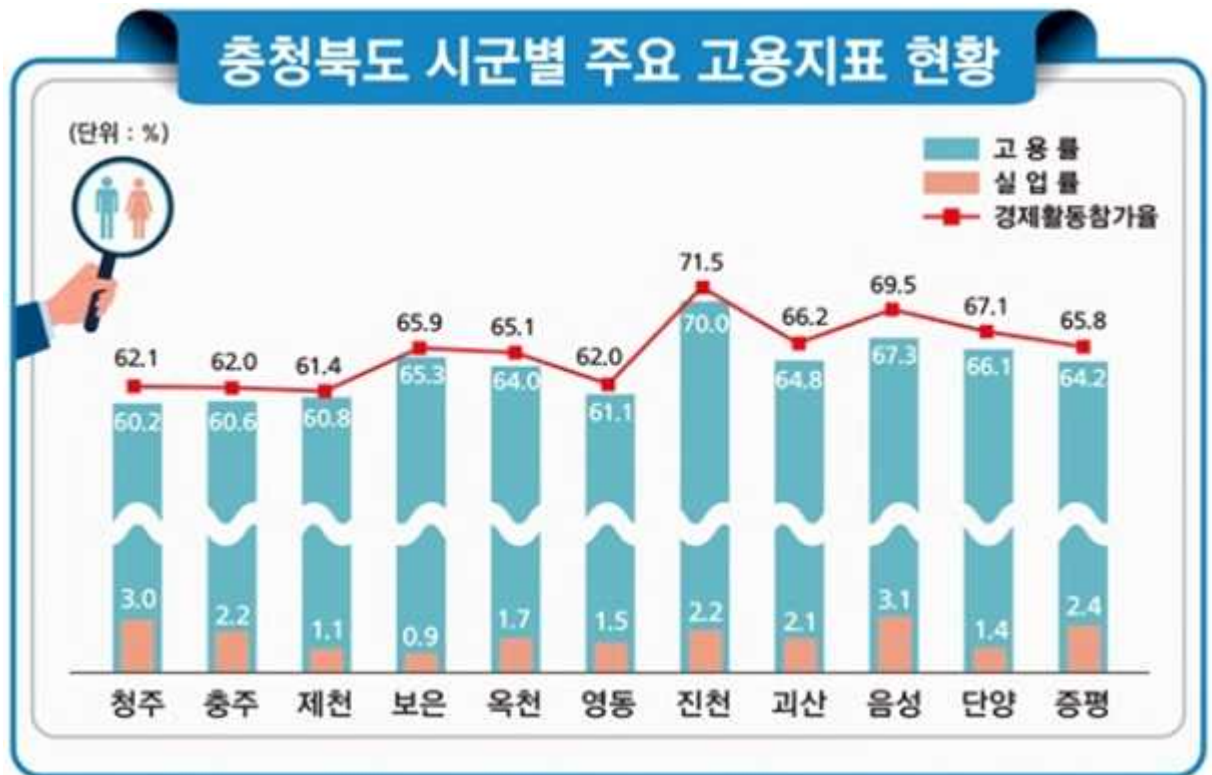
### ○ 태양광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6. 11 ~ 2021. 6
- 사업위치 :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30-1번지 일대
- 사업비 : 190억 원 (국95, 도29.2, 군 65.8)
- 사업규모 : 부지 15,935m<sup>2</sup>, 건축연면적 3,306m<sup>2</sup> (2층)
- 시행 및 참여지자체 : 충청북도, 진천군
- 참여기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 사업내용 : 태양광 모듈 재활용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진천군 고용지표 ‘전국 최상위’

- 전국 최고수준인 7629만 원의 주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기록하며 가파른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진천군이 주요 고용지표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진천군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증가율 등의 주요 지표에서 충청도내 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하였음
- 대규모 투자 유치에 의한 우량기업 유치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충청북도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현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18년 말 기준 진천군의 고용률은 충북 시·군 중 가장 높은 70.0%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내 평균보다 무려 6.6%가 높았음
- 진천군의 고용률은 송기섭 군수가 취임한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간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오르막세를 타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도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나. 진천군-한성신약 투자협약 체결

- 진천군은 2019년 3월 한성신약과 투자협약을 체결함
- 진천 이월면에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한성신약은 진천 신척산업단지에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경기 김포에 있는 본사도 진천으로 이전하기로 함



진천군 - 한성신약 투자협약

자료 : 진천군청

## 다. 진천군, 5천 257억 원 추경 편성

- 진천군은 당초 예산보다 950억 원 증액한 5천 25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함
- 이는 진천군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예산안임
- 진천군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정부의 재정 확장 운용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

## 라. 진천군 인구증가

- 진천군의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증가로 기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전국 220여개 기초자치단체 중 2016년 14위(2.90%), 2017년 10위(5.33%), 2018년 6위(6.16%)를 각각 기록해오며 인구증가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임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충북 내 중부 위치로 인한 최적의 접근성)** 진천군은 충청북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내륙도시임
  - 반경 40km내에 청주, 음성, 괴산, 안성, 천안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도시권의 접근성도 좋은 편임
- **(충북 내 타 시·군 대비 많은 산업단지 보유)** 진천군은 일반산업단지 10개소, 농공단지 8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지역 내 대기업 입지)** 진천군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큰 기업은 식료품제조업의 씨제이제일제당과 태양광업의 한화큐셀 등이 있음
- **(많은 혁신기관 보유)** 혁신자원의 경우 총 11개의 기관이 있으며, 크게 정보통신·기술 기능군과 교육·인력개발 기능군, 공공 서비스기능군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역 내 기업을 위한 투자 활발)** 진천군은 케이푸드밸리, 에스폼산업단지, 초평은암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에 많은 지원투자를 하고 있음
- **(진천군 고용지표 전국 최상위)** 진천군은 전국 최고수준인 7269만 원의 주민 1인당 GRDP를 기록하며 가파른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진천군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 진천군은 당초 예산보다 950억 원 증액한 5천 25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
- **(진천군 긍정적 인구 증가)** 진천군의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증가로 기인된 것임
- **(지역특화산업으로 HMR 선정 필요)** 현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태양광 산업은 현재 상태의 지원수준을 유지하고 지역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HMR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진천군은 좋은 지리적 여건을 토대로 기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증가와 고용률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음
  - 다만,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식료품제조업(CJ제일제당)과 신재생에너지(한화큐셀)의 지원에 있어 불균형적인 부분이 존재함
  - 군내에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가진 것도 식료품 제조업이며, 가장 큰 규모의 기업도 식료품 제조업인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기능성HMR

###### □ 국내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규제방안)** 최근 국내에서는 HMR 산업과 관련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을 강화하는 추세임
- **(HACCP 단계적 의무화)**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임
- **(불안요인 사전 예방)** 식약처는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대할 계획임
  -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힘
- **(유통단계 온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간편식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온도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식약처는 HMR, 신선식품, 반찬류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보관·배송·운반 단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충북지역 식료품제조업 지원사업 전무)** 현재 도내에 기업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식료품제조업 기업의 수가 타 산업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충북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 소개란을 보면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바이오의약,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인 화장품·뷰티, 이차전지, 의료기기를 집중 육성하여 미래가치를 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스마트IT,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충북의 3대 주력산업에 2020년부터 6년간 총 1,350억 원의 중소기업 R&D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힘

## □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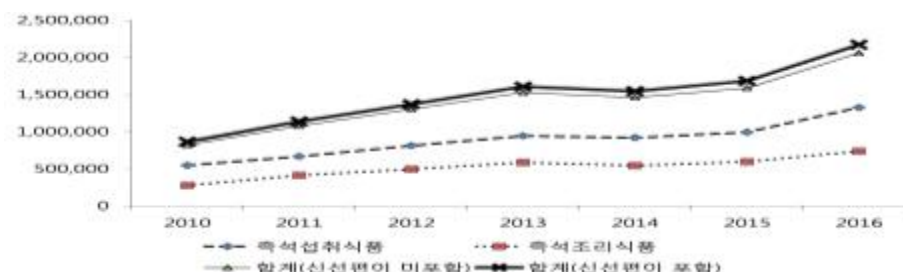
-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규제 방안)** 해외의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규제방안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 라벨링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푸드서비스 사업장과 소매업장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즉석섭취 가공식품의 경우 FAS에서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험 분석을 실시함
- **(영국)** 심각한 사회문제인 비만을 줄이기 위해 HMR의 영양 정보를 표시할 때, 칼로리, 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금 등의 일일 섭취 권장량 기준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도록 함
  - 초록색(권장량보다 낮음), 노란색(권장량 수준), 빨간색(권장량보다 높음)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
- **(독일)** 독일 정부는 HMR이라 해 별도의 특별한 정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음
- **(이탈리아)** EU의 식품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하였음

## 2. 경제/산업 동향

### 가. 기능성 HMR

## □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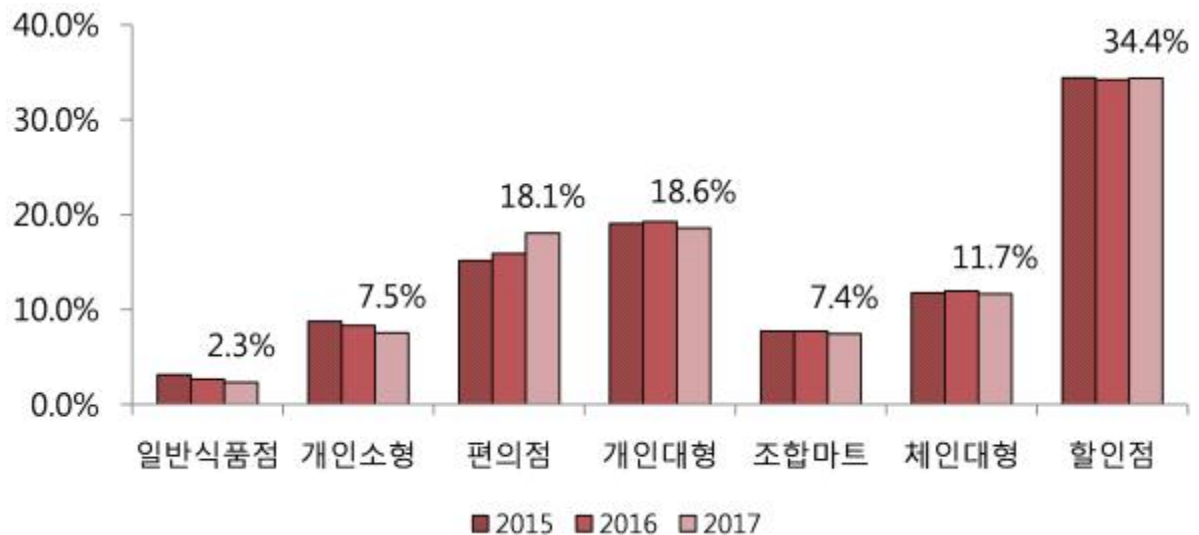
- **(시장동향)** HMR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에 의하면, 2016년 HMR 국내 판매액(출하액 기준)은 전년 대비 29.0% 증가한 2조 1,702억 원 수준임
- (주)닐슨코리아 POS데이터에 의하면, HMR 국내판매액(실제판매액 기준)은 2016년 1조 9,081억 원, 2017년 2조 1,567억 원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HMR 국내 판매액 추이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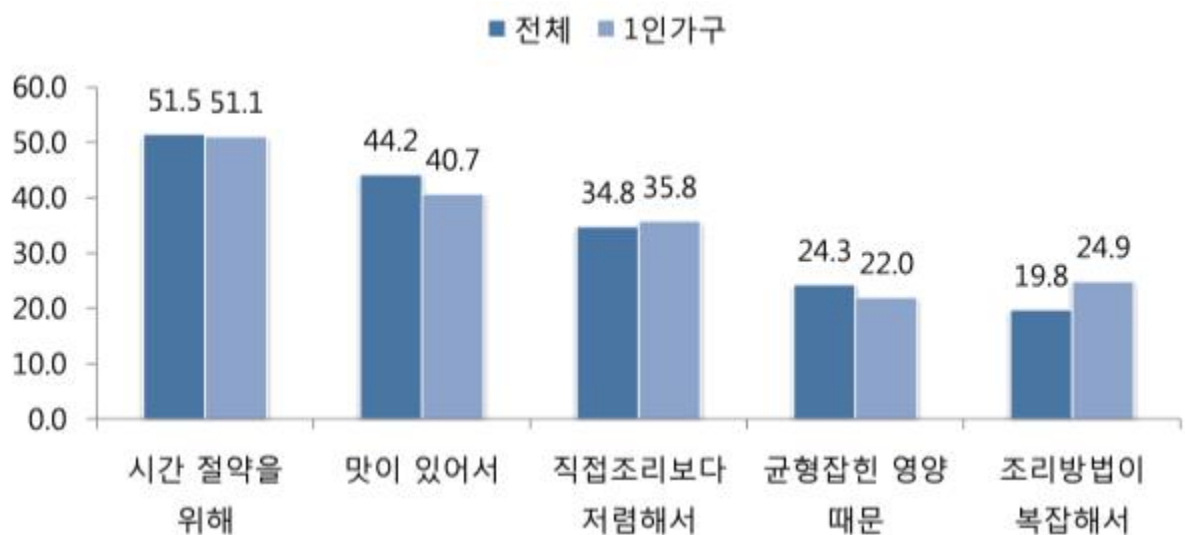
- **(주요 유통채널)** 2017년 기준, HMR 주요 유통 채널은 할인점(34.4%)이며, 다음으로 개인대형(18.6%), 편의점(18.1%), 체인대형(11.7%)순임
- 2015년부터 3년 연속 할인점이 33%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했으며, 편의점 비중은 3년 연속 증가세, 일반식품점 및 개인소형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유통 채널별 HMR 판매액 비중 추이

자료 : (주)닐슨코리아 Retail Index & ScanTrack

- **(시장 성장성)** 최근의 HMR은 바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한 끼를 완성하는 도구인 동시에 맛과 영양까지 갖춘 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
- 합리적 · 경제적인 소비패턴에도 부합되어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향후 미래세대의 식품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됨



HMR 구입이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8,2017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 해외

- **(시장규모)** 세계 HMR 시장은 약 72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940억 달러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HMR 시장규모는 2016년 302억 2,58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 증가함
  - **(중국)** 2016년 기준 간편식 시장규모는 약 59억 8000만 달러로, 2012년 약 40억 5000만 달러 대비 47.5% 증가함
  - **(독일)** HMR 시장은 2014년 약 34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6%의 신장률을 보임
  - **(이탈리아)** 음식이 간편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에 비해 이탈리아 국내 HMR 시장은 그다지 성장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선호도 높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시장조사에 의하면 이탈리아 간편식 시장이 3%성장함
- **(시장동향)** 해외에서 HMR 시장은 냉동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미국)** 냉동 간편식 부문이 전체 매출의 42.7%를 보이며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함
  - **(중국)** 샌드위치, 라면, 냉동조리식품은 중국의 대표적인 간편식품으로 2016년 말 기준 중국의 간편식품업체는 이미 약 1800개에 달함
  - **(독일)** HMR 상품소비는 냉장 HMR 상품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0.8%의 감소세를 보임
  - **(이탈리아)**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HMR 카테고리는 냉동 피자이며 매출액과 판매물량이 모두 5% 성장함

## 2.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사회적 이슈로 각 국내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식료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충북지역 내 식품제조업 지원사업 부족)** 도내에 식료품 제조업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다른 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음
-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규모)**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와 국외 모두 HMR 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업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HMR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사업 마련 필요)** 지역 내 HMR 산업에 힘을 쏟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사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HMR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협이 될 수도 있음
-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각 종 정책 규제들이 우후죽순 쏟아질 수 있으며, 많은 경쟁자들이 생겨나면서, 가격경쟁, 품질경쟁으로 인한 포지셔닝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내 대표기업이 스스로 이겨내며 성장하면 좋겠지만, 기업의 흥망성쇠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음
- 그렇기에 진천군은 HMR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그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단, 최근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에의 대응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SWOT 분석

지역경쟁력 SWOT분석	<b>강점(Strengths)</b> 1. HMR 제조 대표기업인 CJ제일 제당 입주 2. 다양한 품목의 식품제조업체 입지	<b>약점(Weaknesses)</b> 1. 전반적인 식품제조업 기업규모 영세 2.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미흡
<b>기회(Opportunities)</b> 1. HMR, 고령친화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새 식품시장 급성장 2.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유통환경의 다양화	<b>SO전략</b> ☞ 식품시장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로 시장 경쟁력 강화	<b>WO전략</b> ☞ 산학 중심의 연구 네트워크 강화
<b>위협(Threats)</b> 1. 식품 관련 소비자 안전성 민감 2. 포장재로 인한 환경문제 대두 3.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	<b>ST전략</b> ☞ 식품 안전 및 포장에 관한 기술 개발을 위한 유사품목 제조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 대기업을 R&D 멘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유도	<b>WT전략</b> ☞ 영세기업의 식품안전인증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 국내 과잉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방안 구상

#### 나. 기본방향

- 최근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소비 트렌드(편의성, 웰빙지향, 감성소비 등)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 대기업↔중소기업↔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지역민과의 상생발전 유도

#### 다. 추진체계

-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역량을 확보
  - 기업역량 및 수출역량
- 지속적 지원사업을 통한 HMR 기업들의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유지
- HMR 산업의 중심지역 구축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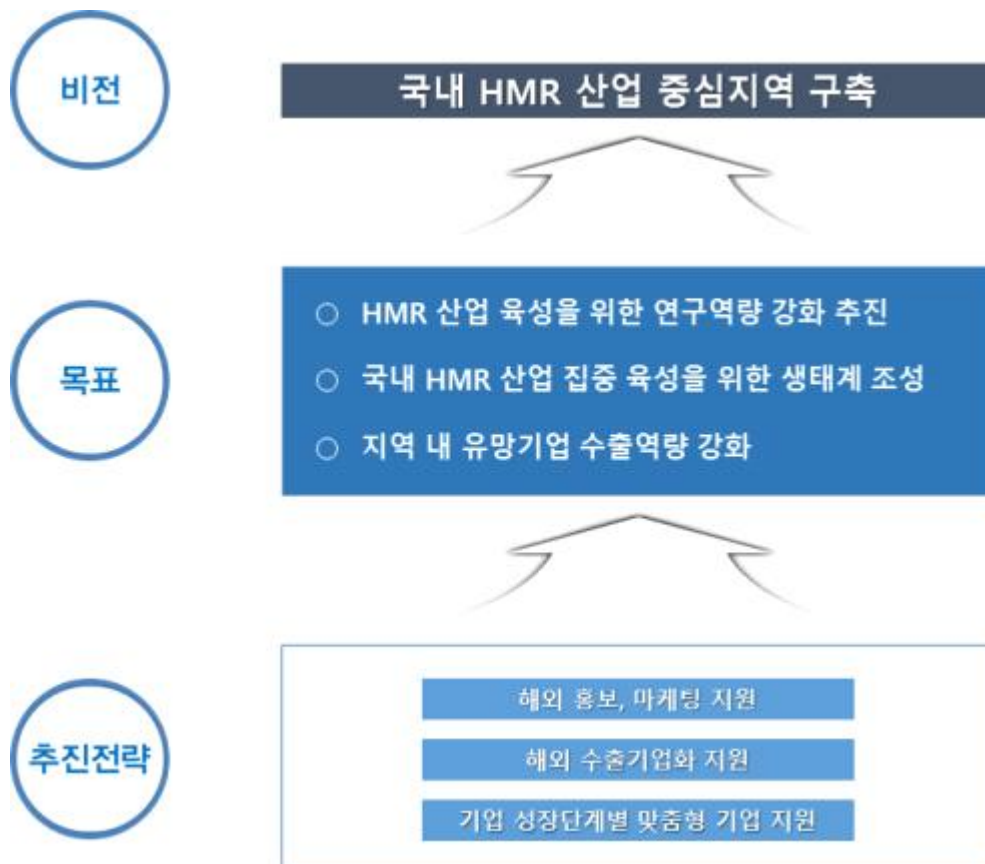
#### □ HMR

- HMR이란 'Home Meal Replacement'의 약자로 가정간편식이라는 뜻임
- 구체적으로는 가정식사를 대체할 수 있고, 가정 외에서 판매되며, 완전하게 조리가 끝난 식품 또는 가열이 필요한 식품 형태로 구매하여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음식임

HMR 산업의 정의

RTP (Ready To Prepared)	요리용 간편식이라는 뜻으로 식재료를 요리하기 편리하게 씻고 작게 나눈 제품임
RTC (Ready To Cook)	조리용 간편식이라는 뜻으로 간단히 조리 후 먹을 수 있는 음식임
RTH (Ready To Heat)	반조리용 간편식이라는 뜻으로 가열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임
RTE (Ready To Eat)	즉석 간편식이라는 뜻으로 포장제거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임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 가. 추진과제 #1

□ 추진개요 :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 세부내용

○ 전략수립 지원

○ 마케팅 로드맵 제공

○ 홍보·마케팅 지원

- 온라인 : SNS 광고,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인플루언서 마케팅, 홍보 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브로슈어 등
- 해외 오프라인 행사 및 전시참가 지원 등

#### 나. 추진과제 #2

□ 추진개요 : 해외수출기업화 지원

□ 세부내용

○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자료 구축
- 환경산업체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오 국내 초청

○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다. 추진과제 #3

- 추진개요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 세부내용
  -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단계 도출
  - 성장단계 도출 시, 해당 기업에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관련 문제 해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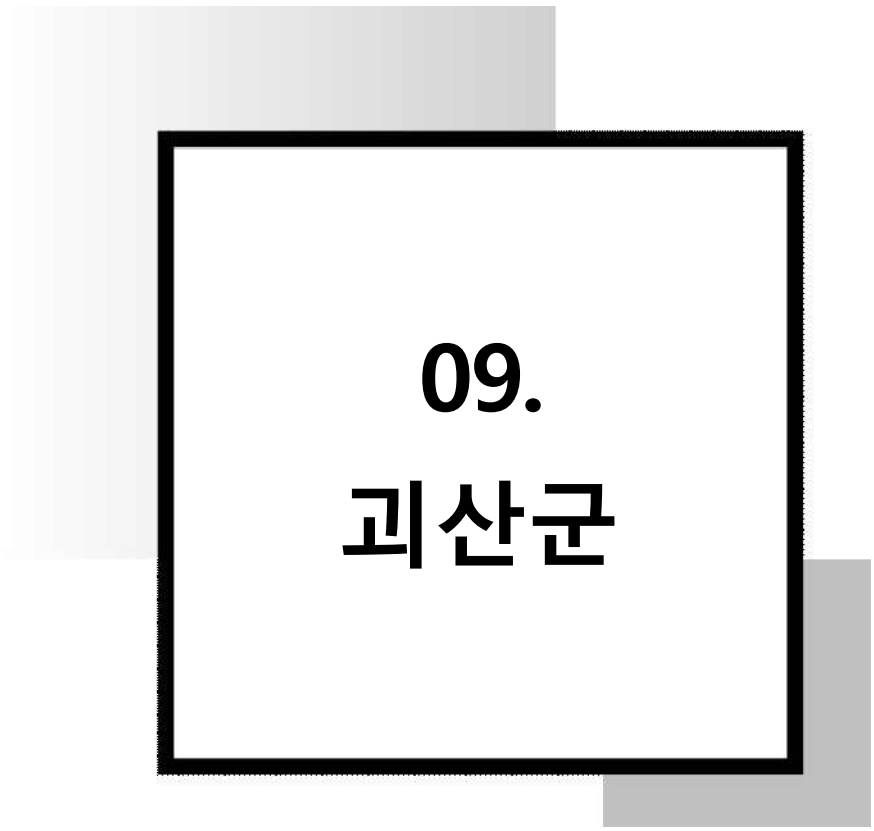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매출증대 (500억), 고용창출 (300명)
- HMR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력 고용의 확대를 이끌어 냄
- 이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정책적 효과

-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역량강화 추진을 통해 기업 인지도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한 제품의 해외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최근 빠르게 변화는 정책적 변화 혹은 규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한 수출능력 확보
-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애로한 사항을 해결



## 09. 괴산군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괴산군은 2019년도 군정방침에서 '지속발전 미래기반', '도약하는 순정농업', '명품힐링 문화관광', '품격있는 맞춤복지', '함께하는 참여군정'의 5대 전략을 명시하고 있음



2019 괴산군 군정방침

- 5대 전략 중 하나인 '지속발전 미래기반'을 달성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일자리 넘치는 경제활력도시', '사람이 찾아오는 젊은도시 괴산' 등을 들고 있음
- 하지만 괴산군의 3개년(2016년~2018년) 20,30 그리고 40대 인구를 살펴보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괴산군 3개년도 20~40대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 대	3,273	3,459	3,529
30 대	3,059	2,890	2,827
40 대	4,827	4,500	4,320
합계	11,159	10,849	10,676

자료 : 괴산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 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0~40대 인구는 -2.8% 하락하였고, 2018년에는 -1.6%하락하며, 주력 경제활동가능인구인 젊은 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
- 이에, 군은 2019년도 군정방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를 늘릴 만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조치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슈를 이용하고자 결정하였음
- 현재 괴산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정, 괴산군 우수기업 선정 육성, 기업유치 시스템 활성화 및 강소기업 유치 등 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하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지원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함

## 가. 추진목적

- '일자리 넘치는 경제활력도시 괴산' 만들기
  - 현재 괴산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기대
  - 집중 투자를 통한 도시 이미지 개선 및 관련 산업분야 기업의 투자확대
  -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극대화 기대
- '사람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 괴산' 만들기
  - 군의 지역특화산업의 투자를 통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고 이를 통하여 젊은 층의 군내 유입을 이끌어 냄
  -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젊어지게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함
  - 젊은 층 유입 → 젊은 층을 위한 도시 인프라 개선 → 더 많은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도시개발계획을 기대
- 지속발전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위한 기반 만들기
  - 위의 추진목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젊은 인구 증가, 도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하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함



## 2. 추진경과

### 가. 특화산업 발굴 추진경과

- 충청북도 및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 회의(2019. 2.)
  - 지역특화산업 발굴 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 괴산군 경제과(2019. 3.)
  - 지역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선정
- 충청북도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설명회(2019. 4.)
  -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및 의견수렴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컨설팅(2019. 4. ~ 5.)
  - 선정 지역특화산업 타당성 검토
  -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협의

###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현실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단절없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사업을 추진하기 전 철저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예비조사 및 타당성 분석 등이 확실하게 선행되어야 함
- 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가 사전 계획만큼 창출될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일자리 발굴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 이러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있지만 본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큼
- 일자리 창출이 유지되어,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실제로 늘어난다면 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거주지를 괴산으로 옮긴 젊은 인구는 일자리로 인하여 온 것이지만 괴산의 다른 면을 바라본 것이 아니기에 지역에 대한 애착 및 남아서 살 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음
  - 때문에, 일자리가 변경되거나 문제가 될 시 즉각적인 인구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을 붙잡을만한 새로운 정책들을 지원하여 붙잡을 수 있어야 함

## II.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가. 지리적 현황

##### □ 위치

- 괴산군은 충청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충주시, 서북쪽으로 음성군, 서남쪽으로 증평군·보은군과 경계하고, 동남쪽으로 경북 문경시·상주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산수가 수려한 소백산맥 자락에 자리하고 있음.
- 괴산군은 국토의 정중앙으로 서울까지 147km 떨어져 있으며, 전국 2시간대 접근 가능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 청주공항이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요충지임.
- 국토의 중심 십자형 교통요충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과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인 중부내륙철도가 괴산군 연풍면에 건설 중에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대

#### 나. 인구 현황

□ 인구 및 세대현황: 38,240명, 20,473세대(2019. 3. 31. 기준)

□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2019. 3. 31. 기준)

인 구 구 조				인구수	구성비
인구구조		연 령(만)	계	38,240	100.0%
			남	19,501	
			여	18,739	
경 제 활 동 인 구	유년층	( 0~14 )	계	2,372	6.2%
			남	1,167	
			여	1,205	
	청년층	( 15~29 )	계	4,636	12.1%
			남	2,638	
			여	1,998	
	중년층	( 30~54 )	계	10,249	26.8%
			남	5,801	
			여	4,448	
	장년층	( 55~64 )	계	8,817	23.1%
			남	4,666	
			여	4,151	
	노년층	( 65~ )	계	12,166	31.8%
			남	5,229	
			여	6,937	

자료 : 괴산군

## □ 인구추이

- 괴산군의 인구는 2011년 37,333명에서 2018년말 39,133명으로 8년간 1,800명이 증가하여 인구증가가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읍면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율
합계	37,333	37,713	38,059	38,351	38,787	38,973	39,054	39,133	0.7%
괴산읍	9,398	9,684	10,031	10,155	10,127	10,127	10,563	10,588	1.7%
감물면	1,954	1,984	1,990	2,026	2,081	2,123	2,123	2,137	1.3%
장연면	1,987	1,978	1,993	2,004	2,041	2,046	2,024	1,981	0.0%
연풍면	2,567	2,501	2,462	2,477	2,489	2,516	2,477	2,477	-0.5%
칠성면	2,930	2,994	3,020	3,064	3,103	3,161	3,163	3,204	1.3%
문광면	2,060	2,099	2,118	2,127	2,160	2,198	2,187	2,217	1.1%
청천면	5,120	5,129	5,131	5,134	5,201	5,142	5,150	5,145	0.1%
청안면	3,356	3,402	3,421	3,445	3,504	3,534	3,500	3,540	0.8%
사리면	3,021	2,959	2,935	2,938	3,015	3,012	2,862	2,877	-0.7%
소수면	1,938	1,984	2,003	2,016	2,055	2,070	2,081	2,082	1.0%
불정면	3,002	2,999	2,955	2,965	3,011	3,044	2,924	2,885	-0.6%

자료 : 괴산군

## 다. 친환경 인증 면적 및 농산물 생산, 판매 현황

### □ 친환경 인증현황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3 ~ 2015년에 다소 줄어든 이후 정체
- 2017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출하량 감소로 전년 보다 7.2% 감소한 1조 3,608억원으로 추정
- 향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연평균 5.8% 성장하여 2025년에는 2조 1,360억원 (유기 5,745억원, 무농약 1조 5,615억원) 전망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방안이 요구됨

## □ 친환경 인증면적

(2018. 12월말 기준)

구분	경작면적 (b)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a/b)
		소계(a)	유기농	무농약	
전 국	1,597,633	78,544.2	24,665.9	53,878.3	4.9
충 북	96,266	3,037.6	1,039.3	1,998.3	3.15
괴산군	10,484	378.9	177.9	201	3.6

자료 : 괴산군

## □ 연도별 인증면적 확대계획 (2019~20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계	378.9 (3.6%)	510.8 (4.9%)	673 (6.4%)	874 (8.3%)	1,100 (10.5%)	
벼	155.1	265	400	570	750	
인삼	27.7	33	38	44	50	
시설재배	39.6	42.8	50	60	70	
기타	156.5	170	185	200	230	

자료 : 괴산군

##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현황

2018. 12월말 기준

연번	품목	재배면적(ha)	생산량(ton)	평균단가(원/kg)	판매금액(백만원)	비고
합계	18개 품목	378.9	5,206.6	-	12,180	
1	벼	155.1	775.5	2,190	1,703	
2	감자	51.64	413	1,620	669	
3	토마토	31.9	383.7	2,100	715	
4	산양삼	29.87	1.0	1,888,880	32	
5	인삼	26.7	20.9	17,070	859	
6	옥수수	21	553.5	3,310	349	
7	블루베리	6.61	25.5	18,800	476	
8	메주콩	5.87	14.3	6,800	97	
9	아로니아	5.79	17.5	3,900	85	
10	서리콩	4.9	7.2	12,730	92	
11	들깨	3.92	1.2	10,160	12	
12	브로콜리	3.83	15.8	3,910	69	
13	고추	3.74	4.3	18,000	95	
14	표고버섯	3.55	135.4	9,530	1,294	
15	수수	3.09	6.9	4,750	41	
16	붉은팔	2.35	4.5	12,100	50	
17	결명자	2.25	3.6	7,500	27	
18	기타	16.79	2,822.8	-	5,515	

자료 : 괴산군

## □ 판매처 현황

2018. 12월말 기준

연번	판매처	대표품목	판매량(ton)	판매금액(백만원)	비고
합계			5,206.6	12,180	
1	cj제일제당	콩나물	2,679	5197	
2	개인별 직거래 / 인터넷	벼, 채소, 기타	245.2	1379	
3	한살림	벼, 채소, 기타	766.2	1855	
4	흙살림	토마토, 기타	269.4	1111	
5	농협	벼, 채소, 기타	468.4	1032	
6	아모레 / 장원영농조합	인삼	11.9	568	
7	아이쿱생협	벼, 채소, 기타	118.3	291	
8	토리식품	옥수수	478	286	
9	도매시장	표고버섯	25.8	190	
10	학교급식	벼	76.3	124	
11	두레생협	토마토, 감자	24.3	32	
12	괴산잡곡	벼, 잡곡	8.2	43	
13	하늘농부	벼, 배추	29.6	57	
14	자연유기농영농조합	브로콜리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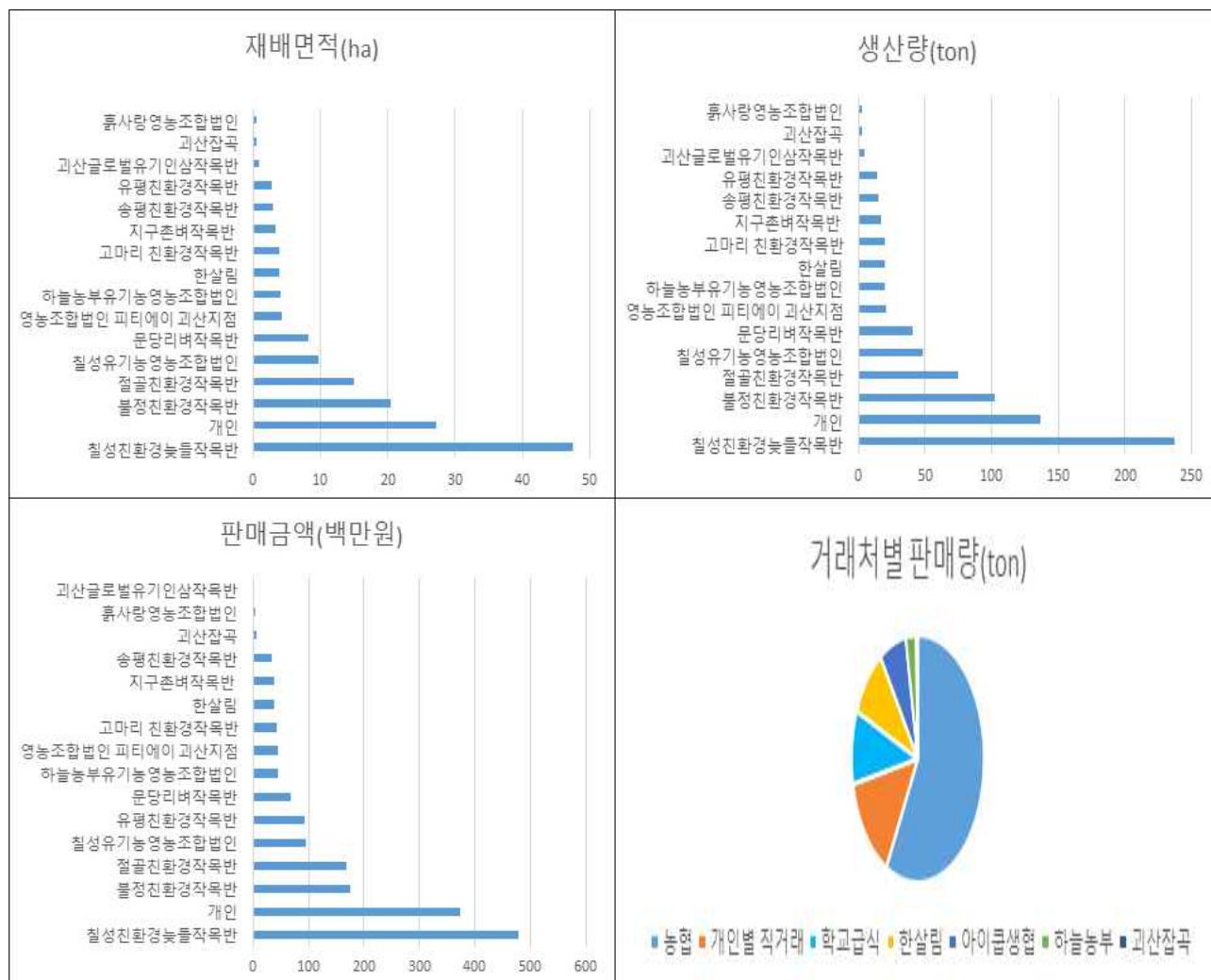
자료 : 괴산군

## □ 주요품목 분석(벼)

2018. 12월말 기준

구 분	재배면적(ha)	생산량(ton)	판매금액(백만원)	판매량(ton)						
				계	농협	직거래	학교급식	한살림	아이쿱	기타
16개 단체	155.1	775.5	1,703	775.5	451.5	107.4	74.3	71	51.3	19.9
개인	27.3	136.4	373	137	32	82	23	0	0	0
고마리친환경작목반	3.9	19.5	43.1	19.5	19.5	0	0	0	0	0
글로벌유기인삼작목반	1	4.4	0	4.4	0	4.4	0	0	0	0
괴산잡곡	0.5	2.8	5.6	0	0	0	0	0	0	0
문당리벼작목반	8.1	41	68.3	41	41	0	0	0	0	0
불정친환경작목반	20	102.1	174	102.6	0	0	51.3	0	51.3	0
송평친환경작목반	3	14.7	35	15	15	0	0	0	0	0
유평친환경작목반	2.7	13.6	92	14	14	0	0	0	0	0
절골친환경작목반	15	75	167	75	75	0	0	0	0	0
지구촌벼작목반	3.4	17	39	18	18	0	0	0	0	0
칠성유기농영농조합	9.7	48	95	48.8	0	0	0	48.8	0	0
칠성농들작목반	47.4	237	479	237	237	0	0	0	0	0
하늘농부영농조합	4.1	20	46	20	0	0	0	0	0	20
한살림	4.1	20	38	19.6	0	0	0	19.6	0	0
흙사랑영농조합	0.6	2.8	4	2.6	0	0	0	2.6	0	0
영농조합법인 PTA	4.3	21.2	44	21	0	21	0	0	0	0

자료 : 괴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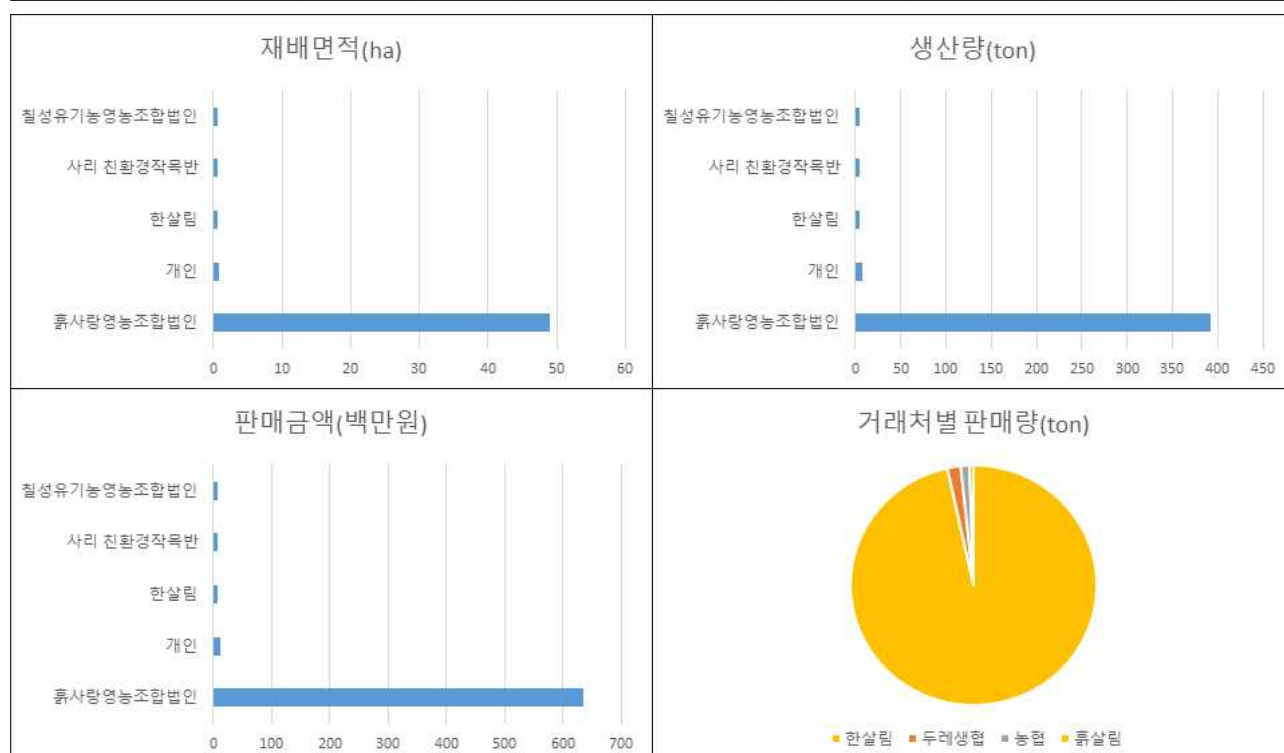
자료 : 괴산군

- 전체 재배면적은 155.1ha로 연간 생산량 775.5톤 (유기237.1, 무농약538.4)
- 주요 생산자는 철성농산물작목반 237톤, 개인 136.4톤, 불정친환경작목반 102.1톤, 절골친환경작목반 75톤으로 전체 생산량 대비 70%
- 판매금액은 철성농산물작목반 479백만원, 개인 373백만원, 불정친환경작목반 174백만원, 절골친환경작목반 167백만원등으로 전체 판매금액은 1,703백만원
- 주요 판매처는 농협(451.5톤 / 977백만원), 직거래(107.4톤 / 337백만원), 학교급식 (74.3톤 / 123백만원), 한살림(71톤 / 140백만원), 아이쿱(51.3톤 / 81백만원), 기타 (19.9톤 / 45백만원)

## □ 주요품목 분석(감자)

2018. 12월말 기준

구 분	재 배 면적 (ha)	생 산 량 (ton)	판매금 액 (백만원)	판매량(ton)				
				계	한살림	두레생협	농 협	흙살림
5개 단체	51.6	413	669	413	399	7.2	4.7	2.1
개 인	0.9	7.1	11.6	7.2	0	7.2	0	0
사리 친환경작목반	0.6	4.8	7.6	4.7	0	0	4.7	0
칠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0.6	4.5	7.5	4.6	2.5	0	0	2.1
한 살 림	0.6	4.7	7.8	4.8	4.8	0	0	0
흙사랑영농조합법인	48.9	391.9	634.5	391.7	391.7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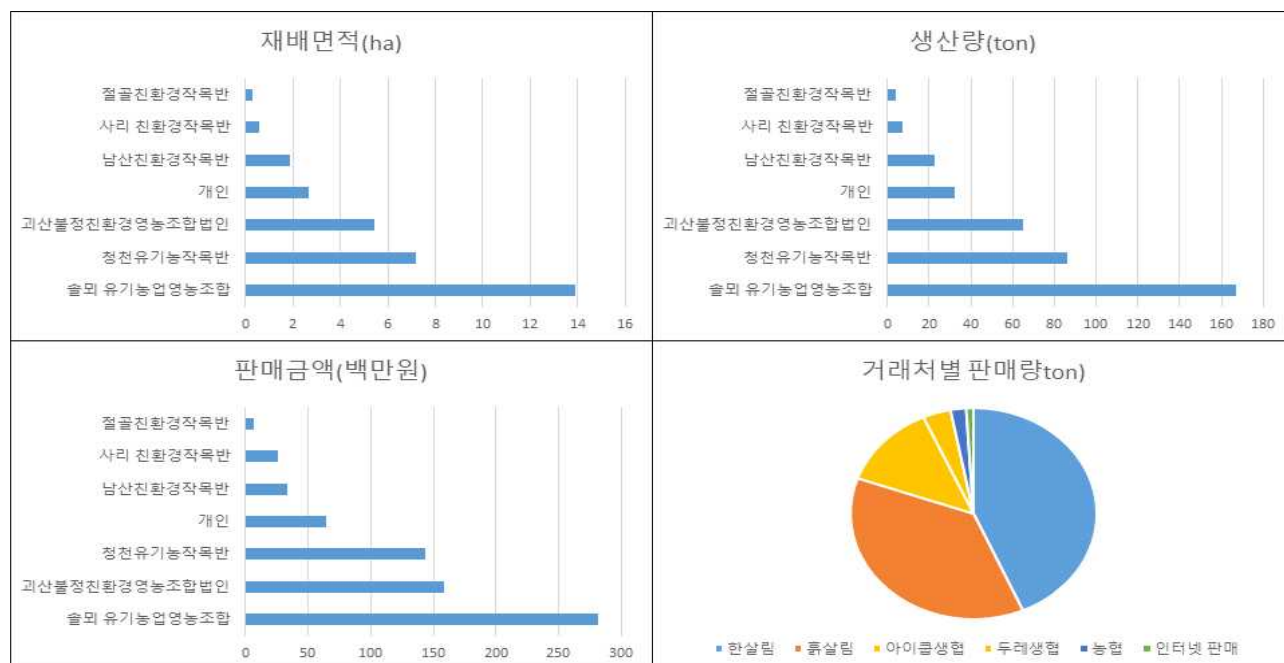
자료 : 괴산군

- 전체 재배면적은 51.6ha로 연간 생산량 413톤(유기330, 무농약83)
- 주요 생산자는 흙사랑영농조합법인(391.9톤)으로 전체 생산량 대비 94%
- 판매금액은 흙사랑영농조합법인 634.5백만원, 개인 11.6백만원, 한살림 7.8백만원, 사리친환경작목반 7.6백만원, 칠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7.5백만원으로 전체 판매금액은 669백만원
- 주요 판매처는 한 살림(399톤 / 646.3백만원), 두레생협(7.2톤 / 11.6백만원), 흙살림 (2.1톤 / 3.4백만원), 농협(4.7톤 / 7.7백만원)

## □ 주요품목 분석(토마토)

2018. 12월말 기준

구 분	재배면적(ha)	생산량(ton)	판매금액(백만원)	판매량(ton)						
				계	한살림	흙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농협	직거래
7개 단체	31.9	383.7	715	383.7	166.9	142.1	49.1	14	7.8	3.8
개 인	2.7	32.3	64.8	32.3	0	24.5	0	0	7.8	0
불정친환경영농조합	5.4	64.8	158	64.5	0	15.4	49.1	0	0	0
남산친환경작목반	1.8	22.6	33.3	22.5	0	8.5	0	14	0	0
사리친환경작목반	0.6	7.1	26.3	7.3	0	3.5	0	0	0	3.8
솔미유기농업영농조합	13.9	166.8	282	166.9	166.9	0	0	0	0	0
절골친환경작목반	0.3	3.8	6.5	3.8	0	3.8	0	0	0	0
청천친환경작목반	7.2	86.3	144.1	86.4	0	86.4	0	0	0	0



자료 : 괴산군

- 전체 재배면적은 31.9ha로 연간 생산량 383.7톤(유기281, 무농약102.7)
- 주요 생산자는 솔미유기농업영농조합(166.8톤), 청천유기농작목반(86.3톤), 불정친환경영농조합(64.8톤)으로 전체 생산량 대비 82%
- 판매금액은 솔미유기농업영농조합 282백만원, 청천유기농작목반 144.1백만원, 불정친환경영농조합 158백만원으로 전체 판매금액은 669백만원
- 주요 판매처는 한살림(166.9톤/282백만원), 흙살림(142.1톤/273백만원), 아이쿱(49.1톤/123백만원), 두레생협(14톤/18백만원), 농협(7.8톤/11백만원), 직거래(3.8톤/6백만원)



## 라. 친환경 농업 단지 지정 현황

### □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단위 : ha, 백만원)

단지명	사업년도	단지면적 (인증면적)	사업비	사업주체	주요내용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2010 -2014	2,215 (359)	9,845	불정농협 (곽동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과일선별장및예냉시설,저온저장고및작업장,웰컴센터,도정시설 등 11개사업

자료 : 괴산군

### □ 친환경 농업지구

(단위 : ha, 백만원)

지구명 (사업명)	사업 년도	단지면적 (인증면적)	사업비	사업주체 (대표자)	주요내용
계/7개소	-	257.5 (95.6)	2,038	-	-
장연광진지구	2011	36/19	253.6	왕우령이쌀 작목반 (이강선)	곡물건조기, 살포기, 방제기, 스키로더 등
불정신흥지구	2009	27/9.5	409.4	괴산친환경 작목반 (김진태)	퇴비사, 예냉시설, 선별기, 지게차, 포장기, 농용로우더 등
장연방곡지구	2008	45/0	356.5	장연과수 작목회 (정재영)	퇴비사, 저온저장고, 선별장 및 선별기, 농용운반차 등
칠성사평지구	2006	101/50	211.0	칠성유기농 영농조합법인 (경동호)	퇴비사,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불정탑촌지구	2006	2.5/0	234.0	불정친환경 복숭아작목반 (정상기)	퇴비사, 저온저장고, 농용로우더 등
청천이평지구	2005	25/17.1	252.8	솔뫼유기농 영농조합법인 (김의열)	퇴비사, 저온저장고, 육묘장, 건조장 등
청천금평지구	2005	21/0	320.7	청천친환경 작목반 (정성구)	퇴비사, 저온저장고, 선별장, 퇴비살포기, 굴삭기 등

자료 : 괴산군

## □ 유기농업단지

(단위 : ha, 백만원)

단지명 (사업명)	사업 년도	단지면적 (인증면적)	사업비	사업주체 (대표자)	주요내용
계/3개소	-	137 (87)	766	-	-
칠성 갈읍지구	2014	36 (20)	266	쌀사랑작목반 (추교성)	퇴비살포기, 도정설비, 지게차, 농산물보관창고 등
감물 백양지구	2015	76 (55)	200	흙사랑영농조합법인 (이도훈)	농산물집하장, 옥수수탈피기, 포장기, 세척기 등
불정 신흥지구	2015 -2016	25 (12)	300	괴산불정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신중섭)	퇴비살포기, 냉동고 및 작업장, 가공포장시설 등

자료 : 괴산군

## □ 유기농특화품목 육성단지

(단위 : ha, 백만원)

단지명 (사업명)	사업 년도	단지면적 (인증면적)	사업비	사업주체 (대표자)	주요내용
계/4개소	-	116.2 (72.9)	345.6	-	-
요동사과단지	2014	20.5	119.8	연풍요동사과작목 반 (정해수)	굴삭기, 저온저장고,공동작업 장, 선별기
사리사과단지	2015	11.5 (5.7)	42.3	사리사과작목반 (김진동)	미생물살포기(SS기), 농업용고소작업차
불정벼단지	2015	48.2 (48.2)	64.5	불정친환경작목반 (이이배)	승용이앙기, 지게차
장연벼단지	2015	36 (19)	119	왕우렁이쌀작목반 (이강선)	농산물보관창고, 이앙기

자료 : 괴산군

## 마. 친환경 농자재 업체 현황

### □ 친환경퇴비 생산업체

(단위 : 톤)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비 중	생 산 량
계 / 8개소	8			105,219
(주)흙살림	이태근	불정	퇴비	4,074
농업회사법인 농협흙사랑(주)	김창한	사리	퇴비	8,105
			가축분퇴비	26,845
(주)대원농산	이근섭	청안	퇴비	6,799
			혼합유박	3,160
한백R&G	임준미	사리	가축분퇴비	10,000
합자회사 서울축산	나성철	청천	가축분퇴비	6,916
연우회 영농조합법인	임석규	연풍	가축분퇴비	23,800
보양비료	한재옥	사리	퇴비	520
불정농협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곽동은	불정	가축분퇴비	15,000

자료 : 괴산군

### □ TMR공장 운영 현황

운영주체	부지면적	생산규모	급여두수	회원수	비 고
한살림축산영농법인 (대표 : 이제홍)	5,900㎡	월860톤 (년10,320톤)	2,400두	41명	2009.03.17준공
한우가족영농법인 (대표 : 김동식)	9,443㎡	월1,000톤 (년12,000톤)	5,000두	23명	2012.07.06준공

자료 : 괴산군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및 고용현황

#### □ 지역 대표 기업 현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직원 (명)	생산품목
1	(주)괴산레미콘	이기성	괴산로 3352-19	16	레미콘
2	(주)대보세라믹스	박현식 박효진	읍내로 165	98	벽타일
3	(주)덕산식품	박호서	모래재로이곡5길 1	71	떡볶기, 기타 떡류
4	(주)동부금속	정종채	괴산로 3352-8	7	코팅철근
5	(주)동아스트	이장복	문무로길골길 81-3	41	천막, 막구조용 철골
6	(주)동원에프앤비(중부공장)	김재옥	하산로1길 33-10	25	천연생수
7	(주)미미식품	김년춘	광덕길 89	45	조미식품
8	(주)서명콜크	전영환	괴강로공단길 33	6	고무콜크
9	(주)서원양행	이광	모래재로 692-72	38	PE PIPE류, DRIP TAPE류
10	(주)스메텍	고명철	괴강로공단길 37	18	고무제품, 플라스틱
11	(주)신성미네랄	정기윤	조천로2길 34	20	원예용 상토, 비료,유량계,계장제어장치
12	(주)에코폴리텍	임태현	괴강로공단길 32	20	합성수지폼파운드
13	(주)엠씨에스	문부일	모래재로 843	34	접착제
14	(주)우진산전	김영창 김상용	사리로 95	170	철도차량 전장품
15	(주)이지켐	김창복	사리로방축골길 44-68	99	인조대리석, 커폴링제, PMMA, 합지필름
16	(주)인터콘스텍	안춘기	대제산단1길 39-16	20	각종 콘크리트 제품
17	(주)청솔식품	이국표	사리로방축골길 44-45	24	부분육, 돈가스, 근위볶음
18	(주)청주아스콘	이종득	괴산로 1594	21	아스콘, 재생아스콘
19	(주)태성알앤에스 충북지점	이정록	관동로신기1길 40-11	18	철근형상가공품
20	(주)한흥실업	정문희	은티중리길 248	28	석회석분, 석회석
21	(합명)남부산업	변광섭	철보로 661	22	콘크리트수로관
22	(합자)동서콘크리트	이강협	철보로 670	8	콘크리트 수로관
23	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	우종진	괴산로 3204	15	고춧가루
24	괴산잡곡	경종호	도정로 111	16	식품제조가공
25	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남원봉	도경로 640	5	홍삼, 홍삼주
26	농업회사법인 자연과 농부(주)	김민우	사리로 81	27	돈육, 우육

27	농업회사법인 한백식품(주)	박향희	광장로 624-33	10	조미김, 김자반
28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축산식품(유)	조완형	소수로 171	77	포장육(소시지, 햄, 사골)
29	농업회사법인(주)애간장	김면영	자연식품1길 38	8	된장, 고추장, 간장, 쌈장,
30	농업회사법인하담푸드(주)	진원용	길선1길 35-15	20	소고기육포, 돼지고기육포, 닭 고기가슴살
31	동서피씨씨(주)	정장원	질마로불당재길 33-2	21	콘크리트 제품
32	삼보에이앤티(주)	이우석	농공단지길 19	197	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
33	서부농산 영농조합법인	황인순	중흥로 228	18	김치류, 캔류
34	신우콘크리트산업(주)	김동우	화산재로 306	19	수로관, 호안블럭, 맨홀
35	신평산업(주)	권미화	원풍로절골길 43	10	골판지 상자
36	아이에스동서(주)괴산지점	권민석	충민로 512-22	90	타일
37	주식회사 에이원알폼	안호중	대제산단3길 46	94	알폼(알루미늄 판넬)
38	주식회사 진미식품괴산공장	송상문	문무로 184	39	장류
39	주식회사 풍림	전경옥 김태훈	모래재로 414-8	17	우드칩, 펠릿
40	중앙식품(주)	신유섭	수진4길 95	8	고춧가루
41	청성산업(주)	김영자	정용월곡길 36	17	자동차부품 사출
42	태경산업(주)	문희철	모래재로원터1길 61	24	습식종질 탄산칼슘
43	홍성산업(주)	김병식	괴강로공단길 17	48	알루미늄복합판넬, 건축자재
44	(주)건강한채소	김동우	자연식품1길 25	19	단무지
45	(주)그린팜스	남기현	사리로방축골길 44-22	13	식육기공품, 양념육, 가열육기공품
46	(주)금오하이텍	이강엽	금신로2길 19-46	16	문판넬
47	(주)농업과기술	안무현	광장로 590-11	5	복합비료
48	(주)농업법인 쿠파도우	김균섭	자연식품길 37	16	컵라면, 당면
49	(주)다담은	이천복 이승연	금신로 28	18	꽃게장, 육가공식품
50	(주)다영	신흥균	대제산단6길 5	21	수용성 내장 다채무늬도료
51	(주)대명콘크리트	김세호	금평로 458	11	콘크리트 수로관, 옹벽블럭
52	(주)대원농산	이근섭	질마로 164	24	단미사료, 유기질비료
53	(주)대원실업	김정혜	중흥로 200-11	11	H-BEEM 가공품
54	(주)대흥물산	정양주	농공단지길 15	10	비누
55	(주)동명엔터프라이즈	김주영	칠성로8길 30	5	유증기 회수장치
56	(주)동영이엔지	김병준	목도로 1길 37 -12	3	태양광 접속반, 구조물
57	(주)동우켄	문동훈	쇠실로 425	10	목재보호제(프리미엄스테인)

58	(주)동원	이원전	사리로 347	3	금속 구조재
59	(주)리디아	문홍철	충민로검승4길 39	12	아크릴실, 폴리실, 방화셔터
60	(주)미토리	정현화	자연식품1길 30	26	족발, 편육, 순대
61	(주)베이스코리아	김해천	대제산단1길 39-37	5	접착제 및 젤라틴
62	(주)보명	손백환	읍내로 35-4	12	기타플라스틱제품
63	(주)보성일억조코리아	김현식	길선리 341-9 번지	5	무말랭이
64	(주)블랙스톤	정인철	괴산로삼락1길 33	6	인조현무암
65	(주)삼성피앤씨	최홍석	질마로 98	22	보은덮개
66	(주)성화파인켄	전병혁	농공단지길 53,	10	계면활성제
67	(주)세라텍	최태원	화산재로 211	12	타일및유사제품
68	(주)소닉스	이지훈	화산재로 306-1	10	육조, 세면대, 아크릴육조
69	(주)순수유	신성식	자연식품1길 47	14	유채식용유, 유채박 부산물
70	(주)시즈너	문외자	칠보로 712	50	축산물 통조림, 수산물 통조림
71	(주)신성미네랄(칠성지점)	정기윤	칠성로6길 28	11	내화질석, 상토
72	(주)신성아그로	손태홍	대제산단1길 39-29	5	친환경 유기질비료
73	(주)썬더스톤	하용간	질마로삼봉3길 21	3	크라싱플랜트, 샌드플랜트
74	(주)아이티켄	권종호	사리로 121-34	5	OPC 드럼용 감광재료, 광학매체용 유기감광재료
75	(주)에이엠테크	김동호	대제산단6길 23	3	N <sub>2</sub> , Ar, He 기타 혼합가스
76	(주)에이원로드	홍상일	광장로 590-1	1	개질아스콘 첨가제
77	(주)에이치에스메디	김영길	문무로 516	30	주사기
78	(주)에코푸드	김란희	칠성로 307-200	10	커피, 녹차
79	(주)엔케이	김용현	대제산단1길 39-9	11	미세목분
80	(주)엔키스	안남현	원소로고마2길 16	6	가루비누 및 주방용 세제
81	(주)엠알이노베이션	김효현	대제산단1길 23	10	화장품, 생물비료
82	(주)오닉스텍	김정화	길선2길 58	4	냉동기 UNIT
83	(주)오씨씨	최문영	청안읍내로 300	5	플라스틱 스틱
84	(주)옥시스톤	윤영식	사리로 49	30	인조대리석(건축 내.외장용)
85	(주)우당탕	김여경	칠성로7길 105-36	10	곰탕류, 육수류, 분말조미료
86	(주)우진기전	김정현	이곡로1길 9	86	배전반 외, PSD, 전동차자동검사장치
87	(주)원일개발	김차준	화산재로 204	4	돌망태, 와이어매쉬
88	(주)유니블록	이의주	충민로 795	12	콘크리트 블럭

89	(주)유성실리카	성길모	금평로 215	15	규석분말
90	(주)제이케이알	정능구	사리로방축골길 44-34	10	폐품 재생용품
91	(주)주목	김욱	문법2길 21-31	12	카페트 매트, 골프 매트
92	(주)청오아스콘	하용간	질마로 1145-40	5	아스콘
93	(주)케이씨웰 괴산지점	김기창	길선2길 42 -32	17	간마늘, 간생강, 데친나물외
94	(주)크린테크팩	함형로	사리로 510	5	빨아쓰는 행주
95	(주)토비테크	김진일	탑촌로 269	15	육묘용 상토
96	(주)투에이취캠	정화영	충민로 234	59	기능성 film, 병마개
97	(주)티스테크	이강우	칠보로 252	1	금속 구조물(H빔, C형강)
98	(주)티씨아이	이종성	사리로 128	14	주차설비금속구조대
99	(주)피케이크린푸드	강완석	화산재로 186	7	오이피클,볶음옥수수,볶음보리
100	(주)현누리테크놀러지	도희정	남산길 35-46	3	방전램프, 전자식안정기
101	(주)흙살림	김행숙	한불로 1136	11	흙살림,빛모음,활인산등
102	(합)동진에코산업	신인숙	칠보로 675	13	하천 블록
103	(합)서울축산	나성철	후평도원로 372	4	유기질비료
104	88웬스	김영길	칠보로 723	5	대문, 웬스
105	거산식품(주)	김상득	수진4길 97	3	된장, 간장
106	고려이엔티 주식회사	오진숙	운곡길 132	8	CCTV, 유량계, 수배전반 등
107	괴산시골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	손기용	괴산로송평1길 65-33	5	절임배추,김치
108	괴산아스콘(주)	이용	감물로 309	5	아스콘
109	괴산팜영농조합법인	공정임	효근4길 13	5	절임배추, 된장, 고추장, 간장, 과일즙, 채소즙
110	국제금속(주)	김동일	괴산로 3304	20	동
111	군자농업협동조합	손관모	미선로 775	12	곡물가루
112	금강종합건설(주) 괴산지점	허필만	충민로검승7길 64	1	보은덮개
113	금아일렉트론(주)	이건종	사리로방축골길 44-54	7	마스크
114	남일산업	김재상	광장로 590-9	5	수전금구부품
115	내륙콘크리트(주)	문금자	금신로2길 21-52	7	하천용호안블럭,보차도인토 로킹블럭,경계블럭
116	농업회사법인 네이쳐푸드(주)	남규호	괴산로 3492	19	김치
117	농업회사법인 자연(주)	전병헌	도경로 640	5	홍삼추출액, 홍삼농축액, 홍삼주
11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려인삼	이연우	쇠실로 286-26	4	건강기능식품,정과,절편
1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피푸르츠	박동호	문무로 446	14	음료

120	농업회사법인 (주)괴산청정김치	황주혜	괴산로 3495	9	양념우엉, 무말랭이
121	농업회사법인(주)천수양조	송혜순	청안읍내로 145,	5	탁주 및 약주
122	농업회사법인(주)콧양곡 (괴산 소포장센터)	주정복	자연식품1길 37	10	유기농산물잡곡등소포장
123	농업회사법인농협흙사랑(주)	김영혁	사리로 389-1	15	부산물비료(퇴비)
124	눈비산농산영농조합법인	정남숙	소수로3길 62	3	과자류(전병)
125	대덕식품	박덕규	대덕길 75	3	메주
126	대웅바이오가전(주)	신석순	농공단지길 54	10	약탕기, 중탕기
127	대진산업(주)괴산지점	저정훈	화산재로 235	10	PVC파이프
128	대흥석재	전월수	사리로 348-1	3	석재
129	더블유더블유알씨코리아	용은희	대제산단1길 100	5	합성고무
130	더울식품(주)	오병권	지장길 229	7	된장, 간장
131	덕소식품	김경준	이곡로 45	4	청국장메주
132	동하주물	박상진	질마로 136	5	술, 주물
133	목도양조장	유기옥	목도로2길 10	1	탁주
134	목도정미소	정영채	한불로 1517	4	쌀
135	바심종합식품	권오분	문무로 350	3	장류
136	바이셀	주영철	길선리 341-9 번지	2	한방음료, 요구르트
137	반석농산	오승원	대덕길 34	2	쌀,보리
138	번영라이스	정강원	모래재로 285	5	현미, 백미
139	보광철망 주식회사	엄희자	문방4길 24, B동	5	용절철망
140	부흥석회	최성운	괴산로 2029	24	소석회,생석회
141	비에이금속	서요향	금신리 591	5	기계부속품,밸브
142	엘티삼보	장태일	목도로 66	25	금속구조재, 향타기
143	상진에이알피(주)	임재성	모래재로 783	5	플라스틱 조립식 물류대
144	센썸	안종득	광덕3길 63-8	2	가스센서검사장비, 풍속센서
145	신선나또(주)	이상부	농공단지길 47	29	유기농나또(생청국장 포함)
146	신성국제교역 주식회사	차호선	청안읍내로 272	10	내화단열재
147	신원피씨	홍동표	화산재로 306-2	10	콘크리트구조물



148	신풍전통한지	안치용	신풍길 29	5	한지
149	신화케미컬	함정희	청안읍내로 293	25	자동차 주차 방지턱
150	십자성중전기(주)	구영화	상경로 195	8	합성수지 파형관 외
151	씨씨케이(주)	김재범	금신로2길 21-76, 외 6필지	10	하천용 호안블럭, 보차도인터로킹블럭
152	아세아환경(주)	김성훈	질마로불당재길 116	6	톱밥
153	아이스틸(주)	한명희	질마로 136	18	강주물 밸브
154	어울림바이오	박찬원 박만선	창업보육센터 416호 (중원대학교)	3	육묘기, 컨트롤박스
155	에스앤에스산업(주)	김준기	농공단지길 54	52	가연사
156	연우회영농조합법인	임석규	연풍로행촌3길 136	7	축산분뇨재활용
157	영농법인두천농산	엄기주	괴강로두천4길 60	4	은행가공
158	옴바이골 행복장터 영농조합법인	성태자	송덕2길 34-13	2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등
159	우진제관	목진윤	이곡로1길 9	10	철도차량부품
160	유니온텍	함문수	중흥로3길 59-5	10	제작용 장비(오일필터, 연료필터, 에어필터)
161	일명제약(주)	손종엽	수암3길 69	18	매트, 에어졸
162	일송톱밥	김건한	소수로3길 20	2	목분,톱밥
163	일원석재(주)	박희문	사리로 339	4	석재가공
164	제일양조장	정태훈	읍내로13길 30	2	탁주및약주
165	조이시안코리아	허복룡	중부로 4234-94	2	잔디 네트
166	주성피씨	임영순	충민로 634	5	선반식옹벽
167	주식회사 동우	문동훈	쇠실로 425	3	알루미늄 새시, 프로파일
168	주식회사 동화(청안공장)	노영수	칠보로 712	48	육류가공 및 냉동식품
169	주식회사 베스트피씨엠	경복현	한불로영천2길 65	4	콘크리트 관련제품
170	주식회사 빼꾸기	구자홍	대제산단6길 7	21	쌀국수, 쌀라면, 쌀떡볶이
171	주식회사 수미김	김미선	칠성로 307-204	11	도시락김 외
172	주식회사 엠케이비비들리	표성호	청용1길 105	5	소음방지패널
173	주식회사 조온매트	박수성	읍내로 89-45	15	카페트매트
174	주식회사 청가람엔텍	김경현	상경로아성1길 44	2	가동보,수문,수문권양기
175	중부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강효석	충민로검승7길 81	15	플라스틱제품(기와, 화분, 배수로)
176	중앙레미콘(주)	이한희	감물로 309	13	레미콘
177	첨단중공업	류구선	금신로 116-51	5	유압실린더, 산업용유압기
178	청풍농산	유선상	대제산단2길 71	5	백미, 잡곡
179	초정푸드	이종희	사리로송오길 19-30	4	조미김
180	크린팩 주식회사	허광진	사리로 510	10	흡수 패드

181	태성식품	이광범	소수로2길 31	5	참.들기름,고추씨기름,고추가루
182	태성이엔씨(주)	박용복	둔율3길 39	3	스톤네트, 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183	태영	이영실	금신로2길 21-87	5	폴리우레탄수지
184	태영	문창계	길선1길 35-14	10	통조림 탕수육소스, 볶음장 무침장
185	(주)제이비파워텍	김래전	괴강로공단길 29	5	전기회로 등
186	하나상사	배현의	대제산단1길 39-9	6	목재상자
187	하늘사랑영농조합법인	김금자	모래재로원터3길 14	2	고주장, 된장
188	한국바이오젠(주)-제2공장	부태웅	사리로방축골길 44-86	23	실리콘화합물, PC
189	한국자원	서원교	질마로불당재길 80	6	방음재
190	한국콘크리트산업(주)	송인숙	둔율3길 39	5	식생매트, 호안블럭, 어도블럭
191	한살림축산영농조합	강영식	능촌로2길 92	12	혼합사료(TMR)
192	한우가족영농조합법인	김동식	연풍로 1194	5	TMR사료
193	한일수지	김영자	금신로2길 19-22	10	페플라스틱 재생재료
194	현대블럭	정태수	한불로 1510	2	시멘트벽돌,블럭
195	호혜섬유(주)	배상덕	사리로방축골길 44-84	67	섬유(실)
196	화성식품	김주홍	모래재로 661-6	3	도토리전분,메밀,청포전분
197	화신공조	최현규	사리로 349-1	5	송 풍 기
198	영인메디칼	최성국	금신로 116-49	5	미끄럼방지 매트
199	네이처팜바이오(주)	최명신	산학협력관 405호 (중원대학교)	5	탈취제, 살균제 등
200	첨단제어시스템(주)	김정일	괴강로공단길 29	5	전기회로 등
201	(주)와이제이산업	이영호	상경로 431	10	알루미늄 거푸집
202	명진화학	최정배	대제산단1길 92	7	에폭시 바닥제
203	마그넥스(주)	곽용운	대제산단5길 6	10	반도체 기계부품
204	농업회사법인 주담(유)	김진숙	광덕길 316-8	15	생막걸리, 복분자주
205	(주)스페이스엔솔라	이주환	모래재로 414-12	8	철구조물
206	아이엔지(주)	손백호	모래재로 414-12	6	자동화장비
207	다올푸드(주)	김유식	수암3길 1	20	오리, 닭 가공
208	프라이드리(주)	이동훈	자연드림길 247	12	탕수육, 돈까스

자료 : 괴산군

## 나. 생산현황

### □ 지역총생산(GRDP) 현황

- 괴산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2016년 1,201,436백만 원으로 나타남
- 같은 해의 충청북도의 지역내 총생산은 56,600십억 원으로 나타남

행정구역	경제활동별	당해년가격(백만원, 2016년)
괴산군(GRDP: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201,436
	순생산물세	80,109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121,327
	농림어업	221,293
	광업	14,273
	제조업	318,119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2,898
	건설업	77,391
	도매및소매업	31,023
	운수업	26,562
	숙박및음식점업	21,787
	정보및통신업	7,971
	금융및보험업	34,207
	부동산업및임대업	54,895
	사업서비스업	28,497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67,160
	교육서비스업	34,90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8,92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1,413

자료 : GRDP-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6년

### 지역내 총생산 비교

구 분	충청북도			증 평 군		
	GRDP (십억)	인구(명)	1인당 GRDP(천원)	GRDP (십억)	인구(명)	1인당 GRDP(천원)
2011년	42,489	1,588,633	26,746	1,039	37,333	27,830
2012년	43,628	1,590,457	27,431	1,014	37,713	26,887
2013년	47,402	1,600,163	29,623	930	38,059	24,435
2014년	49,791	1,609,588	30,934	864	38,351	22,528
2015년	52,655	1,616,589	32,572	1,138	38,787	29,339
2016년	56,660	1,627,124	34,822	1,201	38,973	30,816

자료 : GRDP-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충청북도 및 괴산군 통계연보 2017

### □ 괴산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괴산군의 지역총생산(GRDP)은 2016년 1,201십억원으로 충청북도 지역총생산(GRDP)의 2.1%를 차지하고, 1인당 GRDP는 30,816천원으로 충청북도의 88%수준임

#### 다. 괴산 유기농산업 관련 농공·산업단지 현황




□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자연드림파크 2단지)

-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위치 :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일원
- 규모 : 산업용지 195,976㎡



자료 : 괴산군

## ○ 입주업체 현황

회사명	생산(취급)품	규 모(단위 : m²)		비 고
		부 지	건물(연면적)	
농업회사법인 (주)해피푸르츠	과즙음료 (사과한모금, 포도한모금 바나나우유, 두유 외)	9,064.00	3,817.54	
불정농협RPC	쌀도정	3,729.00	1,193.81	
(주)오가닉 클러스터	냉동창고 (친환경농축수산물 보관 및 유통)	11,154.07	4,468.42	

(주)애간장	개량장류 (간장,고추장,된장,소스류)	4,552.00	3,560.48	
(주)아이쿱양곡 괴산소포장센 터	양잡곡소포장 (건과류,볶은알땅콩 등)	13,132.39	4,640.55	
(주)순수유	유채유(Non-GMO) 참기름,들기름	7,011.08	1,692.03	
(주)미토리	족발, 편육, 순대 외	4,719.71	2,278.33	
농업회사법인 (주)건강한채소	단무지,절임류	5,620.00	1,889.53	
(주)농업법인 쿵도우	컵라면,면류(우동,칼국수, 짜장면 등)	10,173.6	4,278.46	
오가닉메이커 협동조합	식당, 카페 운영	4,343	2,141.67	
(주)쿵로지스틱 스	상온창고	11,680.6	11,183.69	
	냉장창고	8,556.2	2,939.39	
농업회사법인 (주)쿵청과	APC(산지유통센터)	14,558.2	5,596.61	

자료 : 괴산군

□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자연드림파크 1단지)

- 위치 : 괴산군 칠성면 읍원리, 읍지리 일원
- 규모 : 산업용지 198,671㎡
- 친환경 물류 및 식품가공단지 조성



자료 : 괴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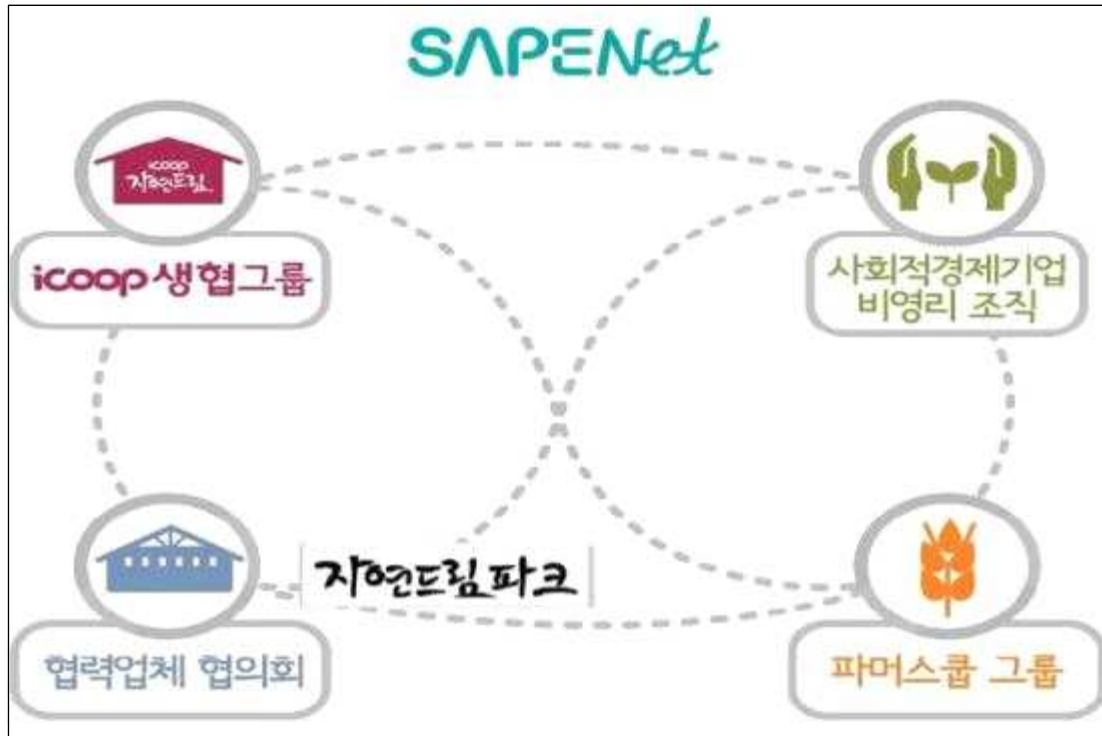
○ 입주업체 현황

회사명	생산(취급)품	규 모(단위 : ㎡)		사진
		부 지	건물(연면적)	
(주)에코푸드	커피, 녹차	2,062.00	642.71	
(주)수미김	조미김	4,209.51	1,621.06	
(주)우당탕	곰탕류, 소스류	3,520.00	1,289.19	
농업회사법인 (주)프라이드리	팝콘치킨, 돈가스	3,780.00	1,525.85	

자료 : 괴산군

## 라. 기업 투자동향

### □ 세이프넷(SAPENet과 자연드림파크) 현황



자료 : 괴산군

○ (19년1월)조합원수:283천명/자연드림매장:230개

○ (18년12월)근무자:3,752명/매출:5,710억원

### □ 괴산자연드림파크 투자 현황

구 분	1단지(칠성면)	2단지(괴산읍)	합 계
위 치	칠성면 자연드림길 240	괴산읍 자연식품1길 14	2개 소
규 모	800,987㎡(약 24.3만평)	235,706㎡(약 7.1만평)	1,036천 ㎡ (약31.4만평)
투자규모	총 1,000억원 이상	총 1,000억원 이상	
고용효과	약 1,000명 이상	약 650명 이상	
입주업종	식료품, 물류 서비스업 등	식료품, 물류 서비스업 등	
※ 18년12월 현재 1,2단지 484명 고용/ 입주업체수:14개소(1단지:4, 2단지:10)			

자료 : 괴산군

□ 2021년까지 17개업체 추가 입주 계획 (투자금 1,060억원, 고용효과 333명)

구분	내용	투자기업	투자금액(억원)	고용인원(명)
계			1,060	333
소계			(860)	(228)
제1단지 (유기식품)	홍삼 등 건강식품	거제사슴영농조합	70	25
	낫또	미정	40	10
	떡류	청복	40	15
	두유,캔 제품 등	성연식품	40	15
	볶음밥	청복	50	15
	환자식, 이유식	사업연합회	60	15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사업연합회	50	13
	아이스크림	미정	70	15
	어묵	대광에프앤씨	50	20
	애견간식	사업연합회	40	10
	화장품	사업연합회	50	15
	치유,힐링센터	사업연합회	300	60
소계			(200)	(105)
제2단지 (발효식품)	물류센터	사업연합회	40	20
	한우가공	(주)건강한한우	35	20
	돈육가공	쿠팡축산(주)	35	20
	과자가공	미정	40	15
	농축공장(과일,당근등)	미정	50	30

자료 : 괴산군



## 마. 혁신자원 현황

### □ 국내외 주요 유기농업단체 현황

<p>◇ <b>환경농업단체연합회(41개)</b> - 설립 1994년, 회장(곽금순)한살림 회장 (회장 010-8767-2494 사무총장 최동근070-7770-2172)</p>
<p>○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박종권) ○ (사)한국유기농업협회(윤경환), ○ 한살림연합회(이상국) ○ 흙살림(이태근) ○ 두레생협연합회(이금자) ○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강석찬) ○ 가톨릭농민회(이영선) ○ 자연을닦은사람들(조영상) ○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이정찬) ○ (사)전국귀농운동본부(차흥도) 등</p>
<p>◇ <b>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5만여명)</b> - 10개 시도연합회 125개 시군연합회 회원 ★ <b>설립 2011. 4월, (회장 김영재, 사무총장 박종서)</b></p>
<p>◇ <b>한살림연합</b> - '18년 조합원수 60만명, 매출액 4,500억원 ★ <b>설립 1986년, 상임대표 곽금순(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b></p>
<p>◇ <b>아이쿱생협</b> - '18년 조합원수 28만명, 매출액 5,900억원 ★ <b>설립 2000년, 회장 박인자</b></p>
<p>◇ <b>세계유기농업연맹(IFOAM)</b> - 121개국 848여개 회원단체(국내 7개 단체) ★ <b>설립 1972년, 본부 독일 본, 회장 Peggy Miers (여/미국)</b> ※ <b>부회장 : 장혜선(여/한국)</b></p>
<p>◇ <b>세계유기농업학회(ISOFAH)</b> - 26개국 48회원 (임원 16명) ★ <b>설립 2003년, 본부 독일 본, 회장 Gerold Rahmann (독일)</b> ※ <b>한국(1) : 한우선</b></p>

자료 : 괴산군

□ 괴산군 유기농업 단체 현황

◇ 괴산군유기농업연합회 - 회장 권구영	
◇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 회장 경동호, 사무국장 김의열	
◇ 괴산읍 절골친환경작목반	
○ 대 표 자 : 김우용	○ 설 립 일 : 2014
○ 회 원 수 : 9농가	○ 인증면적 : 무농약 14.5ha
○ 생산품목 : 벼	○ 매 출 액 : 1.5억
◇ 감물면 흙사랑영농조합법인	
○ 대 표 자 : 이도훈	○ 설 립 일 : 2003. 12. 23
○ 회 원 수 : 56농가	○ 인증면적 : 유기45.8ha, 무농약10ha
○ 생산품목 : 채소, 옥수수, 감자 등	○ 매 출 액 : 22억
◇ 장연면 친환경왕우렁이쌀작목반	
○ 대 표 자 : 이강선	○ 설 립 일 : 2005. 3. 25
○ 회 원 수 : 15농가	○ 2019년 인증목표면적 : 무농약 20ha
○ 생산품목 : 벼	
◇ 칠성면 칠성친환경늪들작목반	
○ 대 표자 : 김해영	○ 설 립 일 : 2017
○ 회 원 수 : 38농가	○ 재배면적 : 무농약 46ha
○ 생산품목 : 벼	○ 매 출 액 : 5.5억
◇ 칠성면 칠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 대 표 자 : 배상수	○ 설 립 일 : 2000. 02. 28
○ 회 원 수 : 32농가	○ 인증면적 : 유기23.6ha, 무농약4.3ha
○ 생산품목 : 벼, 잡곡 등	○ 매 출 액 : 3.4억
◇ 문광면 유평친환경작목반	
○ 대 표 자 : 이재정	
○ 회 원 수 : 6농가	○ 인증면적 : 무농약2.3ha
○ 생산품목 : 찰벼	○ 매 출 액 : 0.3억
◇ 청천면 솔뫼유기농업영농조합법인	
○ 대 표 자 : 정채일	○ 설 립 일 : 1995. 12. 28
○ 회 원 수 : 14농가	○ 인증면적 : 유기12.7ha, 무농약1.2ha
○ 생산품목 : 토마토 등	○ 매 출 액 : 10억
◇ 불정면 불정친환경작목반	
○ 대 표 자 : 이이배	○ 설 립 일 : 2006.
○ 회 원 수 : 32농가	○ 인증면적 : 유기17.3ha, 무농약2.1ha
○ 생산품목 : 벼	○ 매 출 액 : 2억
◇ 불정면 괴산불정친환경영농조합법인	
○ 대 표 자 : 신종섭	○ 설 립 일 : 1993.
○ 회 원 수 : 8농가	○ 인증면적 : 유기5ha, 무농약2.1ha
○ 생산품목 : 토마토, 채소 등	○ 매 출 액 : 3억

자료 : 괴산군

○ 한살림 괴산연합회

- 전국 23개 지역에 소비자 64만 세대, 생산자 2,200여세대로 구성되었으며, 11개 지회를 두고 있음
- 주요 품목으로는 쌀, 잡곡, 야채, 과일, 유정란, 축산, 육가공, 장류 등으로 재배 면적 4,667ha(1,400만평 정도), 전국 매출 4,250억원 규모
- 괴산연합회는 소비자 1,150여세대, 생산자 300여세대로 구성, 연매출 12억원 (2018년)으로 괴산군 소수면에 육가공공장과 괴산읍 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직매장을 운영

○ 아이쿱 생협 괴산클러스터

- 전국 조합원수 283천명, 자연드림매장 230개소를 운영 중
- 괴산 자연드림파크 1단지(칠성면 유기식품산업단지), 2단지(괴산읍 발효식품농공단지)에 농축산물 가공공장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17개 업체 1,0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 전세계 121개국 848회원단체로 유기농생산, 가공, 인증, 유통업체, 학술단체, 정부기관 등 유기농관련 모든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
- 인간과 자연, 생산자와 소비자,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 및 전통을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 '건강·생태·공정·배려'의 유기농 4대원칙을 바탕으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유기농업 실천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아시아지역본부(IFOAM Asia)

- IFOAM본부 산하 아시아지역사무소로 2013. 6.28. 설립, 16개국 150개 회원단체로 구성됨
- 사무국은 대한민국 괴산(충북유기농업연구소 2층)으로 IFOAM 본부 아시아지역 회원 단체의 허브 역할과 유기농업관련 정책 및 사업, 아시아유기농대회 개최 및 ALGOA운영

○ ALGOA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

- 2015. 9.19. 창립하여 18개국211개 회원(정부기관2, 지방정부 180, 민간 29)으로 구성된 아시아 유기농상생 발전 협의회로 괴산군이 의장국임
- ALGOA 정상회의 개최, 유기농지도자 교육, 유기농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유기농지도자 교육을 총4회 27개국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ALGOA 정상회의를 총4회('15 ~ '18년) 개최함

□ 유기농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및 연계시설 확충 현황

○ 충북 유기농업연구소 신축

- 규모/사업비 : 3,471m<sup>2</sup>(지상3층, 지하1층)/ 100억원
- 주요내용 : 친환경 유기농 실용화 연구 및 생산자·소비자 교육 실시
  - 국제유기농교육기관 지정(IFOAM 본부)

○ 유기농 생태 체험관(유리온실) 신축

- 규모/사업비 : 1,243m<sup>2</sup> / 28억원
- 주요내용 : 아열대 수목(60여종)전시, 지열냉난방 및 태양광 시설
  - 지열냉난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으로 탄소발생 제로의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 한살림 연수원 신축(2019년 완공 예정)

- 위치/면적 : 청천 삼송 / 1,393m<sup>2</sup>
- 시설 : 강의실, 회의실, 식당, 명상홀, 숙소, 체험시설 등

□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1,390억원)

○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자연드림파크 1단지 / 970억원)

- 위치/면적 : 칠성 울원·율지/ 800,987m<sup>2</sup>(약 24만평)
- 입주업체 : 4개(식료품제조업)
  - 일차리 창출( 105명 <지역주민 92명> )

□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자연드림파크 2단지 / 360억원)

- 위치/면적 : 괴산 사창·능촌 / 235,706m<sup>2</sup>(약 7만평)
- 입주업체 : 11개(식료품제조업, 물류서비스업)
  - 일차리 창출( 379명 <지역주민 276명> )

□ 유기 가공식품 인증업체

- 인증업체 : 12개(2011년 0개 ⇒ 2018년 12개)
- 품목 수 : 38개(2011년 0개 ⇒ 2018년 38개)

품 목	업체	품 목	업체
- 장류(된장, 간장 등)	2	- 음료류(과채음료 등)	3
- 다류(옥수수차, 현미차 등)	3	- 곡류가공품(과자류, 견과류)	2
- 기타가공품(녹용, 산양유 등)	1	- 기타식품류(양배추즙, 냉동옥수수 등)	1

자료 : 괴산군

□ 유기가공식품산업 사업단 운영(중원대)

- 총사업비 : 60억원('12~'15/'15~'18)
- 사업실적

구 분	성 과
- 유기가공식품산업 연계 교육	- 21회 교육/ 503명 수료
- 국내 특허 상표출원/등록	- 20건/ 8건
- 제품개발	- 76개 제품 상용화
- 유기가공식품 인증획득	- 28건(123품목)

자료 : 괴산군

□ 발효코리아(전통 천연발효식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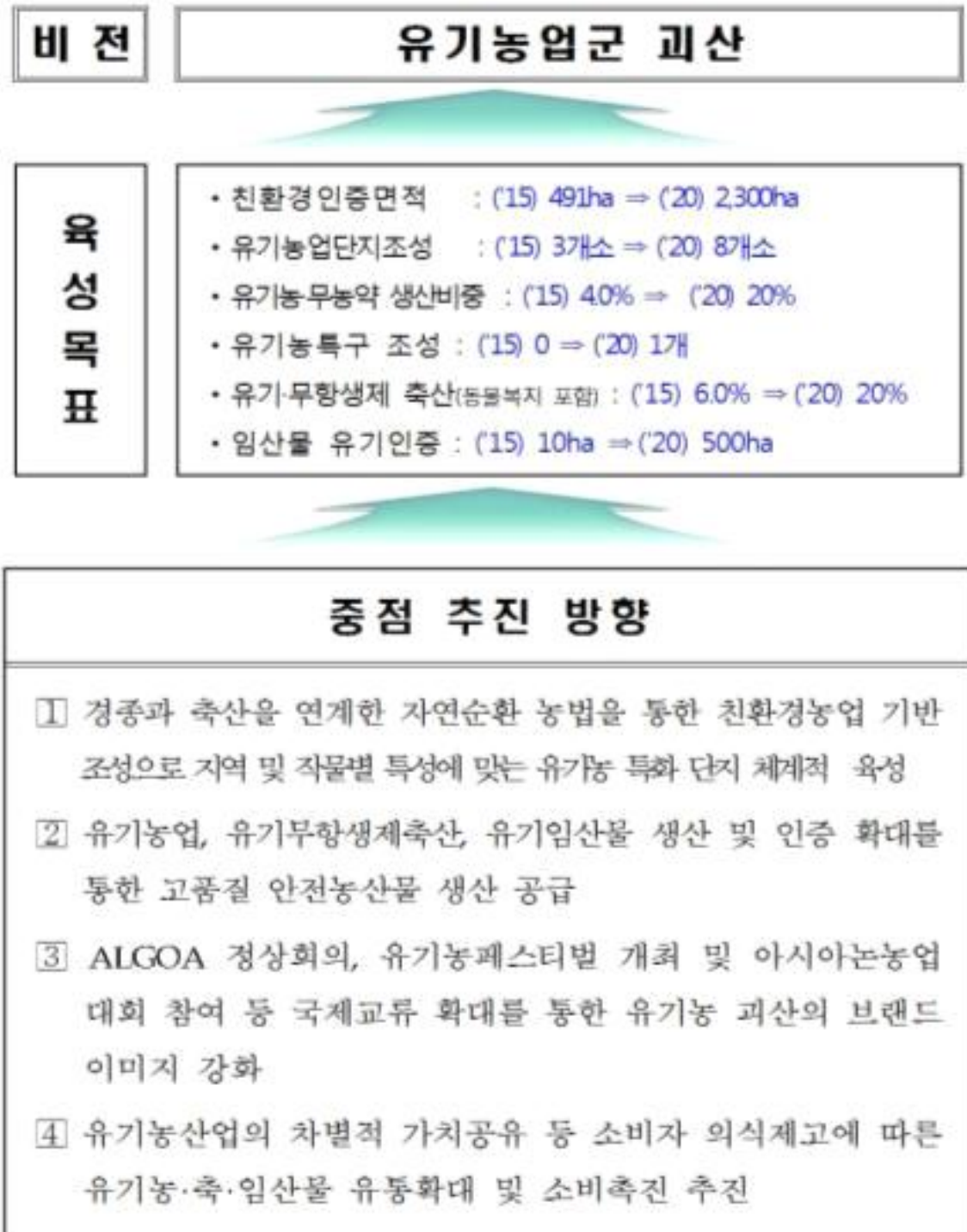
- 위치/면적 : 장연 오가(구, 장연중)/ 18,167m<sup>2</sup>
- 주요내용 : 전통 천연발효식품(발효초, 장류 등)
- 교육운영(발효기초, 응용, 마케팅, 선진지 교육)

□ 유기농 온라인 쇼핑몰 구축(괴산장터 통합운영)

- 유기농 디지털마켓 시스템 구축, 디지털사이니지 존 구축(4개소)
- 유기농업 교육 콘텐츠 구축(퇴비, 미생물, 토양, 인증)

## 바. 정책지원현황

- 괴산군은 2015년에 유기농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기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지원 사업 추진



<b>가</b>	<b>투자 규모</b>
----------	--------------

- 총 사업건수 : 47건
- 총 사 업 비 : 116,362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투·융자액	21,832	20,886	22,684	23,749	27,211	116,362
비 율( % )	18.8	17.9	19.5	20.4	23.4	100

<b>나</b>	<b>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b>
----------	---------------------

투 자 분 야	소 요 예 산
• 자연순환 농법을 통한 유기농·축·임업 생산 기반조성	15개사업 39,835백만원/34.2%
• 유기농·축·임산물 생산 및 인증확대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19개사업 48,294백만원/41.5%
• ALGOA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유기농·축·임산물의 이미지 강화	3개사업 2,207백만원/1.9%
• 유기농·축·임산물 유통확대 및 소비촉진 추진	10개사업 26,026백만원/22.4%
계	47개사업 116,362백만원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괴산첨단산업단지 분양, 신규산업단지 1개소 추가 조성

- 충북 괴산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2곳을 추가 조성함
  - 용지는 총 46만5148㎡(14만평) 규모로 산업용지는 30만6475㎡(9만2708평)에 이룸
  - 군은 평당 50여만 원에 용지를 분양함
  - 군은 산업단지 후보지 2~3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대상지를 결정함
  - 산업단지 실시계획용역에 들어가 2020년 실시계획 승인 고시, 2022년 착공할 계획임
  - 괴산대제산업단지(84만9390㎡) 분양률은 1월 기준 80.3%로 기업 26곳이 입지하였음
  - 저렴한 분양가와 최적의 입지여건으로 분양 면적이 크게 늘어 잔여 부지는 5만여㎡에 불과함
  - 군은 2019 상반기 분양률 100%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3~4곳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산식품산업단지, 유기식지 등 산업단지와 발효식품농공단지, 괴산농공단지, 사리농공단지 등이 조성돼 입주업체가 가동되고 있음
  -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70~80만 원으로 비싼 편이며 접근성 등 지리적인 이점과 저렴한 분양가로 괴산군 산업단지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임

#### 나. 괴산군, 농·특산물 직거래 쇼핑몰 ‘괴산장터’ 입점농가교육 성료

- 충북 괴산군이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괴산장터’ 입점농가교육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됨
  - 농가 매출 증가를 위한 판매활성화 방안, 농가 협조사항, 향후 운영계획 등 괴산장터 입점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의 교육이 진행됨
  - 특히, 괴산장터 입점 시 유의사항, 판매자 관리페이지 사용방법 등 기본교육부터 자세히 제공되면서 이제 막 입점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 2018년 괴산장터 방문 횟수는 7만7천건에 달하며, 2017년(1억3천여만 원) 대비 2.8배 증가한 3억7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림



- 괴산군은 괴산장터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입점농가에 현장운영관리자를 파견하고, 1억1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 충북 괴산군, 국제유기농산업 혁신개발회의 참석

- 괴산군은 중국 쓰촨성 시충현 로터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제1회 시충 국제유기농산업 혁신개발회의'에 참석하여 유기농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
- 혁신개발회의는 시충현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아시아지부(IFOAM Asia)가 공동으로 주관해 올해 처음 열린 유기농 국제행사로, 괴산군은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이하 알고아)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받아 이번 행사에 참석했음
- 본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네덜란드 등 12개국에서 온 유기농 관련 단체 대표를 비롯한 지역농민 대표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유기농 혁신사례에 대한 발표와 정보를 교류함
- 본 행사 첫날에는 조창희 농업정책과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서 '괴산군 유기농산업 혁신사례'를 발표했음
- 이날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유기농의 시작, 괴산군의 역사 현재 괴산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유기농 지원정책 대한민국 최초 유기농업군으로서의 괴산군 유기농 육성계획 등을 적극 알림
-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이 군수를 대신해 유기농 공로상(Organic Honorable Mention)을 수여받음
- 이어 괴산군은 시충현과 유기농산업 협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측의 유기농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문화적·기술적 교류의 기반을 다짐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컨설팅, 기 수행 공동사업에 대한 활성화 컨설팅 지원

- 향후 공동구매사업, 공동판매사업, 공동 R&D사업을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사업화하  
여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공동사업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함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을 반영한 신산업  
협동조합을 조직화해야함
-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발굴이  
필요함

### 나.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R&D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 기술 전문가 매칭 지원

-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자, 수요자, 경쟁자 등 산업환경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이 생태계의 유기체들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이를 위해 출연연 또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선순환 고리  
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 내의 표준을 견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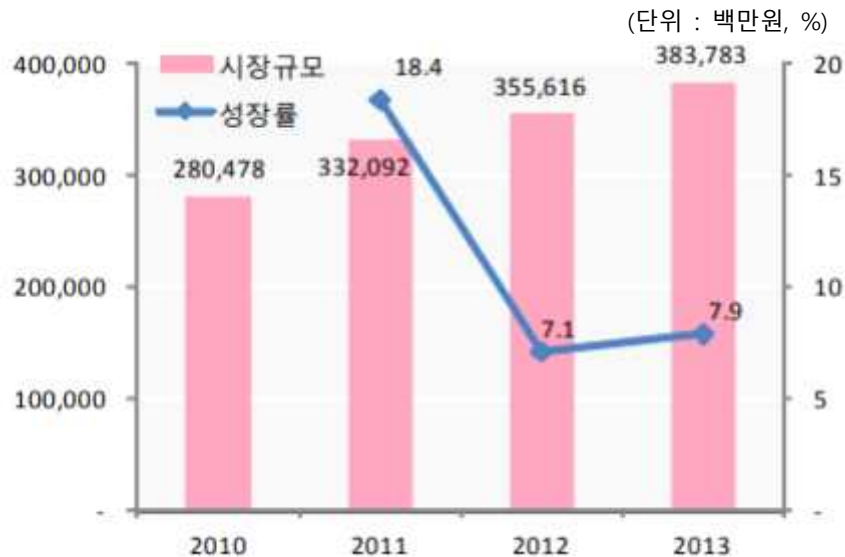
### Ⅲ. 국내외 유기식품 환경분석

#### 1. 유기식품의 시장 현황

##### 가. 국내

###### □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 및 전망

- 국산원료를 사용한 유기 가공식품의 가격은 폐쇄적인 유통 경로에 의한 고비용·고마진 구조로 유통되기 때문에 일반 가공식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2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됨
- 국내 유기식품 시장은 세계 유기식품 시장의 약 0.7% 수준에 그치며 유기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원료 중에서 국산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불과함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 및 전망

###### □ 먹거리 불안에 유기농 식품 시장 인기 2025년 2조 4500억 원 넘을 예정

- 햄버거병, 살충제달걀 등 식품사고로 먹거리 불안이 가중되며 그 대안으로 친환경 유기농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및 식품 시장(무농약 포함)은 2016년 1조 4665억원에서 올해 1조 9624억원으로 2년새 52%의 성장세를 보였음
- 이런 추세로는 2025년 시장규모가 2조 4563억원 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임
- 이같은 유기농 시장의 성장에는 '해썹' 인증을 받은 풀무원 계열 케이크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여러 식품 사고가 끊이지 않아 더 안전한 제품을 찾으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롯데마트,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까지 유기농 시장에 참여, 경쟁구도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협동조합이나 유통 대기업의 신규 시장 매출은 상승세지만 대상 계열 초록마을과 풀무원 계열 올가홀푸드 등 기존 업체는 매출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임
- 자연드림을 운영하는 아이쿱생협은 지난해 5538억원보다 400억원 가량 늘어난 매출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올 9월말까지 427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 한해 예상 매출은 5800억원 안팎을 올릴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했음
- 한살림 또한 작년 42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소폭 상승한 실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음
- 롯데마트의 친환경 PB 브랜드인 해빗(Hav'eat)은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올해 1~8월 기준 작년보다 매출이 40% 뛰었음
- 신세계그룹의 친환경 브랜드인 '자연주의'도 점점 성과를 올리고 있음
- 하지만 유기농 시장 초록마을의 지난 6년간 상승률을 보면 차츰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처음으로 2113억원의 매출을 기록, 2000억원 대를 돌파했지만 작년에 2260억원을 올리며 전년의 2304억원보다 소폭 하락했음

#### □ 유기사료 인증, 2019년부터 국내 인증만 사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 중 반려동물용(개, 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 인증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그동안 국내 인증기준의 부재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유기농 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의 경우 인증 준비 기간과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음
- 국내 인증제도는 해외와 큰 차이가 없이 유기농원료가 95%이상 함유된 제품만 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인증마크를 받으면 제품명에도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했음
- 유기 원료가 70% 미만이어도 원재료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

- 국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상표 하단에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MAFRA KOREA'가 게재됨
- 또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농식품안심이'를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검색하면 생산자 주소, 인증 일자, 인증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 유기가공식품 해외 진출 도운 상호 동등성 인정협약

-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들이 해외로 나서게 된 본격적인 계기 중 하나는 지난 14년 미국과 맺은 '상호 동등성 인정협약'부터임
- 이 협정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즉, 한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한국과 미국제품이어야 하지만 원료는 제3국에서 생산된 것은 사용할 수 있기에 제조가 보다 자유로워진 것임
- 유럽 역시 우리나라와 동등성 협약을 맺어 지난해 2월부터 발효되고 있음
- 18년까지 이어지는 이 협약이 성사된 원인은 그만큼 GMO가 들어가지 않은 먹거리의 확보에 대해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유기가공식품을 만들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 또한 미국과 유럽의 유기가공식품 역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보다 폭 넓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 □ 내실 있는 성장 보여주고 있지만 영세업체 탈피 등 노력이 필요

- 과거 국산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은 폐쇄적인 유통 경로에 의한 고비용·고마진 구조로 유통되기 때문에 일반 가공식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2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었는데, 당시 국내 유기식품 시장은 세계 유기식품 시장의 약 0.7% 수준에 그치며 유기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원료 중에서 국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불과했음

-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증제도를 통해 그 체질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음
-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08년 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수입품 비중이 큰 편임
-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지난 04년 38건에서 10년에는 25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6년 현재 558건까지 등록되어 있음
- 그럼에도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한 편임
- 괴산에서 열린 유기농국제산업 심포지엄에 참여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장원석 이사장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란 기조발제에서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시장이 매년 20% 이상 급성장하지만 국내 업체는 영세성, 연구·개발(R&D)과 유통 채널 부족으로 산업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나. 국외

### □ 미국 유기식품 현황

- USDA는 유기농식품생산법률(OFPA : Organic Foods Production Act)에 기반해 '국가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을 개발하여 '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유기농 상품에 대한 생산·관리·라벨 인증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음
  - 미국은 소비자 단체가 유기농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행하고 있으며 '09년 호라이즌 오가닉이 자사의 인기 두유 브랜드인 '실크(Silk)'를 유기농이 아닌 내추럴 성분으로 바꿔 판매한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함
- 미국 유기농장의 전체 면적은 190만ha(약 1,900억㎡)로, 유기농장 면적상 호주,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임
- 미국 유기농무역협회(OTA : Organic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농 시장은 '90년 10억원 규모에서 '10년 300억원 규모로 성장해 시장 규모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함
- 미 유기농식품 시장은 전 세계 식품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 중
  - 최근 미국의 유기농식품시장은 유명 내셔널브랜드의 제품은 물론, 경제성을 갖춘 다양한 유기농 PB제품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음
- 현재 미국 내에서 유기농 상품 공급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과 월마트(Wal-Mart)이며 두 업체는 상반된 유기농 매장운영 전략을 취하고 있음

-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 USDA가 인증한 미국 최초의 유기농 유통 업체
  - '내추럴·유기농 전문점'을 표방하며 다양한 내셔널 브랜드와 유기농 PB인 '365오가닉(365 Organic)'을 취급
  - 과일·채소류를 포함한 신선식품 뿐 아니라 육류, 해조류, 와인 등 다양한 식품과 화장품, 의류 등 비식품도 판매 중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과 유기농 PB인 '365오가닉(365 Organic)

- 월마트(Wal-Mart)
  - '06년 매장 내 유기농 상품 비중을 2배로 늘리며 시장에 본격 진입, '평범한 미국인'을 타겟으로 하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상품 매출을 증가시킴
  - 불황기에 저가 판매를 고수하는 월마트의 정책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기농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수요가 일치했기 때문임
- IBIS월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식품시장이 '11년부터 향후 5년간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식품시장의 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비만을 야기하는 합성보존료가 들어간 상품을 기피하기 때문임

## □ 독일 유기식품 현황

- 독일의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는 약 5억 7천만 유로로 추정되며, 독일 식품 시장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 '00년대에 들어 독일 유기농 식품 시장은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음
  - '01년 전년대비 32%의 높은 성장을 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08년에도 전년대비 약 10%의 성장을 달성함
-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유기농을 의미하는 '비오(Bio)'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물, 소금, 이스트 등 몇몇 공인된 첨가물은 농산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 독일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업을 통해 조달된 것이어야 하고, 유전자 재조합 원료 사용을 금지해야 함

- 독일도 한때는 유기농 인증마크가 혼재돼 사용되면서 일반식품과 구별하는데 불편을 겪기도 했음
- 그러나 2001년 9월 독일 정부는 새로운 인증마크인 '비오-지겔(Bio-Siegel)'을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과 유기농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됨



비오-지겔 로고와 인증제품

- 유럽에서 독일과 영국의 유기농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독일의 유기농 시장은 영국 매출액 규모의 두 배 이상임
- '10년 7월부터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유기농 인증도 통합 운영되고 있음
  - 통합 인증 운영 규정 대부분은 독일의 비오-지겔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 독일은 유기농식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판매처도 다양함
  - 유기농 전문점, 중대형 할인점, 드럭스토어 등 유기농 판매채널이 다양해 유기농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음
- 2011년 6월 말 기준, 독일에는 3,905개의 제조사에서 출시한 6만 2,634개의 제품이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상태임



## 2. 유기식품의 정책 동향

### 가. 국내

□ 농식품부에서는 프리미엄 농산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방안(대책)」 마련

○ 첫째, 동등성 협정 등을 활용하여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임

- 유기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매칭펀드\*식 시장 공동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주요 수출 유망국가(미국·EU·중국)별 수출전략을 탐색할 예정임

주요 유망품목별 수출전략 예시

공략시장	유망품목	시장 여건	수출 전략
북미, EU	음료류, 다류	주류 시장 직접 공략 곤란	안테나 샵 등으로 소비 트렌드 파악후, 전략 품목의 주류 시장 공략 시도
중국, 동남아	유제품	한국 식품의 안전성 등 우위	안전성 등을 강조하여 주류 시장 직접 공략
북미, EU, 동남아	과자류	한류 등 틈새시장 공략 가능	틈새시장 공략후 시장 전반으로 확산
일본	김치류, 장류	한류 등 틈새시장 공략 가능	안전한 음식 등 홍보 지속적 강화로 시장 공략

- 현지 소비자·유통업체 정보 파악을 위하여 농수산물식품 수입 바이어 협의회('13: 9개 → '17: 20)\*와 농식품 수출 서포터즈('14: 46명/3개국 → '15: 100/10)」운영을 확대하고, 국제식품박람회, K-FOOD FAIR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협의회 현황 : 日동경·오사카, 中상해·북경, 홍콩, 싱가포르, 美뉴욕·LA, 네덜란드 로테르담

-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GMO 불검출' 등 소비자 지향적 기준 집중 홍보

- 유기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자본조달 능력 확충과 경영위험 부담완화를 위하여 전문 투자펀드 조성('15, 100억원)을 추진하고, 환변동보험료의 정부 지원율을 상향조정('14: 보험료의 90% → '15: 95)을 통해 수출업체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 aT와 농자단(펀드 관리기관)간,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촉진을 위한 MOU 추진

○ 둘째, 시장수요에 기반을 둔 기술개발과 함께 국내 유기식품 소비 붐(boom)을 조성할 계획임

- 가공식품 R&BD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신규개발 기술을 발굴하되, 가공·유통 기술의 2개 분야(5개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기술개발과 연계시킬 예정임
- 농식품부 · 산학연 전문가 · 대표조직 · 가공생산자 · 협회 등으로 구성, R&D 정책, 중장기 로드맵 작성, 연구과제 발굴 등 자문 및 건의



가공·유통 분야 주요 신규 기술개발 과제

- (분야 1: 가공) ①천연첨가물 ②기능성 소재 ③생산성제고기술
- (분야 2: 유통) ④유통기한증진 기술 ⑤품목별 특정 포장기술
- '16년까지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다류, 쌀가공품 등에 대해 특허 등 사전 성과를 보유한 기업체와 함께 관련 제조기술 개발\*('14하~, 18억원)을 추진하되,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단기(현장애로 기술, 즉시 제품화 가능 기술), 중장기 과제(내수·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품목 개발 및 관련기술)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R&D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특히, 유기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교육 등 원스톱 체험이 가능한「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15년 1개소, 200억원 투자)하고 '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단위 유기식품 소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임
- 유기식품의 차별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등 행사장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체·지자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셋째,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시장 발굴, 기업-농업간 상생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국내 유기가공식품 신시장 발굴을 위해 소비계층 분석을 추진하고, 유기농산물 가치도 기존 '안전한 농식품' 위주에서 '환경보전·고품질'의 공익적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임
- (예시) 고향력 · 맛벌이 부부, 아토피 치료 등 건강 Care용, Kids 마케팅
- 대도시 인근 로컬푸드 매장 내 유기가공식품 전문 코너 마련, 신규·소규모 가공업체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인터넷 판매도 추진됨

- 특히, 제조·유통업계의 “가치소비” 참여 분위기를 유기가공식품산업 저변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농업인·기업간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유기농산물 판매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임

- (예) 기업-정부-농업인 MOU 체결, 유기농산물 매입 및 점포수 확대 예정('15년 상반기)

○ 넷째, 산업발전 협의체 구성, 유지원료 공급망 확충,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컨설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유기가공산업 비전 등을 협의할 정책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계·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산업발전 세부방안을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임
- 유기가공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친환경단지 개·보수를 통한 유기농 전문단지를 조성('15~'17, 3개소)하고, 콩·밀 등 주요 10개 품목의 종자·재배 기술을 지원함

- 소비량이 많은 국수, 빵 등 식사 대용 가공식품 활용을 위한 종자 개발

- 특히,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15.하)하여 친환경인증정보 시스템과 연계(품목별 생산량·주산지 등의 정보 제공)함으로써 식품·외식 기업의 원료수급에 도움을 줄 예정임
- 아울러, 영세 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맞춤형 컨설팅 등 초기 지원과 함께 시설 개보수 등 기업체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함
- 「찾아가는 기업 지원 서비스\*」운영을 강화하여 지역 영세 가공업체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개보수 자금과 HACCP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14: 2개소 → '17: 10)도 추진함

- HACCP 의무적용 확대 : '20까지 연매출액과 종사자 4단계로 구분하여 의무적용 추진

○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2020년에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매출액 1조원, 연간 2천만불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나. 국외

### □ 중국

#### ○ 법규 및 지원정책

중국 유기식품 관련 법률 법규

법규	발표일	발표기관	내용 및 영향
〈유기농 제품 인증관리방법〉	2014년4월	국가품질검사총국 (国家质检总局)	중국 인증인가감독위원회는 일관된 인증기본규범, 합격평가 절차와 마크에 따라 전국 유기농 제품인증 활동에 대해 관리한다. 이는 중국 유기농 제품인증 활동에 대한 관리가 법제화, 규범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유기농제품인증 활동을 규범화하고 유기농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며 소비와 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유기농 제품〉 국가표준	2012년4월	국가품질검사총국 (国家质检总局) 중국인증인가감독위원회	유기농 제품의 생산으로부터 가공까지 일련의 표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유기농 제품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공한다.
〈유기농 제품 인증실시규칙〉	2014년5월	중국인증인가감독위원회	유기농 제품인증 절차와 인증규칙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였다. 유기농 제품인증 제도에 대해 진일보 개선하였고 유기농 제품인증 활동을 규범화 하였으며 인증 활동의 일치성과 유효성에 대해 보장하였다.

#### ○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법 강화

- 최근 몇 년간 중국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해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과 건강 관련 문제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
- 2015년 4월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4차 회의에서 식품안전법에 대한 수정 결의를 통과하였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불리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이 식품안전법은 생산, 판매, 요식업 등 각 분야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며 생산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역추적 제도를 보완하였음
- 동시에 엄격한 관리감독 처벌 제도를 수립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지방정부 책임자와 관리감독 인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음

#### ○ 유기농 식품 발전에 대한 정책상 지원

- 정책상 12차 5개년 계획에서 '현대 농업생산 시스템을 보완하고 높은 생산량, 높은 품질, 고효율, 생태, 안전 농업을 발전시키고, 원예 제품, 축산물, 수산품의 대규모 양식을 촉진하고 시설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전문화, 표준화, 규모화, 집약화를 촉진하고 현대농업시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물을 절약하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생산방식을 보급시키며 농업의 지역 환경을 복원하기였는데, 이는 유기농 식품 발전에 대한 정책상의 지원을 마련한 것임
- 그 외에도 금년 5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저장(浙江)에서 좌담회에서 발표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창조성을 발전 동력으로 '녹색성장'이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향후 5년간 유기농 식품 생산은 여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녹색산업'의 하나가 될 것임

#### ○ FTA의 성공적 체결

- 금년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금년 내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협의하였음
- 이로써 전체 농수산물 세목의 30%, 무역액의 60%가 감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음
- 해당 제품은 즉시 세금면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단계별 면제 등 시기별로 관세를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양국의 농산품이 얻는 간접 이익은 증가하게 되었음

### □ 일본

#### ○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확보

- 일본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이나 생산자의 확대 또는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임
- 정부·지방공공단체의 유기·오가닉에 대한 지원은 유기농산품의 생산 확대, 유기농산물의 인지·수요확대에 대한 것이며, 유기가공 식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보이지 않음

#### ○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보조사업(유기JAS관련한 보조 실적이 있는 사례)

- 2015년도에 농림부(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으로 농림수산성 공모안건을 모으고, 유기농업확대전국추진사업과 유기농업확대지구추진사업 등 산지위험부담 경감 종합대책사업을 펼쳤음

- 지방공공단체의 보조사업으로는 돗토리시 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과 효고 농공상 제휴펀드 사업 등이 있음
- 돗토리시 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에 관련된 신규 사업 창출 및 토산물 등 식품가공에 관련된 신상품 개발 및 기존상품을 개선하는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임
- 효고 농공상 제휴펀드 사업은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농공상 연계형 지역중소기업 응원펀드 융자사업을 활용, 효고현 내의 지역 금융기관 등의 협력을 받아 25억6천만 엔의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자 등과 농림어업자가 연계하여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지원한 것임

###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가. 해외신규시장 및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 통관지원

- 신규시장 및 신규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 수출 시 소요되는 통관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확대를 도모함
-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컨테이너 단위의 본격 수출 전 현지 수입 허가사항과 검역·통관규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나. 유기가공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재산권 보호등을 위한 현지화(라벨링, 상품권, 홍보물 등) 지원

- 소비자들로 하여금 판매자 또는 판매자 집단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도록 함
- 이는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 증대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통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다. 수출을 통한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해외 수출을 통한 시장확대는 시장규모 및 가치가 무궁무진하나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각국의 규제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음
- 특히나, 현재 괴산 내 유기식품 관련 업체들의 경우 영세하기에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괴산군에서 정책적인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라. 홍보 및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상기 인증과 마찬가지로 영세한 기업의 특성상 규격인증을 지원받았다고 하여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님
- 해외 바이어와의 영업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해야 하나, 이것 또한 자체 대응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국내 기관 등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용부담을 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괴산군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를 초청 및 박람회 개최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마.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한 온라인 수출기업으로 양성 및 지원**

-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급속하게 확장됨에 따라 클릭 몇 번으로 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 시대가 도래함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기업들을 온라인 수출을 가능토록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온라인 수출은 큰 비용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음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파급력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성과 창출이 가능함

## **바. 국제화 및 글로벌 프로모션 기회 마련을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

-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제품, 기술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도태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빈번함
- 따라서 기업이 세계적인 전시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해당 산업의 가장 핫한 기술, 제품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이에 대응할 방법을 항상 고민해야 함
- 전시회에는 각 산업의 최근 기술개발 트렌드, 이슈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 참여는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 또한, 각 기업의 제품들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며 바이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구매계약 성과를 이룰 수도 있음
- 따라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SWOT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b>지역경쟁력 SWOT분석</b></p>	<p><b>강점(Strength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괴산군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1개소, 친환경 농업지구 7개소, 유기농업단지 3개소,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단지 4개소를 보유하고 있음</li> <li>2. 괴산 자연드림파크는 2021년 까지 17개 업체가 추가 입주 계획이며 투자금은 1,0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li> <li>3. 괴산군은 유기농업 관련 단체가 많이 설립되어 있음</li> <li>4. 괴산군은 2015년 유기농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기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지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li> </ol>	<p><b>약점(Weaknesse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룰 수 있는 젊은 인구층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li> <li>2. 지역특화산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우량기업이 부재함</li> <li>3. 유기식품산업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국가적인 혁신자원이 괴산군내에 부재함</li> </ol>
<p><b>기회(Opportunitie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li> <li>2. 농식품부는 프리미엄 농산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li> <li>3. 사회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li> </ol>	<p><b>S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신규시장 및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통관지원</li> <li>☞ 유기가공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재산권 보호등을 위한 현지화 (라벨링, 상품권, 홍보물 등) 지원</li> </ul>	<p><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해외 시장 개척이 가능한 온라인 수출 기업으로 양성 및 지원</li> <li>☞ 국제화 및 글로벌 프로모션 기회 마련을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li> </ul>
<p><b>위협(Threat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의 관심과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관련 경쟁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음</li> <li>2. 국내에서는 유기 가공식품의 유통 경로가 폐쇄적이며, 이에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음</li> <li>3.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하면 국산 유기가공식품 산업은 아직 영세한 수준임</li> </ol>	<p><b>S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을 통한 시장확대를 위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li> <li>☞ 홍보 및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li> </ul>	<p><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컨설팅, 기 수행 공동사업에 대한 활성화 컨설팅 지원</li> <li>☞ 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R&amp;D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 및 출연연 기술 전문가 매칭 지원</li> </ul>

## 나. 기본방향

- 최근 충북도는 경제성장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며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기농산업 정책 필요
- 유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유기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로 지역민과의 상생발전 유도

## 다. 추진체계

- 지원사업을 통한 내부 수출역량을 확보
  - 기업역량 및 수출역량 성장
  - 브랜드 개발 지원
- 지속적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자생가능한 생태계 구축
  - 해외판로개척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구축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 유기식품·음료 제조 산업(KSIC 코드 C10, C11)

-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합하여 '유기식품'이라 함
- 라벨에 'Organ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과 균형을 이루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과 물질을 사용한 농업절차를 준수한다는 약속의 의미
-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농·림·축·수산물
-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이상 사용한 식품
- 유기가공식품은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완제품에 해당하는 '수입 유기가공 식품'으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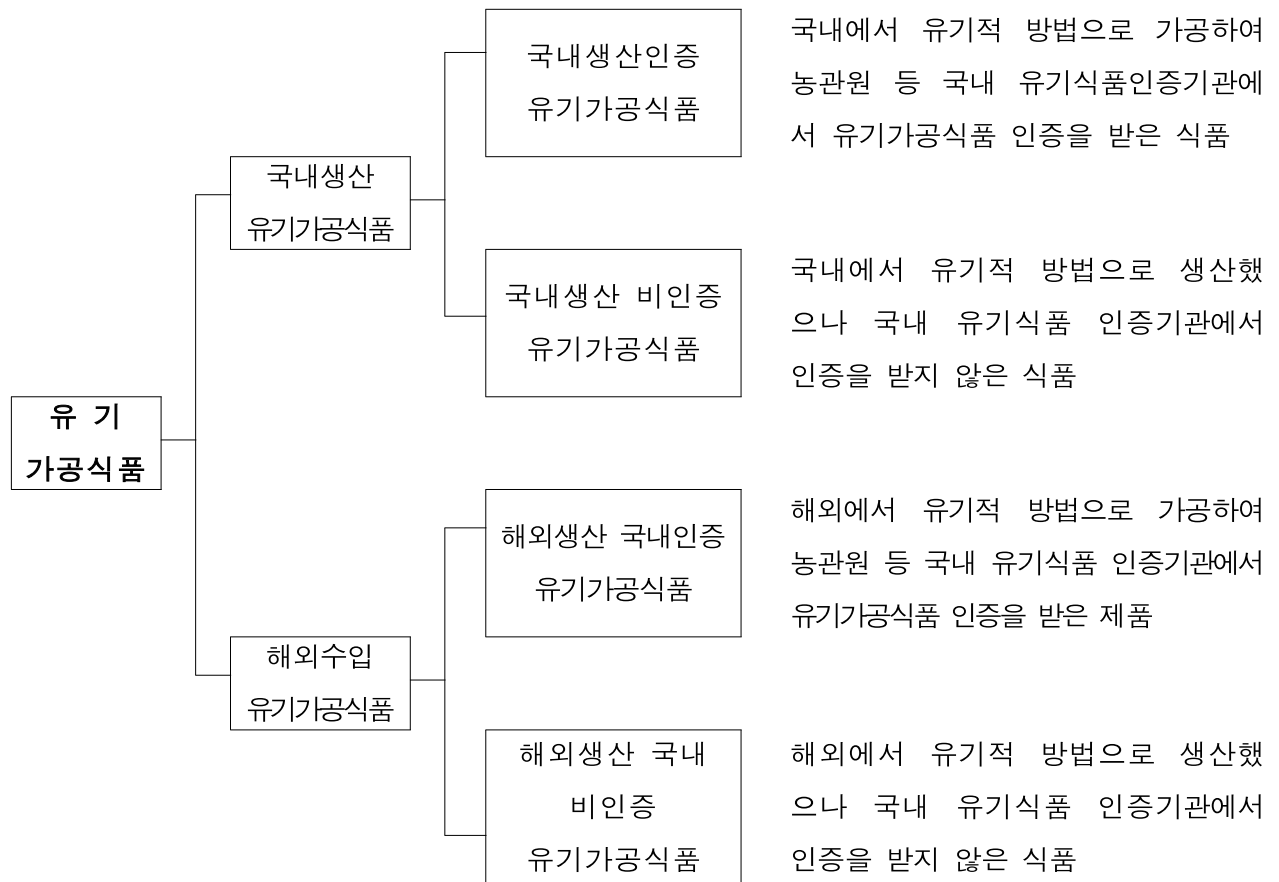
□ 괴산 유기가공업체 현황

연 번	업 체 명	설 립 년 도	품 목	비 고
1	피케이 크린푸드	1980	다류, 곡류	
2	바이셀	2004	음료	
3	솔로유기농업영농조합법인	2006	장류, 누룽지	
4	(주)에코푸드	2012	커피, 차류	iCOOP
5	(주)건강한채소	2012	절임류, 야채수	iCOOP
6	괴산잡곡농산 (유) 칠성지점	2013	다류, 과자류, 곡류	
7	비룡유기농영농조합	2014	과자류	
8	(주)콧양곡 괴산 소포장센터	2014	건과류, 볶은깨	iCOOP
9	흙사랑살림터지점	2015	음료	
10	괴산친환경아로니아농원	2015	음료	
11	(주)애간장	2015	장류, 소스류	iCOOP
12	(주)우당탕	2017	곰탕류	iCOOP
13	아침에 신선목장	2018	음료	

□ 괴산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사업단 제품개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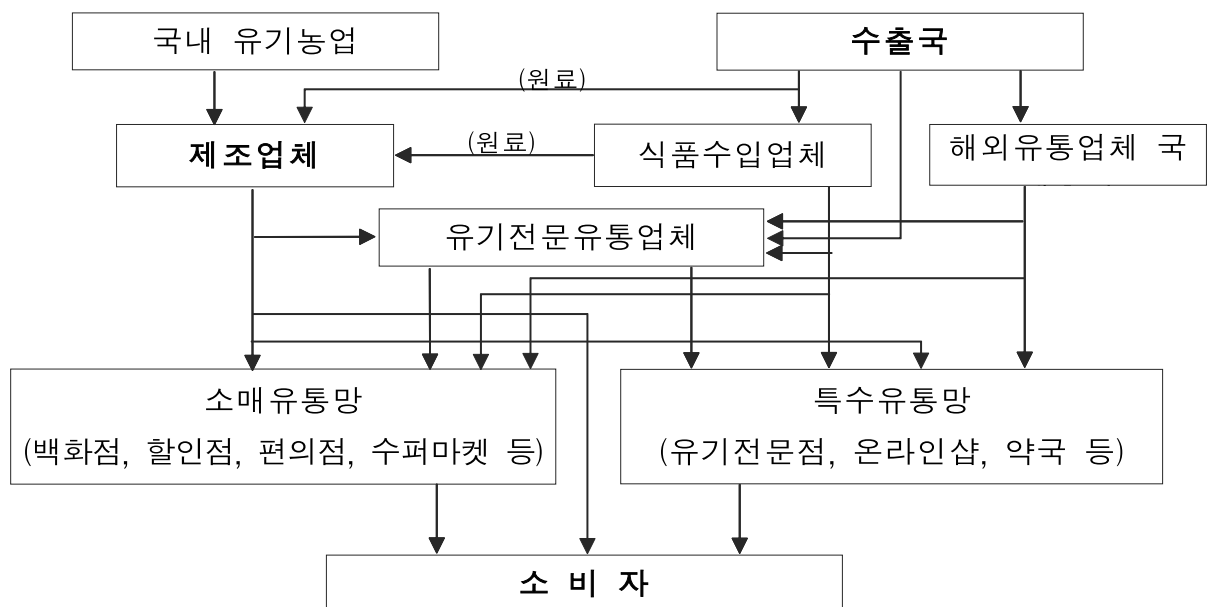
순번	제 품 명	업 체 명	지 원 내 용	상 용 화 여 부	비 고
1	유기농 뽕튀기	비룡유기농 (영)	유기인증	시 판 중	유기인증
2	유기농 사과 고추장	새재골	제 품 개 발, 국내 박 랑 회, 유기인증지원	시 판 중	유기인증
4	수제 발효식초	배나무골 농원	제 품 개 발, 국내 박 랑 회, 유기인증지원	시 판 중	유기인증
5	된장, 고추장, 청국장	고궁식품	제 품 개 발, 국내 박 랑 회	시 판 중	
6	표고버섯 음료	썬그린	제 품 개 발, 마 케 팅 지 원, 유기인증지원	9월 시 판	유기인증
7	유기농 콘칩	지디앤와이	제 품 개 발, 국내 박 랑 회, 유기인증지원, 마 케 팅 지 원	시 판 중	유기인증
8	홍삼모나카	지디앤와이	제 품 개 발, 국내 박 랑 회, 유기인증지원, 마 케 팅 지 원	시 판 중	친환경
9	홍삼 와인	자연과인삼	제 품 개 발, 국내 · 국 외 박 랑 회, 유기인증	시 판 중	유기인증
10	쌈바귀 김치, 산수유진	농수원	제 품 개 발, 국내 · 국 외 박 랑 회	시 판 중	
11	참기름, 들기름, 고추씨기름	태성식품	제 품 개 발, 국내 박 랑 회, 마 케 팅 지 원	시 판 중	전통식품
12	소스류	미미식품	제 품 개 발, 국내 · 국 외 박 랑 회, 유기인증	시 판 중	유기인증
13	잡곡류	괴산잡곡	제 품 개 발, 유기인증	시 판 중	유기 취급자
14	유기농 핫도그, 너겟	동화	제 품 개 발, 국내 박 랑 회, 마 케 팅 지 원	시 판 중	유기인증
15	옥수수 수염차	그린벨	제 품 개 발, 마 케 팅 지 원	9월 시 판	
16	호소음료	웃는호소	제 품 개 발, 국내 박 랑 회, 유기인증지원, 마 케 팅 지 원	시 판 중	유기인증
17	장류	발효코리아	유기인증지원, 분석, 지식재산권	시 판 중	유기인증

## □ 유기가공식품 분류체계



## □ 유기가공식품 유통 경로

- ① 수입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유통, ② 수입완제품 유통, ③ 국산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유통하는 경우로 구분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비전	유기가공산업군 괴산
----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가공산업 생산기반의 체계적 육성</li> <li>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괴산군 농가소득 증대</li> <li>유기가공식품, 음료산업 활성화로 고용 창출</li> </ul>
----	--



추진전략
1. 내부 수출역량 성장지원 2. 해외판로 개척 지원

추진전략	추진과제
내부 수출역량 성장지원	유기가공품 브랜드 개발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충북지역 수출지원기반사업 참여기업 모집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 수출계약 지원
해외판로 개척 지원	해외신규시장 및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 통관지원
	해외 전시회 온라인 참가 지원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홍보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 가. 유기가공품 브랜드 개발 지원

##### □ 사업개요

- 유기가공품의 브랜드 가치 재고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현지화(라벨링, 상품권, 홍보물 등)지원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50,000천원(업체당 지원금 5,000천원 내외)
- 지원대상 : 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상표등록, 라벨제작, 포장디자인 개발 등 지원

#### 나.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 사업개요

- 유기가공품의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도모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20,000천원(업체당 지원금 5,000천원 내외)
- 지원대상 : 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대상인증제도 : 할랄, 코셔, 해외유기농인증 등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 지원내용 : 해외 인증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 지원범위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리인(대행사)수수료

## 다. 충북지역 수출지원기반사업 참여기업 모집

### □ 사업개요

- 충북 진천혁신도시 인근((청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충주) 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 첨단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시제품 제작, 국내외 특허 출원, 국내외 전시회 및 공동전시관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3억원, 1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 주력산업 영위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 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비R&D) 수출계약 지원

### □ 사업개요

- 충북 진천혁신도시 인근((청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충주) 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 첨단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시제품 제작, 국내외 특허 출원, 국내외 전시회 및 공동전시관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사업내용

구분	지원분야	세부분야	지원내용	최대 지원사업비	사업 기간
비R&D	수출용 샘플제작	수출용 시제품 제작	- 수출계약 촉진을 위한 수출국 맞춤형 샘플용 시제품제작(수출 프로모션용)	단독 또는 패키지지원 1,000만원 이내	120일 이내
	제품경쟁력 강화사업	시험/평가	- 제품 수출계약을 위한 각종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성 확보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출원(수출경쟁력 확보)		
		디자인/브랜드	- 제품 및 포장디자인, 기업 CI/BI 등을 통한 제품 고급화 (수출 대상국 맞춤형)		
	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	- 기업별 국내외 전시회 및 공동전시관 참가 - 시장조사, 바이어 상담 등 연계 가능 - 국내 2,500천원/부스(사후정산) - 국외 5,000천원/부스(항공료제외 지원, 사후정산) - 11월 말레이시아 IMVAF EXPO 참가기업 모집(항공료 외 부스, 숙소, 식비, 운송료 등 지원)		
		마케팅 프로모션	-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기업 홍보관, B2B사이트 활용 등(수출 대상국 맞춤형)		



## **마. 해외신규시장 및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 통관지원**

### **□ 사업개요**

- 수출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통관·검역 관련 서류 및 샘플 국제특송 운송비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비 부담 해소 및 수출확대 도모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30,000천원(업체당 지원금 3,000천원 내외)
- 지원대상 : 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 지원내용 : 통관·검역관련 서류 및 샘플 국제특송 운송비 80%지원

## **바. 해외 전시회 온라인 참가 지원**

### **□ 사업개요**

- 해외 전시회에 출장자 없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제품 소개 동영상 제작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지원대상 : 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품 소개 동영상 제작, 해외 전시회 온라인 참여 지원
- 지원범위 : 총 제작비용의 70% 내, 기업당 300만원 지원

## **사.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 사업개요**

-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판로확보 및 확대를 통한 관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50,000천원(업체당 7,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괴산군 소재 수출기업
- 지원내용 : 부스임차·장치비, 통역비, 전시물품 운송비 일부

## **아. 홍보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 **□ 사업개요**

- 홍보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및 상품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20,000천원(업체당 5,000천원 내외)
- 지원대상 : 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수출협의회
- 지원내용 : 상담장 임차비, 바이어 항공료, 체재비 등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항 목	내 용
관련기업 유치	관련기업 유치 : <u>17개社</u>
일자리 창출	업체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및 신수요 전문인력지원 등 : 업체증가 및 매출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약 <u>333명 예상</u>
관련기업 매출증대	생산비용저감, 친환경성 제품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수입대체 및 신수요 창출 등 : 산업육성을 통한 매출증대 약 <u>500억 예상</u>
관련기업 수출증대	관련제품 수출증대, 관련기술 수출 및 기업(외자)유치 등) : 해외시장개척 및 외자유치를 통해 약 <u>30억 예상</u>
총생산(GRDP) 증대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제품확보, 기업유치, 기업이윤 재투자 등 : 석회석 원료 및 활용제품 산업가치 <u>700억 증대</u>
지역내 세수증대효과	<u>15%증대</u> (관련기업 및 유관기관의 활성화)

#### □ 지역 내 유기농식품산업 및 유기농업 활성화

- 유기농식품산업 집중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로컬푸드 활성화로 먹거리의 다양성 확보, 소비자 욕구 충족으로 판로 다변화
- 유기식품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및 매출 증대

#### □ 지역 내 유기농 생산농가 소득 증대

- 계약재배 등 안정적인 판로 개척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
- 농민가공 활성화를 통해 잉여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경작 규모 보존, 경작농산물 확대, 경작인구 증가에 기여

## 나. 정책적 효과

-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과를 계승하고, 세계 유기농산업을 선도하는 ORGANIC KOREA 브랜드 구축 및 유기농 허브 충북·괴산으로 연계
- 효율적인 국정과제 달성과 유기농특화도 충북 조기 실현
  -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환경친화형 농축산업 육성)과 농식 품부와 충북도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에 부합
- 충북바이오 5각벨트(의약, 한방, 유기농, 의료기기, 당료) 추진의 일환으로 유기농 바이오 괴산 실현을 통한 바이오 충북 완성에 기여
- 환경오염, 기후 온난화로 식품안정성과 생태적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므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유기농산업 추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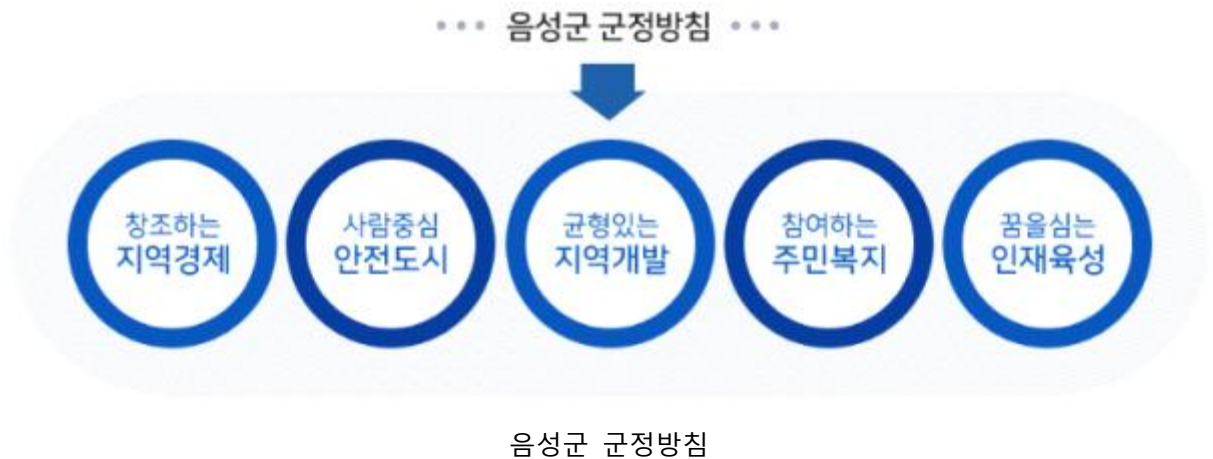
# 10. 음성군

# I.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음성군의 장기발전계획



음성군 비전

- 현재 음성군은 군정방침과 비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계획한 바 있음
-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기업도시 음성을 꿈꾸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글로벌 기술 집약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음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회와 강점을 활용한 시너지효과 기대

- 현재 음성군은 수도권 및 전국적 접근성 확보로 중부권 산업도시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지속적 조성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혁신도시 입주기관 기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반을 확보한 상태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한다면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 시기가 적기라고 판단됨

## 나. 추진목적

### □ 음성균형발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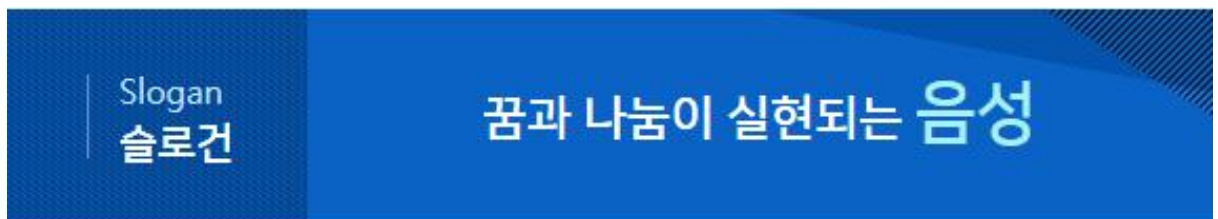
-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발굴·육성을 통해 음성군의 10대 중점 전략과제 중 음성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음성균형 발전 <음성군 10대 중점과제>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 2030년</li> </ul>
사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성 제조업/농업의 균형 발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음성주민 삶의 질 제고</li> </ul>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업의 질적 성장과 농업6차 산업화를 통한 음성 지역의 특화 균형발전 구현</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성지역을 한남금북정맥 녹지축을 중심으로 개별입지제조업의 난개발/연담화를 억제시키고 산업단지 개발 및 준산업단지제도 운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li> <li>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및 중장기적 정주여건 제고</li> </ul>

### □ 지역의 미래비전과 목표 달성

- 음성군이 장기발전계획으로 제시한 중점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 허브도시 음성, 푸른 행복도시 음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함
- 또한 지역특화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비전의 달성은 최종 슬로건인 꿈과 나눔이 실현되는 음성을 향해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 성공적인 군정을 목적으로 함



음성군 슬로건

## II.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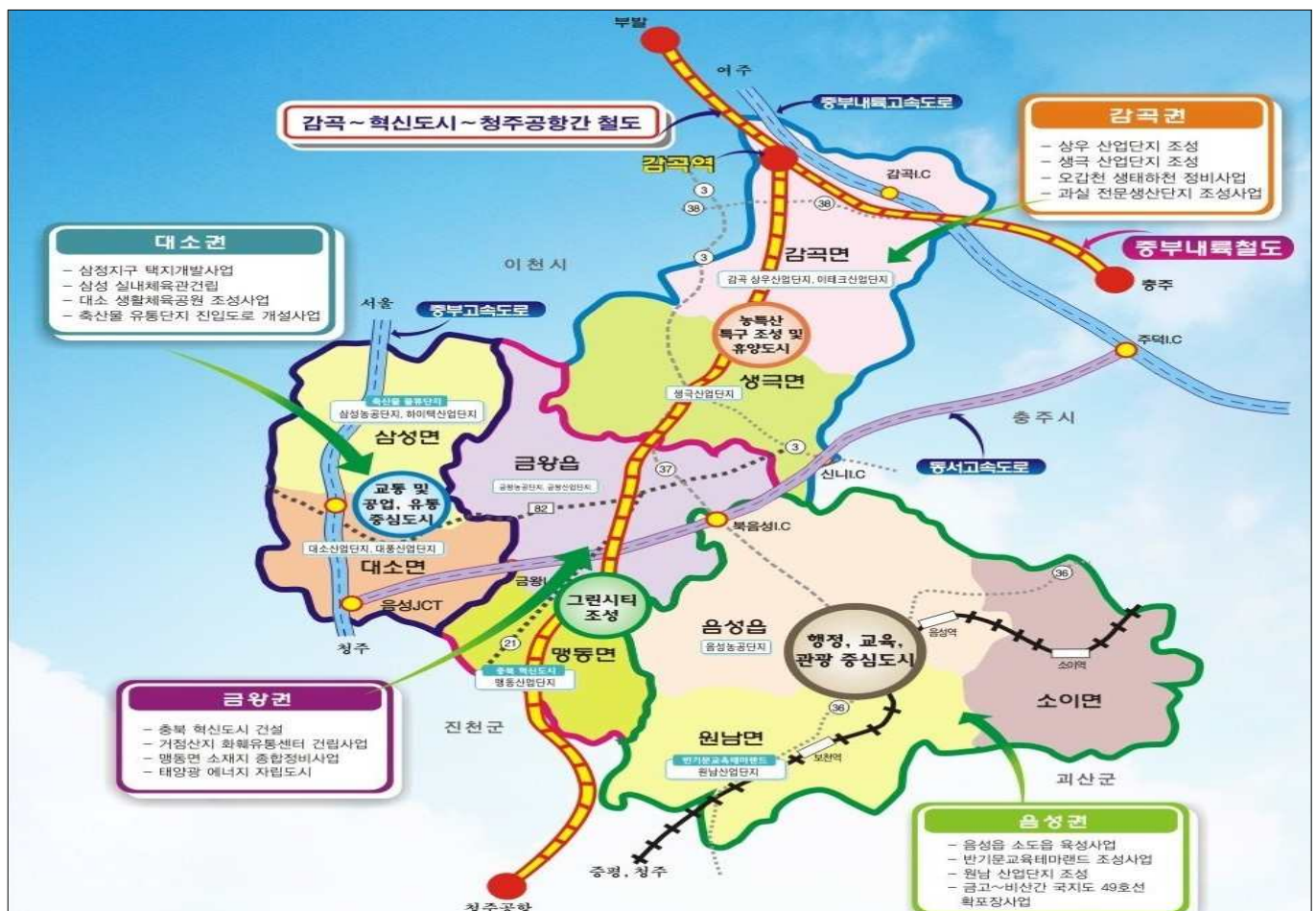
#### 가. 인구현황

음성군 인구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평균 성장률
인구	102,796	102,023	104,635	104,509	1.2
경제활동인구	62,000	61,800	65,400	63,900	1.1
취업자수	60,600	60,500	64,000	61,700	0.7
고용률	70.3	68.6	70.3	67.7	-1.2
실업자수	1,300	1,200	1,400	2,200	22
실업률	2.2	2	2.2	3.4	18.3

#### 나. 교통 여건





- 음성군은 서북쪽을 관통하는 중부고속도로와 현재 북쪽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으며, 동서 고속도로가 동서를 관통하고 있고, 충북선 복선 철도는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을 거침
- 일반국도도 고속화되어 36번 국도(청주~충주), 3번 국도(충주~서울), 21번 국도, 37번 국도, 39번 국도 5개 국도가 4차선 확장되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 철도망

- KTX오송역(50km/50분)
- 중부내륙선 감곡역 위치 ('19년 개통예정)  
→ 감곡역에서 수서까지 30분



#### ✓ 공항

- 청주국제공항(35km/40분)
- 인천국제공항(160km/2시간)
- 김포공항(150km/2시간)



#### ✓ 항만

- 평택항(85km/1시간)
- 당진항(110km/1시간 10분)

## 다. 지역의 강점

- 사통팔달의 고속도로(중부, 중부내륙, 동서) 기반 수도권 및 중부권 접근성 최적지임
- 개발 가능 염가 토지 풍부 :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 등 산단개발이 활발함
- 음성 특화 농특산품 보유(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등)함
- 마이스터고, 외국인 학교, 대학 기반 전문인력 공급 가능함
- 혁신도시 입주기관 기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반 확보됨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 □ 지역 대표기업 현황

상 호	소 재 지	대표업종	주생산품	종업원수	비 고
씨제이헬스케어(주)	대소면 대소산단로 32	(C21210)	의약품	80	의약
코오롱생명과학(주)	대소면 대동로530번길 11-16	(C21101)	아목시실린, 플루비프로펜 등	50	
(주)녹십자	금왕읍 무극로65번길 26	(C21210)	의약품	172	
(주)녹십자엠에스	금왕읍 무극로65번길 26	(C27199)	체외진단시약, 혈액백	60	
(주)한독	대소면 대풍산단로 78	(C21210)	의약품	187	
일양약품(주)	금왕읍 대금로 1291	(C21102)	인플루엔자백신	22	
대한적십자사혈장 분획센터	감곡면 대학길232번길 16	(C21210)	의약품(알부민)	70	
(주)잇츠한불미드림센타	삼성면 대성로547번길 62	(C20423)	화장품	160	화장품
(주)코스메카코리아	대소면 대금로196번길 17-12	(C20423)	스킨로션, 밀크로션 등	250	
(주)승일	원남면 원남산단1길 50	(C20423)	화장품	150	
(주)한국화장품	삼성면 대성로547번길 74	(C20423)	화장품	107	
(주)엘시시	대소면 삼양로 738-13	(C20423)	니베아밀크, 크림 등	106	
(주)뷰티화장품	원남면 원남산단로 274-14	(C20423)	마스크팩, 화장품	38	
(주)신세계푸드	원남면 원남산단로 128-14	(C10309)	조각과일, 갈비탕 등	350	식품
(주)아워홈	삼성면 청용로 293	(C10301)	김치, 소스 등	350	
씨제이일제일제당(주)	금왕읍 무극로65번길 19	(C10301)	김치	23	
씨제이푸드빌(주)	대소면 대소산단로 20	(C10712)	빵, 케익류	129	
(주)오뚜기	대소면 대풍산단로 128	(C10742)	마요네즈, 케첩	244	
(주)이가자연면	맹동면 맹동산단로 38-3	(C10730)	생면, 떡국	91	
(주)사옹원	대소면 한삼로153번길 76-17	(C10799)	냉동식품	88	

(주)DB하이텍	감곡면 상우안길 73	(C26111)	반도체	716	반도체
(주)테크팩솔루션	대소면 대금로 41	(C22232)	PET병	140	플라스틱
대상에스티(주)	대소면 오태로116번길 175-29	(C22291)	테이프	57	
HS상사	대소면 대금로 48	(C28512)	전기매트 등	18	전기제품
성우오토텍(주)	원남면 원남산단로 160	(C30320)	Caliper Housing 등	220	자동차 부품
일진다이아몬드(주)	대소면 대금로 157	(C20119)	합성다이아몬드 분말	310	기 타

## □ 기업체 현황

구분	계	식품 음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 속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재생
업체 수	2,482	434	88	163	628	176	70	629	176	54	64

## 나. 생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b>음성군 지역내 총 생산</b>	<b>4,352,969</b>	<b>5,642,686</b>	<b>5,949,401</b>	<b>6,644,325</b>
순생산물세	342,019	653,067	632,805	734,955
농림어업	308,058	245,156	306,841	302,544
광업	180,163		-	-
제조업	2,063,119	3,145,186	3,419,309	3,816,265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5,923	11,950	17,628	22,104
건설업	251,504	241,873	273,562	338,689
도매및소매업	127,677	130,455	115,639	132,382
운수업	87,124	98,787	108,635	113,833
숙박및음식점업	50,347	60,017	64,299	72,455
정보및통신업	21,809	18,988	22,589	20,975
금융및보험업	72,739	74,382	71,933	73,471
부동산업및임대업	163,845	173,529	171,113	192,000
사업서비스업	157,666	296,641	215,089	233,09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203,069	212,570	229,049	231,448
교육서비스업	93,682	59,524	58,575	62,31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6,627	89,701	114,954	151,195

## 다. 고용현황

구분	계	식품 음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 속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재생
종업원 수	45,360	8,666	1,373	2,037	12,588	2,501	1,604	8,271	4,746	2,312	1,262

## 라. 연구동향

- 최근 5년간 충북의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전국대비 3.0% 수준임
- 2016년 충북 연구개발인력은 17,348명으로 기업체의 연구개발인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국공립 대학 연구개발인력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연평균성장률이 -7.4%로 나타남

(단위 : 억 원,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성장률
연구 개발비	공공연구기관	1,180	1,162	1,149	1,608	2,994	24.7
	대학	1,165	1,716	1,382	1,342	1,381	5.5
	기업체	7,203	7,720	10,009	10,848	16,679	22.1
연구 개발 인력	공공연구기관	1,703	1,810	2,172	2,369	2,640	11.6
	대학	8,415	7,547	8,455	5,947	6,181	-7.4
	기업체	7,366	7,511	8,245	8,594	8,527	3.7

자료 : 통계청, 연구개발활동조사

## 마. 기업 투자동향

### □ (주)녹십자엠에스

#### ○ 사업현황

- 본 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보정동)
- 자산규모 : 609억
- 종업원수 : 189명
- 매 출 액 : 863억
- 주생산품 : 혈액검사 시약 및 기기

## ○ 투자현황

- 위 치 : 충북 혁신도시 산업용지
- 투자규모 : 부지 34,000㎡(10,285평)
- 투자금액 830억 원 / 신규고용 354명
- 2019. 4. 10. 투자협약 체결

# 녹십자엠에스, 음성군에 투자

연간 410만개 혈액투석액 생산·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 9월 준공 목표

음성군은 10일 오전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녹십자엠에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음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녹십자엠에스(대표이사 안은억)는 1972년 녹십자의 혈액형 진단사업으로 출범해 40여년간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의료 분야의 글로벌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체외 진단 관련 노하우를 활용한 혈액백 사업, 신장 혈액투석액 사업, 혈당 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와 끊임없는 시장 지향적 제품개발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

충북혁신도시 ㈜녹십자엠에스 음성공장은 혈액투석액 플랜트로 약 3만4000㎡ 대지에 연간 410만개 혈액투석액 생산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20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 가면 혈액투석액 생산량의 증대로 수급 안정과 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성군은 ㈜녹십자엠에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시중 충북도지사, (주)녹십자엠에스 안은억 대표이사, 조병욱 음성군수)  
(사진=음성군 제공)

안은억 ㈜녹십자엠에스 대표는 "이 플랜트는 국내 최대 규모 혈액투석액 자동화 생산시설이며, 앞으로도 혈액투석액 생산에 있어서 국내 1위 기업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군수는 "㈜녹십자엠에스의 제품 양산에 차질이 없도록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하겠다"며 "㈜녹십자엠에스와 같은 우량기업체를 지속해서 유

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민선 7기 군정목표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민선 7기 들어 현재까지 총 13개 업체와 4058억원, 고용 1658명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음성/지홍원 기자 zoom9850@dailycc.net

□ (주)사용원

○ 사업현황

- 본 사 : 대소면 한삼로153번길 76-17
- 자산규모 : 222억
- 종업원수 : 252명
- 매 출 액 : 367억
- 주생산품 : 전통전, 튀금류 등 식료품 제조

○ 투자현황

- 투자위치 : 충북혁신도시 산업용지(공장 신설)
- 투자규모 : 부지 19,543㎡(5,911평) / 건축 14,128㎡(4,273평)
- 투자금액 362억 원 / 신규고용 214명
- 2019. 4. 25. 투자협약 체결

□ 씨제이헬스케어(주)

○ 사업현황

- 본 사 : 대소면 대소산단로 20
- 자산규모 : 5,269억
- 종업원수 : 1,427명
- 매 출 액 : 5,205억
- 주생산품 : 원료의약품 제조

○ 투자현황

- 위 치 : 대소면 대소산단로 20(공장 증설)
- 투자규모 : 건축 1,824㎡(551평)
- 투자금액 132억 원 / 신규고용 20명
- 2019. 4. 25. 투자협약 체결

# 음성에 우량기업 유치 ... 494억원 투자 협약

㈜사웅원·㈜씨제이헬스케어  
2024년까지 230명 고용 창출  
郡, 지역 경기 활성화 등 기대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25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방문 시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 ㈜사웅원, 씨제이헬스케어와 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음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웅원(대표이사 이상규)은 냉동식품 제조 전문업체로, 한식의 세계화를 선도하며 성장해 기대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증가하는 수출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362억원을 투자해 혁신도시에 제3공장을 1만8천544㎡(약 6천평)의 부지에 건설할 계획으로 214명의 고용인원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씨제이헬스케어(대표이사 강석희, 윤상현)는 1984년 제약사업을 시작해 35년간의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며,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NO.1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한국콜마와 한 가족이 된 뒤, 대소 공장에 원료의약품 제조를 위한 GMP시설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음성군·㈜사웅원·씨제이헬스케어가 투자협약 체결했다.

/음성군 제공

이들 기업은 2024년까지 총 494억원을 투자기로 해 고용인원 23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등 지역발전과 함께 다

양한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인석 / 음성

## □ 음성군 기업투자 현황

연 도	투자금액(억 원)		고용규모(명)	기업체 수	비 고
2017	계	13,258	4,383	45	협약체결 업체 기준
	바이오헬스의약품	40	4	1	
	화장품	660	125	3	
	식품	1,236	313	7	
	기타	11,322	3,941	34	
2018	계	4,003	942	21	
	바이오헬스의약품	800	150	2	
	화장품	140	34	1	
	식품	320	150	2	
	기타	2,743	608	16	
2019 (4월말 기준)	계	4,552	1,187	15	
	바이오헬스의약품	962	374	2	
	화장품	103	157	2	
	식품	917	434	3	
	기타	2,570	222	8	

## 바. 혁신자원 현황

-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벤처기업의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2011년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 후 확대 중임
- 중소기업 연구소 전국비중은 3.0%로 전년대비와 동일한 비중을 보이며, 벤처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0.1%p(2.6→2.7%) 상승함

(단위 : 개,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성장률
기업 연구소	중소기업	511	573	647	689	770	10.4
	벤처기업	201	226	226	261	280	9.8
전담 부서	중소기업	306	367	455	561	607	15.9
	벤처기업	41	42	43	50	57	9.8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전국 평균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포함 16개 지역 중 하위에 위치함
  -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이며, 서울, 대전, 경북 4개 지역은 4년 연속 1~4위로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구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점)					상대수준 (%)					순위				
	'12	'13	'14	'15	'16	'12	'13	'14	'15	'16	'12	'13	'14	'15	'16
충북	5.377	5.803	6.011	5.843	6.215	31.1	33.7	35.3	32.8	36.4	15	14	13	15	13
평균	8.667	8.521	8.541	8.745	8.641	50.1	49.5	50.1	49.0	50.6	-	-	-	-	-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04

-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의 5개 부문별 평가 결과, 충북은 모든 부문에서 평균보다 하회함
  - 서울은 자원, 성과 2개 부문, 경기도는 활동, 경북은 네트워크 부문, 대전은 환경부문에서 최상위를 차지함

(단위 : 점)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충북	6.215	0.711	0.983	1.199	1.757	1.564
평균	8.641	1.263	1.422	1.959	2.123	1.874
배점	-	7	7	5	6	6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7.04



## □ 충북 지역혁신기관 현황

### 충북 내 지역 혁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무관청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TI 시험연구원	기타 비영리기관 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혁신기관 본원	기상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보건복지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국가혁신기관 본원	농촌진흥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가혁신기관 본원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기획조정실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지자체혁신기관 기초	산업통상자원부
충북연구원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충청북도
충북지식재산센터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특허청
(재)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국가혁신기관 본원	중소벤처기업부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중소벤처기업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충북도청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충북도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충북도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충북도청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충북도청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지자체혁신기관 광역	충북도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산업통상자원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북지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산업통상자원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충청지역센터	국가혁신기관 본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오창센터	국가혁신기관 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보건복지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	국가혁신기관 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시험사업단	국가혁신기관 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국가혁신기관 본원	산업통상자원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충북지원	기타 비영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 혁신기관유형

### 혁신기관유형

구분	기관 수
국가혁신기관 본원	11개소
국가혁신기관 분원	6개소
광역단체 소속	10개소
기초단체 소속	1개소
비영리단체 소속	2개소

## ○ 혁신기관현황

### 혁신기관 현황

구분	기관 수
본 원	22개소
분 원	8개소
전 체	30개소

○ 주요기능

주요기능

구분	비중
기술(인프라)	19 %
R&D지원	16 %
네트워킹	16 %
마케팅	12 %
인력지원	12 %
사업화	9 %
경영지원	7 %
자금지원	4 %
기타	4 %

○ 예산현황

예산현황

구분	비중
국비	48 %
광역시	22 %
민간	27 %
기초	3 %

○ 연구개발 단계

예산현황

구분	비중
개발연구	44 %
기초연구	30 %
응용연구	26 %

○ 연구개발 분야

연구개발 분야

구분	비중
바이오의료	20 %
기계소재	17 %
에너지지원	15 %
세라믹	13 %
전기전자	11 %
화학	11 %
지식서비스	9 %
정보통신	4 %

## 사. 정책지원현황

### □ 「15만 음성시」 조기건설 프로젝트 추진

- 목표연도 : 2020년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
- 인구목표 : 인구 15만
- 중점 추진 분야 : 6개 분야
  - 정주여건조성
  - 중부내륙철도 개통대비 시책개발
  - 사업단지조성 (우량기업유치, 일자리창출)
  - 교육강군 육성
  - 귀농 · 귀촌인구유입
  - 출산장려 · 보육복지 강화
- 인구증가 현황('16년 말 106,419명)
  - 최근 4년간(12년 말~16년 말) 4,788명 증가 ⇒ 최근 매년 1천명이 넘게 증가
  - 음성군 인구 : 최고 127,000명 (1965년), 최저 74,717(1990년)
- 인구 늘리기 조례 개정 및 홍보활동 추진
- 인구 늘리기 군민제안 공모 실시 : 2017년 3월 ~ 6월

### □ 정주여건 조성 및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 정주여건 조성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23개 노선, 69억 원
  -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176,700m<sup>2</sup>, 512억 원, ('11.9~'18.12), 공영개발
  -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149,390m<sup>2</sup>, 438억 원, ('15.1~'21.12), 공영개발
  - 금왕읍 도시개발사업 : 110,000m<sup>2</sup>, 470억 원, ('17.1~'21.12) 공영/민간
  - 맹동면 도시개발사업 : 252,000m<sup>2</sup>, 400억 원, ('17.1~'21.12), 공영/민간
  - 생극면 택지개발사업 : 신양리 일원, 79,073m<sup>2</sup>, 250억 원, 공영개발
  - 공동주택 건립 분양 : 15개단지 4,360세대('14.9.~'18.12.)

○ 산업단지 조성

- 오션산업단지 : 459천㎡ 776억 원 ('17년 준공)
- 신천보부산업단지 : 145천㎡ 394억 원 ('17년 준공)
- 유촌산업단지 : 410천㎡ 841억 원 ('18년 준공)
- 금왕테크노밸리: 1,055천㎡ 1,602억 원 ('18년 준공)
- 성본산업단지 : 1,975천㎡ 4,132억 원 ('19년 준공)
- 상우산업단지 : 679천㎡ 771억 원 ('20년 준공목표)
- 용산산업단지 : 806천㎡ 1,248억 원 ('22년 준공목표)

□ 기업지원

○ 2019 서울 국제소싱페어 Fall 참가 지원사업

- 대형유통망 MD와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국제소싱페어에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지원을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과 전략적 마케팅 강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시키는 지원사업임

○ 2019 중소기업 개별박람회 지원사업

-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2019 음성군 중소기업 개별박람회 지원사업」을 개최함
- 사업명 : 2019 음성군 중소기업 개별박람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전시(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2백만 원 한도
- 선정업체 : 3개사

○ 2019 음성군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 품질시스템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9 음성군 중소기업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명 : 2019 음성군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 지원대상 : 음성군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제조업체
- 사업비 : 35,000 천원
- 선정업체 : 14개사

- 지원분야

음성군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분야

시스템인증	ISO 9001 (국제 품질경영인증시스템)
	ISO 14001 (국제 환경경영시스템인증)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TS 16949 (자동차관련시스템인증)
	HACCP 인증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혁신형 기업인증	MAIN-BIZ (경영혁신 중소기업)
	INNO-BIZ (기술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타	KFI (소방인증)

○ 2019 음성군 맞춤형 이동 특허상담실 운영 및 지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권리보호를 위한 「2019년 음성군 맞춤형 이동 특허 상담실」을 운영함
- 운영내용 :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전문상담, 법률 및 노무 등 전문 상담 지원내용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가. 음성군, 코 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 음성군의 노인인구는 2019년 3월말 내국인 기준 95,391명임
-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501명으로 19.40%에 이르며, 등록된 경로당은 총 395개소임

#### 나.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 선정

- 충북 음성군이 충북도가 주관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공모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됨
-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도비 3억 8400만원을 확보했으며 2회 추경에 군비 대응 투자비용을 확보할 계획임
- 군은 대소산업단지 소공연장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음성농공단지 공용주차장 설치 5000만원, 기숙사 확충사업 1억 2000만원, 근로환경사업 64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됨
-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공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목적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확보해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 또한 기업들의 기숙사 확충을 통한 주거 안정으로 인구 늘리기와 근로환경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추진

- 음성군은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지역 내 신설 법인 1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 이번 컨설팅은 지방세 업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 담당 공무원 2개 팀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컨설팅반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현황에 맞는 세무정보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무조사 주요 추정 사례, 납부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임
- 군은 지난 2016년 이후 공장설립을 완료한 180개 신설 법인을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 지방세 컨설팅 신청서, 2019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송했으며,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됨
- 군은 신설 법인들이 지방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예를 예방하고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등을 유도하고 세무 관련 기업 운영의 고충도 해결할 예정임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높은 실업률)** 음성군의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평균 성장률이 각각 22% 18.3%로 높은 편에 속함
  -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음성군의 인구는 최근 3개년 동안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평균 1.2%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편리한 교통성)** 음성군은 철도망과 공항, 항만 모두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중부권 접근성이 최적지임
- **(기업체 현황)**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금속기계, 석유화학, 식품·음료 순으로 많았음
- **(지역 내 대표기업 업종)** 하지만 기업체 현황과 달리 큰 규모의 기업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은 의약, 화장품, 식품산업이 비교적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이 분포되어 있음
  - 대표기업으로는 (주)한독(의약업종), (주)녹십자(의약업종), (주)코스메카코리아(화장품), (주)신세계푸드(식품), (주)DB하이텍 등이 있음
- **(음성군 내 유일한 혁신기관)** 아쉬운 점은 음성군에 혁신기관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가 유일함
- **(정책적 기업 지원을 통한 인구구조 문제 해결)** 음성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인구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좁은 기업 지원 폭)** 현재 음성군은 기업지원팀이 존재하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원의 폭이 조금 넓은 것으로 판단됨
- **(효율적인 기업지원의 필요성)** 기업이 지역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산업으로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보다 일부 산업의 큰 혜택으로 성장을 견인하는게 우선임
  - 즉, 예산이나 혹은 기타 문제로 인하여 현재보다 기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늘릴 수는 없다면 효율성을 늘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지역특화산업으로 이너뷰티 산업 선정의 필요)** 현재 음성군의 대표기업들이 많은 업종은 의약, 화장품, 식품 3가지 분야이며. 이들의 업종은 이너뷰티라는 산업으로 묶을 수 있음
  - 음성군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발굴을 '이너뷰티'라는 산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참고내용

### 음성군 바이오헬스 · 의약 업체 현황

순번	회사명	대표자명	생산품
1	(주)녹십자	허은철	의약품(파스)
2	(주)녹십자엠에스	안은억	체외진단시약, 혈액백
3	(주)녹십자웰빙	유영호, 카쿠타이이치	염산도파민주, 암브록솔주, 아미카신주, 베타메타손, 페나클로베타주, 피록시캄주, 염산트라마돌주
4	(주)뉴트라젠	한민석	참당귀추출분말
5	(주)대상 제1공장	고두모	합성세제
6	(주)대상 제2공장	고두모	의약품
7	(주)동일제약	윤기정	치약, 세균백신
8	(주)두루원	임병배	송엽천차, 다시마, 과자류, 건강기능식품, 엠엑스(식품첨가물)
9	(주)벤텍바이오	김기호	식용유정제 한천, 토양미생물, 보조사료
10	(주)생명과학	노회건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11	(주)알파비엔에이치	박설웅	크릴오일(오메가3등), 크릴단백질 농축액, 크릴엑기스D, 크릴엑기스D70, 녹차농축액D10, 유기농 녹차농축액
12	(주)영상	조영상	모타제 품 부품(코아)
13	(주)에당지앤비	박영일	홍삼농축액 및 생약제 원료
14	(주)인터메딕스	윤응준	수액세트
15	(주)채움엔비티	윤해남	차류, 커피
16	(주)케이지이	송태규	발효홍삼농축액, 발아발효콩추출물
17	(주)퀀텀휴넥스코리아 음성지점	임동순	화장수, 위생수, 란셋
18	(주)티디에스팜	김철준	파스, 화장품
19	(주)파마킹	김완배	의약품(펜넬, 아미드, 레바메드)
20	(주)한국씨엔에스팜	최석규	곡물후레이크, 녹차, 인삼제품, 소프트캡셀, 정제제품, 의약품, 해 열·진통·소염제, 소화기계
21	(주)한독	김영진	의약품
22	(주)한산에프앤지	이종무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 외
23	가린한방	김정선	한방원료가공농축액, 과실농축액
24	농업회사법인 지에프엔(주)	이남희	약재증류수
25	단일시스켄(주)	장세훈	아산화질소가스, 질소, 산소, 탄산가스
26	대한적십자사혈장분획센터	유중근	의약품(알부민)
27	상녹제약	김혜숙	녹용 및 녹각
28	서울광학산업(주)	이승희	렌즈, 프리즘
29	씨제이헬스케어(주) 대소공장	강석희, 윤상현	의약품
30	유림양행	김재분	스프린트(부목)
31	유림양행 제2공장	김재분	Casting tape
32	이니스트에스티(주)	김국현	아목시실린, 트리하이레이트
33	인성제약(주)	김동남	엑기스, 건강보조식품
34	일양약품(주)	김동연	인플렌자백신
35	차가바이오	안홍순	감귤농축액, 민들레조청, 사과주스, 옥타코시놀
36	코오롱생명과학(주)	이우석	아목시실린, 플루비프로펜, 히아루론산
37	태웅식품(주)	장현주	건강식품, 소스류, 음료, 유지
38	포유텍	이정복	보조사료, 미생물배양체
39	하이텍팜(주)	김정수	원료의약품
40	한국넬슨제약(주)	홍기수	의약품
41	한국코러스(주)	황재간	의약품(세포탁심, 세포팀암계 주사분말제)
42	한솔신약(주)	조정호	의약품

자료 : Factory-on



음성군 화장품 업체 현황

순번	회사명	대표자명	생산품
1	(주)CJM인터내셔널	조제 목	기능성 마스크팩(파우치충진),마스크팩 원단
2	(주)고원화성	김정온, 고현규	화장품원료
3	(주)녹십자	허은철	의약품(파스)
4	(주)더말코리아	정연 호	마스크팩
5	(주)라이프사이언스코스메틱	임병남	스킨,로션,크림
6	(주)비엔디생활건강	이다니엘	세제, 화장품, 플라스틱 성형용기
7	(주)세모	한택상	스쿠알렌,화장품,건강기능식품
8	(주)센트온	유정연	향기제품,화장품,디스펜서,책소독기
9	(주)승일 음성사업장	현창수	화장품, 의약외품, 가정용산업용 에어졸
10	(주)씨엠글로벌	조임래	스킨,로션 등
11	(주)에이씨티	김계원	화장품 원료, 기타 화학제품, 다공성폴리머, 천연추출물, 염모제원료,인삼제품등
12	(주)엔티코	변대영	마스크팩
13	(주)엘시시	백성천	니베아밀크,크림,아트릭스,소프트
14	(주)월드팩	조제 목	마스크팩,손팩,발팩,샤워팩
15	(주)잇츠한불미드림센타	홍동석	화장품
16	(주)코스메카코리아	조임래	스킨로션,밀크로션,파우다제품, 베이비파우다
17	(주)태우	권상대	세제,크리너,세정제
18	(주)티디에스팜	김철준	파스, 화장품
19	(주)한국화장품제조음성공장	이용준, 임충현	화장품,방향제
20	(주)허브패밀리	이용우	향수, 방향제, 캔들, 사체,비누
21	(주)휴먼텍	송재철	세척제,광택제,손세정제
22	(주)휴먼텍	송재철	주방세제,산업용세정제류
23	VU:NIQUE	이호규	물비누,샴푸
24	동호제약(주)	김세준	기능성 마스크팩
25	선우	정영순	물비누, 샴푸, 소독, 살균제
26	셀루스(주)	김지운	기능성건강보조식품,개인조합자극기(S펠트),캔디류
27	주식회사 뷰티화장품	오한선	마스크팩, 화장품
28	주식회사 프리캠	박진표	세척제,피혁첨가제, 살균제(락스), 계면활성제, 세탁용세제, 산업용세제
29	지알에치스킨팩토리	서순원	마스크팩,퍼머액,샴푸
30	태남메디코스(주)	조택래	기능성화장품
31	태남메디코스(주) 2공장	조택래	마스크팩, 기초화장품
32	한국메디케어(주)	전명복	콘택트렌즈용 세정제

자료 : Factory-on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건강기능식품

###### □ 국내

-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 개조,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음
  - 우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대한 광고문구 등에 대한 규제 기준도 대폭 완화됨
  - 특히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하기로 함
- (채널 확장 및 혁신 제품을 통한 시장 성장 기대) 신규 사업자 진입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세분화됨
- 건강기능식품 규제 혁신 구체방안

건강기능식품시장 진출입 활성화 (4건)

구체 개선방안		
대형마트·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현행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약국제외)
	개선	모든 대형마트·백화점 등(식품위생상 기타 식품판매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선적 당시 사진 제출 허용	현행	서류검사 대상 제품 매 통관 시 마다 사진 제출 의무
	개선	영업자가 국내 통관과정에서 사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선적 당시의 사진을 제출하거나 검사담당자가 직접 확인
건강기능식품 일부 기능성 삭제 시 변경신고 허용	현행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도 품목제조 신고를 다시 하도록 의무화
	개선	일부 기능성이 단순 삭제된 경우 변경신고 허용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업체별 관리로 전환	현행	이력추적관리를 품목별(1년 주기)로 실시
	개선	이력추적관리를 업체별(2~3년 주기)로 실시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3건)

구체 개선방안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 확대	현행	건강기능식품 대상원료에 의약품 제외
	개선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현행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대상으로 일반인만 허용 (경미한 환자 제외)
	개선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를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초기 질병 상태의 피험자도 포함
개발자의 기능성 원료 활용기간 확대	현행	기존 인정원료의 기능성 추가 시 1년 경과 후 고시에 등재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개발자만 제품제조·판매 가능)
	개선	기존 인정원료의 기능성 추가 시 2년 경과 후 식약처 고시에 등재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3건)

구체 개선방안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허용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기능성 표시 허용
	개선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허용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신고만으로 제품생산 허용	현행	건강기능식품(고시형 원료)에 한해 신고제로 운영
	개선	기능성 원료가 포함·표시된 일반식품도 신고제로 운영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신규 기능성원료 기준 규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부재
	개선	신규 기능성원료 기준 규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기능성원료 개발 사전협의체 신설	현행	신규 기능성원료 개발 관련 사전협의체 부재
	개선	신규 기능성원료 개발단계부터 심사부서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사전협의체 신설
기능성원료 지표성분 원칙의 예외사유 명확화	현행	지표성분 원칙기준 예외사유 불명확
	개선	타당성 자료별, 시험결과 등 예외사유 명확화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마케팅 경쟁력 제고 및 관리 비용 절감(5건)

구체 개선방안		
건강기능식품 광고 대상자료 허용범위 확대	현행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공인검사기관 검사 결과만 광고에 활용
	개선	타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한 업종별·분야별 전문 시험기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기관 등의 검가 결과도 광고로 활용
동물실험 결과 등도 광고 허용	현행	공인검사기관에서 인정한 제품효과 문구만 광고 가능
	개선	해당 제품의 동물실험 결과 등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 가능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위반 규제 개선	현행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허위표시·광고 시 식품표시광고법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시행규칙 제정
	개선	사전심의 폐지, 처벌수준도 일반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련 규정 제정
관련 규정 개정 후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고시 등 개정 후 바로 시행 →대체원료 확보·개발, 라벨링 교체 등 탄력적 대응 곤란
	개선	고시 등 개정 후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공동보관 허용	현행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관련 품질관리실 공동사용은 가능하나 창고 등 보관시설 공동사용은 불명확
	개선	명확히 분리 또는 구획된 경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공동보관 허용

## □ 해외

- **(정책)** 세계 각 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나라별 법적 규제와 절차를 보유하고 있음
- **(미국)** FDA에서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에 의해 식이보충제의 최종제품과 식이원료를 관리함
  - 식이보충제를 판매하기 전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업체는 시판 전에 제품의 안전성과 적절한 표시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 시판 후에 부정, 불량 제품을 관리하는 책임은 FDA에 있음
- **(중국)** 보건식품의 관리단속은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보건식품관리방법', '위생부 (보건식품관리방법) 중 문제에 관한 통지', '국가식품약품감독 관리국 약품등록사 보건식품동기관리방법(시행)' 등 법률 및 법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에서 1년 이상 생산 및 판매한 보건식품이어야 중국 보건식품으로 등록 가능하며 1년 이상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해외 신청자의 경우, 해외의 합법적인 보건식품 생산업체여야 하며 수입 보건식품을 등록할 경우, 중국 경내에 주재한 사무기구 또는 중국경내의 대리기구가 등록을 해야 함
- **(일본)**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으로 나뉘며 각 규제를 달리함
  -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별 생리적 기능이나 특정한 보건기능을 표시하는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에 관한 국가의 심사를 받아 그 표시 내용에 대해 허가를 얻어야만 함
  - 영양기능식품으로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국가가 정한 규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규격기준에 적합하면 국가 등의 허가신청이나 신고할 필요 없이 제조 또는 판매가 가능함
- **(유럽)** 모든 일반식품과 식이보충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건강 및 영양정보표시 규칙에 따라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검토하고 EC의 인정을 받아야만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있음
  - 새로운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식품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 첨가물인 경우에는 기존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캡슐 등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식품보충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관련 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BPOM)과 LPPOM MUI가 있음
  - BPOM은 한국 식약처나 미국 FDA와 유사한 기관으로 약품, 식이보충제, 화장품 등의 인허가/등록 업무를 주관하여 제품의 품질 및 유통을 규제하고 있음
  - LPPOM MUI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기관으로 제약, 식품, 화장품과 관련하여 동물성 지방 등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에 대해 Certificate of Halal을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기관의 할랄 제품 인증이 없으면 대중들이 소비에 소극적이 될 수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관임
- 인도네시아로 식이보충제, 약품 및 화장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제품을 현지법인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BPOM에 등록해야 현지에서 유통이 공식적으로 허용됨
- **(싱가포르)** 건강보조식품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수입, 제조와 판매를 위한 시판 전 승인과 허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반드시 중개인과 판매자들은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건강보조식품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영양 또는 기능표시가 가능함
- **(베트남)** 기능성식품 관리에 대한 지침서에 의하면, 비타민, 무기질 및 생리활성물질과 같은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의 경우, 제품생산업체가 본 상품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공표해야 함
  - 또한 제품 생산국 혹은 상품유통허용국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은 해당 제품이 식품에 관한 법의 규정에 맞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면 기능성 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미량영양소보충식품
    - 식품라벨 상에 보충되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영양요구권장량의 3배 이상이면 제품생산국 혹은 상품유통허용국의 권한기관에서 받은 안전성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에 보충되는 미량영양소의 RNI 만족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 생리활성물질이 있는 기능성식품
    -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지원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질병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품이라 공표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작용에 대한 임상실험보고서나 그 기능이 있는 식품 성분 작용에 대해 제품생산국 또는 제품 유통허용국의 권한기관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
  - 베트남의 기능성식품은 효능, 성분함유량, 사용지침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미량영양성분보충식품, 건강유지식품, 의학영양제품으로 분류됨
  - 보건부의 식품위생안전국이 기능성식품의 생산 및 판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능성식품 관리에 대한 지침서의 수행, 지도, 검사, 검증 및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짐

## 나. 기능성화장품

### □ 국내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올해 화장품 주요 제도 변화 및 정책 추진 방향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제공정보 구체화,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크게 3가지 파트로 구분됨

화장품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li> <li>•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제도 도입</li> <li>• 정부회수 범위 확대 및 영업자 회수 미이행 시 처분 근거 마련</li> <li>•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화장품 전환</li> <li>• 광고 업무 정지 기간 중 광고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li> <li>• 영유아 또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 등 의무 부과됨</li> </ul>
소비자 정보제공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 등의 정보 구체화</li> <li>• 영유아용 화장품 및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해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에 보존제를 사용했을 경우 보존제의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됨</li> <li>•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하였을 경우 성분의 표시가 의무화</li> </ul>
위해화장품의 위해수준에 대한 정보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해 화장품 위해성 등급 도입</li> <li>•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li> <li>•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기준으로 1단계는 ‘완치불가’한 정도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 2등급은 ‘일시적’ 영향, 3등급은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 정도로 구분함</li> </ul>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청구권자 확대 및 기능성화장품 표시 방법 개선)**

- 심사 청구권자 확대

- (현행) 제조판매업자 → (개선) 제조업자,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추가

- 표시방법

- (현행) ‘기능성화장품’글자로만 표시 → (개선)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으로 선택적 표시가능

## □ 해외

- **(라벨링)**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라벨링은 나라별로 대부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 미국은 FDA가 라벨링에 대한 내용을 주관하며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제품의 주요정보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화장품 패키지 레이블은 주요정보 표시면과 성분 표시면으로 구성되며 주요정보 표시면에는 브랜드, 제품명, 중량을 표시하고 성분표시면에는 성분, 사용법, 경고문, 제조업체명과 생산지 주소를 표시해야 함
  - 라벨 작성 시 제품정보와 성분은 모두 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성분 기재 시 원산지 국가에서 사용되는 관용명이나 통용명은 모두 영문으로 변경해야 함
  - 미국 수출 화장품 라벨링은 통관 전 모두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미국에 제품 수출 후 라벨 부착이 가능함
- **(중국)**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국적불문 모두 중국어 간체로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유럽)** 화장품 판매 시 라벨링이 부착되어야 하며, RP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CPNP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영어로 번역하면 되나,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은 진출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요구됨
  - 제품명, 성능, 제조번호, 성분표, 중량, 성분목록, 유통기한 알레르기 성분,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원산지, 수입업체정보가 표기되어야 함
- **(홍콩)** 정부에서 화장품 라벨링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 8가지 기본 사항은 영문·중문으로 라벨에 표기할 필요가 있음
  - 제품종류, 내용, 성분, 제조만기일, 사용 시 잠재적 위험 경고, 저장 및 사용에 관한 안내사항, 원산지 코드, 유통 및 수입자 이름
- **(베트남)** 베트남에서 라벨링은 다음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함
  - 제품명, 기업명 주소, 원산지, 수량, 성분 및 성분 수량, 제품 로트번호, 제품 제조일자 또는 상품 유효일자, 제품 사용법, 경고 및 주의사항, (상기 라벨링 사항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
- **(인도)** 라벨링 규정은 제품라벨 상에 브랜드 및 상표에 대한 CDSCO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발급받은 회사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제조국가 또한 포함되어야 함
  - 제품상 라벨의 부착은 수입 후 등록국에 소정의 양식과 함께 신고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함

□ **(인증)** 각 국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미국에는 자발적화장품등록(VCRP)이 존재하는데, VCRP란 미국 내에서 화장품을 상업적으로 유통하기에 앞서 제조업자, 포장업자, 수입업자 정보를 FDA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 **(중국)** 기능성 화장품은 특수용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4년임
  - 연장 시에는 만기 4개월 전 자료를 제출, 신청해야 하며 위생허가 신청 시, 상표·로고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한 출원이 필요함
- **(유럽)** 유럽의 화장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CPNP 등록,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EU 시장 내 유통·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시장출시 전, CPNP 포털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해야 함(등록은 RP가 수행)
  - CPNP등록은 EU화장품 수출을 위한 의무사항이며, 일부 EU국 세관에서 CPNP 등록번호가 없는 화장품의 통관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홍콩)** 화장품 제품에 대한 인증이 없으며 화장품 수입 바이어에 따라서 CGMP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등이 요구되기도 함
- **(인도)** 제조시설이 없고 수출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위해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DCGI, CDSCO, 인도 식품 및 약품관리부(FDA)에 제출해야 함
- **(말레이시아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화장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화장품 포장재가 없을 경우 화장품 용기에 기입하도록 규정함
  - 화장품 명칭과 그 기능, 제품 소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화장품 사용법에 대한 설명, 제품명이나 소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전체 성분 목록, 성분은 첨가될 때 무게의 내림차순으로 기록해야 함
- **(싱가포르)** ACD규정에 의거,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에 대한 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시험 또는 인증 절차 또한 없음
  -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고자 할 경우, 이를 HSA에 사전 등록 및 통지해야 함
  - 이러한 화장품 사전등록 절차는 싱가포르 수입/판매업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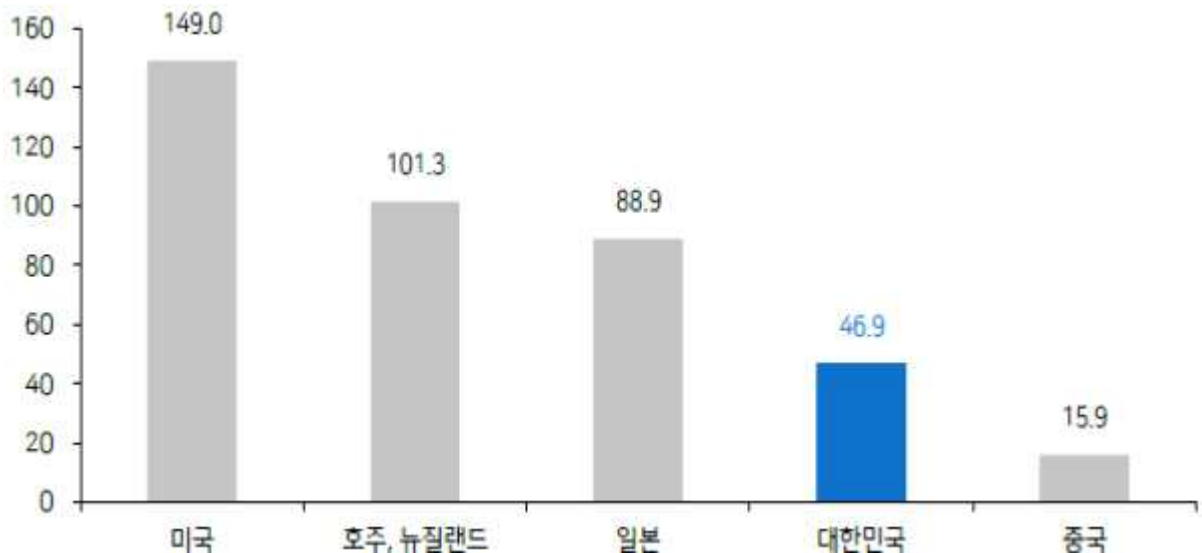
## 2. 경제/산업 동향

### 가. 건강기능식품

#### □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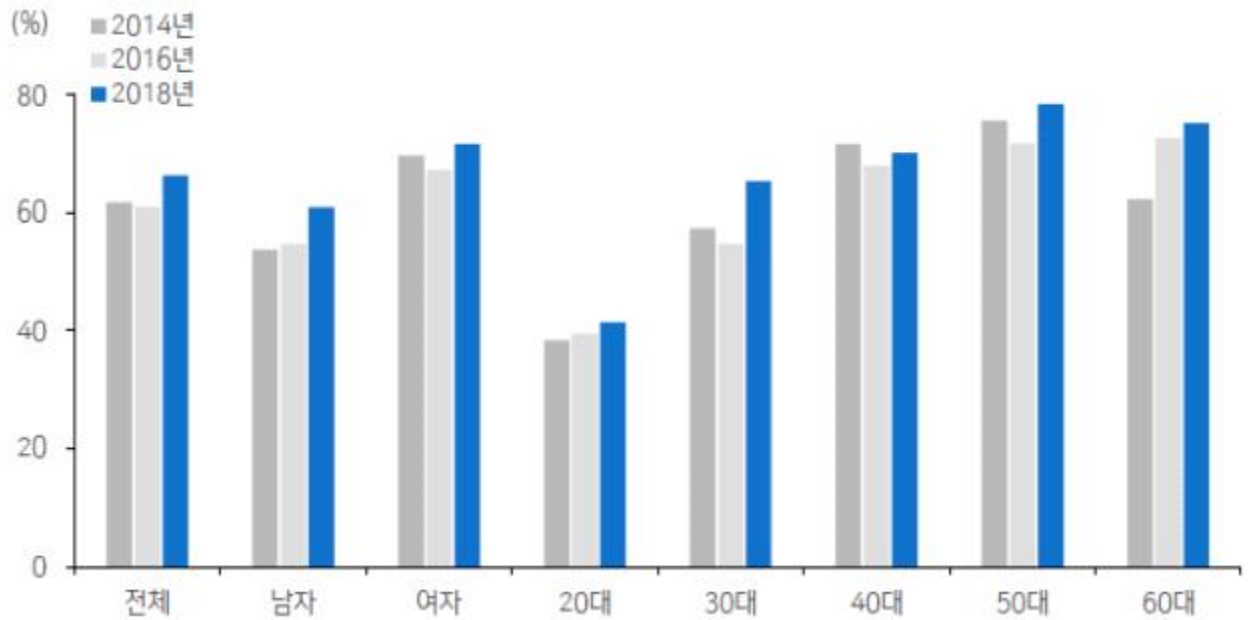
- **(시장규모)** 2017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소비자 매출액 기준 4조 7,720억 원으로 추산됨
- **(시장성장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미용 및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연평균 7%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특히 한국의 1인당 연간 건강기능식품 소비액은 미국 등 선진국 대비 1/3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많음
- 건강기능식품의 주 소비층인 50대 전업주부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 건강에 관심이 높아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경험률 및 섭취 빈도가 높음
- 한편 건강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추구하는 20~30대 남녀 및 30~40대 남성 소비자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 경험률 대비 향후 구입 의향이 높아 잠재적인 구매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달러)



1인당 건강기능식품 연간 소비액 비교

자료 :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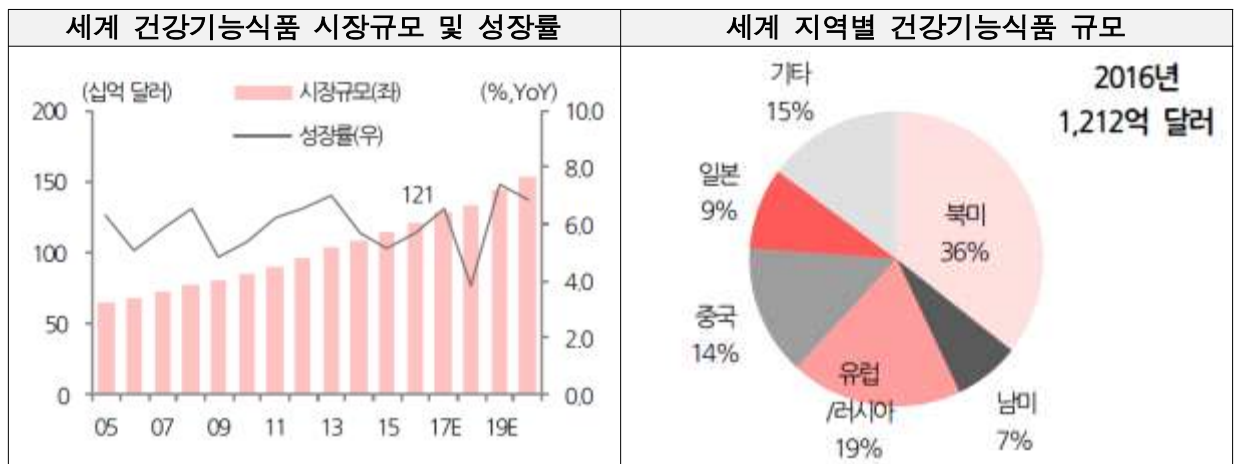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률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메리츠종급증권 리서치 센터

## □ 해외

- **(시장규모)**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212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5.7%의 성장률을 나타냄
  -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대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성장률이 금융위기 등 외부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매년 5~7%에서 큰 변화없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실제 2011~2016년 5년간 연평균 6.0%의 성장세를 이어왔음
- **(시장규모의 비중)** 건강기능식품의 시장비중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
  -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전 세계 시장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속한 북미/남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음
  -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 2번째, 3번째 시장인 일본, 중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34%, 유로존이 19%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6년 17억 달러(2.0조원)을 기록해 세계 시장 대비 1.4%의 비중을 차지함

- **(시장성장성)** 식습관의 변화 및 지속되는 인구고령화 추세와 각종 성인병의 유병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세계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은 지속할 전망이다
- 전망에 따르면 향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0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1,5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5년~2020년 5년간 연평균성장률 6.1%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Global Supplement Business Report, Nutrition Business Journal, BNK투자증권

- **(기업동향)**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은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음
  - 다만, 기업별로 중국 성과에 따라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D2C와 같은 온라인 직접판매 확대 등 채널의 변화 또한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소비자 직접판매방식을 통한 온라인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편리한 쇼핑 방식과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은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시장동향)** 중국의 전체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입 시장은 2016년 14.6%, 2017년 22.6% 증가하여 성장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수입국으로 보면 최근 3년간 호주, 미국이 1,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2017년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타격으로 수입액이 급감하였으나 2018년부터 빠르게 회복되었음
  - 중국으로 건강보조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현지공장 설립을 통한 진출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나. 기능성화장품

### □ 국내

- **(시장현황)** 대한화장품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국내 기능성 화장품 시장규모는 4조 9,8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23.8%씩 상승하여 2021년 국내시장규모는 약 14조 9,695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기능성 화장품 분야의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CAGR
세계시장	49,810	60,863	75,544	95,032	120,917	149,695	23.8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생산액은 3조 8,559억 원으로 전년대비 29.6% 증가했으며, 따라서 전체 화장품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25.7%에서 2015년 35.9%로 증가함
- **(시장 성장성)** 기능성 화장품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은 정부기관이 직접 심사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임
- 또한, 기능성이 입증된 성분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화장품 업계가 쉽게 기능성 화장품을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에서 모발의 색상을 변화·제거하거나 피부 건조, 갈라짐, 각질화 등을 방지·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기능성 화장품 연도별 생산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16	'17	'18	'19	'20	CAGR
복합유형	2,956,079	2,956,079	5,315,860	7,128,569	9,559,411	34.1
주름개선	818,687	891,550	1,057,308	1,151,409	1,253,884	8.9
자외선차단	305,026	272,998	218,678	195,717	176,145	-10.5
미백	212,246	189,323	150,638	134,369	119,857	-10.8
헤어케어	665,300	671,000	811,900	893,100	982,400	10.0
합계	4,205,643	4,980,950	7,554,384	9,503,164	12,091,697	23.8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생산실적 자료, 각 연도

## □ 해외

- (시장규모) Euromonitor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세계 기능성 화장품 시장규모는 1,006억 6,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9.5%씩 상승해 2021년 세계시장규모는 1,505억 6,9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기능성 화장품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16	'17	'18	'19	'20	'21	CAGR
세계시장	100,660	108,823	117,649	127,191	137,506	150,569	9.5

자료 : Euromonitor Personal Care Market Data,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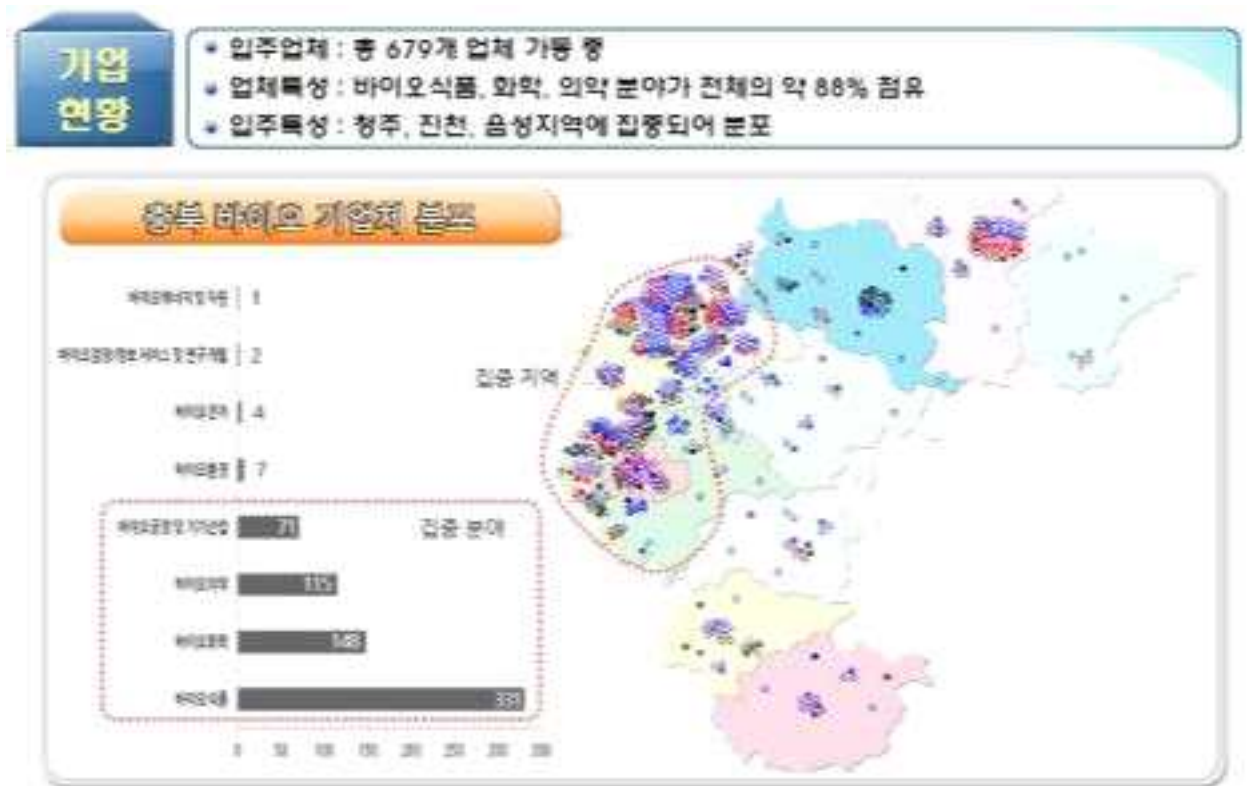
- 2015년 화장품 유형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Skin Care가 1,105억 달러(31.4%)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고, Hair Care(19.2%)와 Colour Cosmetics(16.1%)가 그 뒤를 이음
- 세부 유형별로는 Skin Care 중 Facial Care(24.1%) 시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Premium Fragrances(7.8%), Shampoos(7.1%), Facial Make-up(5.8%) 등 순으로 나타남
- (시장 성장성) 화장품에 대한 필수재의 인식 고취,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소비계층의 확대, 온/오프라인 공유 플랫폼 확산, 고령화 시대 진입 등에 힘입어 화장품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 되는 분야임
- 그 중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리서치앤드마켓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 2015-2020'을 통해 글로벌 시장 크기, 수요예측, 산업동향 등을 종합하여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가 2020년까지 6.4% 속도로 성장해 6,75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스킨케어분야는 화장품 제품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측함
- 또한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3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화장품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화장품 소비자들의 비교적 높은 뷰티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세계 화장품 시장이 2014년 2,597억 달러로 그 중 861억 달러가 기능성 화장품의 생산액으로 추정되며, 국내 전체 화장품시장은 8조 9,704억 원이고, 기능성 화장품이 2조 9,744억 원(33.2%)으로 추정됨
- 그 중 순수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93억 달러이며, 복합기능성 화장품은 294억 달러임 (국내 미백 10.5%, 복합 34.1%)

### 3.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완화)** 정부는 정책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 제조,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있음
  -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수출 시, 인간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전에 관한 각 나라별 규제사항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건기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건강기능식품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하여 미용,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증가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도움으로 인해 연평균 7%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낮은 편이기에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세계 시장 또한 전년대비 5.7%의 성장을 이루어내며,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기능성화장품 산업은 최근 안전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정책·법률 동향이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금년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예에 구체화된 안전관리강화, 소비자 제공정보 구체화, 위해화장품의 위해수준 모두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었음
  - 해외에서도 기능성화장품 수입할 시 요구하는 인증들이 존재하였음
  - 이에, 제품의 라벨링에서도 소비자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자세한 라벨표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기능성화장품 산업의 높은 성장)** 기능성화장품은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는 연평균성장률 23.8%, 해외는 9.5%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시장의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필요)** 이너뷰티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산업발전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이너뷰티산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장의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 음성군에는 이너뷰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지역을 이끄는 대표기업도 많이 속하여 있음
  - 하지만, 안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 나라들은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이 홀로 진출해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 가. 참고자료

- 충북 내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은 약 680여개 업체가 주로 청주, 진천, 음성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 대부분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업체로 전체의 약 88%를 차지함



- 충북 내 바이오 및 뷰티산업 관련 주요 혁신기관 현황
  - 오송 생명과학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음
  - 오송 중심 허브클러스터, 제천 한방, 괴산 유기농, 옥천 의료기기 스포크 클러스터 형성하여 일관된 Hub & Spoke 클러스터 발전 정책과 실행 전략을 추진 중임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뷰티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지구를 음성, 청주, 진천을 연계하여 조성 추진 중임

# 1.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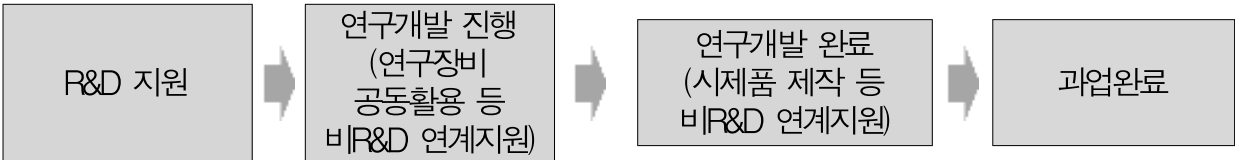
### 가. SWOT 분석

지역경쟁력 SWOT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위 등 6대 국책기관 관내 소재 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산학융합본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지원 인프라 보유	1. 음성군 내 혁신기관 부족에 따른 R&D지원 사실상 불가 2. 도내 혁신기관 간 실질적인 연계 미약 3. 입지에 따른 양질의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기회(Opportunities)	SO전략	WO전략
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기조 유지 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안정화에 따른 기술지원 활성화	☞ 혁신기관이 부족한 관내를 벗어나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심 특성화 및 집적화 ☞ 도내 혁신 기관을 이용한 음성군 특화산업 육성 ☞ 충청북도 주요 정책인 뷰티소프트웨어클러스터 지구 등 충북도와 합동 육성정책 마련	☞ 충북도내 혁신기관과 연계를 통한 R&D지원체계 구축 ☞ 혁신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협력 활성화
위협(Threats)	ST전략	WT전략
1.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 인근의 바이오헬스 관련 인프라 확대	☞ 컨트론타워 구축을 통한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강화	☞ 지역 내 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전문 인력 풀 강화

### 나. 기본방향

- 기존 OEM중심 관내 제조업 산업군을 제품 자체개발이 가능한 기업으로 한단계 도약 지원
- 현재 중국향 중심의 수출판로를 벗어나 신남방 등의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으로의 진출을 유도하며, 이에 따른 사업화 패키지 지원

### 다. 추진체계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 바이오헬스의약 산업 분야

핵심 KSIC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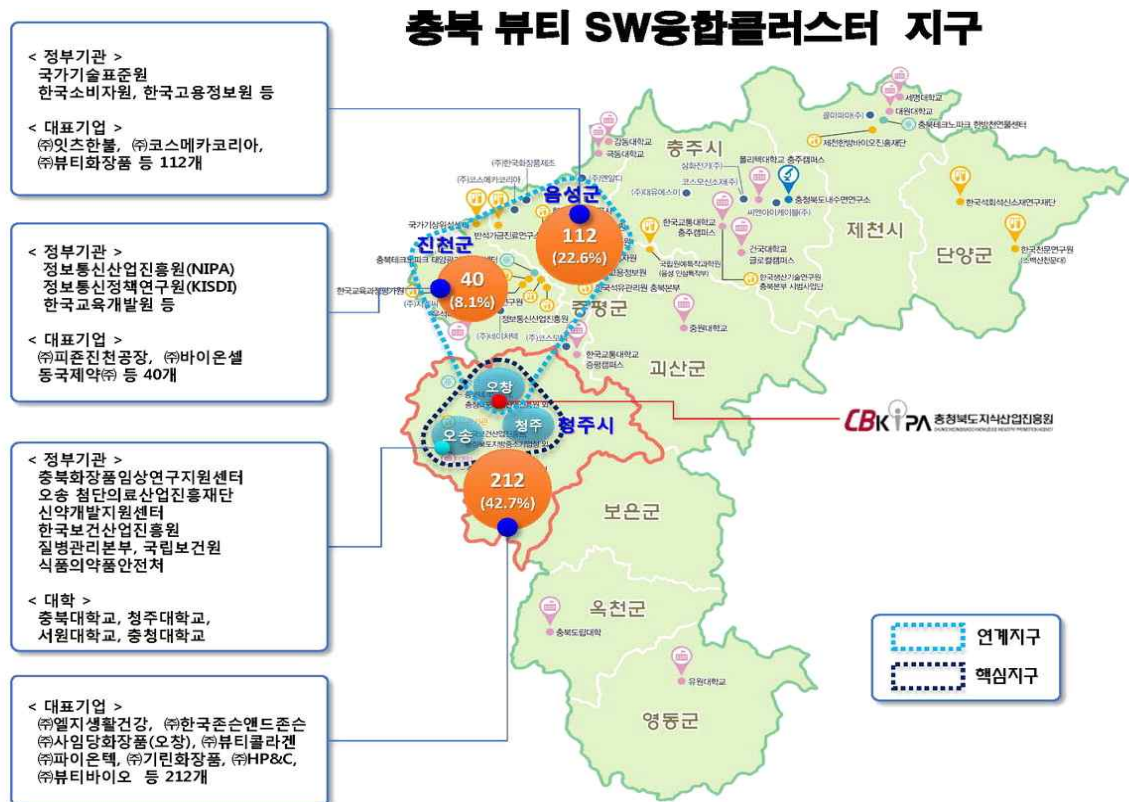
KSIC코드	세세분류업종	KSIC코드	세세분류업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 기업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창출 제고를 위해 유망분야 내 자유공모
  - 분야 : 원료 및 소재 / 예방 및 진단 / 진료 및 치료 / 라이프 헬스케어
- 차세대 먹거리 R&D지원을 통한 산업화 역량 강화
- 지역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형 컨소시엄 지향



## □ 뷰티(화장품) 관련 산업 분야

- 관내에 자리한 112개의 화장품 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뷰티산업 메카로 도약
- 뷰티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계획을 충북도와 공동으로 추진 "개인 유전체 기반 뷰티 서비스"시스템을 관내에 구축하여 OEM위주의 기존 관내 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개인 유전체 기반 뷰티서비스 - 개인 유전체형 정보를 화장품 기업보유 데이터와 융합 . 분석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컬러서비스 구현과 고도화된 뷰티서비스를 상용화해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실현
- 음성군 대표기업 - (주)잇츠한불, (주)코스메카코리아, (주)뷰티화장품 등 112개 업체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30			
이너뷰티 『신남방』 진출 지원사업			
	'20	'23	'26
매출 증가	↑ 5%	↑ 10%	↑ 20%
시장 점유율	5%	10%	20%

- 이너뷰티 - 내부를 뜻하는 이너(inner)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뷰티(beauty)가 합쳐진 단어로 '내부에서 아름다움을 가꾸다'라는 합성어(먹는 화장품)

목 표	
1. 바이오·뷰티 신(新) 성장동력 육성 - 이너뷰티	
2. 중국시장 일변도를 벗어나 신남방 시장 선점(ASEAN+인도)	

추진 전략	
1. 이너뷰티 신제품 개발 R&D 지원	
2. 이너뷰티 제품개발 기술확보 지원	
3. 신남방 진출기업 비R&D 지원	

이너뷰티 신남방 진출 지원 추진 전략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이너뷰티 신제품개발 R&D 지원	바이오헬스 기업 및 뷰티화장품 기업 신제품개발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너뷰티 신제품 개발 R&amp;D 지원 (신남방 맞춤형 제품 개발 시 가산점)</li> </ul>
신남방 진출기업 비R&D 지원	제품개발 기술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mp;D 장비 공동활용 비용 지원</li> <li>이너뷰티 시제품 제작 지원</li> </ul>
	신남방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켓지역 시장조사분석, 홈페이지 구축, 기업홍보 브로셔 등 이너뷰티 사업화 패 키지 지원</li> </ul>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 가. 이너뷰티 신제품 연구개발비 지원( R&D 분야 )

##### □ 추진개요

○ 관내 바이오헬스·의약 및 화장품뷰티 제조업체에 대한 이너뷰티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단순 하도급 형태인 주문자상표부착표시생산 방식(OEM)에서 자체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업체(ODM)로 탈바꿈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현 시장 트렌드인 이너뷰티 시장을 개척하여 관내 기업 발전에 초석을 마련코자 함.

- 이너뷰티 - 내부를 뜻하는 이너(inner)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뷰티(beauty)가 합쳐진 단어로 '내부에서 아름다움을 가꾸다'라는 합성어

#####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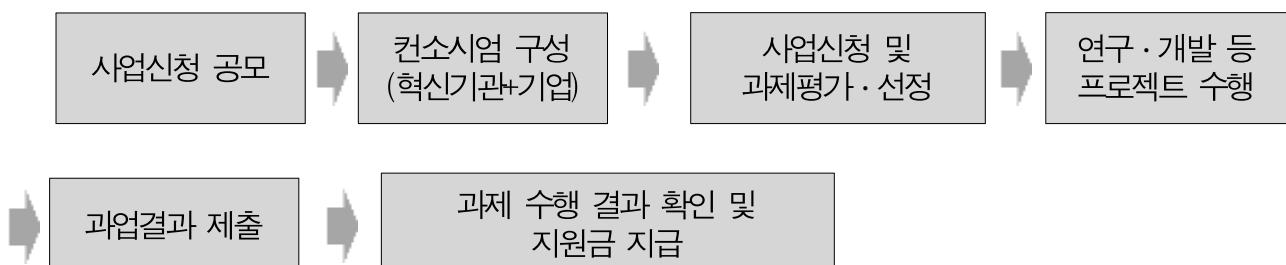
###### ○ 신청대상

- 이너뷰티 제품의 연구·개발 의지가 있는 관내 관련 기업
- 2개 이상 기업의 공동연구 신청 가능
  - 업종에 관계없이 “이너뷰티” 제품 개발 시 지원

###### ○ 신청자격

- 음성군 관내 소재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충북도내 혁신기관(연구소, 대학 등)과 연구과제에 따른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기업 및 연구소
  - 도내 연구기관 현황 참고
- 연구개발 방향 등 구체화 된 과제 수행방안 수립하여 신청(현실화 가능성)
- 자체 연구시설(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있는 경우 단독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 □ 지원절차



##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 / 현장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실현 가능성 검토 → 선정평가

### ○ 평가기준

-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 지원계획

### ○ 지원 내용

- 기업이 추구하는 이너뷰티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하는 자유공모를 통한 기업제안형(Bottom-UP) 지원

## □ 제출서류 등

###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2년간 제무제표, 과제별 상세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개별 통보)

###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100백만 원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 ○ 지원 방법

- 기업과 협약하여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에 직접 지원
- 자체 연구시설(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수행할 경우 기업에 연구비 직접 지원

### ○ 지원 조건

- 연구과제 성공기업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 형태 결과물 제출(특허획득 등)
- 신청금액의 10%이상 자부담 지출증빙서류 제출
- 중도포기 및 결과 미제출 시 지원불가

## 나. R&D 장비 공동활용 비용 지원( 비R&D 분야 )

### □ 추진개요

-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관내기업 활용 시 장비이용료를 보조하여 연구개발 활동 촉진 및 장비 활성화제고
  - 충북TP 등 장비지원 가능 혁신기관 목록 참조

###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도내 혁신기관의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하여 이너뷰티 제품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음성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 ○ 신청자격

- 음성군 관내 소재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관내 기업 중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장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 연구개발 방향 등 구체화 된 과제 수행방안 수립하여 신청(현실화 가능성)
- 공급업체 및 장비보유 혁신기관과 협약 체결 후 지원

- (자체공급 및 장비보유 기업의 경우 해당없음)

###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 / 현장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실현 가능성 검토 → 선정평가

#### ○ 평가기준

-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 지원계획

#### ○ 지원 내용

-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따른 공동장비 활용 지원

## □ 지원절차

절 차	주 체	주요역할 및 추진내용
↓ 사업 공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홈페이지 등 공고
↓ 기업 신청	지원기업	- 온라인 및 서면 접수 (장비보유 혁신기관과 사전 협의)
↓ 참여제한 요건 검토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기보유정보 통해 중복성 등 참여제한 검토
↓ 선정평가 (대면평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지역 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 선정결과 통보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결과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선정기업↔혁신기관 (충북TP 등)	- 협약

## ○ 제출서류 등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과제별 상세사업계획서, 공급기관 . 혁신기관 견적서, 회사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개별 통보)

## ○ 지원 규모

- 기업 당 최대 10백만 원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 ○ 지원 방법

- 기업과 협약하여 과업을 수행한 혁신기관에 직접 지원

## ○ 지원 조건

- 결과보고서(추진실적 및 성과 등 포함) 형태 결과물 제출
- 중도포기 및 결과 미제출 시 지원불가



## 다. 이너뷰티 시제품 제작 지원( 비R&D 분야 )

### □ 추진개요

-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및 원료구입비 등 포함)

### □ 세부내용

- 신청대상
  - 신제품 출시 이전 시제품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음성군 관내 소재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관내 기업 중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시제품 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
  - 시제품 개발 시안 등 구체적 제작안(디자인, 수량 등) 제시
  - 공급업체 및 장비보유 혁신기관과 협약 체결 후 지원
  - (자체공급 및 장비보유 기업의 경우 해당 없음)

### □ 지원절차

절 차	주 체	주요역할 및 추진내용
↓		
사업 공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홈페이지 등 공고
↓		
기업 신청	지원기업	- 온라인 및 서면 접수
↓		
참여제한 요건 검토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기보유정보 통해 중복성 등 참여제한 검토
↓		
선정평가 (대면평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지역 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		
선정결과 통보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결과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선정기업↔공급기업 ↔혁신기관(충북TP 등)	- 협약

##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 / 현장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실현 가능성 검토 → 선정평가

### ○ 평가기준

-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 지원계획

###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제품 설계 및 시험제작 지원
- 시제품 생산에 따른 공동활용 장비 사용료 등 지원

### ○ 제출서류 등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과제별 상세사업계획서, 공급기관 . 혁신기관 견적서, 회사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개별 통보)

### ○ 지원 규모

- 건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 ○ 지원 방법

- 기업과 협약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공급기업에 직접 지원
- 기업과 협약하여 공동활용 장비를 제공한 혁신기관에 직접 지원
-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시제품 제작기업은 해당기업에 지원

### ○ 지원 조건

- 결과보고서(추진실적 및 성과 등 포함) 형태 결과물 제출
- 중도포기 및 결과 미제출 시 지원불가

## 라. 이너뷰티 사업화 패키지 지원( 비R&D 분야 )

### □ 추진개요

- 국내 및 신남방 등 해외 이너뷰티 시장 선점을 위한 통합 패키지 지원사업

### □ 세부내용

#### ○ 신청대상(통합 패키지 지원)

- 이너뷰티 제품개발을 완료하여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기업
- 홈페이지 구축, 기업홍보 브로셔 등 홍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
- 제품디자인 개발 및 수출계약서 작성, 검토 필요로 하는 기업

#### ○ 신청자격

- 음성군 관내 소재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 □ 지원절차

절 차	주 체	주요역할 및 추진내용
↓		
사업 공고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홈페이지 등 공고
↓		
기업 신청	지원기업	- 온라인 및 서면 접수
↓		
참여제한 요건 검토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기보유정보 통해 중복성 등 참여제한 검토
↓		
선정평가 (대면평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지역 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		
선정결과 통보	충북지식산업진흥원	- 결과통보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협약	선정기업↔공급기업 ↔혁신기관	- 협약

## □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 / 현장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실현 가능성 검토 → 선정평가

### ○ 평가기준

-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

## □ 지원계획

### ○ 지원 내용

세부내용	지원 기관	지원 금액 (천원)	기업 부담 (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켓지역 시장조사분석</li> <li>• 홈페이지 구축</li> <li>• 기업홍보 브로셔</li> <li>• 제품디자인개발</li> <li>• 수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li> <li>• 대중매체 및 소셜미디어 홍보비 지원 등</li> </ul>	충북지식산업 진흥원	10,000 /기업 당	총사업비의 10% 이상

### ○ 제출서류 등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과제별 상세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 개별 통보)

### ○ 지원 규모

- 건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 ○ 지원 방법

- 기업과 협약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공급기업에 직접 지원
- 기업과 협약하여 공동활용 장비를 제공한 혁신기관에 직접 지원
-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시제품 제작기업은 해당기업에 지원

○ 지원 조건

- 결과보고서(추진실적 및 성과 등 포함) 형태 결과물 제출
- 중도포기 및 결과 미제출 시 지원불가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매출 증가 기대효과

구분	'20	'23	'26
매출 증가	5%	10%	20%

시장점유율 기대효과

구분	'20	'23	'26
시장 점유율	5%	10%	20%

### 나. 정책적 효과

- 지역특화산업으로 이너뷰티 산업의 선정은 지역 내 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들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음
- 또한 신남방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신남방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등의 큰 국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음
-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의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는 지역의 고용을 확대시켜 인구문제등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음



# 11. 단양군

# I. 석회석-비금속 산업의 특화산업 육성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및 목적

### 가. 추진배경

- 단양군은 중부 내륙권 중 '석회석-비금속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원산업'과 관련한 생산기반 및 여건이 우수한 지역임
  - 통계청 KOSI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비금속 광물 제품 사업체 수는 2,674개이며, 이중 석회석 제품 사업체 수는 54.0%에 해당하는 1450여개 업체가 있음
  - 중부 내륙권의 석회석 관련 사업체수는 전국 대비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은 약 30%가 중부내륙권에 위치함
  -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단양지역 106개 업체 중 석회석 관련 제조업은 시멘트 3개사, 석회, 플라스터, 콘크리트 12개사, 비금속광물 분쇄 9개사, 레미콘 7개사로 전체의 약 30% 수준이며 매출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함
  - 단양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단양지역에 소재한 3만 명의 주민 중 석회석-비금속 산업에 직접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수는 약 1,200명 내외로 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경우 약 1만5천 명 정도가 해당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받고 있음
- 단양군 및 인근지역을 포함한 지역은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회석-비금속 분야 제조/가공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한다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함
  - 단양군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석회석 산업 집약지로서 국내 가채광량(약 200억 톤) 중 고품위 석회석의 50%이상(약 20억 톤)을 보유하고 있음
  - 기존의 시멘트 산업과 연계된 안정적인 원료수급, 물류여건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석회석-비금속 고부가가치 소재 기업들의 입지조건이 매우 우수함



국내 비금속 광물제품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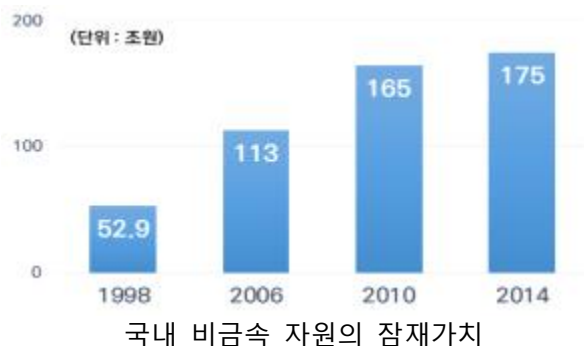


단양군 관내 석회석 관련 사업체수

국내 비금속 광물제품의 광종별 사업체수 및 단양군내 관련 사업체 현황

- 앞으로 석회석 산업의 기반을 집단화, 첨단화 및 전문화하여 고기능·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원료물질 개발에서부터 신소재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공정의 기술혁신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석회석-비금속 산업에 속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생산, 금융, 마케팅 및 유통, 인력양성,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방안 확보가 필요함**
- 2018년 충청북도 내 자원집적도, 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 및 시군구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석회석-비금속 광물자원 특화 산업 지원은 스마트 IT 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 소재 부품 산업과도 관련성이 높아 충북 지역을 연결하는 기초소재 벨트(Belt) 구축에 전략적 가치가 높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의 제약 산업 분석보고서와 화장품산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원료시장의 전체 세계시장(11,299억 원)에서 광물기반 원료의약품의 비중은 2.3%를 차지하고 있고, 화장품 전체 세계시장(2,713억 원)에서 광물기반 화장품 원료의 비중은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산업광물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과 인간의 건강을 연계한 메디컬 광물 자원학이 새로운 융합연구 분야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신 성장산업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신소재로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북 북부권에 위치한 석회석-비금속 전략광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광물과 남부권에 위치한 첨단산업(예, 바이오산업,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이 연계하는 신성장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본 특화산업 육성의 당위성은 국내 자원산업의 재도약과 고부가 기술 집약형 체질 개선을 통해 충북 북부권의 산업광물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국내 비금속자원의 가치 및 광물기반 의약 화장품 시장 규모



구분	세계시장	국내시장
의약품	11,299	192
원료의약품	1,316	27
광물기반 원료의약품	262	5
화장품	2,713	140
화장품원료	244	12
광물기반 화장품원료	48	3

의약/화장품 분야 광물원료시장 현황 (단위: 억 원)



## 나. 추진목적

- 석회석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시멘트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신소재 첨단 산업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함
- 석회석 산업 전시회에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단양의 석회석 산업을 적극 홍보하여 단양의 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 함
- 더불어 충북 남부권에 위치한 바이오, 화장품 산업과의 공급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여 국내 광물기반 바이오, 화장품 원료 산업을 육성함

### 석회석-비금속 광물기반 융·복합 산업 조성 및 활성화

국내 석회석-비금속(산업광물) 자원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관·산 협력형 사업화 모델 발굴

#### 산업화(기술개발) 전략

1. 비금속 광물의 융복합산업화 가능성
2. 비금속 광물 분야의 차별화 전략
3. 고부가가치 신소재 첨단 산업 개편



#### 기업지원 전략

1. 석회석 산업 전시회 참여 및 홍보
2. 품질 기반 산업광물 인증
3. 광물기반 바이오, 화장품 원료 산업 육성

- ▶ 석회석-비금속 광물 개발 정책 수립 시 융복합산업화의 필요성 및 전략적 방향성 도출
- ▶ 국내 비금속광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 고수의 융복합산업화 연계를 통한 국내 비금속광업 활성화 유도
- ▶ 국내 비금속광업의 기술 집약 4차 산업 진입계기 마련

사업의 추진목적

### 3. 추진경과

#### 가. 특화산업 발굴 추진경과

- 충청북도 및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 회의(2019. 2.)
  - 지역특화산업 발굴 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 단양군 지역경제과(2019. 3.)
  - 지역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선정
- 충청북도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설명회(2019. 4.)
  -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및 의견수렴
- 단양군 지역경제과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회의(2019. 4.)
  - 선정 지역특화산업 타당성 검토
  - 지역특화산업 육성 방안 협의
- 단양군 지역경제과(2019. 4.)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회의 결과 검토
  - 지역특화산업 재선정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컨설팅(2019. 4.)
  - 선정 지역특화산업 타당성 검토
  - 지역특화산업 육성방안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협의
- 단양군 지역경제과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회의(2019. 4.)
  - 지역특화산업 지원 방안 협의 및 확정
  - 사업계획서 작성 방안 확정

## 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석회석-비금속 산업광물 기업 수요조사

#### ○ 석회석 활용 21개 업체 공동 애로사항 및 현안

- 고품위석회석 원석 수급 불안정
- 광산 및 석회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품위석회석의 활용
- 자체 연구능력 부족 (시멘트사 및 일부 중견 석회업체만 연구소 운영)
- 기업 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정보교환, 공동대응 부족
-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기업교류 및 마케팅 지원
- 청년고용의 어려움 (대부분의 석회업체의 영세성으로 고령 작업자가 많음)
- 업체별 협력방안 모색 필요 (아래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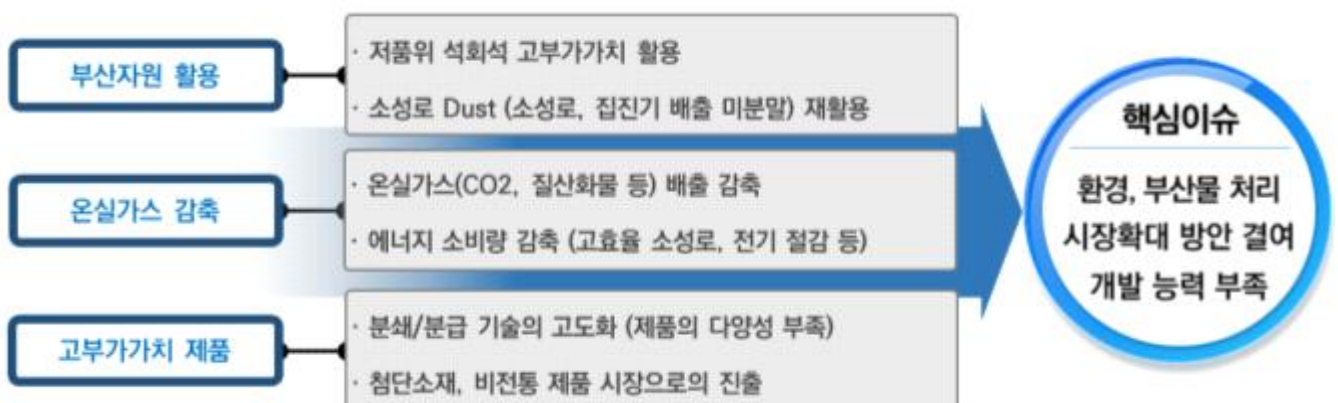
#### 업체별 산학연 협력방법 및 요청사항

번호	기업명	사업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산학연 협력방안							
			장비 활용	교육 연계	기술 상당	정보 제공	기술 지도	기술 이전	공동 연구	창업 지원
1	광진산업(주)	장비활용, 기술지도 및 이전	√	√	√	√	√	√	√	
2	(주)대한분체	장비활용, 기술지도	√		√	√	√			
3	송천광업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			√			√	
4	동흥소재	장비활용	√		√	√			√	
5	현대석회(주)	장비활용 및 개방실험실	√			√		√	√	
6	성우라임(주)	공동연구	√	√	√	√		√	√	√
7	삼원산업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		√	√			√	
8	(주)덕성산업	장비활용	√			√				
9	동흥소재	기술이전				√		√		
10	(주)백광소재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	√		√			√	
11	(주)서암	창업지원			√	√	√			√
12	(주)삼보광업	장비활용	√			√	√			
13	대성MDI	장비활용	√	√		√			√	
14	한일시멘트(주)	장비활용 및 교육연계	√	√		√			√	
15	성신양회(주)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	√		√			√	
16	현대시멘트(주)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	√		√			√	
17	(주)우룡	장비활용 및 기술지도	√		√	√	√			
18	영화광업소	장비활용 및 기술지도	√		√	√	√		√	
19	담우물산(주)	장비활용, 공동연구 및 창업지원	√		√	√			√	√
20	용정광업(주)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			√			√	
21	(주)아진	장비활용 및 기술지도	√			√	√			
합계			19	7	9	21	7	4	14	3

## □ 석회 제품 활용기업 대상 조사결과

### ○ 석회석 원석 판매업체

- 이하 원석의 활용방안 (석분처리 문제 심각)
- 고효율 파분쇄 기술 및 채광기술 개선 (시설현대화 및 광산안전 개선필요)
- 원석 가격이 수요가 부족해도 바뀌지 않음 (광물가격 고시 문제와 연결)
  - 비료(석회비료, 석회고토비료 등) 업체
- 입상비료 공급량 감소 (구제역용 생석회 수요는 늘고 있으나 비료는 감소)
- 제품 제조/건조 과정에서 악취로 민원 증가
- 새로운 사업화 분야 진출 필요
  - 분체제조회사
- 일부대기업이 시장(원석/수요처)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시장 진출에 어려움
- 수요-공급 업체 간 정보부족으로 시장형성이 어려움 (대형 B to B 유통망 필요)
  - 기타 소재분야 업체
- 해외업체 대비 제품의 다양성 부족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능력 부족과 연계됨)
- 2차 가공제품(질산칼슘, 인산칼슘, 초산칼슘) 개발에 어려움
- 규석 및 규사를 활용한 Fly Ash 대체품 개발 필요
- 탄산칼슘을 활용한 Mica, Talc의 대체기술 확보 필요 (플라스틱 산업 연계)



조사대상 업체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 II. 시군 지역여건 분석

### 1. 지역 일반현황 분석

#### 가. 지리적 현황

##### □ 위치

- 단양군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인 충북의 최북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풍기읍,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예천군과 문경시, 서쪽으로는 제천시와 경계하고 있는 3도 접경의 도경계를 형성
- 단양군에서 도청소재지인 청주까지 147km 떨어져 있고, 제천시와는 30.8km, 충주시까지는 79.5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음. 단양군의 면적은 780.70km<sup>2</sup>로서 전국 대비 약 0.8%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10.5%임
- 토지 종별면적의 비율은 임야가 82.3%, 농경지가 9.7%, 기타 8.0%등으로 구성됨

##### □ 지형

- 단양군은 동남쪽의 소백산맥, 북서쪽은 영춘면 의풍리의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죽령에서 형제봉까지의 소백산맥과 중앙부를 향한 경사면이 본 군에서 가장 높고 험준함
- 산맥의 변성암 지대에 이어지는 퇴적암 지대는 경사가 가파르고 드러난 암석들이 날카로우며 여러 개의 동굴이 형성되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산맥에는 높은 봉우리들이 있으며, 이 산들에서 본 군의 중앙을 관통하는 남한강을 향해 산줄기가 뻗어 내려 있음. 이들 산줄기 사이로 여러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단양의 소하천들은 유역 면적이 좁고 그 길이가 짧은 편임

##### □ 기후

- 단양군은 내륙 산간지대에 위치하여 기온의 교차가 심한 내륙성 기후로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음
- 동쪽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의해 이중으로 막혀 있고, 서쪽은 제천시의 서쪽 경계에 있는 치악산에서 천등산에 이르는 높은 산지와, 북쪽은 영월군 영월읍, 영월군 주천면, 제천시 송학면, 원주시 신림면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맥으로 가려져 있어서 계절별 기온차가 크며 강수량도 태백산맥 이동(영동지역)이나, 본 군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영서지방 보다 현저히 적음. 따라서 폭우와 폭설은 물론 강풍도 적은 편임
- 평균기온은 10.1도이며, 강수량은 1,525mm, 평균습도는 63.7%임

## 나. 인구 현황

□ 인구 및 세대현황: 30,121명, 15,140세대(2019. 3. 31. 기준)

□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2019. 3. 31. 기준)

인 구 구 조			인구수	구성비	
인구구조		연 령(만)	계	30,121	100.00%
			남	15,183	
			여	14,938	
	유년층	( 0~14 )	계	2,350	7.80%
			남	1,429	
			여	1,101	
경 제 활 동 인 구	청년층	( 15~29 )	계	3,759	12.48%
			남	2,081	
			여	1,678	
	중년층	( 30~54 )	계	8,720	28.95%
			남	4,741	
			여	3,979	
	장년층	( 55~64 )	계	6,828	22.67%
			남	3,505	
			여	3,323	
	노년층	( 65~ )	계	8,464	28.10%
			남	3,607	
			여	4,857	

○ 인구추이

연도별	인구수			세대수	비 고
	남	여	계		
1960	32,331	32,503	64,834	11,911	
1965	42,796	40,759	83,555	14,205	
1970	47,716	45,208	92,924	17,083	최대인구(1969) 93,948명
1975	46,623	43,131	89,754	16,613	
1980	37,574	35,372	72,946	15,133	
1985	32,610	30,355	62,965	14,599	
1990	25,245	24,383	49,628	13,518	
1995	22,470	21,888	44,358	13,192	
2000	18,072	18,022	36,094	12,384	
2005	17,580	17,162	34,742	13,008	
2010	16,081	15,736	31,817	14,037	
2015	15,496	15,265	30,761	14,637	
2019	15,183	14,938	30,121	15,140	2019. 3. 31. 기준

## 다. 일반 현황

- 의료기관: 18개(요양병원 1, 의원 7, 한의원4, 치과 6)
- 자동차: 15,846대(승용 9,764대 / 승합 728대 / 화물 5,085대 / 특수 269대)
- 학교: 18개교(학생 수 2,371명, 초등 11개소 / 중등 5개소 / 고등 2개소)
- 1인당(GRDP) 지역내 총생산: 41백만 원(2016년 기준/ 전국 32백만 원, 충북 35백만 원)
- 재정규모: 3,299억 원(재정자립도 9.7%, 2018년도 본예산 기준)
- 행정구역: 2읍 6면 151리 685반

## 2. 지역 산업현황 분석

### 가. 기업체 현황

#### □ 지역 대표 기업 현황

##### ○ 시멘트 업체

- 한일시멘트(주)는 연 810만 톤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1위의 시멘트 제조업체로 단양군 매포읍에 노천광산, 6기의 시멘트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성신양회(주)는 연 400만 톤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보유한 시멘트 제조업체로 단양군 매포읍에 2곳의 노천광산과 4기의 시멘트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 석회가공 업체

- (주)백광소재는 국내 유일의 석회가공 관련 대기업으로 석회석 가공제품 일관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

##### ○ 석회 2차제품 업체

- (주)성원파일은 시멘트/콘크리트 2차 제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기업으로 성원파일(주), 성원건설㈜, 성원콘크리트㈜, 성원레미콘아스콘㈜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주)데코페이브는 시멘트 콘크리트 2차 제품인 기능성 보도블록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대기정화기능이 부여된 광촉매 기능성 보도블록 등 고부가가치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 ○ 기타 업체

- (주)지알엠은 LS닛코동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도시광산형 귀금속 및 고부가가치 원료 제련생산 기업임

업체명	대표자	주생산품	소재지
성신양회(주)	김영찬	시멘트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8
한일시멘트(주)	곽의영	시멘트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245
(주)백광소재	문희철	생석회, 소석회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1295-14
(주)지알엠	최차실	제련	단양군 매포읍 매포농공단지로 260
(주)성원파일	장태순	콘크리트 제품	단양군 매포읍 단양산업단지2로 47



□ 일반 기업체 현황 (본 사업추진 관련 기업체 수 : 33개 업체)

업체명	주생산품	업체명	주생산품
대상(주)	육류 처리업	(주)강농	농업용 기계
성원파일	콘크리트 2차제품	벌천오미자영농조합법인	과실 채소
(주)협신기계제작소	기계 제조	(주)삼보광업	백운석, 고토비료
(주)라인플러스	회화용품, 화장품	(주)브이팩솔루션	화장품
한일현대시멘트(주)	시멘트	(주)도담산업	금속 제품
(주)데코페이브	콘크리트 벽돌,블록	(주)유니트론 단양지점	부직포,침구제품
대동안전(주)	일반용 도로	단양폐차장	토목 기계
수풍산업(주)	운동 및 경기용구	대흥철강	비철금속
(주)미창	비내화 모르타르	(주)참좋은생명의집	건강보조식품
태거산업(주)	플라스틱 제품	(주)경성산업	화학 제품
현대석회(주)	석회및플라스터	(주)아울	방송 장비
(주)네이처스푸드	육류, 수산물	성우라임(주)	석회 및 플라스터
광진산업(주)	석회 및 플라스터	중앙자원(주)	비금속광물분쇄물
(주)성우	산업용 오븐	(주)기정소재	석회 및 플라스터
동흥소재(주)	석회및플라스터	(주)황토빌	점토벽돌,블록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	과실 채소	금수산황토산업	점토벽돌,블록
(자)호신아스콘	레미콘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과실, 채소
(주)신일신소재	비금속광물분쇄물	JK모터스	토목, 기계 장비
고려포장(주)	종이포대 및 가방	평강영농조합법인	곡물도정
용상종합정비주식회사	토목, 기계장비	평동자동화(주)	기기 제어장치
삼원산업	비금속광물분쇄물	(주)리맥스	비철금속
한일건재(주)단양공장	비금속광물분쇄물	단양금속소재공업(주)	비철금속
(주)대영산업	골판지	대성공예	장식용 목제품
(주)삼덕레미콘	레미콘	태광중기공업사	토목, 기계 장비
(주)우덕레미콘	레미콘	청석공업사	토목, 기계 장비
단양군산림조합	목재	영농조합법인울산민들레	건강기능식품
소백농협발효퇴비공장	비료	소백산술도가	탁주 및 약주
(주)하천환경	금속 제품	(주)단양클로렐라	식품첨가물
세온기업(주)	연탄, 석탄	풍성약업(주)	한의약품
장익는마을영농조합법인	장류	태봉광업(주)단양공장	석회 및 플라스터
씨알에프앤씨(주)	채소절임식품	단양석공예	석제품
(주)구조토세상	목재 및 도로	주식회사 비엠씨	비금속광물분쇄물
(주)브이팩에프앤씨	화장품	사랑의집	장류
성원콘크리트(주)	레미콘	청암도민장	장류
(주)성원안전산업	금속 관련 제품	삼화건설환경(주)	석제품
(주)새찬알디에프	비금속 원료 재생	화창산업(주)	석제품
제일산업(주)	아스콘	성원중기공업사	토목, 기계 장비
오성산업개발(주)	일반용 도로	행운가구	목재 가구
대강양조장	탁주 및 약주	에코브(주)	비료
(주)다정테크	고무제품	신보특수강	강주물
소백산영농조합법인	곡물	라이프퍼니처	목재 가구
우성기계	컨베이어장치	단구제지	종이 및 판지
대신레미콘(주)	레미콘	(주)영화케미칼	비금속광물분쇄물
농업회사법인인두승식품(주)	장류	단양요	도자기
대한분체(주)	석회및플라스터	대성토건	콘크리트 제품
(주)성진	전기 조명장치	단양정미소	곡물
류성내화공업사	비금속광물분쇄물	영신석회공업사	석회 및 플라스터
(주)신화테크놀로지	비금속광물분쇄물	사평정미소	곡물

## 나. 생산현황

### □ 지역총생산(GRDP) 현황

- 단양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2016년 1,236,679백만 원으로 나타남
- 같은 해의 충청북도의 지역내 총생산은 56,600십억 원으로 나타남

행정구역	경제활동별	당해년가격(백만 원, 2016년)
단양군(GRDP:지역내 총생산)	지역내 총생산(시장가격)	1,236,679
	순생산물세	93,498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143,182
	농림어업	32,700
	광업	46,939
	제조업	455,95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4,041
	건설업	115,076
	도매및소매업	22,880
	운수업	98,226
	숙박및음식점업	31,542
	정보및통신업	7,954
	금융및보험업	29,941
	부동산업및임대업	42,690
	사업서비스업	20,15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25,368
	교육서비스업	9,11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2,57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48,019

자료 : GRDP-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6년

□ 2017년도 국내 광산물 총 생산액 중 석회석의 비중이 66.9% (2016년 69%)이며, 무연탄 12.2%, 규석 4.4%, 고령토 1.8%로 석회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7년도 비금속광은 생산 1조 7055억원, 수입 8027억원, 수출 1736억원으로 전년대비 국내 생산 7%, 수입 12%, 수출 13%로 증가하였으며 석회석, 규석, 규사, 규조토, 사문석, 납석, 명반석, 고령토 등은 전년대비 증가함

※ KIGAM 광물자원통계포털 참조

2017년 생산, 수입 수출 상위 5개 광종

순위	국내생산		수입		수출	
	광종명	비율 (%)	광종명	비율 (%)	광종명	비율 (%)
1	석회석	66.9	유연탄	45.2	동광	36.7
2	무연탄	12.2	철광	18.4	황	27.1
3	규석	4.4	동광	12.0	몰리브덴 광	6.4
4	고령토	1.8	아연광	7.0	활석	3.3
5	규사	1.1	연광	5.4	티타늄 광	3.2

연도별 석회석 생산량 (단위 : MT)

광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석회석(각급)	3,603,583	4,184,404	4,194,744	4,056,655	3,569,603	3,777,510	4,334,086

2017년 지역별 석회석 생산광산 수

지역	석회석		
	석회석	방해석	백운석
강원도	38	7	8
충청북도	20	2	11
충청남도	7	-	1
경상북도	10	5	1
전라도	1	-	3

연도별 시멘트 업체별 생산량 (단위 : 천 톤)

구분	Clinker 생산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쌍용	13,364	13,338	12,777	12,866	13,271	13,403
삼표	8,147	8,425	8,050	7,767	7,429	8,014
한일	5,464	5,267	5,283	5,424	5,484	6,276
현대	3,925	4,231	4,131	4,086	4,370	4,793
성신	4,773	5,381	5,618	5,170	5,615	6,675
라파즈 한라	6,058	5,060	5,002	5,910	5,907	5,828
아세아	2,834	2,802	2,816	2,901	2,737	3,454
고려	655	651	705	691	687	705
합계	45,221	45,155	44,382	44,815	45,500	49,148

## 다. 고용현황

업체명	고용인원(명)	업체명	고용인원(명)
성신양회(주)	414	류성내화공업사	5
한일시멘트(주)	292	(주)신화테크놀로지	5
(주)백광소재 단양1공장	220	(주)강농	5
성원파일(주)	113	벌천오미자영농조합법인	5
대상(주)	96	(주)삼보광업	5
(주)지알엠	82	(주)브이팩솔루션	4
(주)협신기계제작소	70	(주)도담산업	4
(주)라인플러스	66	(주)유니트론 단양지점	4
한일현대시멘트(주)	41	단양폐차장	4
(주)데코페이브	38	대흥철강	4
대동안전(주)	32	(주)참좋은생명의집	4
수풍산업(주)	29	(주)경성산업	4
(주)미창	27	(주)아울	4
태거산업(주)	26	성우라임(주)	4
현대석회(주)	22	중앙자원(주)	4
(주)네이처스푸드	20	(주)기정소재	3
광진산업(주)	20	(주)황토빌	3
(주)성우	20	금수산황토산업	3
동흥소재(주)	20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3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	15	JK모터스	3
(자)효신아스콘	15	평강영농조합법인	3
(주)신일신소재	14	평동자동화(주)	3
고려포장(주)	13	(주)리맥스	3
용상종합정비주식회사	12	단양금속소재공업(주)	3
삼원산업	12	대성공예	3
한일건재(주)단양공장	11	태광중기공업사	3
(주)대영산업	9	청석공업사	2
(주)삼덕레미콘	9	영농조합법인올산민들레	2
(주)우덕레미콘	9	소백산술도가	2
단양군산림조합	8	(주)단양클로렐라	2
소백농협발효퇴비공장	8	풍성약품(주)	2
(주)하천환경	8	태봉광업(주)단양공장	2
세온기업(주)	8	단양석공예	2
장익는마을영농조합법인	8	주식회사 비엠씨	1
씨알에프앤씨(주)	8	사랑의집	1
(주)규조토세상	8	청암도원장	1
(주)브이팩에프앤씨	7	삼화건설환경(주)	1
성원콘크리트(주)	7	화창산업(주)	1
(주)성원안전산업	7	성원중기공업사	1
(주)새찬알디에프	7	행운가구	1
제일산업(주)	7	에코브(주)	1
오성산업개발(주)	7	신보특수강	1
대강양조장	7	라이프퍼니처	1
(주)다정테크	6	단구제지	1
소백산영농조합법인	6	(주)영화케미칼	1
우성기계	5	단양요	1
대신레미콘(주)	5	대성토건	1
농업회사법인두승식품(주)	5	단양정미소	1
대한분체(주)	5	영신석회공업사	1
(주)성진	5	사평정미소	1

## 라. 연구동향

- 2010년 이후 국내에 부존한 석회석-비금속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 증대 및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기술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
- 2010년 이전의 기술개발의 경우 주력기간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료광물의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단기적으로 국내 석회석-비금속 산업에서 요구하는 해외기술을 벤치마킹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추격자형' 연구가 수행됨
- 그러나 추격자형 기술개발의 특성상 해외제품과의 차별성이 적고 광물원료의 품질차이 등으로 인해 신규시장 창출로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적은 편임
- 최근에는 첨단산업 및 환경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함에 따라 석회석-비금속 신소재 자원기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함
- 석회석 자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으로 차세대 성장동력화 할 수 있는 기술에 부합한 신기술의 접목으로 변모하고, 기존의 자원기술과 차별화를 유도함
- 국내 철강 산업의 위축에 따른 가용자원의 전환을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됨
- 출연연 및 전문연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요소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 기업을 통한 사업화는 물론 중국, 동아시아에 핵심요소가 되는 적정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추진함
- 탈추격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한 시장모델 확보가 필요하나 불확실과 복잡성이 높은 조건에서 수행됨에 따라 투자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아직까지 광물자원·부품소재 산업은 선도형 R&D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외부지원을 통해 불확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유효함

추격형과 선도형 기술개발 전략 비교

분류	추격형 R&D 전략		선도형 R&D 전략	
	경로추종	경로확인	경로탐색	경로창출
문제의식	모방문제 풀기	기존혁신문제 풀기	새로운 혁신문제 정의	새로운 혁신문제 풀기
해결문제	확실	확실	불확실	확실
해결방법	확보가능	불확실	불확실	불확실
기술혁신방법	집단학습	집단재조합	집단창조	집단창조/재조합
핵심요소	역행엔지니어링	공정기술	원천기술/아키텍처/디자인	아키텍처/디자인/공정기술

□ 이와 더불어 새로운 석회석 활용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첨단화, 친환경화 기술 및 가치사슬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과 같은 혁신적 사회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모델 구축도 함께 연구되고 있음

- 국내 석회석-비금속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화를 기반으로 친환경화 생산 공정 구축이 필수적임
- 그러나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라도 생산규모, 투자여건과 맞지 않아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 산업 전환 및 지역사회와 성장을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원산업 육성방안이 필요함
- 석회석-비금속 산업의 첨단소재 및 신규산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생석회 및 소석회 산업 → 환경소재 산업(발전, 반도체)으로 주력
  - 중질탄산칼슘 산업 → 도료, 플라스틱 첨가제 시장 확대, 대체제로 활용
  - 침강성 탄산칼슘 및 Hybrid 산업 → 첨단소재, 공학 소재로 범위확대



자원산업 R&D 방향 : 혁신적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산업모델 구축

## 마. 기업 투자동향

### □ [시멘트 산업] 온실가스, 미세먼지 관련 오염방지시설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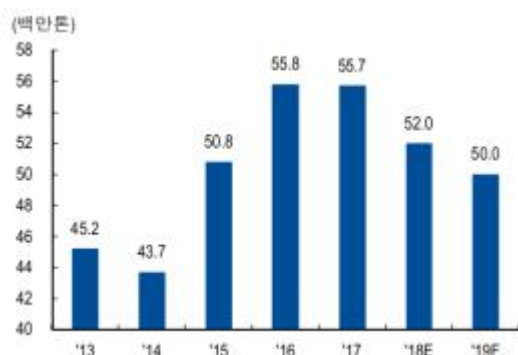
- 중장기적으로 시멘트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적 투자 감소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 (열교환형 발전, 스팀 재활용) 등의 간접시설 투자 및 저에너지 시멘트 (CSA, CSC, FAC, SLAGC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투자 추진
  - 해외 시멘트 업체와 비교하여 수익률이 낮아 투자에 매우 소극적
  - 저에너지 시멘트 제품의 경우 일부 시멘트 업체에서 실생산공정에서 시험생산을 테스트하는 단계에 진입
- 2018년 질소산화물 부과금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오염 저감시설 투자 추진
  -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 관련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 [석회석 산업] 생산량 증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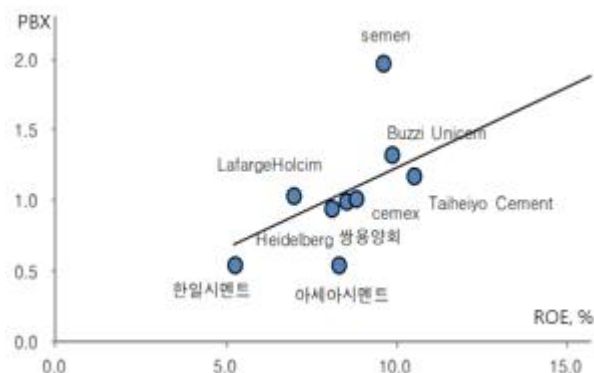
- 기존 소형소성로를 이용한 생산형태에서 대형고효율 소성로 생산체제로 전환 중
  - 생산량 증가에 더불어 미활용 부산물도 함께 증가하여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활용방안 확보를 위한 기술수요 증가 예상
- 대형화, 고효율화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격차 발생 예상
  - 15-30인 규모의 석회석-비금속 기업의 투자부담 증가 예상

### □ [기타 비금속 산업] 환경소재 원료 및 대체제 원료 생산 투자

- 중국산 1차 광물제품 수출 중단으로 국내 비금속 자원산업의 경쟁력 증대
- 국내산 광물의 낮은 품질로 활용분야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 확대



연도별 시멘트 수요예측 (수요 감소 추세)



국내 시멘트사의 수익 (업종 평균보다 낮음)

국내 시멘트 수요 및 주요 기업의 비교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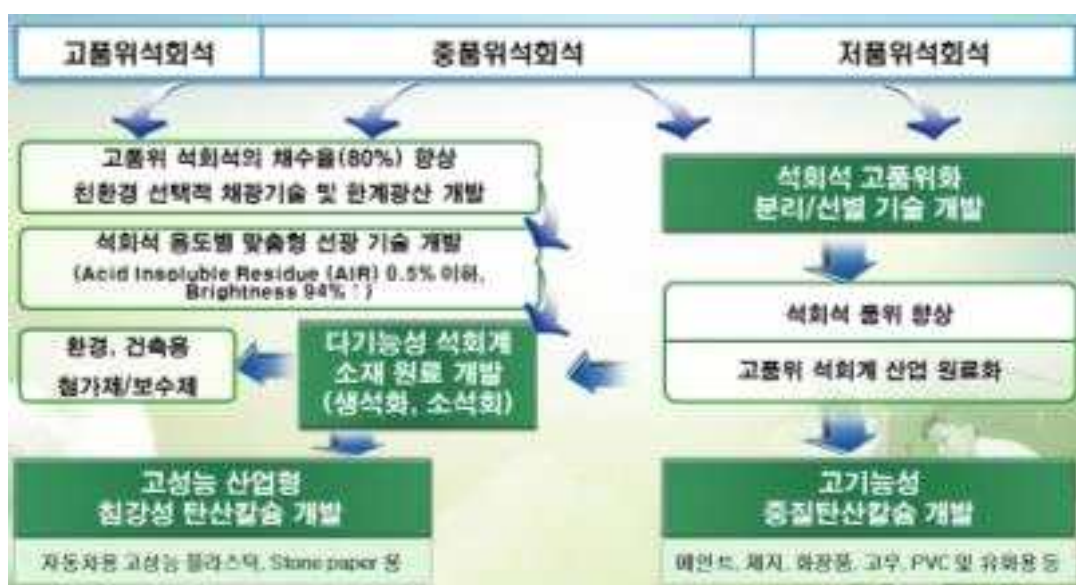
## 바. 혁신자원 현황

### □ 기술개발을 위한 단양군 혁신자원 현황

- 단양군은 혁신자원으로 국내 시멘트-석회가공 산업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석회석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13명을 활용한 기술개발 서비스 제공
  - 90여종의 시험분석/시제품제조 장비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부담 경감
  - 13종의 파일럿급 시험생산 설비를 운영하여 신규시장 진입 리스크 최소화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국내 자원분야 출연연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의 기술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업체에 제공

### □ 석회업체가 보유한 혁신자원 현황

- 국내 1위 시멘트업체인 한일현대시멘트의 단양공장 및 R&D 센터 위치
  - 시멘트 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증화를 추진하고 있는 성신양회 단양공장 및 기술개발 연구소 위치
  - 국내 최대 석회제품 생산업체인 백광소재 1,3 공장 및 R&D 센터 위치
  - 국내 최고수준의 석회제조시설을 보유한 대성엠디아이 공장 및 기술연구소 인접
- 단양군의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요소별 정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혁신역량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2013년 산업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립된 국내 석회산업의 혁신역량 목표



## 사. 정책지원현황

- 단양군은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설립/운영을 통해 석회원료 및 석회가공제품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수행
  - 2003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설립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참여 및 지자체 지원형 연계사업 추진
  - 2004년 산업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을 통해 중부 내륙권 석회석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지원
- 2011년부터 석회석 품질관리 분야 KOLAS 인정취득 및 시험분석서비스를 제공
  - 2007년 정부출연연구소의 보유기술을 관내기업에게 보급하기 위한 기술이전 추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유 고기능성 침강성 탄산칼슘 제조기술 분야
  - 2010년 산업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충북, 강원권 석회가공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생산기술 개선 지원사업(비R&D 수행)
- 국내 시멘트 업체 그린인정 취득 및 석회업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대응 지원
  - 2013년 및 2014년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발전산업-석회산업산 연계 기술개발 지원
- 단양군은 타 시군과 달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넘어 기술개발, 수요처 발굴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차별성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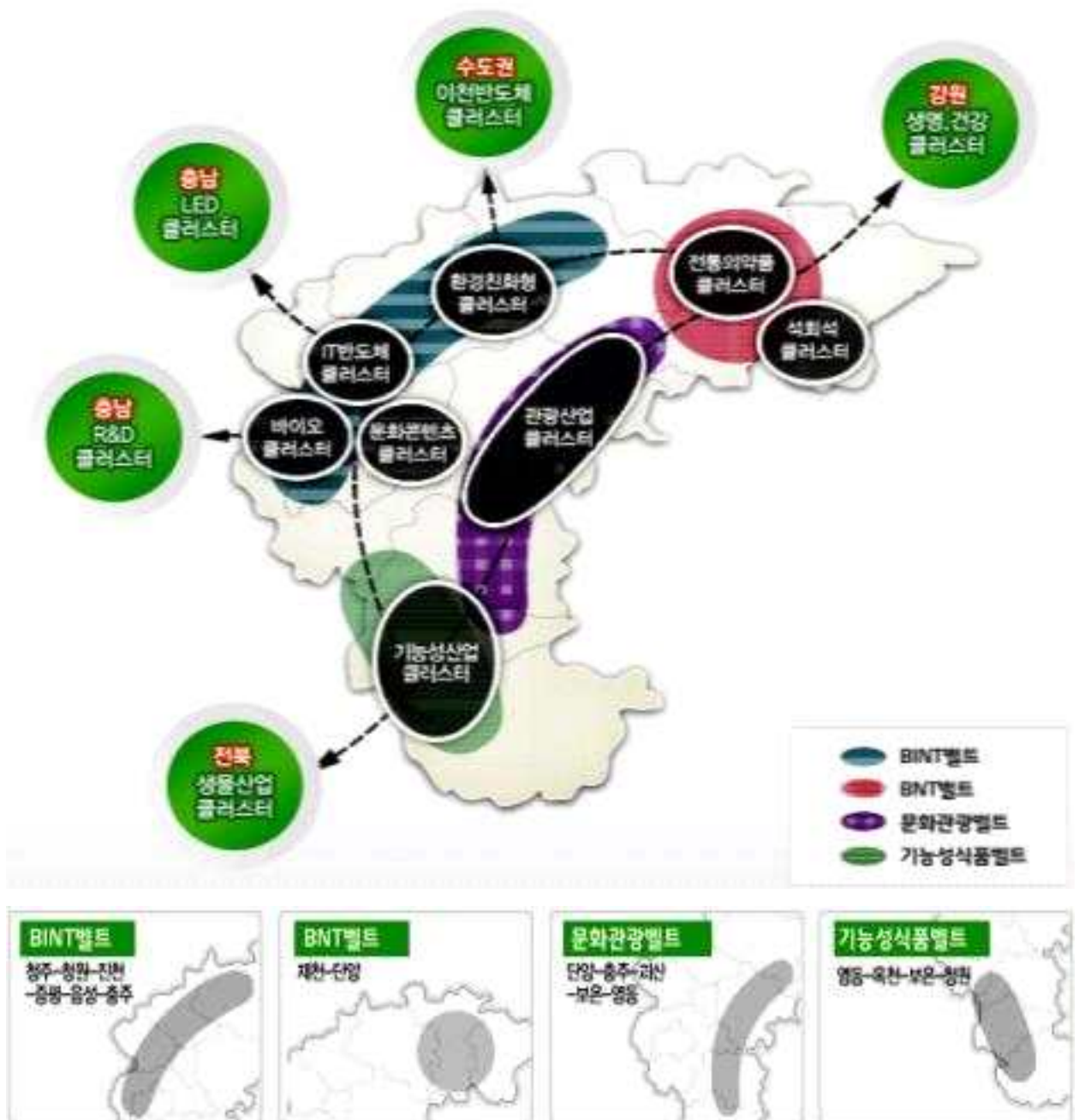


단양군-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수행한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모델

### 3. 주요 이슈 및 전망

□ 충청북도는 역량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산업/자원/기능/연계성 등을 고려해 4개 벨트와 8대 클러스터를 설정함

○ 4대 전략산업 : 바이오산업, 반도체 산업, 차세대 전지사업, 부품소재 사업



충북 첨단산업 4대 벨트 및 8대 클러스터

□ 8대 클러스터 중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양군 및 인근 지역으로 석회석신소재산업단지를 집적화하여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산업지구 개발을 도모함.

○ 국내 석회석 관련 사업체 수는 약 1,500여개로 우리나라 비금속 광물 산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양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석 관련 제품 생산지로서 기반이 확충되어 있음

충북지역 내 8개 클러스터

구 분	거점	영향권역	핵심주체	주요기술분야
① 생명산업 클러스터	오송 오창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신약청 등 보건의료 4대 국책기관,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바이오신약, 바이오장기
② 차세대반도체 클러스터	청주 오창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충북테크노파크, 하이닉스, BK21, 지식산업진흥원, 현대오토넷 등	반도체, 차세대에너지
③ 에듀테인먼트 클러스터	청주	청주, 청원	첨단문화산업단지, 디자인센터 등	에듀테인먼트, 게임
④ 석회석신소재클러스터	단양	단양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광촉매콘크리트, 지능형 시멘트
⑤ 전통의약산업 클러스터	제천	제천, 오송 진천, 음성	전통의약산업센터	한방신약, 생태치료 (에코세라피)
⑥ 문화관광산업 클러스터	충주 단양 괴산	도내 전 지역	세계무술테마파크	중원문화, 청풍호반관광
⑦ 환경산업 클러스터	충주	충주, 음성 진천, 청원	환경친화형 기술공원	IT 부품, 소재 환경 시험/특성평가
⑧ 기능성식품 클러스터	영동 옥천	영동, 옥천 보은, 청원	바이오 테크노파크, 바이오기술교육센터	과일가공, 기능성식품

## □ 시멘트 산업 전망

- 시멘트 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장치산업으로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다소 어렵고, 중량물인 관계로 물류비용이 높아 내수의 비중이 높은 산업임
- 시멘트 산업은 건설경기의 변화에 민감하며, 기후조건 및 골조공사의 적합성 및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큼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CO<sub>2</sub>) 감축협약에 따라 시멘트 산업도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문제, 시멘트 생산으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전 세계 시멘트 시장은 2016년 3,60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9.27%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5,607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시멘트 시장은 최종 소비자 유형에 따라 주택 등의 거주용 건물 부분, 상업용 건물 등의 비거주용 건물 부분, 도로, 항구, 발전소 등의 기간산업 건설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2016년을 기준으로 거주용 건물 부분이 6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전 세계 시멘트 시장에서 시멘트 첨가제 시장은 2016년 188억 5,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4%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33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시멘트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16년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5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 시멘트 수요 전망(2019년)

- 시멘트 수요는 2018년(50,500천 톤) 대비 5% 감소한 48,000천 톤이 예상됨. 시멘트 수요와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건설투자액을 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및 시멘트 원단위분석의 평균값 결과는 올해 수요가 전년대비 2.6% 줄어든 49,200천 톤으로 전망됨. 여기에 9.13 부동산 대책, 주요공공기관 부채 증가 등 정성적 요인을 반영할 시 2.4%의 추가적인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총 수요는 48,000천 톤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시멘트 공급은 생산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48,610톤, 수입이 6.7% 줄어든 700톤 총 49,310톤 수준으로 전망
- 레미콘은 올해 작년(158,500천m<sup>3</sup>) 대비 7.3% 감소한 147,000천m<sup>3</sup>를 출하 할 것으로 예상

## 4. 시군 지역여건 분석 시사점 도출

- **(Keyword 1)** 국토종합계획에서 단양, 제천, 영월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균형개발의 거점을 형성하고, 지역의 세계와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10대 광역권 중 중부 내륙권에 포함됨
- 그러나 충북 단양군을 포함한 중부내륙권의 자원산업은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며, 산업경쟁력은 약화됨
  - 4차 산업혁명 도래, 중국 성장전략 변화 등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 후발 경쟁국의 빠른 추격, 선진국과는 격차 확대
  -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수출·투자 중심의 양적 투입성장 전략은 이제 한계에 봉착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신산업 창출도 지연
- **(Keyword 2)** 충북 단양군은 석회석 관련 기업의 상당수가 조업 중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 산업입지 및 기술개발 역량 등의 국내 석회석 신소재 산업 집적화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자원산업이 위치할 지리적 요건은 충분하나 사회적, 정책적 지원방안이 부족하여 근본적 해결은 지연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의 역할이 재조명
  - 글로벌 금융위기는 조기에 극복하였으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 노력은 오히려 지연
    - 수입규제 확산 등 통상 이슈와 구조조정 등 당면 현안도 누적
  - 또한, 경제성장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며, 낙수효과는 소멸
    - 중소·중견기업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은 어려워지는 상황
- **(Keyword 3)** 충북 단양군은 국내 유일의 석회석 관련 산·학·연 연구재단을 설립 하였으며, 충북지역 내 8개 클러스터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특화 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회석 신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와 의지가 확고함
-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 및 실행방안 추진이 필요
  - 산업 혁신에 더해 일자리 소득까지 고려한 성장 전략이 필요
  - 우리만의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
    -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
    -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

## 주요현황

### [지역 일반현황]

- 단양군 인구는 1975년 9만명을 최고로 지속적으로 감소 (현재 3만명 수준)
- 노년층의 비율이 28%로 고령화 심각

### [지역 산업현황]

- 시멘트 산업을 포함한 석회석 산업 비중 높음
- 석회 2차 제품 및 비금속 제련 업체 활동중
  - 석회석 자원산업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큼

### [연구 동향]

- 석회석 자원산업에 대한 R&D 투자 유지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를 통한 중앙정부 R&D 사업 추진
- 첨단산업 및 환경산업 연계연구 사례 증가
- 추격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모델 추진
  - 물적 인적 자원부족으로 선도형 R&D 추진은 한계성 나타남

### [주요이슈]

- 광역 규모의 석회석 산업 클러스터 육성

## 시사점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기업체 육성 전략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의 역할 강화 (기업-지자체간 협력활동 증대 필요)

### 석회석 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가능 전략 수립 필요

- 오염피해 저감을 통한 석회석 산업의 인식개선 노력 필요
-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 필요
- 물류, 수송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 필요

### 석회석 수요처 확대를 위한 R&D 강화 필요

-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확보 필요
- 생산성, 패키징 등 개선분야 발굴 및 개선활동

시군지역여건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Ⅲ.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 1. 정책/법률 동향

##### 가. 석회석 산업 정책/법률 동향

###### □ 국내

-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해 매 5년마다 광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음.
  - 2014년 수립된 제2차 광업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5대 추진전략에 따라 확보광량 195억 톤, 생산성 47톤/인, 비축일수 60일 달성목표를 세웠음
  - 세부실행 과제 중 광석재활용 및 신수요 창출, 광물원료소재산업 육성, 자원처리 기술과 ICT 융합 등 첨단 생산공정/융합제품 개발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충북 북부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부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단양 지역은 전국 석회석 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의 핵심적 연구, 개발 기능을 담당할 석회석 신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음
- 석회석신소재 클러스터를 통해 기존의 자원 다소비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인 신소재 산업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석회석 산업이 고부가가치화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석회석을 청정 환경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석회석의 용도를 다양화 하고 고기능화를 위해 NT 기술을 접목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함
- 석회석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세부 계획 수립에 사업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 산업단지는 구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중앙정부, 지자체, 민자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확보하고 특히 민자 유치비중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함
    - 세부 운영계획에는 단지 내 사업체를 조직화시키고 내적 정보유통경로를 확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함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를 설립하여 석회석 신소재 클러스터의 핵심적 연구, 개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R&D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운영방안 수립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산업단지 구축으로 지역의 산업발전 기반 강화 및 신소재 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충북 북부권의 신소재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산업발전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성장동력을 확대하기에는 투자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최근 온실가스 규제 및 미세먼지 배출규제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시멘트 산업을 포함한 국내 자원산업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는 2015년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음
  - 정부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배출 부과금을 물리기로 함
  - 시멘트 제조 공정의 특성상 2000도 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가 산화돼 질소산화물이 발생함.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7만4000t으로 전체 산업의 20%가량을 차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현황

구분	2017년 공청회안	입법예고안
부과 단가(원 kg)	2019~2020년 1065원부터 2023년 2130원으로 순차 인상	2130원 일괄 적용
면제기준 (배출허용기준 대비)	2020년 70%, 2022년 60% 2023년 이후 50%	2020년까지 70% 2021년 50%, 2022년 30%
감면기준	부과금액의 50% 감면	없음

#### ○ 토양 개량제 지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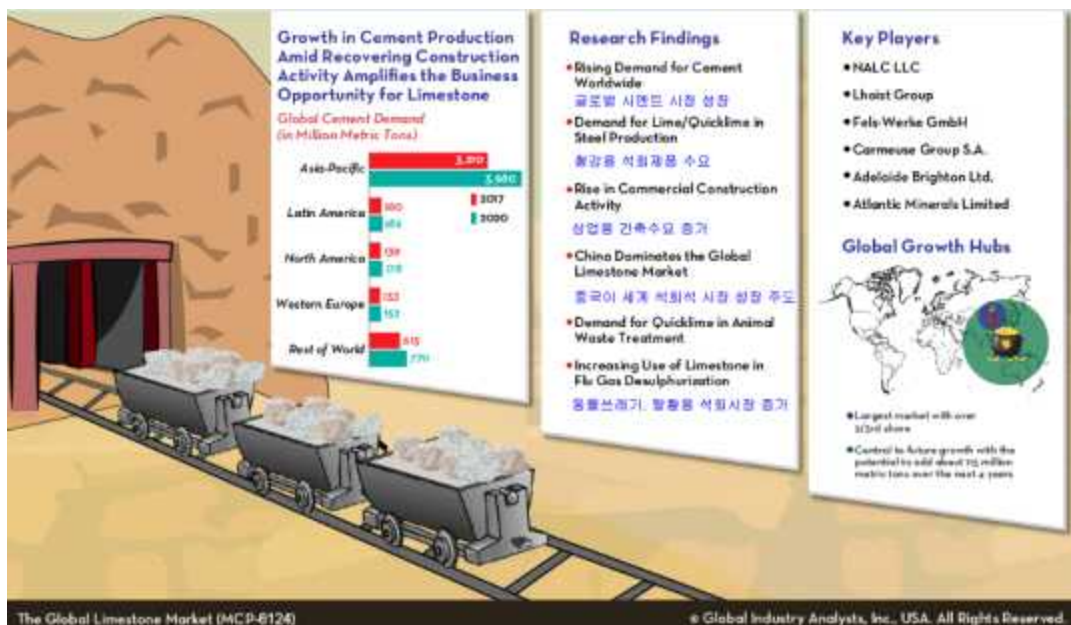
- 정부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규산 및 석회질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발
  - 석회 : 산도(pH) 6.5 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
- 과거보다 토양산성화 피해가 감소한 점도 있으나 노령화, 농촌인력 감소 등으로 인한 시비량 감소가 더욱 큰 원인임
- 농지 이외의 산성화된 산림, 하천주변 등의 토양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책적 관심도가 낮은 편임



## □ 해외

- **(일본)**자원, 에너지 개발 및 유효이용에 관한 연구와 이들과 관련된 산업안보 및 공해방지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연구를 각 분야 상호간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함
- 비금속 광물자원의 유효활용 및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등 석회석을 중심으로 한 비금속 광업의 진흥대책을 책정하기 위해 수개처의 통상 산업국 내에 비금속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정부관련부처 : 자원에너지청, 간토통상산업국(關東通商産業局)
- 정부산하기관 :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 지질 조사소, 일본 자원환경기술 종합연구소
  - 자원, 에너지의 개발 및 유효이용에 관한 연구와, 이들과 관련된 산업안보 및 산업공해방지 기타 환경의 보전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추진
- 지방 비금속위원회의 활동
  - 비금속 광물자원의 유효활용 및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의 합리적인 개발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자원부존을 조사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개발방법, 채광적지 이용방법, 지역과의 조화방법 등을 검토
- 비금속 광업의 진흥대책을 책정하기 위해 수 개 처의 통상 산업국 내 「비금속위원회」를 설치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기술 수요에 따른 장기적 예측기법과 축적된 기초연구개발능력으로 석회석의 고기능화와 신소재 산업화를 일찍부터 실현함
- **(미국)**Defense Production Act에 의거, 국방전략상 긴요한 광물자원을 정부가 일정량을 비축하고 있어야 하므로, 미 국방부가 일정량의 광물을 구매함에 따라 민간기업들의 광물자원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함
- 석회석 신소재 산업을 IT, BT, NT, ET 등 21세기 신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신물질.신소재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관련부처 : 국무부(U.S. Dept. of Interior),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미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 광산안전보건국(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미국 내 기업의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제품(침강성 탄산칼슘 등)의 시장의 경우 60만 톤/년으로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
- 매년 총 수익금의 5% (5천만 달러(600억 원)/년) 이상을 연구비로 재투자
- **(중국)**중국은 약 20년간 “과기공관(科技攻關)”, “국가자연과학기금(國家自然科學基金)” 등의 계획으로 석회석을 포함한 비금속광물의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의 정책적 연구추진으로 연구 수준 및 제품 성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선진기술 접목 및 세계 최대의 석회석 자원 확보로 향후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
- 향후 고기능성/고부가가치 제품인 침강성 탄산칼슘의 경우 세계 최대의 수요처로 부각
  - 약 400만 톤, 전 세계 수요량의 60% 이상 점유
  - 고부가가치 침강성 탄산칼슘(2002년, 생산량 약 23만 톤)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
- 선진기술 접목 및 세계 최대의 석회석 자원 확보로 향후 세계 석회석 신소재 (중질탄산칼슘, 침강성 탄산칼슘, Hybrid 제품 등) 시장을 주도
  - 향후 IT 및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잠식될 수 있는 상황 (국내산업의 위기초래)
  - 기술 선진화가 되면 국내 IT, BT, ET, NT 및 주력기간 산업 등의 전 산업 분야가 중국에 잠식될 우려가 상당히 큼 (현재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침강성 탄산칼슘 생산량은 국내의 5배 이상으로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이 매우 큼)



Global Industry Analyst Inc.가 분석한 세계 석회제품 시장 트렌드

## 2. 경제/산업 동향

### 가. 석회석 산업 경제/산업 동향

#### □ 국내

- 국내 최대의 비금속 광물 자원으로서 가채 매장량이 약 81억 톤이고, 연간 8,000만 톤 정도의 석회석이 국내에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고품위 석회석의 가채 매장량이 급감하고 있음 (전체 석회석 매장량의 12% 이내로 급감)

- 국내 대부분의 석회석 광상은 고생대의 석탄기, 오르도비스기, 캄브리아기에 형성된 것으로 중생대 유래 석회석보다 불순물의 종류, 함량 차이가 매우 큰 특성이 있음
  - 국내 석회석 광산은 123곳에 이르나 석회석 전체 매장량의 30%를 시멘트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어, 시멘트 제조사와 타 관련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활용에 한계가 있음
  - 국내 비금속광물 매장량의 83%를 점하는 석회석은 중저품위의 경우 시멘트, 고품위는 제철 및 화학용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80% 이상을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용 및 제철, 제강용으로 활용됨
- 고품위 석회석을 이용한 고기능 고풍가가치 소재 원료가 개발되어 신수요 창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고품위 석회석의 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연간 168만톤 (4,400만\$)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 무계획적 개발에 따라 국내 고품위 석회석(CaO 기준 52% 이상)의 가채 매장량은 전체 석회석 매장량의 12% 이내까지 급감하는 동시에 수입 규모도 급증함 (연간 1,000만 톤 이상 대부분 탄산칼슘)
  - 주요 석회석 관련 제품 수입국은 일본,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고풍가가치 고품위 석회석 부분의 수입이 2008년 대비 2011년 약 14% 정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증가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석회석 산업 구조는 5개 시멘트 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은 2개 기업 정도((주)백광소재, (주)오미야코리아)이며, 500억 매출규모 이하 업체가 대부분으로 제철, 제강 시장에 매출이 집중된 불안정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국내 석회석 산업은 시멘트 산업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체 수가 전체 173개 업체이며 이중 시멘트 관련 업체 60개, 석회석 채굴 60개 업체, 생석회 21개 업체, 소석회 8개 업체, 탄산칼슘(중질 탄산칼슘 포함) 13개업 및 기타 11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음
  - 석회석 1, 2차 가공품 시장은 생·소석회 1천 4백억 원, 탄산칼슘 (중질탄산칼슘 포함) 제조 3천 4백억, 기타 4백 3십억 규모로 총 5천 2백억 규모임

□ 충북지역 내 시멘트 업체 현황 (총 10개사 중 4개사 위치)

업체명	업종	매출액 (억 원)	부채비율 (%)	고용현황 (명)	혁신역량 및 발전전망	비고
한일시멘트(주)	시멘트제조업	22,821	36.4	611	업계 최고수준 매출 신제품 개발 능력 우수	
한일현대시멘트(주)	시멘트제조업	4,961	57.8	402	부존자원 풍부 신제품 개발 능력 우수	
성신양회(주)	시멘트제조업	10,155	63.2	705	정부 R&D 관련 개발력 집중	
아세아시멘트(주)	시멘트제조업	4,611	30.0	446	해안사(한라시멘트) 인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자료 : 2017년 한국시멘트산업통계연보, 한국시멘트협회

□ 충북지역 내 석회석-비금속 산업 주요 업체 현황

업체명	업종	매출액 (백만 원)	부채비율	고용현황	혁신역량 및 발전전망	비고
(주)백광소재	석회제조업	39,930	57.9	220	석회석관련 높은 기술력으로 업계를 주도	
(주)삼보광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6,250	2,700	30	포철납품, 생산량 증설 추진	
대성MDI(주)	석회석광업	32,703	-	30	안정적인 품질관리, 설비 우수	
광진산업(주)	석회제조업	5,231	103.73	20	품질향상 및 신제품개발을 통한 성장성 증가예상	
대한분체(주)	석회석광업	1,099	-	5	설비증설 준비로 성장성 증가예상	
동광석회공업(주)	석회제조업	6,665	1,361.59	26	전량 INI 납품, 신제품 개발이 요구됨	
송천광업	석회석광업	4,600	508(02)	22	원석의 새로운 판로 개척이 요구됨	
영신석회공업사	석회제조업	390	18,800	1	지적재산권 및 기술개발 수준 높음	
현대석회	석회제조업	2,468	-	22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대 노력이 우수	
성우라임(주)	석회제조업	-	-	3	고부가가치 석회석 연구 및 노력 높음	
삼원산업	석회제조업	-	-	10	고부가가치 신소재 사업 주력	
미래소재(주)	석회제조업	-	-	7	가공위주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동흥소재(주)	기타비금속광물제 품제조업	1,101	568	20	전량 동국제강 납품, 품목 다변화 요구됨	
(주)덕성산업	석회제조업	-	-	4	판로 및 생산성 부족	

자료 :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자체조사자료

□ 단양군의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업체와 대학교 그리고 단양군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역량 제고와 에너지 절약 및 대체원료 개발 등 기술경쟁력 축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단양군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임
- 석회석 광물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단양군이 추진하는 석회석 산업과의 공동연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역할

- 석회석 신소재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 및 기업유치와 육성사업
-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 제품의 성능시험, 검사 및 품질평가 등 사업
-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 석회산업 환경오염 방지 사업
- 석회산업 에너지 절약 및 대체원료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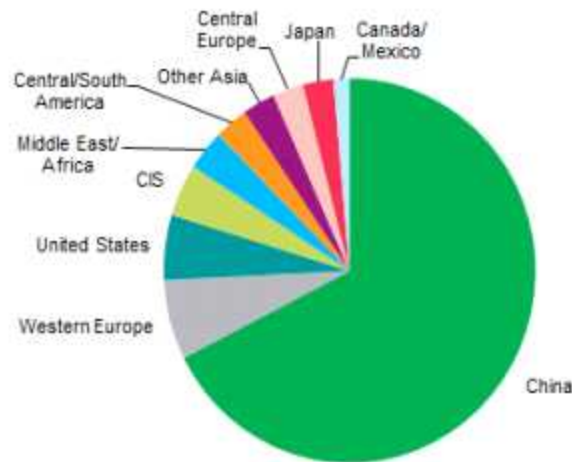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운영체계 및 주요 활동현황

## □ 해외

### ○ 글로벌

- 중국과 인도의 개발도상국은 철강 산업의 석회 수요 증가로 석회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주요 시장임.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석회 제조업체는 Sigma Minerals Ltd, Mercer Lime Company, Brookville Manufacturing, Cape Lime (Pty) Ltd, United States Lime & Minerals, Inc., Lime Denmark, Nordkalk, Cornish Lime Company Ltd, Emkor, Standard Lime Products Co. LLC, Omya AG, Mississippi Lime Company, Carmeuse, Lhoist 등이 있음
  - 석회제품은 운송비가 제품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중국-일본-한국-대만, 유럽지역, 북미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Lhoist, Carmeuse 등의 대형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시장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음 (국내의 경우 Omya)
- IHS Markit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석회 시장의 70% 가량을 중국이 소비하고 있음. 석회제품 시장은 최대 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매년 약 2.5 % 씩 성장하여 2018-23년에는 매년 약 2% 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017년 세계 석회시장 규모

- **(미국)** 미국의 석회산업은 최근 5년간 성장이 둔화된 산업이지만, 오염물질 흡수제로서의 석회 제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 2018년 IBIS World 자료에 따르면 북미지역의 석회 생산량은 2013년 19,200천 톤 수준에서 2017년 18,000천 톤 약 3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철강산업에서 사용되는 석회 제품의 수요는 1/3을 차지하여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2018년 이후 미국 경기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건설, 제철부분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석회산업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됨
  - 미국산 석회제품이 국내에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지는 않으나 글로벌 철강산업에 민감한 석회산업의 특성상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품의 생산량과 석회시장의 성장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일본)**일본의 석회가공업은 시판용 석회를 생산하는 전업(專業) 78개 사, 제철소 등에서 전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전종(專從) 10개 사, 카바이드나 소다공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자가생산 11개 사로 구분됨
- 전업업체가 차지하는 시장규모가 66% 수준으로 국내보다 많은 점은 석회제조업의 역사가 100년가량 되었다는 점과 생산효율이 단순화, 고도화되었기 때문임
- 석회가공업체 대부분이 일 200톤 급 내외의 중대형 유체로형 소성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철(석회, 생석회, 소석회, 백운석, 경소백운석), 건설(골재, 개량토), 화학(생석회, 소석회), 제지-페인트(중질탄산칼슘 및 경질탄산칼슘), 농업(소석회, 백운석), 환경(소석회)에 주로 공급됨
  - 일본의 석회업체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고부가가치 기초원료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상당부분 진출한 상태임.
- **(EU)**유럽석회협회(European Lime Association, EuLA)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는 약 55개의 중대형 석회업체가 있으며 190여개의 공장, 470여개 소성공정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른 산업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5억 유로로 평가되고 있음
  - 소비처는 철강 38%, 건설 11%, 환경 16%, 화학 7%, 제당, 제지, 유리 등) 14% 등임
- EU는 energy and low carbon Roadmaps 2050을 통해 석회가공 업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석회업체의 특허분석 결과 환경부분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음 (토양 18%, 연도가스처리 30%)

### 3. 국내외 유관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 **(Keyword 1)** 미국 산업/시장경기 활황에 따른 철강산업 업황개선 시 석회시장 수익개선 기대. 그러나 기업 간 경쟁에 따른 수익감소, 외부요인에 따른 경기 민감도가 높음
  - 대량소비처 중 하나인 환경산업의 성장과 연동한 석회제품 시장 확대. 국내 생산제품의 성능개선/품질향상 필요
  - 석회원료를 2-3차 가공한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진입 필요. 그러나 일본 및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의 경쟁 문제 주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대한 한계성에 대한 회피전략 확보 필요
    - 석회석 산업의 공급과 수요의 다양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산업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Keyword 2)** 2010년 이전까지는 석회석 산업은 철강 제조 및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경기 따라 수요가 증감하는 특성을 나타냄. 이에 따라 2010년 초 까지 철강 산업 업황 개선으로 석회시장 수익이 개선됨.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간 경쟁에 따른 수익감소 추세임
  - 석회원료를 2-3차 가공한 환경,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진입 필요. 그러나 일본 및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의 경쟁 문제 주의
    -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세척용수 안정화 처리용 소석회와 같은 환경용 석회제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제성이 높은 환경산업용 원료소재 분야로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함
    - 철강산업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석회석 공급사슬과 함께 환경산업과 연계한 원료공급, 재활용 등의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방안확보도 필요
- **(Keyword 4)** 대북사업을 계기로 국내 시멘트사에게는 기회요인이 생길 전망. 북한 연간 시멘트 생산능력은 1,200만 톤으로 남한 6,200만 톤 대비 열악한 상황임. 생산설비의 노후화와 전력난을 감안하면 실제 생산능력은 600만 톤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음. 만성적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의 시멘트 산업은 남북경협 본격화 시 남한발 공급 증가가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음. 기존 생산량에 남한으로부터의 공급 증가를 합산해서 추정한 수요는 17년 690만 톤에서 21년 1,400만 톤으로 증가가 기대됨
  -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개발은 물론 유라시아 철도망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함
  - 특히 강호권 철도 물류망 구축이 시작됨에 따라 호남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원도의 해안지역 시멘트 업체와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산업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주요현황

### [국내 정책/법률]

- 석회석 신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 지속
- R&D 중심의 정부사업 추진
-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여건 변화 (환경규제로 생산원가 증가등)

### [해외 정책/법률]

- 자국의 광물자원산업을 육성/보호하는 정책 추진 (미국 국방전략자원보호)
- 중앙-지자체간 협업사례 확인 (일본의 지방 비금속 위원회)
- 비금속 자원분야 R&D 지원 확대 (중국)

### [경제/산업]

- 국내 고품위석회석의 고갈 위험
- 국내 광물자원 업체의 영세성 문제
- 국제 석회석 관련시장 성장성 유지 (연 2.5% 씩 지속적 성장)
- 전통적인 석회석 소비처 (철강, 건설)의 수요 감소
- 신규시장 (특히 발전, 환경) 성장 확대

## 시사점

국내 유일의 자원산업인 석회석 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의 지속적 운영 필요

- 석회석 관련 업체 지원업무체계 운영 필요
- 석회석 기업 기업애로사항 상시 모니터링
- 정부정책 연계/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국가 주력산업 및 기간산업과 연계한 성장전략 수립 필요

- 주력산업 대상 신규 수요처 확보 필요
-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산업 부분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석회석 수요처 확대를 위한 신규시장 발굴 노력 강화 필요

-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진입방안 확보 필요
- 공정개선, 오염방지시설 투자 등 간접적 지원 방안 운영 필요

국내외 유관산업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IV. 특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 1. 육성전략 기본방향

#### 가.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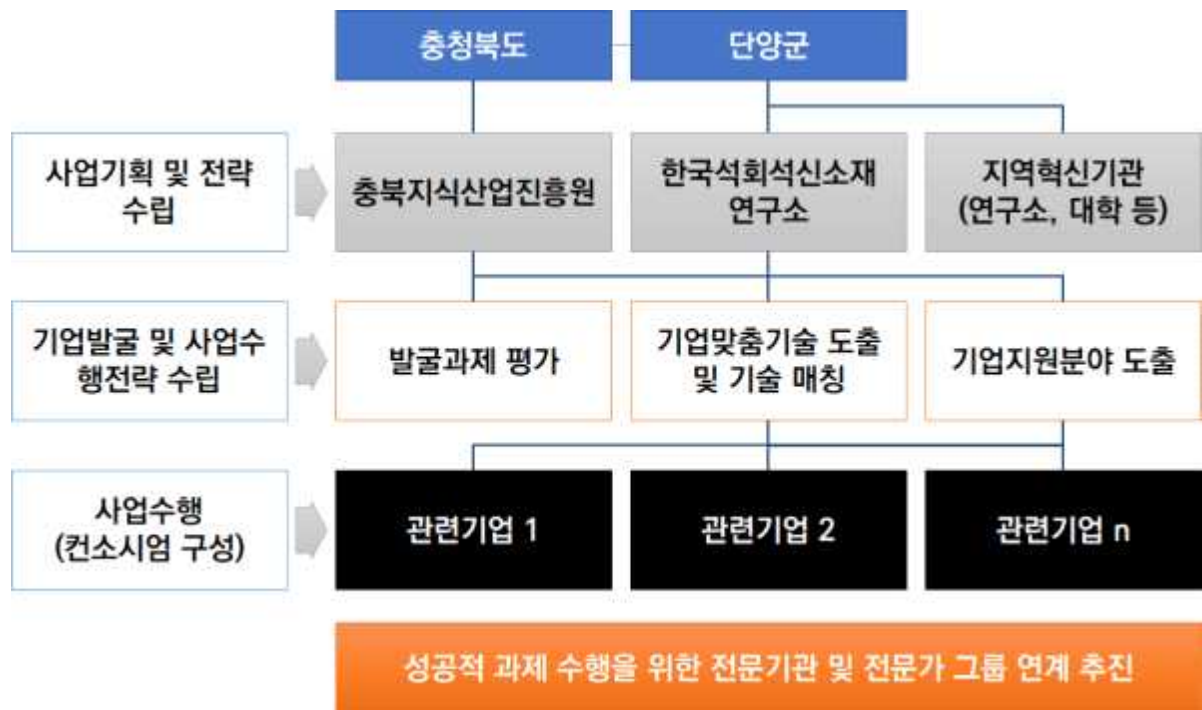
<p><b>지역경쟁력 SWOT분석</b></p>	<p><b>강점(Strength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 최대의 부존광물 (유일한 자급원료)</li> <li>2. 국가기간산업 및 SOC 구축의 필수소재 (건축, 철강, 환경 등)</li> <li>3. 석회석 광물자원의 용도 다양화 (약 2~3,000여종)</li> <li>4. 환경산업의 수요증가 (반도체, 발전 산업 등)</li> <li>5. 높은 운송비용으로 중저가 제품의 국제경쟁력 높음</li> </ol>	<p><b>약점(Weaknesse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관련산업이 산림, 해안지역에 집중 (지역경제 기반의 취약)</li> <li>7. 가공/생산 기술 부족 (고가시장 수입제품 점유)</li> <li>8. 환경오염 부담으로 제조원가 증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li> <li>9. 경제부문간 격차 지속 및 민간 소비 활성화 지연</li> <li>10.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 심화</li> </ol>
<p><b>기회(Opportunitie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국가적인 자원 확보 노력 및 국내 부존 자원의 관심의 증대</li> <li>12. 관련기관(KIGAM, KORES, 한국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등)의 기술 개발 활발</li> <li>13. 국토 균형개발을 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li> <li>14. 기업, 상품, 국가 이미지 상승 (해외진출여건 개선)</li> <li>15. 민간기업 자원개발 지원 및 해외 자원개발 확대</li> </ol>	<p><b>S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위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li> <li>☞ 풍부한 석회석 매장량을 경쟁력으로 양질의 고품위 석회석 및 생석회를 생산하여 신규 거래처 확보</li> <li>☞ 국가적 전략 및 육성방안 정립</li> </ul>	<p><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참여</li> <li>☞ 저품위 광채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amp;D 적극 추진</li> </ul>
<p><b>위협(Threat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환경 및 산림보호 강화로 광산개발 여건 악화</li> <li>17. 석회석-비금속 관련 신기술 활용 사업화 미흡</li> <li>18. 환경규제 관련법규의 규제 강화</li> <li>19. 정부의 R&amp;D 투자와 재정지원 등의 관심 미흡</li> <li>20.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경제 위축</li> </ol>	<p><b>S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석회석 사업을 협회나 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정부기관에 적극 어필</li> <li>☞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 동종업체 간의 출혈경쟁을 중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li> <li>☞ Value chain에 입각한 전후방산업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li> </ul>	<p><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으로 미래 국가핵심산업 육성</li> <li>☞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외부기관 및 내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li> </ul>

## 나. 기본방향

- 국내 유일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석회석 자원 및 비금속 광물자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단양군 석회산업 고도화 추진으로 충북북부권-강원도로 이어지는 국내 자원산업 활성화의 초석 마련
- 더 이상 1차적 석회제품 제조공정 개선,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주력산업인 스마트 IT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및 수송기계부품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소재 및 제품개발에 중점 투자 추진
- 단양군 석회석-비금속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제품 품질개선, 첨단소재화 제품개발 및 현시점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업지원 등 산업혁신에 필요한 요소별 사업 추진
- **(기술개발)** 충청북도 주력산업연계 분야, 석회석-비금속 산업 제품.공정 개선 분야로 이원화시켜 중점분야 집중개발이 원활하도록 수행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그룹 운영
- **(기업지원)** 기업-기관 보유 핵심기술 실용화분야, 기업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 분야, 기업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컨설팅 분야로 나누어 사업수행

## 다. 추진체계

- 단양군 출연기관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와 함께 사업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별 기업발굴을 수행.
- 발굴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소 전담인력,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 실시



각 과제수행 기업발굴 및 사업수행 체계

## 2.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개요

### 가. 특화산업의 정의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KSIC 코드 : 23312)

○ 석회석 및 돌로마이트(백운석), 규석, 납석 등 비금속 광물자원을 원료로 하여 생석회, 소석회, 수경성석회 및 이의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각 제품의 품질향상 분야

□ 석회질 원료 및 제품 활용 2차 제품 제조업 (KSIC 코드 : 2332)

○ 석회석 원료를 기반으로 한 원료물질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무기질 결합재를 활용한 블록, 타일, 모르타르 제조 등 융합제품 분야

석회석 자원 가공 공정에 따른 응용분야

구분	원료 및 가공	제 품	용 도	물리·화학적 이용특성
원 석	절단, 연마	대리석, 테라조용 chip	건축용, 테라조, 공예용	장식성, 가공성
		쇄석, 쇄사(골재용)	아스콘용, 도로용	균질성, 가공성
	파쇄, 분급	생·소석회 등 2차제품 제조		
		소·단결용	재선용, 주강용	탈황, 탈인
		고로용	재강용	Flux, 탈규, 탈황, 탈인
	미분쇄, 분급	보통탄산칼슘	도로용, 아스팔트 filler	충진성, 결합성
			사료	칼슘보급, 소화보조
			상하수 및 폐수처리	알카리처리, 중화, 중금속분리
			배연탈황	탈황
		중질탄산칼슘	고무, 플라스틱, 도료, 제지	물성 개선(보강성, 전기절연성, 백색도)
				가공성 개선(치수안정, 유통성, 분산성)
생 석 회	석회석+질광석+점토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2차 제품	경재성(중량성으로 평가절감)
	석회석+규사(또는 장석)	규산칼슘	제강, 도자기, 전기용접 용	수화경화성 광물의 생성
	석회석+규사+소다회+백운석	소다유리	판유리, 용기유리 등	반응성, 소성온도, 시간경감, 오프처리
	석회석+점토+석영(장석)	석회질 도기소지	석회질 도기타일	화학적 내구성 부여, 백상 온도저하, 유리점 도증가
	석회석+연료	비료용 생석회	비료(석회질소, 규산석회)	저수축 도기, 저수화명장 소지
		제지용 생석회	제지(악물화수)	칼슘보급(석회질비료)
		토질 안정처리용	토질 안정처리제	반응성(수산화나트륨화수)
		건조제	식품 건조제	수화반응성, 탈수성, 탄산화
		경소생석회	제강용	흡습성(수화반응)
		소석회 제조용	소석회 제조	flux, 탈황, 탈인
	생 석 회 2차 가공	폐수처리용 소석회	폐수처리, 산성하천중화	알카리처리, 중화, 중금속분리
		연탄성형	연탄성형	점결성, 유통보조성
		피혁용 소석회	지방질제거	지방질의 가수분해
		소독용 소석회	소독용	살균성
		식품제조용 소석회	식품 고형제	고화
		건축용 소석회	건축용(내·외장재)	경화성, 가소성, 백색도
		황산용+생석회	보르드액	살균성, 실충성, 약해방지
		진기회원염	금속칼슘	환원성, 합금특성
		소결, 전용	합시아나이드	내화성, 고융점
		생석회+시멘트+규석+Al분 (가열처리)	ALC	수화물이 생성 경화
소 석 회 2차 가공	생석회+규석+고크스(진기회소성)	칼슘실리콘	제강	탈황, 탈인
	생석회+H <sub>2</sub> O(고온반응)	형화칼슘	브라운관 형광제	형광제
	생석회+탄소재(진기회 1800℃ 이상처리)	칼슘카바이드	아세틸렌 유도제, 석회질소	전기합물성, 환원성
	생석회+flux(소성처리)	정적파쇄제	정적파쇄공법	수화팽창성
	Ca(OH) <sub>2</sub> +CO <sub>2</sub> →CaCO <sub>3</sub> (합성탄산칼슘)	경질탄산칼슘	고무, 플라스틱, 도료	물성 개선(보강성, 전기절연성, 백색도)
			제지(충진, 코팅)	가공성 개선(치수안정, 유통성, 분산성)
		고질탄산칼슘	인쇄잉크	경재성(중량성으로 평가절감)
			식품첨가	보존성(중성제), 불투명도, 잉크흡수성
		탄산화반응이용 (석회유+CO <sub>2</sub> gas)	제당	인쇄적성, 안정성, 유통성
				영양보급, 강화제
				제산, Ca보급, 연마(차아)
				CaCO <sub>3</sub> 생성에 의한 불순물 흡착 형성가능

## 나. 특화산업 육성전략 비전체계



단양군 석회석-비금속 산업의 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전략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충청북도 주력산업 연계 융·복합 재료 및 제품 기술개발	바이오헬스(의약품, 화장품) 융합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수준(Sigma Bio-X Ca sample 등) 초고순도 생의약품 기초원료 개발</li> <li>•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식물/약재용 광물계 비료 기술개발</li> <li>• 스마트 팜 산업과 연계한 광물계 청정액 상비료 및 소독제 기술개발</li> </ul>
	스마트 IT 부품 융합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부품 공정 발생 산성폐수 중화처리용 액상소석회 품질향상 및 비 Ca계 고성능 침전제 기술개발</li> <li>• 석회석계 첨가제를 활용한 폐지, 폐플라스틱 활용 스마트 IT 제품 포장재 개발</li> <li>• 백색계, 비금속계 초고급 포장재용 충전재 개발</li> </ul>
석회석 자원 등 비금속광물자원 활용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석회석 원료 및 활용제품을 이용한 고기능성 2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형 다공성 블록 제품 제조기술개발</li> <li>• 가시광 영역에서 고시인성 확보를 위한 비금속계 도료용 광물계 첨가제 개발</li> <li>• 친환경성 바인더를 활용한 석회질 비료 성능향상 기술개발</li> </ul>
	비금속 광물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대응 석회제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개발(생·소석회 제조공정)</li> <li>• 대기정화용 고비표면적 소석회 제조공정 기술개발</li> </ul>
기업수요 맞춤형 핵심분야 기업지원	기업보유기술 상용화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보유 기술노하우 및 지적재산권 실용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수립 컨설팅 지원</li> <li>• 기업보유기술 적용 시작품 및 시제품 제작 지원</li> </ul>
	기업생산제품 판로개척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회제품 및 2차 활용 제품 판로 활성화를 위한 유사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li> <li>• 관련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li> </ul>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공정개선 및 기술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회제조사업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기술컨설팅</li> <li>•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기업지원</li> </ul>



### 3. 특화산업 육성전략 추진과제

#### 가. 바이오헬스(의약품, 화장품) 융합제품 개발

- 추진개요 : 광물계 생의약품 원료소재 (Ca계 초고순도화 원료) 개발 및 생의약품 원료/식물 제조 보조재로 활용할 수 있는 광물계 원료/비료 기술개발
- 세부내용 : 과제별 목표
  - 세계적 수준(Sigma Bio-X Ca Sample 등)의 초고순도 생의약품 기초원료 개발
  - 광물계 고급원료 패키징 지원 (소포장 패키징, 글로벌 품질관리 및 인증지원 등)
  -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식물/약재용 광물계 비료 개발
  - 스마트팜 산업과 연계한 광물계 청정액상비료 및 소독제 개발
- 프로세스 : 관련제품 제조업체 발굴 및 기업단독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성 추진
- 투자계획 : 과제당 년 2억(민간부담금 20% 적용) 총 9억 내외 예산투자

#### 나. 스마트 부품IT 부품 융합형 제품제조 기술개발

- 추진개요 : IT제품 분야 클린공정을 위한 Ca계 침전제 및 IT 제품 포장재 원료 기술개발
- 세부내용 : 과제별 목표
  - 메모리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 생산 공정 발생 산성폐수 중화처리용 액상소석회 품질향상 및 비 Ca계 고성능 침전제 기술개발
  - 석회석계 첨가제를 활용한 폐지, 폐플라스틱 활용 스마트 IT 제품 포장재 개발
  - 백색계, 비금속계 초고급 포장재용 충전재 개발(침강성탄산칼슘 코팅 및 마그네슘 케이스 적용)
- 프로세스 : 관련제품 제조업체 발굴 및 기업단독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성 추진
- 투자계획 : 과제당 년 2억(민간부담금 20% 적용), 총 7억 내외 예산투자

#### 다. 석회석 원료 및 활용제품을 이용한 고기능성 2차 제품 개발

- 추진개요 : 석회석 및 비금속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군이 제조되고 있으며 이의 기능성 부여 및 기존제품 성능향상 기술개발
- 세부내용 : 과제별 목표
  -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형 다공성 블록제품 제조기술개발



- 가시광 영역에서 고시인성 확보를 위한 비금속계 도료용 광물계 첨가제 개발
- 친환경성 바인더를 활용한 석회질비료 성능향상 기술개발
- 프로세스 : 관련제품 제조업체 발굴 및 기업단독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성 추진
- 투자계획 : 과제당 년 2억(민간부담금 20% 적용), 총 7억 내외 예산투자

## 라. 비금속광물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 추진개요 : 석회석 자원 등 비금속광물 자원활용 관련 제품의 품질 개선 및 친환경 제품 개발
- 세부내용 : 과제별 목표
  - 기후변화 대응 석회제조업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생.소석회 제조공정)
  - 대기정화용 고비표면적 소석회 제조공정 기술개발
- 프로세스 : 관련제품 제조업체 발굴 및 기업단독 또는 연구기관 컨소시엄 구성 추진
- 투자계획 : 과제당 년 1억(민간부담금 20% 적용예상), 총 3억 내외 예산투자

## 마. 기업수요 맞춤형 핵심분야 기업지원

- 추진개요 : 석회제조 및 비금속 광물자원 활용 2차 제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유기술 실용화, 사업화 컨설팅 및 친환경산업화 기업지원 실시
- 세부내용
  - 기업보유 기술노하우 및 지적재산권 실용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수립 컨설팅 지원
  - 기업보유기술 적용 시작품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석회제품 및 2차 활용 제품 판로 활성화를 위한 유사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
  - 관련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
  - 석회제조사업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기술컨설팅
  -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 기업지원
- 프로세스 : 단양군 특화산업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분야 발굴 및 핵심분야 기업지원 추진
- 투자계획 : 사업화 지원 등 각 분야별 기업지원 1년 / 연 2억원 이하, 10년간 총 20억 원 내외 예상(필요기업 자체 부담금 포함)

## 4. 기대효과

### 가. 경제적 효과

항 목	내 용
관련기업 창업	광업,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유치, 지역특화창업 및 사업화 유도 등) : 관련기업 신규창업 및 사업확장 : <u>5개社</u>
일자리 창출	업체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및 신수요 전문인력지원 등 : 업체증가 및 매출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약 <u>50명 예상</u>
관련기업 매출증대	생산비용저감, 친환경성 제품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수입대체 및 신수요 창출 등 : 산업육성을 통한 매출증대 약 <u>100억 예상</u>
관련기업 수출증대	관련제품 수출증대, 관련기술 수출 및 기업(외자)유치 등) : 해외 시장개척 및 외자유치를 통해 약 <u>30억 예상</u>
총생산(GRDP) 증대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제품확보, 기업유치, 기업이윤 재투자 등 : 석회석 원료 및 활용제품 산업가치 <u>500억 증대</u>
지역 내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로 인한 첨단산업 부가가치 창출 : 공정개선, 석회석 효율적 활용을 통한 <u>75억 증대</u>
지역 내 세수증대효과	<u>10%증대</u> (관련기업 및 유관기관의 활성화)

※ 단양군 내 항목별 예상 기대효과임

### 나. 정책적 효과

- (정책적 시의성) 한·미 FTA 및 한·EU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자원, 기초소재 분야 시장 확대 및 글로벌 메이저 업체의 진출로 취약한 국내 자원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전략적 역량 결집이 필요
- 국내 자원분야 석회석 산업이 자생력을 기르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회석 산업의 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에 제공되는 '낙수효과'로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석회석 산업은 국내 유일의 완전자급 가능한 부존자원으로 막대한 시장 창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함

□ **(충북 산업육성 전략과 부합)** 시멘트 및 석회석 산업은 건설을 비롯한 철강, 제강, 화학, 발전, 환경 등 전통적인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연결하는 기초재료로 국가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시의적절함

- 충북지역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소재의 핵심은 석회석 자원은 충청북도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함
- 최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환경, 바이오산업은 양질의 기초소재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으로 메가트랜드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과 직결되어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육성 전략과도 부합함
- 활용물질의 산업적 활용체계 완성을 통해 충청북도에 입주할 첨단, 환경산업을 지원
- 수도권에 비해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가능

□ **(단양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정책으로 활용)** 석회석 자원은 국가의 발전에 핵심이 되는 전략적 필요도가 높은 부존자원으로 오랫동안 충청북도 북부권의 산업,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높음

- 충청북도는 2018년 충북 신성장산업(6+3)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신기술 신산업의 부가가치 총량을 증대하고 있는 경제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신성장산업 및 주력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단양군 석회석 소재산업의 연계 정책의 모델을 확보하여 단양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함
- 석회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의 추진에 핵심적인 자원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되어야 함
- 금번 지원산업은 석회석 자원의 다양성을 진화시킴으로서 국내 자원산업 분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대됨

충 청 북 도 청 전 략 산 업 과	:	김 상 규 과 장 전 광 호 팀 주 무 관 송 인 우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정보기술혁신단	:	정 덕 영 단 장 김 종 찬 팀 주 무 관 허 윤 지 사 원
청 주 시 투 자 유 치 과	:	이 재 철 팀 주 무 관 지 속 연
충 주 시 신 성 장 전 략 과	:	신 기 섭 팀 주 무 관 이 성 기
제 천 시 투 자 유 치 과	:	박 경 란 팀 주 무 관 이 병 찬
보 은 군 경 제 정 책 과	:	박 영 미 팀 주 무 관 강 웅 모
옥 천 군 경 제 과	:	김 희 종 팀 주 무 관 이 선 여
영 동 군 경 제 과	:	이 내 수 팀 주 무 관 성 수 아
증 평 군 경 제 과	:	이 강 용 팀 주 무 관 송 인 환
진 천 군 전 략 사 업 담 당 관	:	김 경 완 팀 주 무 관 이 재 윤
괴 산 군 경 제 과	:	김 석 호 팀 주 무 관 김 기 정
음 성 군 기 업 지 원 과	:	이 화 연 팀 주 무 관 신 정 섭
단 양 군 지 역 경 제 과	:	박 대 희 팀 주 무 관 성 범 진